연주현씨(延州玄氏) 문헌족징(文獻足徵)

현행복(玄行福) 역주(譯註)

(역자소개 64쪽 참조)

<일러두기>

- 본서의 전체 구성은〔제1편] <연주현씨(延州玄氏) 족보(族譜) 서문선(序文選)>과〔제2편〕<연주현씨(延州玄氏) 세덕록(世德錄)>,〔제3편〕<고려사(高麗史) - 현덕수열전(玄德秀列傳)>으로 되어 있다. 이중 제1편(족보서문선)과 나머지 편을 분리하여 편집했다. 각 편의 내용소개는【원문(原文)】·【판독(判讀)】· [각주(脚註)] ·【해석(解釋)】의 순으로 엮었다.

-【원문(原文)】은 텍스트의 이미지이다.〔제1편]과〔제2편〕은《연주현씨세보(延州玄氏世譜)》(1권)(1957년간)에 실린 순 한문으로 된 제6수보까지의 <서문> · <세덕록>과 개인 문집에 실린 <연주현씨족보서> 2편, 영인본《고려사(高麗史)》를 그 대상으로 삼아 원문의 반엽(半葉)을 1쪽으로 해서 글의 맨 앞에 제시했다.

-【판독(判讀)】은 역자가 일차 텍스트의 이미지인 원문을 읽어나간 작업 결과이다. 원문에 실린 한자어의 옮김에 있어 가능하면 원문에 소개된 글자 형태 그대로 살려 소개하려 했다. 이를테면, 약자(略字)나 속자(俗字)로 된 한자어의 경우 그 표기를 그대로 옮기고 그 본자(本字)를 따로 각주에서 밝혔다. 아울러 원문의 문장에서 의미상 띄어쓰기를 병행했다.

- [각주(脚註)]는 본문의 내용 이해에 있어 도움을 줄 요량으로, 그 전거(典據)를 밝히는 일에 주안점을 두었다. 낱말의 뜻풀이 작업은 주로《교학대한한사전(敎學大漢韓辭典)》(2003)을 활용했고, '인터넷 한국고전종합DB'를 참조했다.

-【해석(解釋)】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역을 통해 그 이해도를 높이려 했다. 해석하는 과정에서 원문에 없는 부분은 ( )의 내용으로 구별해 덧붙였다. 아울러 연주현씨대종회가 제공하는 기존 인터넷 족보 관련 자료를 참조했다.

-【교정(矯正)】은 대종회 사무처에서 일부 오기(誤記) 된 것을 교정했고, 등재된 인물의 족보상 분파를 확인하여 첨가했으며, 동명이인으로 인하여 주석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 교정부분은 청색으로 표시했다.

<제1편>

연주현씨(延州玄氏) 족보서문선(族譜序文選)

- 목 차 -

[1] 초간보(初刊譜) - <정묘보(丁卯譜)> ; 영조 23년(1747)
<서문> 파평(坡平) 윤봉구(尹鳳九)

[2] <정묘보(丁卯譜) 질문의 조목(條目)>
<질의> 현명직(玄命直) - 판관공파 20세손
<답변> 도암(陶庵) 이재(李縡) · 구암(久庵) 윤봉구(尹鳳九)

[3] 재수보(再修報) -《기미보(己未譜)》; 정조 23년(1799)
<서문> 덕은(德恩) 송환기(宋煥箕)

[4] 삼수보(三修譜) -《갑진보(甲辰譜)》; 헌종 10년(1844)
<서문> 당성(唐城) 홍직필(洪直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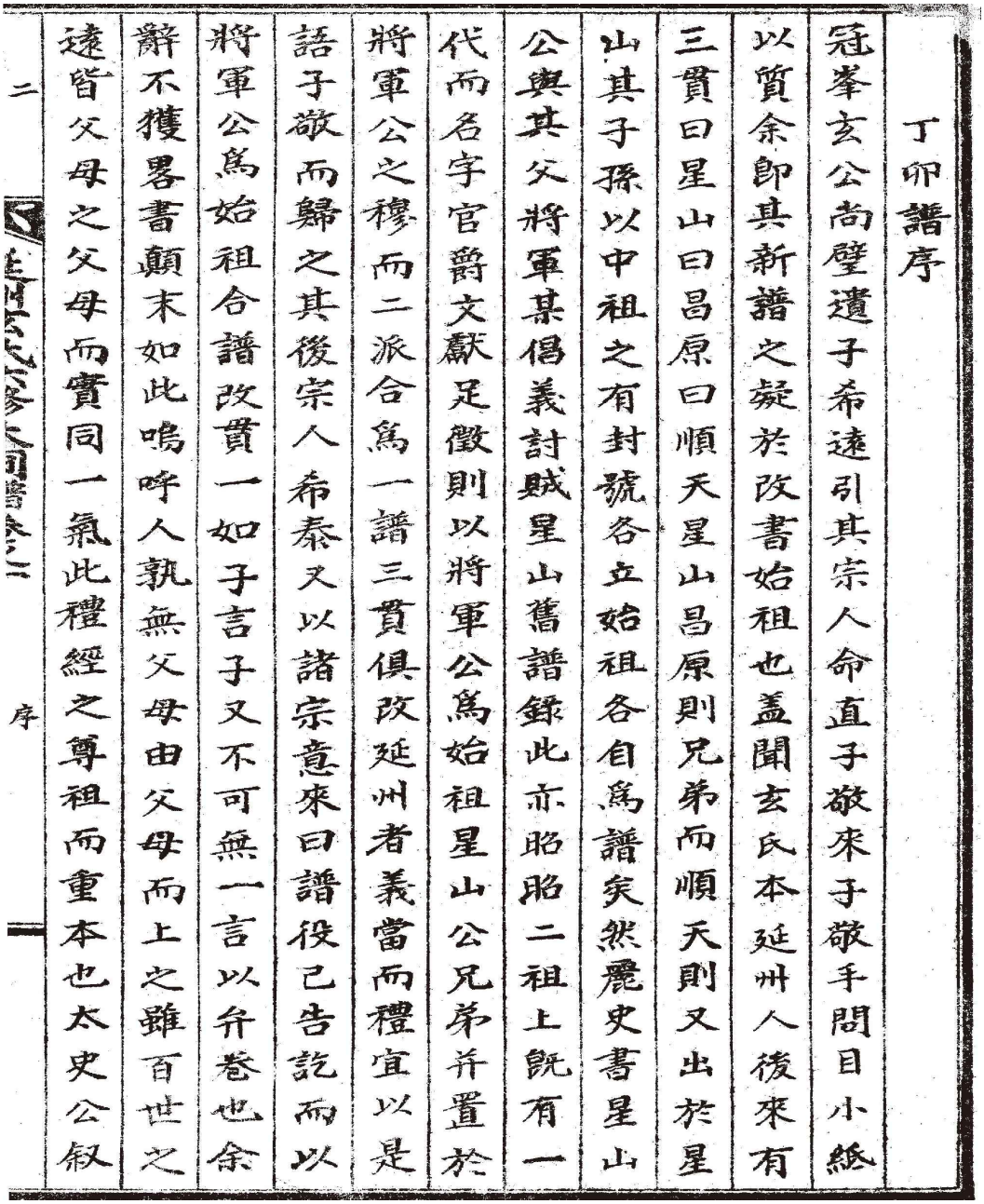
[5] 사수보(四修譜) -《신축보(辛丑譜)》; 대한제국 광무 5년(1901)
<서문> 월성(月城) 최익현(崔益鉉)

[6] 오수보(五修譜) -《갑자보(甲子譜)》; 일제강점기[1924]
<서문> 현재승(玄在升) - 판관공파 25세손

[7] 육수보[六修譜] -《정유보(丁酉譜)》; 1957년
<서문> 현응주(玄應周) - 판관공파 25세손

1 초간보(初刊譜) - <정묘보(丁卯譜)> ; 영조 23년(1747)

【원문(原文)】



丁卯譜序

冠峯玄公尙璧遺子希遠引其宗人命直子敬來子敬手問目小紙以質余卽其新譜之疑於改書始祖也蓋聞玄氏本延州人後來有三貫曰星山曰昌原曰順天星山昌原則兄弟而順天則又出於星山其子孫以中祖之有封號各立始祖各自爲譜矣然麗史書星山公與其父將軍某倡義討賊星山舊譜錄此亦昭昭二祖上旣有一代而名字官爵文獻足徵則以將軍公爲始祖星山公兄弟幷置於將軍公之穆而二派合爲一譜三貫俱改延州者義當而禮宜以是語子敬而歸之其後宗人希泰又以諸宗意來曰譜役已告訖而以將軍公爲始祖合譜改貫一如子言子又不可無一言以弁卷也余辭不獲畧書顚末如此嗚呼人孰無父母由父母而上之雖百世之遠皆父母之父母而實同一氣此禮經之尊祖而重本也太史公叙

<그림 (1)> 연주현씨(延州玄氏) 족보 <정묘보(丁卯譜)> (1)

【판독(判讀)】

丁卯譜序

冠峯玄公尙璧[1]遺子[2]希遠[3] 引其宗人命直子敬[4]來 子敬手問目[5]小紙 以

質余 卽其新譜之疑 於改書始祖也 盖聞玄氏本 延州人 後來 有三貫 曰星山 曰昌原 曰順天 星山昌原 則兄弟 而順天 則又出於星山 其子孫 以中祖之有封號[6] 各立始祖 各自爲譜矣 然麗史書 星山公[7]與其父將軍某 倡義討賊 星山舊譜錄 此亦昭昭 二祖上旣有一代 而名字官爵 文獻足徵[8] 則以將軍公[9]爲始祖 星山公兄弟 并置於將軍公之穆[10] 而二派合爲一譜 三貫 俱改延州者 義當而禮宜 以是語子敬而歸之 其後 宗人希泰[11] 又以諸宗意來曰 譜役已告訖[12] 而以將軍公爲始祖 合譜改貫 一如子言 子又不可無一言 以弁卷[13]也 余辭 不獲 畧書顚末如此 嗚呼 人孰無父母 由父母而上之 雖百世之遠 皆父母之父母 而實同一氣 此禮經之 尊祖而重本[14]也

---

1) 冠峯玄公尙璧(관봉현공상벽) : 관봉(冠峯) 현상벽(玄尙璧, 1673~1731, 판관공파 18세)은 조선 영조 때 이름난 학자이다. 그는 특히 성리학에 밝아 독창적 학설인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 곧 "모든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으므로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진보적 이론을 주창하며 낙론파(洛論派)로 활동하였다. 한수재(寒水齋) 권상하(權尙夏)에게 글을 배워 예론(禮論)에도 깊은 지식이 있었는데, 그의 제자들 중 특히 빼어난 여덟 명을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라 했는데, 그 일원으로 불렸다. 저술로는 《관봉문답(冠峯問答)》, 《관봉유고(冠峯遺稿)》가 유명하다. 벼슬은 장릉 참봉,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를 지냈다.

2) 遺子(유자) : 부모를 여읜 아들.

3) 希遠(희원) : 현상벽(玄尙璧)의 아들, 현희원(玄希遠, 1697~1751)을 두고 이름이다. 족보에 보면, 자(字)가 자이(子邇)이고 판관공파 19세손이다.

4) 命直子敬(명직자경) : 현씨 종친인 현명직(玄命直, 1710~1772)을 두고 이름이다. 원문에 보면 그의 이름과 자를 동시에 연이어 쓰고 있는데, 달리 심초공(尋初公)으로 불리기도 한다. 족보에 보면, 현명직은 자(字)가 자경(子敬)이고 판관공파 20세손이다. 특히 <난포박씨족보서문(蘭浦朴氏族譜序文)>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그의 선조 중 판관공파 12세손 현윤명(玄允明)이 사직공계 중시조이고, 그 부인이 난포박씨(蘭浦朴氏)이기도 하다.

5) 問目(문목) : 질문의 조목.

6) 封號(봉호) : 군(君)을 봉한 이름.

7) 星山公(성산공) : 연주현씨(延州玄氏)의 시조(始祖) 현담윤(玄覃胤) 공의 장자(長子)인 현덕수(玄德秀)를 두고 이름이다. 달리 상서공(尙書公)으로도 표기하는데, 그의 최종 관직이 병부상서(兵部尙書)였기에 그렇게 불린다.

8) 文獻足徵(문헌족징) : 문헌으로 징험할 만하다. 이는 곧 국가의 문헌 자료가 많아서 후대에 고거(考據)할 수 있음을 뜻한다. 《논어(論語)》 <팔일(八佾)>편에 보면, 공자가 "하나라의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그 후손인 기나라에서 증명하지 못하고, 은나라의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그 후손인 송나라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헌이 충분하다면 내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夏禮吾能言之 杞不足徵也 殷禮吾能言之 宋不足徵也 文獻不足故也 足則吾能徵之矣〕"라고 한 대목이 나온다.

9) 將軍公(장군공) : 연주현씨(延州玄氏)의 시조인 현담윤(玄覃胤)을 두고 이름이다. 북송 때 여진족이 침입하자 고려에 원병을 요청했는데, 이때 현담윤(玄覃胤)을 원병 대장군으로 임명 출정시켰기에 '장군공(將軍公)'이란 호칭이 생겨났다. 달리 시랑공(侍郎公)으로도 표기한다.

10) 穆(목) : 사당에 위패를 모시는 서열로서의 아들의 자리. 참고로 아버지의 자리는 '소(昭)'라고 한다. 참고로 《예기(禮記)》 <제통(祭統>편에 보면, "소목(昭穆)이란 게 아버지와 아들, 멀고 가까움, 어른과 아이, 친함과 소원함 등의 구분을 짓는 까닭에 어지럽지 않다.[昭穆者 所以別父子遠近長幼親疏之序而無亂也]"라고 했다.

11) 希泰(희태) : 현씨 종친인 현희태(玄希泰, 1678~1762, 판관공파 19세)를 두고 이름이다. 족보에 보면 자(字)가 내백(來伯)이다.

12) 告訖(고흘) : 고(告)하기를 마치다.

13) 弁卷(변권) : 책의 머리말. 서언(序言).

14) 尊祖而重本(존조이중본) : 선조(先祖)를 높이고 뿌리를 소중히 여김. 《근사록(近思錄)》 <치법(治法)>편에 보면, "사람들이 선조를 높이고 뿌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서 상하가 서로 유지되면 자연히 굳

太史公[15]叙

【해석(解釋)】

<정묘보(丁卯譜) 서(序)>

관봉(冠峯) 현상벽(玄尙璧) 공(公)의 유자(遺子)인 현희원(玄希遠)이 그 종친인 현명직(玄命直, 字가 '子敬'임)을 데리고서 내게 찾아왔다. 자경이 손수 적은 질문 조목의 작은 종이를 내밀며 물어온 게, 곧 새로운 족보를 만들면서 시조(始祖)를 바꿔 적음에 대한 물음이었다.

"대개 듣건대 현씨(玄氏)의 본은 연주인(延州人)인데 후대로 오면서 세 개의 본관이 생겨났다. 바로 성산(星山)이요 창원(昌原)이요 순천(順天)이란 것들이다. 성산과 창원은 형제지간이고, 순천은 성산에서 나왔는데, 그 자손들이 그 중시조(中始祖)로 군(君)을 봉한 사실로써 각각 시조를 내세우게 되고, 각자 나름의 족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려사(高麗史)》에 적힌 바로는, 성산공(星山公)께서 부친인 장군공(將軍公) 모(某)와 더불어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성산의 옛 족보 기록에도 이런 사실이 명백하게 실려있다. (시조가 되는) 두 분의 조상 위로도 한 대가 있고 그 이름자와 관작이 분명하여 문헌 기록상으로도 충분히 징험할 만하다. 따라서 장군공을 시조로 가운데로 모시고 성산공 형제를 나란히 위치시키면 소목(昭穆)의 형태를 이룰 수 있다. 아울러 두 지파가 합쳐지면서 하나의 족보가 만들어지고, 세 개의 본관이 모두 연주(延州)라고 하는 하나의 본관으로 고쳐지게 됨이 의리상 당연하고 예의상 합당한 것이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자경(子敬, 곧 玄命直)이 돌아간 뒤에, 종친 현희태(玄希泰)란 이가 찾아와 여러 종친들의 공통적 의사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장군공을 시조로 모시면서 여러 족보를 하나로 합하고 본관을 고치자는 그대의 의견은, 이미 그대가 말한 것처럼 하기로 해 족보를 수선하는 일은 이미 끝났지만, 그 책의 서문에 어찌 그대의 말 한마디도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했다.

게 맺어져서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人知**尊祖而重本** 上下相維 自然固結而不渙散]"라고 하였다. 곧 정이천(程伊川) 선생의 말이다. (정이천은 중국 송나라 도학자, 1033-1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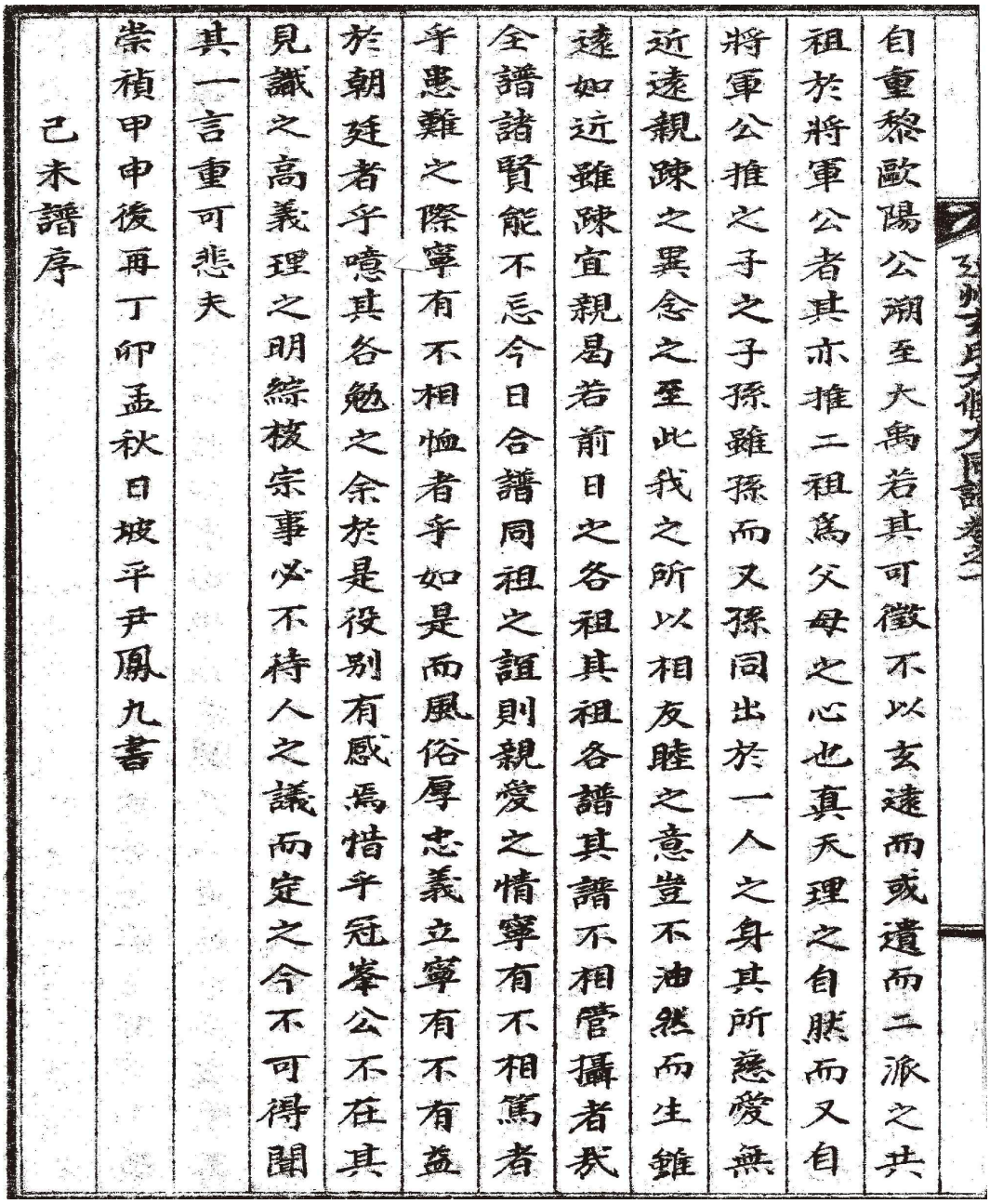
15) 太史公(태사공) : 사마천(司馬遷, 중국 전한의 역사가, 사기의 저자)을 이르는 말이다.

내가 한사코 사양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이처럼 간략히 그 전말(顚末)을 적어 보노라.

“아! 사람치고 어느 누가 부모가 없겠습니까? 부모를 말미암아서 그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비록 백세(百世)의 먼 조상이라도 모두가 다 부모의 부모가 되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동일한 기운을 타고난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경(禮經)》에서 말한, ‘선조를 높이고 뿌리를 소중히 여김[尊祖而重本]’이라 할 것입니다.

태사공(太史公) 사마천(司馬遷)은 서술하기를, (…)

【원문(原文)】



自重黎歐陽公溯至大禹若其可徵不以玄遠而或遺而二派之共
祖於將軍公者其亦推二祖爲父母之心也真天理之自然而又自
將軍公推之子之子孫雖孫而又孫同出於一人之身其所慈愛無
近遠親疎之異念之至此我之所以相友睦之意豈不油然而生雖
遠如近雖疎宜親曷若前日之各祖其祖各譜其譜不相管攝者哉
全譜諸賢能不忘今日合譜同祖之誼則親愛之情寧有不相篤者
乎患難之際寧有不相恤者乎如是而風俗厚忠義立寧有不有益
於朝廷者乎噫其各勉之余於是役別有感焉惜乎冠峯公不在其
見識之高義理之明綜核宗事必不待人之議而定之今不可得聞
其一言重可悲夫
崇禎甲申後再丁卯孟秋日坡平尹鳳九書

己未譜序

<그림 (2)> 연주현씨(延州玄氏) 족보 <정묘보(丁卯譜)> (2)

【판독(判讀)】

自重黎[16] 歐陽公[17] 溯至[18]大禹[19] 若其可徵 不以玄遠[20]而或遺 而二派

16) 重黎(중려) :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의 조상. 그런데 여기서는 사마천(司馬遷)의 선조(先祖)를 지칭하는 말로서 쓰였다. 본디 하상(夏商) 시대만 해도 중려씨(重黎氏)란 천지(天地)를 관장하는 관원의 집안을 지칭했으나, 주 선왕(周宣王) 때에 와서는 사마씨(司馬氏)가 되었다고 한다. 바로《사기(史記)》

之 共祖 於將軍公者 其亦推二祖 爲父母之心也 眞天理之自然 而又自將軍公 推之 子之子孫 雖孫而又孫 同出於一人之身 其所慈愛 無近遠親疎之異 念之至此[21] 我之所以相友睦之意 豈不油然[22]而生 雖遠如近 雖疎宜親 曷[23] 若前日之 各祖其祖 各譜其譜 不相管攝[24]者哉 全譜[25]諸賢能不忘 今日合譜 同祖之誼 則親愛之情 寧有不相篤者乎 患難之際 寧有不相恤者乎 如是而 風俗厚 忠義立 寧有不有 益於朝廷者乎 噫 其各勉之余 於是 役別有感焉 惜乎冠峯公 不在其見識之 高義理之明 綜核[26]宗事 必不待人之議而定之 今不可得聞 其一言重 悲夫

崇禎 甲申後 再丁卯[27] 孟秋日 坡平 尹鳳九[28]書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편에서 밝힌 내용이다.

17) 歐陽公(구양공) : 북송(北宋)의 문인인 구양수(歐陽修, 1007~1072)를 두고 이름이다. 정치가로서 유교원리를 통해 정계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당대의 대문장가인 한유의 작품에 영향을 받아 평이하고 간결한 고문체 부흥에 힘썼다. 〈오대사기〉와 〈신당서〉를 통해 전통 역사서의 형태와 범위를 확충했고, 정확한 기술과 도덕적 판단으로 당시의 인물과 제도를 평했다. '당송8대가'의 한 사람이다.

18) 溯至(소지) : 거슬러 올라가 …에 이르다.

19) 太史公(태사공) … 溯至大禹(소지대우) : 태사공(太史公) 사마천(司馬遷)은 스스로 그 세대(世代)를 서술하면서 멀리 중려(重黎 상고(上古) 시대 황제인 전욱 고양씨(顓頊高陽氏)의 후손)에서부터 시작하였고, 구양공(歐陽公), 곧 송(宋) 나라 때 구양수(歐陽脩)는 또한 우임금[大禹]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아마도 이 표현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쓴 <은진송씨족보서(恩津宋氏族譜序)>에서 인용한 듯하다. 우암이 쓴 글에 보면, "그윽이 생각건대, 사마천(司馬遷)과 반고(班固)는 스스로 그 세대(世代)를 서술하면서 멀리 중려(重黎)、고욱(高頊)에서부터 시작하였고, 구양공(歐陽公)은 또한 대우(大禹)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竊惟遷固自敍其世 遠自重黎高頊 歐陽公亦遡至大禹]."라고 했다.

20) 玄遠(현원) : 현묘(玄妙)하고 심원(深遠)함.

21) 念之至此(염지지차) : 생각이 여기에까지 이르자 ….

22) 油然(유연) : 저절로 생기는 모양.

23) 曷(갈) : 어찌(何也).

24) 管攝(관섭) : 관할하고 통제함. 달리 겸관(兼管)을 의미하기도 함. 곧 맡아 주관하여 소유한다는 의미이다. 관속(管束). 《근사록(近思錄)》(9권) <치법(治法)>편에 보면, 이천(伊川)선생일 말씀하시길, "천하의 인심을 관섭(管攝)하여 종족을 수합하고, 풍속을 후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근본을 잊지 않게 하려면, 모름지기 보계(譜系)를 밝히고 세족(世族)을 수합하여 종자법(宗子法)을 세워야 한다.[**管攝**天下人心 收宗族 厚風俗 使人不忘本 須是明譜系 收世族 立宗子法]"라고 함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25) 全譜(전보) : 파보(派譜)의 족보를 한데 모은 온전한 족보.

26) 綜核(종핵) : 속속들이 파헤쳐서 자세히 밝혀냄.

27) 崇禎甲申後再丁卯(숭정갑신후재정묘) : '숭정(崇禎)'은 명(明)나라 마지막 황제인 의종(毅宗) 때 사용한 연호로서 그 기간은 무진(戊辰, 1628)년에서 갑신(甲申, 1644)년까지 17년이다. 따라서 '숭정 갑신 후 정묘(丁卯)'가 조선조 숙종(肅宗) 13년인 1687년에 해당하기에, '숭정 갑신 후 재(再)정묘'는 이로부터 60년 뒤인 1747년으로서 곧 영조(英祖) 23년이 된다.

28) 尹鳳九(윤봉구) : 윤봉구(尹鳳九, 1681~1767)는 조선후기의 문신(文臣)이자 학자(學者)로서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자(字)는 서응(瑞膺), 호는 병계(屛溪) · 구암(久庵)으로 호조 참판 윤비경(尹飛卿)의 손자이며 윤명운(尹明運)의 아들이다. 숙종 40년(1714)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청도군수 · 사헌부지평 · 장령 · 집의를 거쳐 부호군(副護軍)이 되었다. 그 후 군자감정(軍資監正) · 대사헌 · 지돈녕에 이어 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그는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으로 한원진(韓元震) · 이간(李柬) · 현상벽(玄尙璧) · 채지홍(蔡之洪) 등과 더불어 수학하였으며,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라 불리었다. 당시 성리학에 있어서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에 대한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한원진의 인물성이론을 지지하는 호론(湖論)의 중심적인 인물로서 사회적 · 현실적 활동보다 심성론을 주로 한 성리학자로서의 입론에 치중하였다. 시호(諡號)는 문헌(文獻)이며 저서로는 《병계집(屛溪集)》이 있다.

【해석(解釋)】

(족보란 것은) 그 세대(世代)를 중려(重黎상고(上古) 시대 황제인 전욱 고양씨(顓頊高陽氏)의 후손), 구양공(歐陽公 송(宋) 나라 때 구양수(歐陽脩))으로부터 거슬러 우임금[大禹]에게까지 이를 수 있다. 만약 징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득하고 먼 때문만이 아니라 간혹 남아있는 기록 때문인 것이다. 두 지파의 공통 조상인 장군공 그 분 역시 두 조상을 미루어 생각하면 결국 부모의 마음인 것이다. 진실로 천리(天理)가 그리된 것이지 장군공으로부터 미루어보면, 아들의 자손이 그립고 사모하는 바가 가깝거나 멀거나, 친하거나 소원함에 차이가 없다.

생각이 여기까지에 이르고 보니, 내가 바랐던 것처럼 서로 함께 화목하게 지내자는 마음이 어찌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리요. 비록 멀어도 가까운 것처럼, 비록 소원해도 의당 친한 것처럼 지내야 함이 어찌 지난날처럼 조상도 각기 다른 조상, 족보도 각기 다른 족보를 쓰면서 서로 관섭(管攝)하지 못하던 때와 같을 수가 있단 말이오. 전보(全譜)에 실린 제현(諸賢)께서는 오늘의 이 합보(合譜)의 작업을 통해 얻은 같은 조상을 둔 정의(情誼)를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친애하는 정이 있을진대 어찌 돈독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난의 어려움을 만나면 어찌 구휼(救恤)하는 마음이 없으리요. 이만하면 풍속이 후덕해지고, 충의(忠義)가 세워질 텐데, 어찌 조정에 유익함이 없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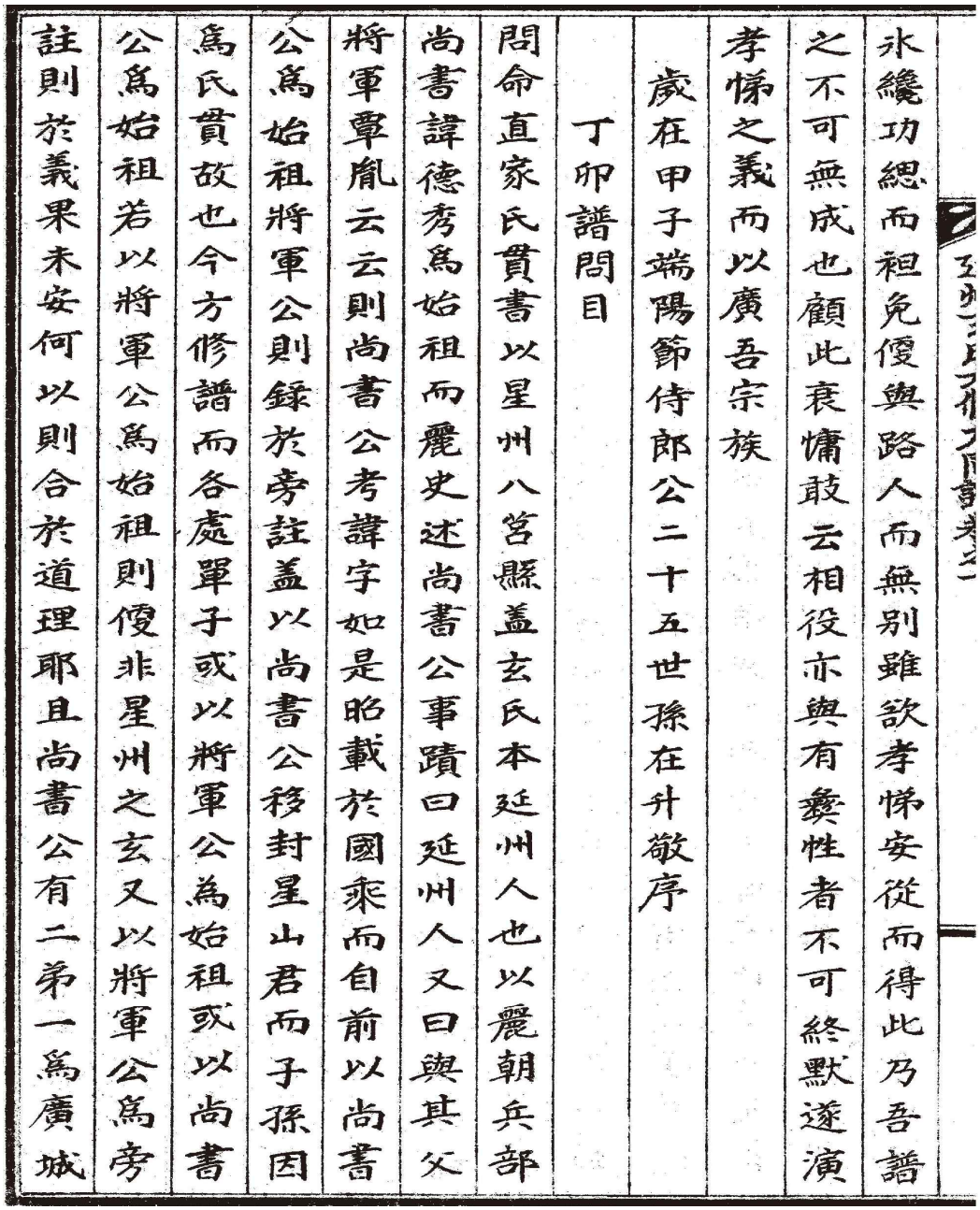
아! 각기 힘쓸지어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서문(序文)을 쓰는 작업을 하노라니 특별한 감회가 일어남이 있다. 아쉽도다! 관봉공(冠峯公)께서 이 세상에 안 계셔서 그의 높은 의리의 밝은 식견을 볼 수 없도다. 그분이 계셨더라면 문중의 일을 속속들이 파헤치며 자세히 밝혀내어 다른 사람의 의론에 기댈 것 없이 결정지었을 터인데, 이제 그 중요한 한마디 말씀도 얻어 들을 수 없음이 거듭 슬프기만 하구나!”

숭정(崇禎) 갑신후(甲申後) 재(再) 정묘(丁卯, 1747) 초가을 날에,
파평(坡平) 윤봉구(尹鳳九) 씀.

2 <정묘보(丁卯譜) 질문의 조목(條目)>

【원문(原文)】


永纔功總而袒免傻與路人而無別雖欲孝悌安從而得此乃吾譜之不可無成也顧此衰慵敢云相役亦與有爨性者不可終默遂演孝悌之義而以廣吾宗族

歲在甲子端陽節侍郎公二十五世孫在升敬序

丁卯譜問目

問命直家氏貫書以星州八莒縣蓋玄氏本延州人也以麗朝兵部尚書諱德秀爲始祖而麗史述尚書公事蹟曰延州人又曰與其父將軍覃胤云云則尚書公考諱字如是昭載於國乘而自前以尚書公爲始祖將軍公則錄於旁註蓋以尚書公移封星山君而子孫因爲氏貫故也今方修譜而各處單子或以將軍公爲始祖或以尚書公爲始祖若以將軍公爲始祖則傻非星州之玄又以將軍公爲旁註則於義果未安何以則合於道理耶且尚書公有二弟一爲廣城

<그림 (3)> <정묘보(丁卯譜)> 문목(問目) (1)

【판독(判讀)】

丁卯譜[29] 問目

問 命直[30]家 氏貫 書以星州八莒縣 盖玄氏本延州人也 以麗朝 兵部尙書 諱德秀爲始祖 而麗史述尙書公事蹟 曰延州人 又曰 與其父將軍覃胤云云 則上書公考 諱字 如是昭載於國乘[31] 而自前 以尙書公爲始祖 將軍公則錄於旁註[32] 盖以尙書公移封星山君 而子孫因爲氏貫故也 今方 修譜 而各處單子[33] 或以將軍公爲始祖 或以尙書公爲始祖 若以將軍公爲始祖 則偎[34]非星州之玄 又以將軍公爲旁註 則於義果未安 何以則合於道理耶 尙書公有二弟 一爲廣城

【해석(解釋)】

<정묘보(丁卯譜) 질문의 조목>

‣ **자경(子敬) 현명직(玄命直)의 물음[問]** : 현명직(玄命直)의 집안에선 성씨의 본관을 '성주(星州) 팔거현(八莒縣)'이라고 써왔습니다. 대개 현씨는 본래 연주인(延州人)인데, 고려조(高麗朝) 병부상서(兵部尙書) 휘(諱) 덕수(德秀)를 시조(始祖)로 삼고 있습니다. 《고려사(高麗史)》에서 서술된 상서공(尙書公) 사적(事蹟)에는 "그가 연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또 "그의 부친 장군공 현담윤(玄覃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곧 상서공 부친의 휘자(諱字)가 이처럼 나라에서 발행한 역사서에 명백히 실려있음에도 이전부터 상서공을 시조로 삼으면서 장군공은 방주(旁註)로만 달아 기록해왔습니다. 대개 상서공을 성산군(星山君)에 이봉(移封)시켜 본관을 삼으면서 자손들은 이로 말미암아 성씨의 본관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족보를 수정함에 있어 각처에서 올라온 단자(單子)를 받아보니, 한 곳에선 '장군공'을 시조라 하는가 하면, 다른 한 곳에선 '상서공'을 시조로 삼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장군공'을 시조로 삼게 된다면 이는 곧 성주현씨(星州玄氏)가 아닌 셈이 되고, 이제까지 장군공을

---

29) 丁卯譜(정묘보) : 연주현씨 족보집 중 초간보(初刊譜)로서 영조(英祖) 23년 정묘년(丁卯年, 1747)에 만들어졌기에 '정묘보(丁卯譜)'라고 일컬어진다.

30) 命直(명직) : 현명직(玄命直, 1710~1772). 족보에 보면, 자(字)가 자경(子敬)이고 도암(陶庵) 이재(李縡) 문하에서 수학했는데, 연주현씨 판관공파 20세손이다.

31) 國乘(국승) : 나라의 역사. 국사(國史).

32) 旁註(방주) : 본문 옆에 주석으로 표시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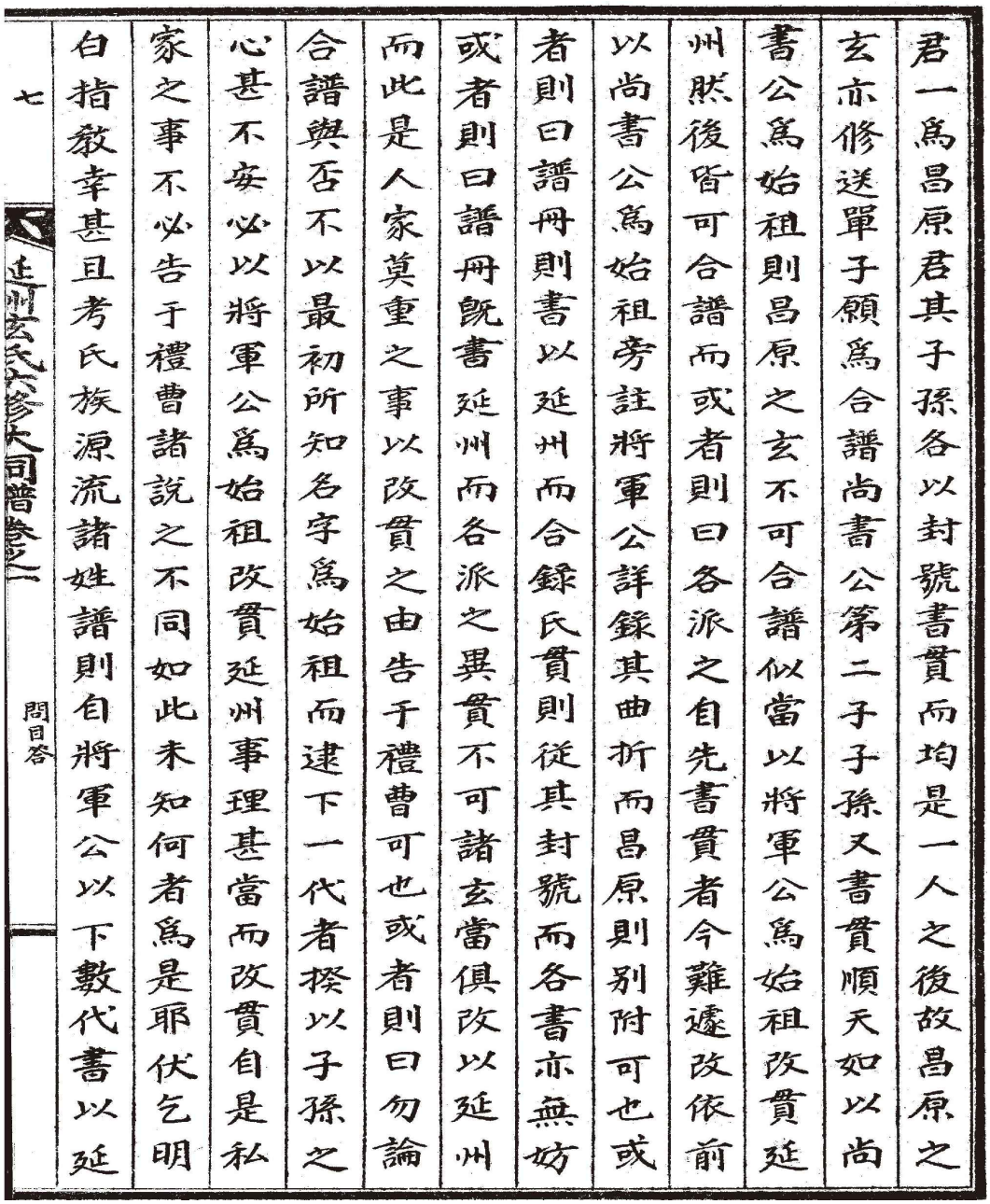
33) 單子(단자) : 부조나 선사 따위, 남에게 보내는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적은 종이.

34) 偎(편) : '便(편)'과 동자(同字)임.

족보에서 방주(旁註)로만 처리한 일이 의리상 진정으로 미안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이 도리에 합치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상서공에겐 두 명의 아우가 있는데, 한 사람은 '광성군(廣城君)'이고, (…)

【원문(原文)】


君一爲昌原君其子孫各以封號書貫而均是一人之後故昌原之
玄亦修送單子願爲合譜尚書公第二子子孫又書貫順天如以尚
書公爲始祖則昌原之玄不可合譜似當以將軍公爲始祖改貫延
州然後皆可合譜而或者則曰各派之自先書貫者今難遽改依前
以尚書公爲始祖旁註將軍公詳錄其曲折而昌原則別附可也或
者則曰譜冊則書以延州而合錄氏貫則從其封號而各書亦無妨
或者則曰譜冊既書延州而各派之異貫不可諸玄當俱改以延州
而此是人家莫重之事以改貫之由告于禮曹可也或者則曰勿論
合譜與否不以最初所知名字爲始祖而逮下一代者揆以子孫之
心甚不安必以將軍公爲始祖改貫延州事理甚當而改貫自是私
家之事不必告于禮曹諸說之不同如此未知何者爲是耶伏乞明
白指敎幸甚且考氏族源流諸姓譜則自將軍公以下數代書以延
七
延州玄氏大參大司諫公派譜卷之一
問目答

<그림 (4)> <정묘보(丁卯譜)> 문목(問目) (2)

【판독(判讀)】

君 一爲昌原君 其子孫 各以封號[35]書貫以均 是一人之後 故昌原之玄 亦修送單子 願爲合譜 尚書公第二子子孫 又書貫順天 如以尚書公爲始祖 則

35) 封號(봉호) : 군(君)을 봉한 이름.

昌原之玄 不可合譜 似當以將軍公爲始祖 改貫延州 然後 改可合譜 而或者則曰 各派之自先書貫者 今難遽改 依前以尙書公爲始祖 旁註 將軍公詳錄 其曲折 而昌原則別附可也 或者則曰 譜冊 則書以延州而合錄氏貫 則從其封號而各書 亦無妨 或者則曰 譜冊 旣書延州 各派之異貫不可 諸玄當俱改以延州 而此是人家莫重之事 以改貫之由 告于禮曹[36]可也 或者則曰 勿論合譜與否 不以最初所知 名字爲始祖 而逮下[37]一代者 揆以子孫之心甚不安 必以將軍公爲始祖 改貫延州 事理甚當 而改貫自是私家之事 不必告于禮曹 諸說之不同如此 未知何者爲是耶 伏乞[38]明白指敎幸甚 且考氏族源流 諸姓譜 則自將軍公 以下數代 書以延

【해석(解釋)】

다른 한 사람은 '창원군(昌原君)'입니다. 그 자손들은 제각기 '군(君)'을 봉한 이름으로 본관을 삼아 왔는데, 모두 한 사람의 후예(後裔)이기에 창원현씨(昌原玄氏) 또한 수정한 단자를 보내오면서 족보에 합해지길 원했습니다. 게다가 상서공의 두 번째 아들 자손들은 본관으로 '순천(順天)'을 써왔습니다. 만약에 상서공을 시조로 삼게 된다면 창원현씨를 족보에 합할 수가 없기에 의당 장군공을 시조로 삼고 본관을 연주(延州)로 고치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 연후에야 모두 합보가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길, 각 지파에서 이전부터 써왔던 본관을 지금 와서 갑자기 고칠 수는 없으니 이전처럼 상서공을 시조로 삼고, 방주(旁註)로 장군공과 관련된 사연의 곡절을 상세히 기록하고, 창원은 별도로 부기함이 옳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말하길, 족보 책에는 연주(延州)로 써서 성씨와 본관을 합쳐 기록하고 군(君)을 봉(封)한 이름을 따라 제각기 써도 무방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는 말하길, 족보에는 이미 연주(延州)를 써놓았기에 각 지파별로 다른 본관을 씀이란 불가한 일이기에 여러 현씨들은 당연히 모두 연주로 고쳐서 써야 하고, 이 일이야말로 한 가문의 막중한 일이기에

---

36) 禮曹(예조) : 고려 공양왕(恭讓王) 이후 및 조선 때의 육조(六曹)의 하나로서, 예악(禮樂)·제사(祭祀)·연향(宴饗)·조빙(朝聘)·학교(學校)·과거(科擧) 등의 일을 맡아 본 중앙 행정 기관.

37) 逮下(체하) : 아랫사람에게 미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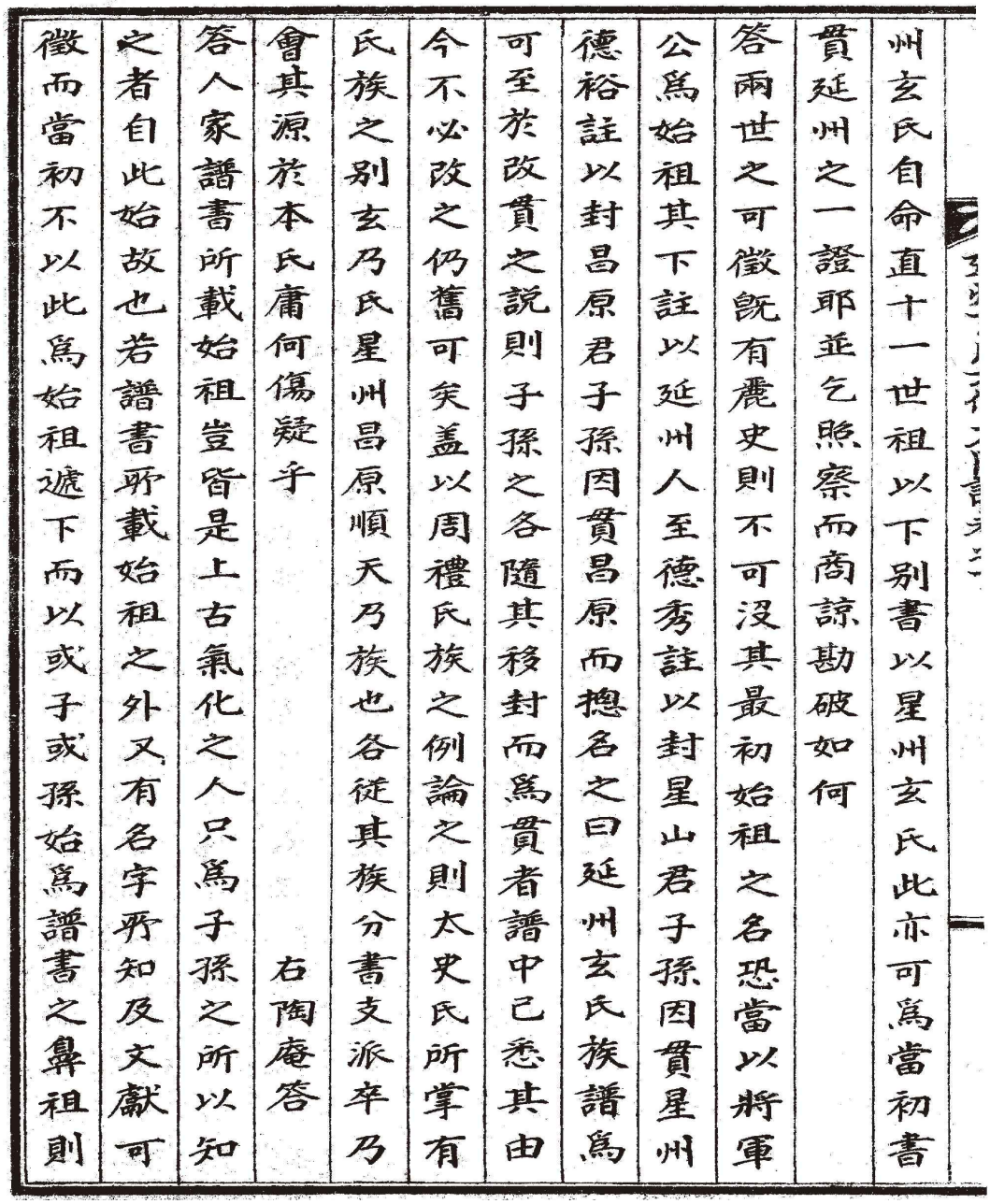
38) 伏乞(복걸) : 엎드려 빎. 존자(尊者)에게 간절히 요구함. 여기서 '복(伏)'은 겸사(謙辭)임.

본관을 고쳐 쓴 사유를 예조(禮曹)에 보고토록 함이 옳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는 말하길, 물론 족보를 합치는 일의 실행 여부가 최초로 알려진 바의 이름자를 시조로 삼지 않고 한 대 아랫사람에게 내려 미침이란 자손의 마음을 심히 불안케 할 것입니다. 반드시 장군공을 시조로 모시고 본관은 연주(延州)로 고쳐야만 심히 타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관을 고치는 일은 절로 사적인 가문의 일이 될 터이니 부디 꼭 예조에 보고할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이처럼 똑같지 않아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잘 알지 못하겠나이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명백하게 가르쳐주신다면 심히 다행한 일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여러 성씨의 족보에서 씨족의 원류를 고찰해보면, 장군공 이하 여러 세대가 (…)

【원문(原文)】


州玄氏自命直十一世祖以下別書以星州玄氏此亦可爲當初書
貫延州之一證耶並乞照察而商諒勘破如何
答兩世之可徵旣有麗史則不可沒其最初始祖之名恐當以將軍
公爲始祖其下註以延州人至德秀註以封星山君子孫因貫星州
德裕註以封昌原君子孫因貫昌原而摠名之曰延州玄氏族譜爲
可至於改貫之說則子孫之各隨其移封而爲貫者譜中已悉其由
今不必改之仍舊可矣蓋以周禮氏族之例論之則太史氏所掌有
氏族之別玄乃氏星州昌原順天乃族也各從其族分書支派卒乃
會其源於本氏庸何傷疑乎
右陶庵答
答人家譜書所載始祖豈皆是上古氣化之人只爲子孫之所以知
之者自此始故也若譜書所載始祖之外又有名字所知及文獻可
徵而當初不以此爲始祖遽下而以或子或孫始爲譜書之鼻祖則

<그림 (5)> <정묘보(丁卯譜)> 문목(問目) (3)

【판독(判讀)】

州玄氏 自命直十一世祖[39]以下 別書以星州玄氏 此亦可爲 當初書貫延州

39) 命直十一世祖(명직십일세조) : 앞서 언급된 현명직(玄命直)이 연주현씨 20세손이라고 밝힌 바 있기에 명직의 11세조는 세종조 통훈대부(通訓大夫)였던 현규(玄珪)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이하라고 하면 그보다 1대 아래인 현득원(玄得元, 1405~1458)을 지칭함인데, 결국 명직의 10세조로부터 성주

之一證耶 並乞照察[40]而商諒[41] 勘破[42]如何

答 兩世[43]之可徵 旣有麗史 則不可沒其最初始祖之名 恐當以將軍公爲始祖 其下註[44]以延州人至 德秀註以封星山君 子孫因貫星州 德裕註以封昌原君 子孫因貫昌原 而摠名之 曰延州玄氏 族譜爲可 至於改貫之說 則子孫之各隨 其移封而爲貫者 譜中已悉[45]其由 今不必改之 仍舊可矣 盖以周禮 氏族之例 論之則 太史氏[46]所掌 有氏族之別 玄乃氏 星州 昌原 順天乃族也 各從其族分舊支派 卒[47]乃會 其源於本氏 庸何傷疑乎[48] 右陶庵[49]答

答 人家諸書 所載 始祖 豈皆是上古氣化[50]之人 只爲子孫之所以 知之者自此始故也 若譜書所載 始祖之外 又有名字所知 及文獻可徵 而當初不以此爲始祖 遞下[51] 而以或子 或孫 始爲譜書之鼻祖[52] 則

【해석(解釋)】

'연주현씨(延州玄氏)'라고 써왔음이 절로 분명합니다. 한편 현명직(玄命直)의 11세조 이하로부터는 따로 '성주현씨(星州玄氏)'라고 써왔는데, 이것 또한 당초에 본관을 연주(延州)라고 쓴 증거 가운데 하나인 셈이 됩니다.

아울러 바라옵건대 분명히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교감(校勘)을 해주심이 어떻겠습니까?

‣ **도암(陶庵) 이재(李縡) 선생의 답(答)** : 두 세대를 징험(徵驗)할 수 있음

목사공파로 불리게 되었다. 한편 현명직의 직계 10세조는 전주판관을 역임한 통훈대부 현득리(玄得利)이다. 다시 말하면, '명직의 10세조'로부터 성주(星州)라는 본관을 새로 써왔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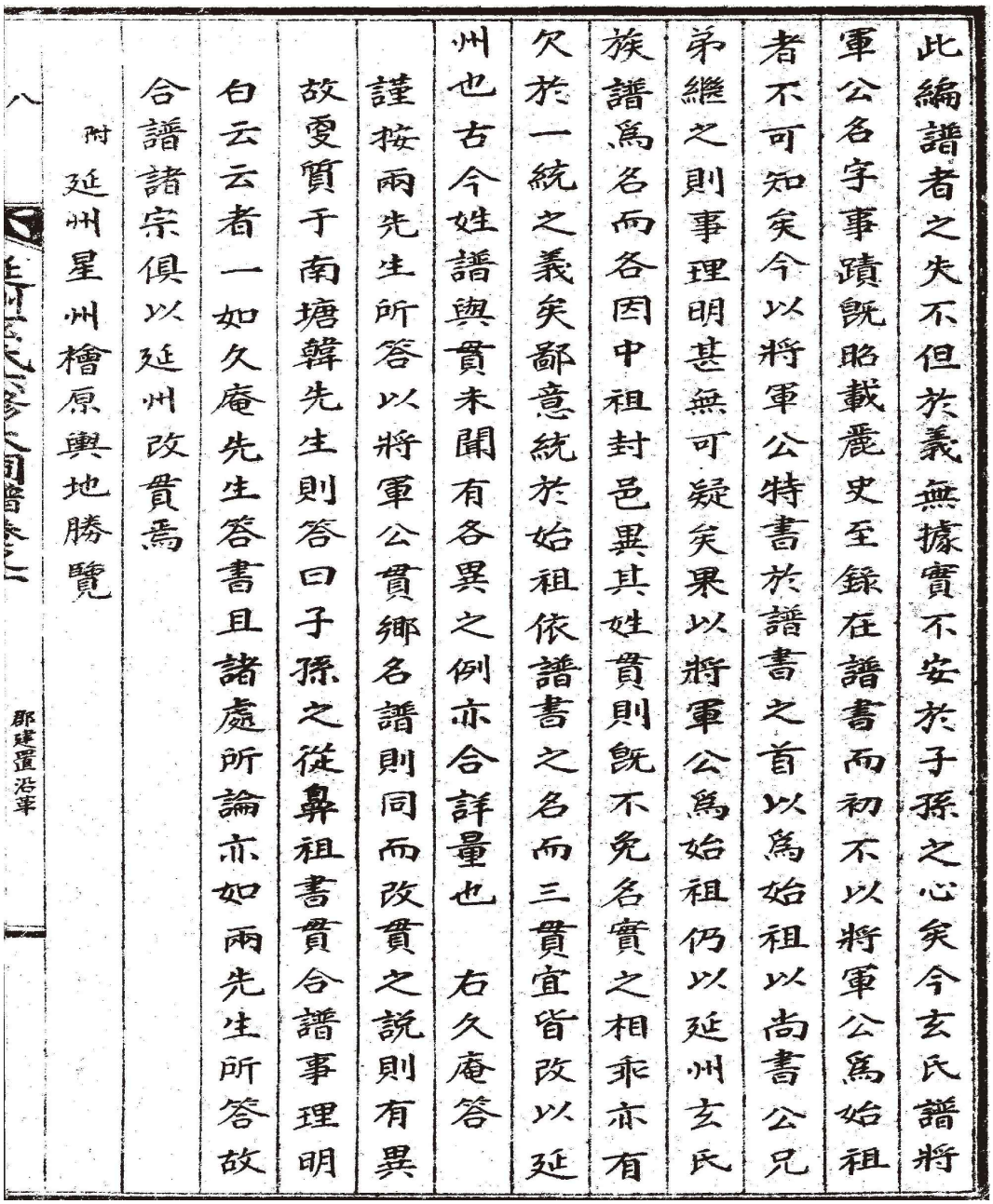
40) 照察(조찰) : 분명히 살핌. 명찰(明察)함.
41) 商諒(상양) : 헤아리다.
42) 勘破(감파) : 알아차림. 간파(看破).
43) 兩世(양세) : 두 세대. 할아버지와 아버지, 혹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두 세대를 아울러 이름.
44) 註(주) : 본래는 주해(註解)의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기록하다' 혹은 '기재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45) 已悉(이실) : 이미 다 ….
46) 太史氏(태사씨) : 사관(史官). 대제학(大提學)을 두고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英祖) 즉위년 11월 28일조'에 보면, 이광좌(李光佐)가 임금께 아뢰는 말 중에 "대제학을 다른 말로 태사씨(太史氏)라고도 부릅니다.[大提學之號, 一曰太史氏]"라고 한 표현이 실려있다.
47) 卒(졸) : 마침내.
48) 庸何傷疑乎(용하상의호) : 무슨 문제 될 게 있으리라 의심하리?
49) 陶庵(도암) : 이재(李縡, 1680~1746)를 두고 이름이다. 주석 65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50) 氣化(기화) : 음양(陰陽)의 기운으로 만물을 변화시킴. 음양의 변화, 또는 세사의 변천의 비유.
51) 遞下(체하) : 교대하여 내려감.
52) 鼻祖(비조) : 시조(始祖).

이란 이미 《고려사(高麗史)》에 있으니 그 최초 시조의 이름은 도무지 묻혀버릴 수가 없다. 조심스럽게 생각건대 마땅히 장군공으로 시조를 삼아야 하고, 그 아래로 주석을 달아 '연주인(延州人)'이라고 밝혀야 할 것이다. 덕수(德秀)는 성산군(星山君)으로 봉해진 사실과 더불어 자손들은 그로 인해 본관을 성주(星州)로 했다고 주석으로 밝히고, 덕유(德裕)는 창원군(昌原君)으로 봉해져서 자손들은 그로 인해 본관을 창원(昌原, 옛지지명은 檜原회원)으로 했다고 주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총괄 명칭으로 '연주현씨(延州玄氏)'라고 밝힘이 옳다. 본관을 바꾸자는 설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가능하게 되려면 자손들 각자가 모두 이에 따라야만 한다. 봉호(封號)가 옮겨진 게 곧 본관이 된 것은 족보 중에 이미 다 그 연유가 실려있기에 이제 다시 그것을 고칠 필요는 없을 듯하며 옛 방식 그대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개 《주례(周禮)》에서 씨족(氏族)의 사례를 들어 논한 것을 보면, 태사씨(太史氏)가 관장하는 바의 일로 씨족을 구별함이 있었다. 이를테면 '현(玄)'은 곧 '씨(氏)'요, '성주(星州) · 창원(昌原) · 순천(順天)'은 '족(族)'이 되는 셈이다. 제각기 '족(族)'을 따라서 옛 지파로 나눠졌다가도 결국 본래 성씨의 근원으로 다시 모이게 되는 꼴이니, 무슨 문제가 되는지 의심하겠는가.

‣ **구암(久庵) 윤봉구(尹鳳九) 선생의 답(答)** : 일반 가문 족보에 '시조(始祖)'가 실려있는 까닭은, 다만 상고에 기화(氣化)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후손들의 생각에 그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만약 족보에 실려있는 시조 말고도 알고 있는 다른 이름자가 있어 문헌으로 징험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초 이를 시조로 삼지 않고 교대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혹은 아들이 혹은 손자가 비로소 족보상의 시조가 되는 셈이다.

【원문(原文)】


此編譜者之失不但於義無據實不安於子孫之心矣今玄氏譜將軍公名字事蹟旣昭載麗史至錄在譜書而初不以將軍公爲始祖者不可知矣今以將軍公特書於譜書之首以爲始祖以尚書公兄弟繼之則事理明甚無可疑矣果以將軍公爲始祖仍以延州玄氏族譜爲名而各因中祖封邑異其姓貫則旣不免名實之相乖亦有欠於一統之義矣鄙意統於始祖依譜書之名而三貫宜皆改以延州也古今姓譜與貫未聞有各異之例亦合詳量也　右久庵答

謹按兩先生所答以將軍公貫鄕名譜則同而改貫之說則有異故叟質于南塘韓先生則答曰子孫之從鼻祖書貫合譜事理明白云云者一如久庵先生答書且諸處所論亦如兩先生所答故合譜諸宗俱以延州改貫焉

附　延州星州檜原輿地勝覽

八　延州玄氏參判公派譜卷之二　那建置沿革

<그림 (6)> <정묘보(丁卯譜)> 문목(問目) (4)

【판독(判讀)】

此編譜者之失 不但於義無據實 不安於子孫之心矣 今玄氏譜 將軍公 名字事蹟 旣昭載[53] 麗史 至錄在譜書 而初 不以將軍公爲始祖者 不可知矣 今

53) 昭載(소재) : 분명하게 실려있다.

以將軍公 特書於譜書之首以爲始祖 以尙書公兄弟繼之 則事理明甚無可疑矣 果以將軍公 爲始祖 仍以延州玄氏族譜爲名 而各因中祖封邑 異其姓貫 則旣不免名實之相乖 亦有欠於一統之義矣 鄙意[54] 統於始祖 依譜書之名 而三貫宜皆改以延州也 古今姓譜與貫 未聞有各異之例 亦合詳量[55]也

右久庵[56]答

謹按[57] 兩先生 所答 以將軍公貫鄕[58]名譜則同 而改貫之說 則有異 故 叟[59]質 于南塘韓先生[60] 則答曰 子孫之從鼻祖 書貫合譜 事理明白 云云者 一如久庵先生答書 且諸處所論 亦如兩先生所答故合譜 諸宗俱以延州改貫焉

【해석(解釋)】

이는 족보를 편찬하는 사람의 실수로서 비단 의리상에서 진실에 바탕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손의 마음을 불안케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제 <현씨족보>에서, 장군공의 이름자와 사적은 이미 《고려사(高麗史)》에 분명하게 실려있기에 족보에도 기록되기에 이른 것이지만, 처음부터 장군공을 시조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장군공을 특별히 족보의 맨 앞머리에 시조로서 기술하고, 상서공 형제들은 그것을 계승한 것으로 하면, 사리가 매우 분명하고 의심할 바가 없다.

결과적으로 장군공을 시조로 삼고, 이에 '연주현씨족보(延州玄氏族譜)'라고 이름을 붙였음에도, 제각기 중시조를 봉읍(封邑)했기 때문에 성씨와 본관을 달리한다면 이는 명칭과 실질이 서로 어긋나게 됨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하나로 통합하는 의의(意義)에 있어서도 흠결이 생기게 된

54) 鄙意(비의) 나의 뜻. 여기서 '鄙(비)'는 자신이나 자기와 관련된 사물에 붙이는 겸사(謙辭)이다.
55) 詳量(상량) : 상세히 헤아리다.
56) 久庵(구암) : 윤봉구(尹鳳九)를 두고 이름이다.
57) 謹按(근안) : 삼가 상고하건대 ….
58) 貫鄕(관향) : 시조(始祖)의 고향. 본관(本貫). 관적(貫籍).
59) 叟(경) : 다시. '叟(경)'은 '更(경)'과 동자(同字)임.
60) 南塘韓先生(남당한선생) : 조선 후기 때의 학자인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을 두고 이름이다. 한원진의 학문과 사상은 당시 성리학의 중심 과제에 두루 미치고 있었고, 성리학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실학이 남인 학자층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던 상황에서도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이이(李珥)-송시열(宋時烈)-권상하(權尙夏)로 이어지는 학통을 계승하여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는 낙론(洛論)인 이간(李柬)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의 주장에 반대하여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다르다고 주장한 인물성이론을 대표하였다. 저서로 《남당집(南塘集)》, 《주자언론동이고(朱子言論同異攷)》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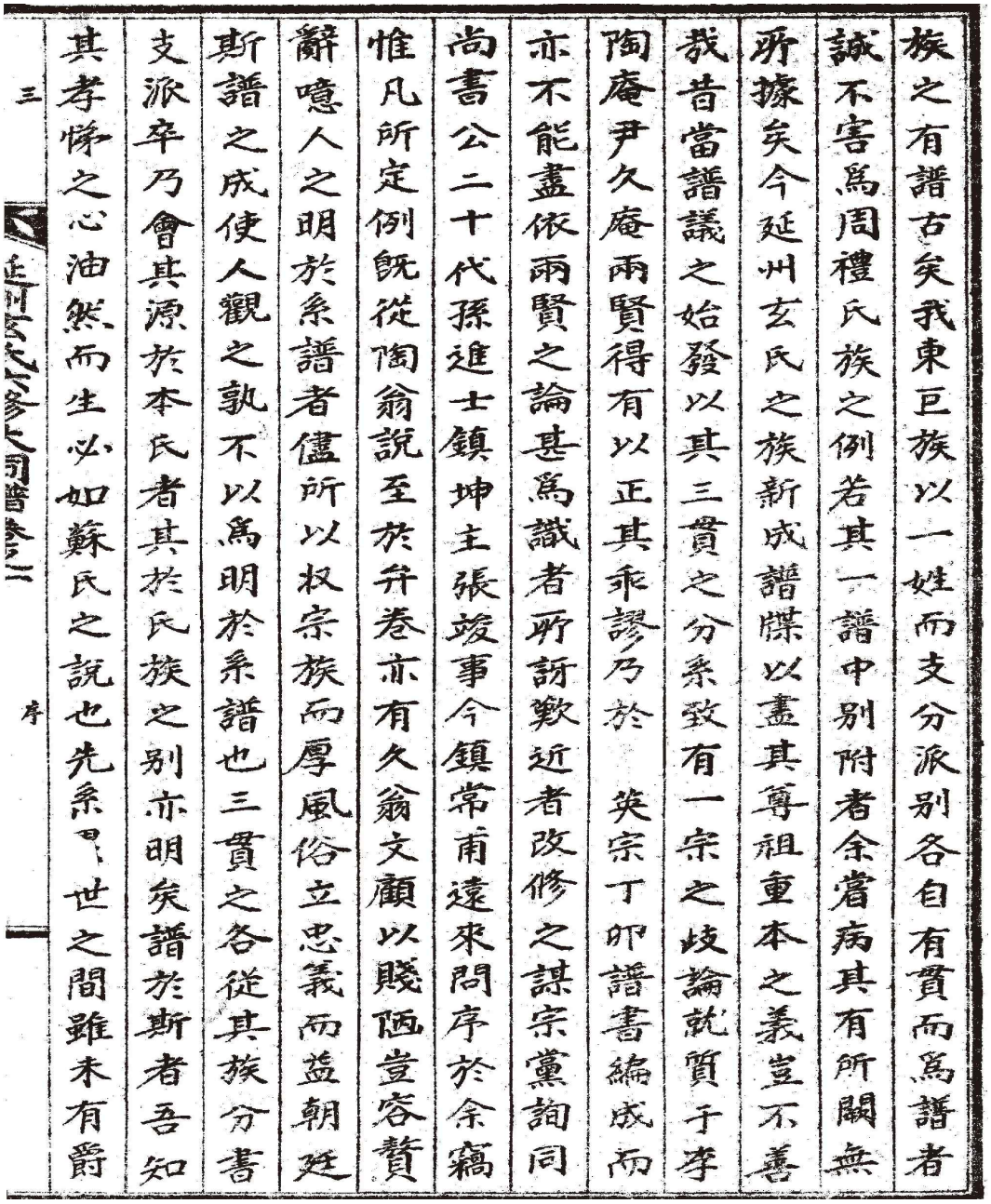
다.

내가 보기에는, 시조를 통합하되 족보 책의 이름에 걸맞게 세 개의 본관은 의당 모두 연주(延州)로 고쳐야 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성씨의 족보에서 본관이 제각기 다른 사례가 있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진실로 자세히 따져보고 하나로 합쳐야 할 것이다.

‣ **질의자 현명직(玄命直)의 의견** : 삼가 두 분 선생의 답변을 상고해보건대, 장군공을 관향명(貫鄕名)으로 족보에 쓰자는 데는 같은 생각이면서도 본관을 바꾸자는 설에 있어선 다른 견해를 보이셨다. 또다시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선생께 질의를 드렸더니, 답하시길 “자손들이 비조(鼻祖)를 따라서 본관을 쓰고 족보를 합치는 일은 그 사리가 명백하다.”라고 했다. 여러 의견들이 한결같이 구암(久庵) 선생께서 답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게다가 각처에서 내는 의견들이 두 분 선생께서 답한 내용과 같으므로, 족보를 하나로 합치기로 한다. 여러 종친께서는 모두 ‘연주(延州)’를 본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재수보(再修報) -《기미보(己未譜)》; 정조 23년(1799)

【원문(原文)】


族之有譜古矣我東巨族以一姓而支分派別各自有貫而爲譜者
誠不害爲周禮氏族之例若其一譜中別附者余嘗病其有所闕無
所據矣今延州玄氏之族新成譜牒以盡其尊祖重本之義豈不善
哉昔當譜議之始發以其三貫之分系致有一宗之歧論就質于李
陶庵尹久庵兩賢得有以正其乖謬乃於 癸宗丁卯譜書編成而
亦不能盡依兩賢之論甚爲識者所訝歎近者改修之謀宗黨詢同
尚書公二十代孫進士鎭坤主張竣事今鎭常甫遠來問序於余竊
惟凡所定例既從陶翁說至於幷卷亦有久翁文顧以賤陋豈容贅
辭噫人之明於系譜者儘所以收宗族而厚風俗立忠義而益朝廷
斯譜之成使人觀之孰不以爲明於系譜也三貫之各從其族分書
支派卒乃會其源於本氏者其於氏族之別亦明矣譜於斯者吾知
其孝悌之心油然而生必如蘇氏之說也先系[illegible]世之間雖未有爵

<그림 (7)> <기미보서(己未譜序) (1)

【판독(判讀)】

(己未譜序)

族之有譜古矣 我東巨族 以一姓而支分派別 各自有貫而爲譜者 誠不害爲

周禮 氏族之例若 其一譜中別附者 余嘗病其有所闕 無所據矣 今延州玄氏之族 新成譜牒[61] 以盡其尊祖重本[62]之義 豈不善哉 昔當譜議之始發 以其三貫之分系 致有一宗[63]之歧論[64] 就質于李陶庵[65] 尹久庵[66] 兩賢得有以正其乖謬 乃於英宗丁卯 譜書編成 而亦不能盡依兩賢之論 甚爲識者所訝歎[67] 近者改修之謀 宗黨[68]詢同[69] 尚書公 二十代孫 進士 鎭坤[70]主張竣事 今鎭常[71]甫遠來 問序於余 竊惟[72]凡所定例 旣從陶翁[73]說 至於弁卷[74] 亦有久翁[75]文 顧以賤陋[76] 豈容贅辭[77] 噫[78] 人之明於系譜者[79]儘所以收[80]宗族而厚風俗 立忠義而益朝廷[81] 斯譜之成 使人觀之 孰不以爲明於系譜也 三貫之各從其族分書 支派卒乃會其源於本氏者 其於氏族之別亦明矣 譜於斯者 吾知其孝悌之心 油然[82]而生 必如 蘇氏之說[83]也 先系

---

61) 譜牒(보첩) : 씨족이나 종족의 세계(世系)를 적은 책. 보도(譜圖). 보록(譜錄).
62) 尊祖重本(존조중본) : 조상을 높이고 근본을 소중히 여김. 《근사록(近思錄)》(9권) <치법(治法)>편에 보면, 정이천(程伊川) 선생이 말하길, "지금은 종자가 없기 때문에 조정에 세신이 없으니, 만약 종자법을 세우면 사람이 조상을 높이고 근본을 소중히 여길 줄을 알 것이요, 사람이 이미 근본을 소중히 여기면 조정의 위세가 저절로 높아진다.[今無宗子, 故朝廷無世臣, 若立宗子法則人知**尊祖重本**, 人旣重本則朝廷之勢自尊.]"라고 하였다.
63) 一宗(일종) : 일족(一族).
64) 歧論(기론) : 이론(異論). 여기서 '歧(기)'는 갈라짐을 뜻하는 말이다.
65) 李陶庵(이도암) : 이재(李縡, 1680~1746). 도암(陶庵)은 그의 호이다. 그는 조선 후기 학자이자 정치가로서 이이(李珥)-김장생(金長生)-송시열(宋時烈)-김창협(金昌協) 등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畿湖學派)의 학맥을 이어오면서도 그 나름의 학통을 수립한 대학자이다. 아울러 그는 성리학과 예학에서 유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옥당(玉堂)의 영수격으로 지체 또한 높았다. 당색은 노론(老論)이었으나 학풍에서는 당색을 초월하기도 하였다. 그의 저술로 특히 관혼상제의 사례(四禮)에 관해 편술한 의례서인 《사례편람(四禮便覽)》(총 8권 4책의 목판본)이 유명하다.
66) 尹久庵(윤구암) : 윤봉구(尹鳳九). 구암(久庵)은 그의 호이다.
67) 訝歎(아탄) : 이상하게 여기고 탄식함.
68) 宗黨(종당) : 종족(宗族).
69) 詢同(순동) : 의견이 일치(一致)하다.
70) 鎭坤(진곤) : 현진곤(玄鎭坤, 1762~1822). 족보에 보면, 자(字)가 성천(聖天)인데 정조 임자(壬子, 1792)년에 생원이 되었고, 판관공파 21세손이다.
71) 鎭常(진상) : 현진상(玄鎭常, 1753~1815). 족보에 보면, 자(字)가 여행(汝行)이고 관봉(冠峯) 현상벽(玄尙璧)의 증손으로서 판관공파 21세손이다.
72) 竊惟(절유) : 삼가 …를 생각해보건대. 대개 '竊惟事勢(절유사세)'라고 하면, '삼가 일의 형세를 살펴보건대'란 의미로 해석된다. 참고로 '竊(절)'이란 글자의 본뜻은 '훔치다'이지만, 여기선 '살피다'의 뜻으로 쓰였다.
73) 陶翁(도옹) : 도암(陶庵) 이재(李縡).
74) 弁卷(변권) : 문집 서두에 붙일 글. 서문(序文).
75) 久翁(구옹) : 구암(久庵) 윤봉구(尹鳳九).
76) 賤陋(천루) : 재덕(才德)이 모자람.
77) 贅辭(췌사) : 쓸모없는 군더더기 말. 췌언(贅言).
78) 噫(희) : 아! 감탄하거나 기릴 때 내는 소리. 감탄사(感歎詞)로 쓰임.
79) 系譜(계보) : 혈연관계 및 학문 · 사상 등의 계통 · 순서 등을 도식(圖式)적으로 보인 기록. 여기서는 한 집안의 족보를 뜻하는 말로 쓰였다.
80) 収(수) : '收(수)'의 속자(俗字).
81) 噫(희) … 益朝廷(익조정) : 이 문장은 정곤수(鄭崑壽)의 《경렴정집(景濂亭集)》(2권) <경자보서(庚子譜序)>에도 똑같은 형태로 실려있다.
82) 油然(유연) : 저절로 생기는 모양. 자연히 그러한 모양. 무럭무럭. 뭉게뭉게.

累世之間 雖未有爵

【해석(解釋)】

<기미보서(己未譜序)>

종족(宗族)에 족보가 있는 것은 오래된 일이다. 우리 동국(東國)의 거족(巨族)들은 한 개 성씨에도 지류가 나뉘고 파가 달라져 제각기 본관이 있고 족보를 가지고 있으니 《주례(周禮)》에서 씨족(氏族)의 관례(慣例)에 해가 되지 않겠는가? 만약 "한 개의 족보 가운데 별도로 부기해놓으면 된다."라고 했다면, 내가 일찍이 그 말에 빠진 바가 있고, 근거 되는 바가 없는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이제 연주현씨 문중에서 새롭게 보첩(譜牒)을 완성하여 '존조중본(尊祖重本)'의 의의를 실천하는 일에 진력하게 되었으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예전에 족보의 논의를 시작함에는 의당 세 개의 본관으로 나눠진 계통을 합쳐서 일족(一族)이 되게 하자는 이론(異論)들이 많았다. 마침 도암(陶庵) 이재(李縡), 구암(久庵) 윤봉구(尹鳳九) 두 분 선생께 질의하여 잘못된 오류를 바로잡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영조조(英祖朝) 정묘(丁卯, 1747)년에 족보가 책으로 엮어지게 되었는데, 두 선생께서 제시한 의론이 다 펼쳐질 수는 없었다. 이에 식자(識者)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탄식함이 매우 심했다. 최근에 족보를 개수하자는 논의가 종족끼리 의견의 일치를 보면서 상서공(尙書公) 20대손인 진사 현진곤(玄進坤)의 주장한 바대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제 현진상(玄鎭常)이란 분이 멀리서 찾아와 내게 서문을 써줄 수 있는가를 물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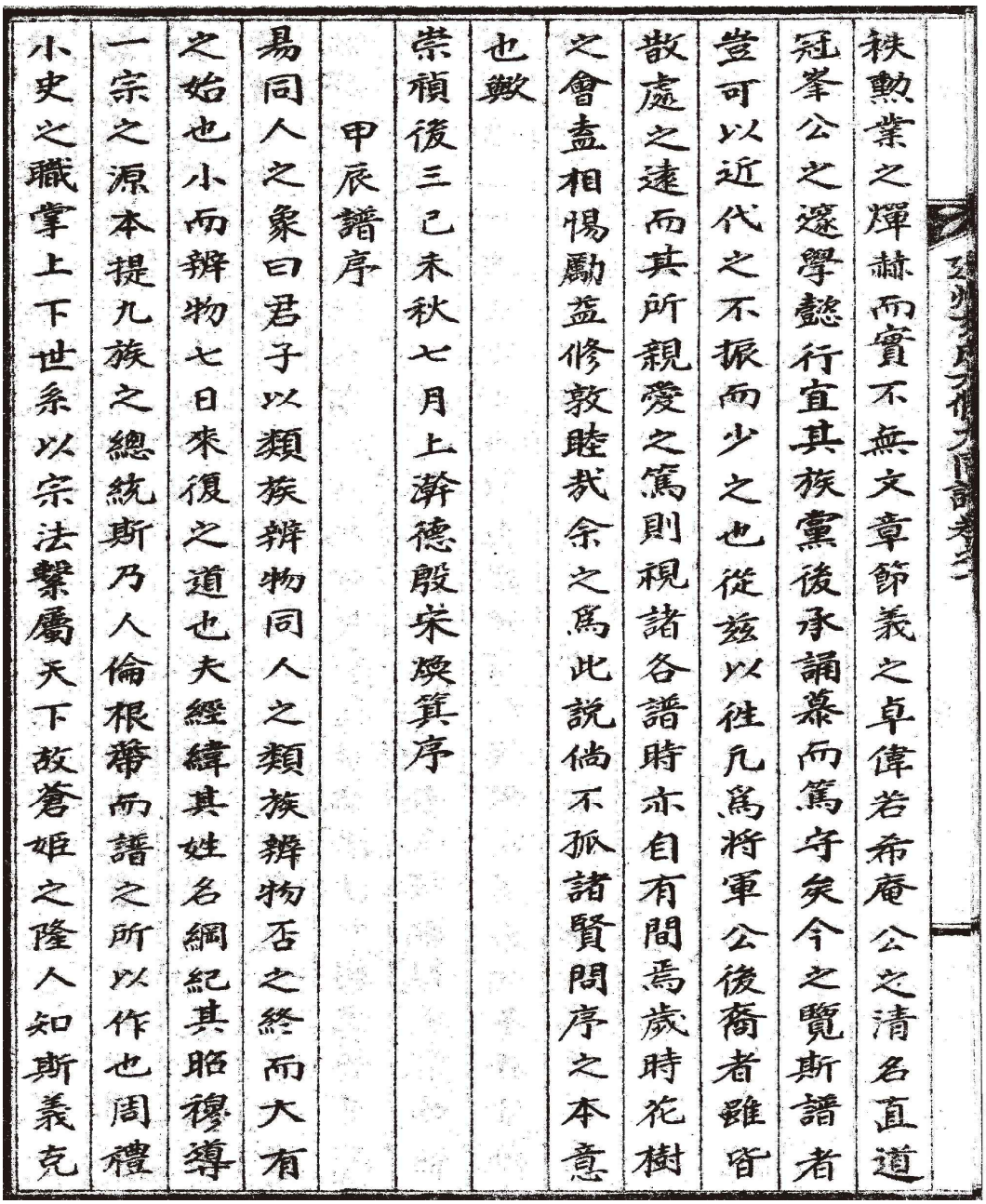
삼가 살펴보건대, 정해진 바의 사례들은 기왕에 도암(陶庵) 노인의 설을 쫓을 것이요, 서문을 쓰는 일에는 이미 구암(久庵) 노인이 쓴 문장이 있으니 참조할 만하다. 나의 재덕(才德)의 모자람을 돌아보건대, 어찌 쓸모없는 군더더기 말로 형용(形容)하리요. 사람으로서 한 집안의 족보를 분명하게 밝히는 일은 단지 종족을 한데 모이도록 하면서 풍속을 도탑게 하는 일이요, 충의(忠義)를 세워서 조정(朝廷)에 이익이 되게 하는 까닭

83) 蘇氏之說(소씨지설) : 여기서 '소씨(蘇氏)'라 함은 북송(北宋) 시대의 대학자이며 문장가인 소식(蘇軾)의 부친인 소순(蘇洵, 1009~1067)을 두고 이름이다. 소순은 〈소씨족보서(蘇氏族譜序)〉에서 언급하길, "나의 족보를 보는 자는 효제의 마음이 무럭무럭 일어날 것이다.[觀吾之譜者, 孝悌之心, 可以油然而生矣.]"라고 한 문장을 인용했다.

이다. 이번에 만들어진 보첩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한 집안의 족보가 밝게 드러남을 그 누가 부정하겠는가. 세 개의 본관을 쓰면서 제각기 씨족에 따라 나뉘었던 족보도 그 지파들이 마침내 근본 성씨의 원류로 한데 모이게 되면서 씨족의 구별 또한 더욱 분명해지게 되었다. 이번에 새로 만든 족보는 이 족보에서 내가 효제(孝悌)의 마음이 무럭무럭 일어나는 것을 알고 소식(蘇軾) 집안의 이야기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본다.

윗대의 여러 조상 가운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 (…)

【원문(原文)】



秩勳業之煇赫而實不無文章節義之卓偉若希庵公之清名直道
冠峯公之遠學懿行宜其族黨後承誦慕而篤守矣今之覽斯譜者
豈可以近代之不振而少之也從茲以往凡爲將軍公後裔者雖皆
散處之遠而其所親愛之篤則視諸各譜時亦自有間焉歲時花樹
之會盍相惕勵益修敦睦哉余之爲此說倘不孤諸賢問序之本意
也歟

崇禎後三己未秋七月上澣德殷宋煥箕序

甲辰譜序

易同人之象曰君子以類族辨物同人之類族辨物否之終而大有
之始也小而辨物七日來復之道也夫經緯其姓名綱紀其昭穆導
一宗之源本提九族之總統斯乃人倫根蔕而譜之所以作也周禮
小史之職掌上下世系以宗法繫屬天下故蒼姬之隆人知斯義克

<그림 (8)) <기미보서(己未譜序)> (2)

【판독(判讀)】

秩[84]勳業[85]之煇赫[86]　而實不無文章節義之卓偉[87]　若希庵公[88]之清名直

84) 爵秩(작질) : 작위와 봉록. 작록(爵祿).
85) 勳業(훈업) : 큰 공훈을 세우는 일.
86) 煇赫(천혁) : 위풍과 기세 등이 빛남.
87) 卓偉(탁위) : 뛰어나게 위대함.
88) 希庵公(희암공) : 현덕승(玄德升, 1564~1627, 판관공파 14세)을 두고 이름이다.　조부가 현윤무(玄允

道[89] 冠峯公[90]之邃學懿行[91] 宜其族黨後承 誦慕[92]而篤守[93]矣 今之覽斯譜者 豈可以近代之不振而少之也 從茲以徃[94] 凡爲將軍公後裔者 雖皆散處之遠 而其所親愛之篤 則視諸各譜時 亦自有間[95]焉 歲時花樹之會[96] 蓋相惕勵[97] 益修敦睦[98]哉 余之爲此說倘不孤[99] 諸賢問序之本意也歟

崇禎後三己未[100] 秋七月上澣[101] 德殷[102] 宋煥箕[103] 序

【해석(解釋)】

武)이고, 부(父)가 현숙(玄璹)이다. 조선시대 울산판관, 지평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서 광해군이 즉위하여 실정함을 보고는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학문에만 열중하였다. 저서로는 《희암유고(希菴遺稿)》 4권 2책이 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의 친분이 두터워 서신을 교환할 정도였는데, 이 가운데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란 문구가 담긴 서찰은 유명하다. 참고로 '희암(希菴)'을 호로 쓰는 다른 인물로서 채팽윤(蔡彭胤, 1669~1731)이 유명한데, 영조 즉위 이후 승지, 대사간, 병조 참판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89) 淸名直道(청명직도) : 청렴한 명성과 곧은 도(道).

90) 冠峯公(관봉공) : 관봉(冠峯) 현상벽(玄尙璧, 1673~1731)을 두고 이름이다. 현상벽은 영조 때 이름난 성리학자로서, 한수재(寒水齋)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이다. 특히 송시열(宋時烈)의 수제자이자 기호학파의 계승자인 권상하는 충청도 청풍(淸風)의 황강(黃江) 옆 한수재(寒水齋)에서 살았다. 그래서 권상하의 문하생들을 '강문(江門) 제자'라고 하였다. 그중에서 특히 저명한 여덟 명의 제자들을 '강문팔학사' 또는 '호중팔학사(湖中八學士)'라고 하였다. 강문팔학사 또는 호중팔학사는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 외암(巍巖) 이간(李柬) · 병계(屛溪) 윤봉구(尹鳳九) · 봉암(鳳巖) 채지홍(蔡之洪) · 화암(華巖) 이이근(李頤根) · 매봉(梅峯) 최징후(崔徵厚) · 추담(秋潭) 성만징(成晩徵)과 현상벽이다. 시문은 물론이고 성리학에서도 큰 성취를 이룬 현상벽은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 곧 "모든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으므로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진보적 이론을 주장하여 아산의 이간과 함께 낙론파(洛論派)로 활동하였다. 또한 유학자로서 예산 지역에서 성리학을 진작시키는 데 힘썼다. 현상벽은 영조 때 천거되어 장릉참봉 · 익위사세마를 제수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저술로 《관봉문답(冠峰問答)》, 《관봉유고(冠峰遺稿)》 등이 있다.

91) 邃學懿行(수학의행) : 학문에 정통하고 행실이 올바름. 여기서 '邃(수)'는 정통하다는 뜻을 지닌 말이다. 참고로 '邃密(수밀)'은 정통하고 치밀하다는 뜻이다.

92) 誦慕(송모) : 칭송(稱誦)하고 흠모(欽慕)하다.

93) 篤守(독수) : 돈독하게 지켜냄.

94) 從茲以徃(종자이왕) : 지금 이후로. 이제부터 앞으로는 …. 여기서 '徃(왕)'은 '往(왕)'과 동자(同字)이다.

95) 有間(유간) : 구별이 있음. 차이가 있음.

96) 花樹之會(화수지회) : '花樹(화수)'란 본래 꽃이 핀 나무를 뜻하는 말이지만, 일가끼리 친목을 다지기 위해 모이는 모임을 두고서 특별히 '花樹會(화수회)'란 말을 쓰곤 한다. 이의 유래는, 당나라 시인 잠삼(岑參)이 대종(代宗) 영태(永泰) 원년(765) 봄 좌습유(左拾遺)에 제수되어 장안(長安)에 갔을 때, 원외랑(員外郞)으로 있는 어느 위씨(韋氏) 집안의 친족들이 꽃나무 밑에서 매번 술자리를 벌이고 단란한 모임을 갖는 것을 보고 〈위원외가화수가(韋員外家花樹歌)〉를 지어 찬양한 데서 찾는다. 후세에 친족 간의 모임을 '화수회(花樹會)'라고 부른 것은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97) 惕勵(척려) : 두려워하고 위태롭게 여김. 군자가 수양하는 일을 두고 이름. 대개 '惕厲(척려)'로 표기한다.

98) 敦睦(돈목) : 친밀하고 화목함.

99) 倘不孤(당불고) : 혹 외롭지 않다.

100) 崇禎後三己未(숭정후삼기미) : 정조(正祖) 23년인 1799년임. 참고로 '숭정후(崇禎後) 1기미(己未)'는 1679년으로 숙종(肅宗) 5년이 되고, '숭정후 2기미'는 1739년으로 영조(英祖) 15년에 해당하며, '숭정후 3기미'는 1799년으로 정조(正祖) 23년이 된다. 여기서 '숭정후(崇禎後)'는 대개 '숭정기원후(崇禎紀元後)'라고 표기한다.

101) 上澣(상한) : 음력 보름 이전. 상순(上旬).

102) 德殷(덕은) : 충청도 은진(恩津)의 옛 이름이다. 송씨(宋氏)의 본향이 은진(恩津)이기도 하다.

103) 宋煥箕(송환기) : 송환기(宋煥箕, 1728~1807)는 조선 후기 공조판서, 의정부 우찬성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학자로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5대손이다. 자(字)는 자동(子東)이고 호는 심재(心齋) 혹은 성담(性潭)이다. 저서로 《성담집(性潭集)》이 있다.

비록 벼슬길에 오르고 공을 세우는 혁혁한 업적이 있진 못하더라도 실로 문장(文章)과 절의(節義)에 탁월한 이가 없지는 않다. 예컨대 희암(希庵)공 현덕승(玄德升)은 청렴한 명성과 곧은 도로 잘 알려진 인물이고, 관봉(冠峯)공 현상벽(玄尙璧)은 학문에 정통하고 행실의 올바름으로 유명하다. 의당 족당의 후손들은 칭송하고 흠모할 뿐만 아니라 돈독하게 지켜내야 할 것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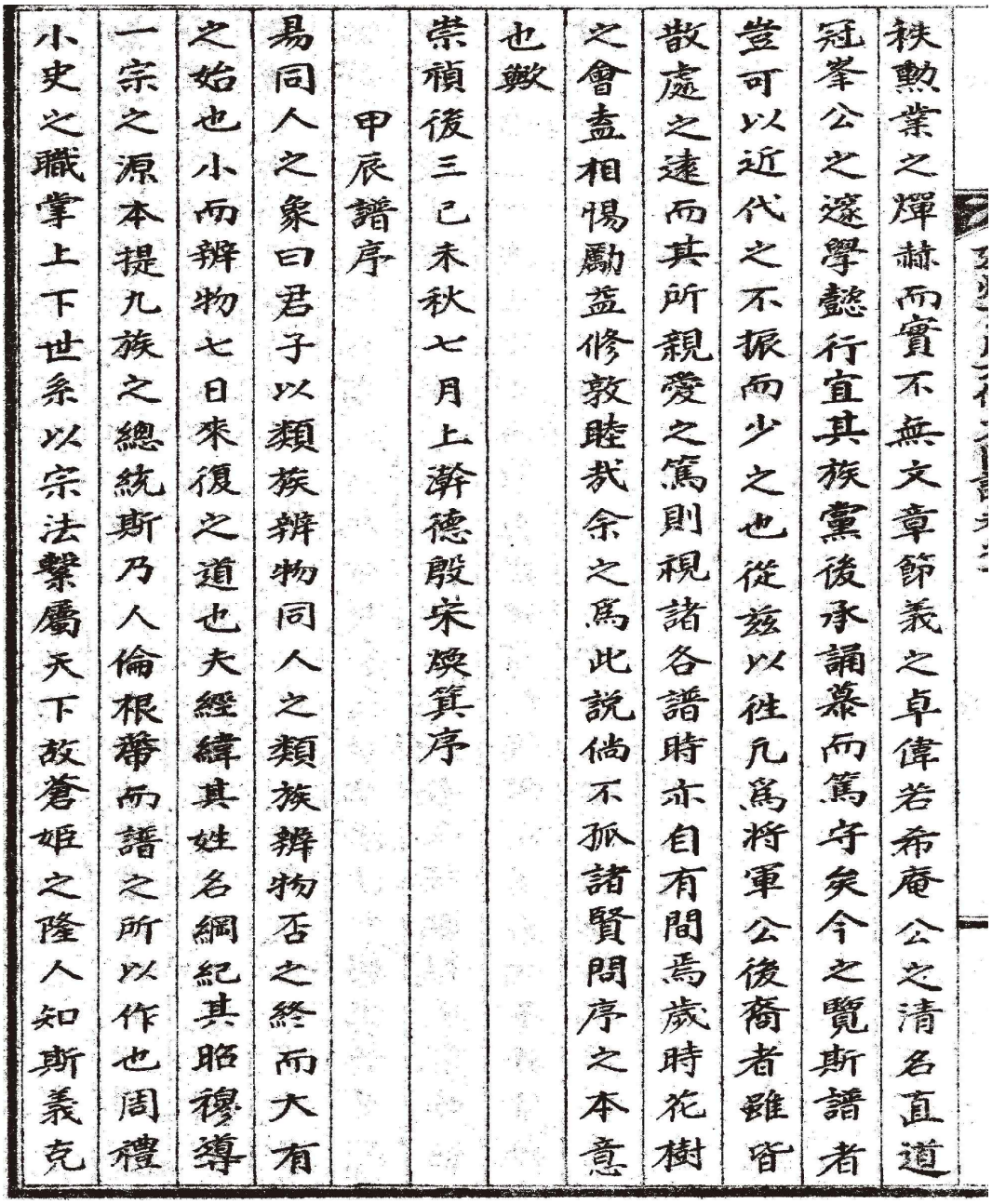
이제 오늘의 이 족보를 열람하는 사람이라면, 근대에 와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이가 적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후로 무릇 장군공의 후예가 된 이들은, 비록 흩어져 멀리 떨어져 산다 해도 친애(親愛)하는 정을 돈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제각기 족보를 보게 될 때는 절로 지위 고하의 차별도 나타날 것이다. 해마다 열리는 친목 모임인 화수회(花樹會)를 통해 대개 서로의 걱정거리를 떨쳐버리고, 더욱 친밀하고 화목함을 닦아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짓는 데 있어 다만 여러 제현에게 서(序)를 물었던 본의(本意)를 저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세 번째 기미(己未, 1799)년 추(秋) 7월 상순,
덕은(德恩) 송환기(宋煥箕)는 서(序)하다.

④ 삼수보(三修譜) -《갑진보(甲辰譜)》; 헌종 10년(1844)

【원문(原文)】


秩勳業之煇赫而實不無文章節義之卓偉若希庵公之清名直道
冠峯公之邃學懿行宜其族黨後承誦慕而篤守矣今之覽斯譜者
豈可以近代之不振而少之也從茲以往凡爲將軍公後裔者雖皆
散處之遠而其所親愛之篤則視諸各譜時亦自有間焉歲時花樹
之會盍相惕勵益修敦睦哉余之爲此說倘不孤諸賢問序之本意
也歟
崇禎後三己未秋七月上澣德殷宋煥箕序

甲辰譜序

易同人之象曰君子以類族辨物同人之類族辨物否之終而大有
之始也小而辨物七日來復之道也夫經緯其姓名綱紀其昭穆導
一宗之源本提九族之總統斯乃人倫根蔕而譜之所以作也周禮
小史之職掌上下世系以宗法繫屬天下故蒼姬之隆人知斯義克

<그림 (9)> <갑진보서(甲辰譜序)> (1)

【판독(判讀)】

甲辰譜序

易同人之象曰 君子以類族辨物[104] 同人之類族辨物 否之終而大有之始也 小而辨物七日來復[105]之道也 夫經緯[106]其姓名 綱紀[107]其昭穆[108] 導一宗之源本 提九族[109]之總統[110] 斯乃人倫根蒂[111] 而譜之所以作也 周禮 小史之職掌[112] 上下世系[113]以宗法繫屬天下 故蒼姬[114]之隆 人知斯義 克

【해석(解釋)】

<갑진보서(甲辰譜序)>

《주역(周易)》 <동인괘(同人掛) · 상전(象傳)>에서 일컫기를, “하늘과 불은 동인(同人)이니, 군자는 이로써 족속(族屬)을 유별(類別)하고, 사물을 구별한다.[天與火同人 君子以類族辨物]”라고 했다. 동인(同人)이 족속을 유별하고 사물을 구별함이란 비괘(否掛)의 마침이요 대유괘(大有掛)의 시작으로서 작게는 사물을 구별함이 칠일 만에 와서 회복한다는 말이다. 무릇 경위(經緯)는 그 성씨와 이름이요, 강령(綱領)은 그 소목(昭穆)일지라. 한 종족을 본원(本源)으로 이끌면서 구족(九族)을 총괄해 다스릴 수 있도록 끌어당김은 이게 바로 인륜의 근저(根柢)로서 족보를 만드는 까닭이다.

《주례(周禮)》에서 소사(小史)는 직무상 천하에 대대로 계승하는 위아래 신분의 혈통을 연계(連繫)해 복속(服屬)시키는 일을 관장했기에 곧 주(周)

---

104) 類族辨物(유족변물) : 족속(族屬)을 유별(類別)하고 사물을 분별함.

105) 七日來復(칠일래복) : 칠일 만에 와서 회복한다. 《주역》 <복괘(復卦)>에 보면, “복은 형통하여 나가고 들어옴에 병이 없어서 벗이 와야 허물이 없으리라. 그 도를 반복하여 7일 만에 와서 회복하니,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復 亨 出入无疾 朋來无咎 反復其道 七日來復 利有攸往〕”라고 하였다. 한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英祖) 15년 7월 11일>조에 보면, 《주역(周易)》 <복괘(復卦)>를 전강(殿講)하는 자리에서 임금이 ‘七日來復(칠일래복)’의 뜻을 묻자, 부사정 이창유(李昌儒)가 “괘는 여섯 효가 있기 때문에 일곱 번째 효에 이르러야 회복된다는 뜻입니다.”라고 아뢴 대목이 있다. 참고로 여기서 칠일(七日)은 칠월(七月)의 뜻으로 쓰여 7개월 만에 양효(陽爻)가 아래에서 생겨남을 이르는 말로서 음력 4월에서 11월 동지 때까지 일곱 번 변화하여 복괘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106) 經緯(경위) : 직물의 날줄과 씨줄. 조리와 질서의 비유.

107) 綱紀(강기) : 법도. 또는 강상(綱常). 다스림. 강령(綱領).

108) 昭穆(소목) : 종묘나 사당에 신주를 모시는 차례. 시조를 중앙에 두고, 2세 · 4세 · 6세를 시조의 왼쪽에 두는데 이를 ‘昭(소)’라 하고, 3세 · 5세 · 7세를 시조의 오른쪽에 두는데 이를 ‘穆(목)’이라 함. 또는 같은 종족(宗族)을 뜻하기도 함.

109) 九族(구족) : 고조(高祖) · 증조(曾祖) · 조부(祖父) · 부(父) · 자기[余] · 자(子) · 손(孫) · 증손(曾孫) · 현손(玄孫)의 친속.

110) 總統(총통) : 총괄하여 다스림.

111) 根蒂(근체) : 뿌리와 꼭지. 사물의 바탕이나 기초의 비유. 근저(根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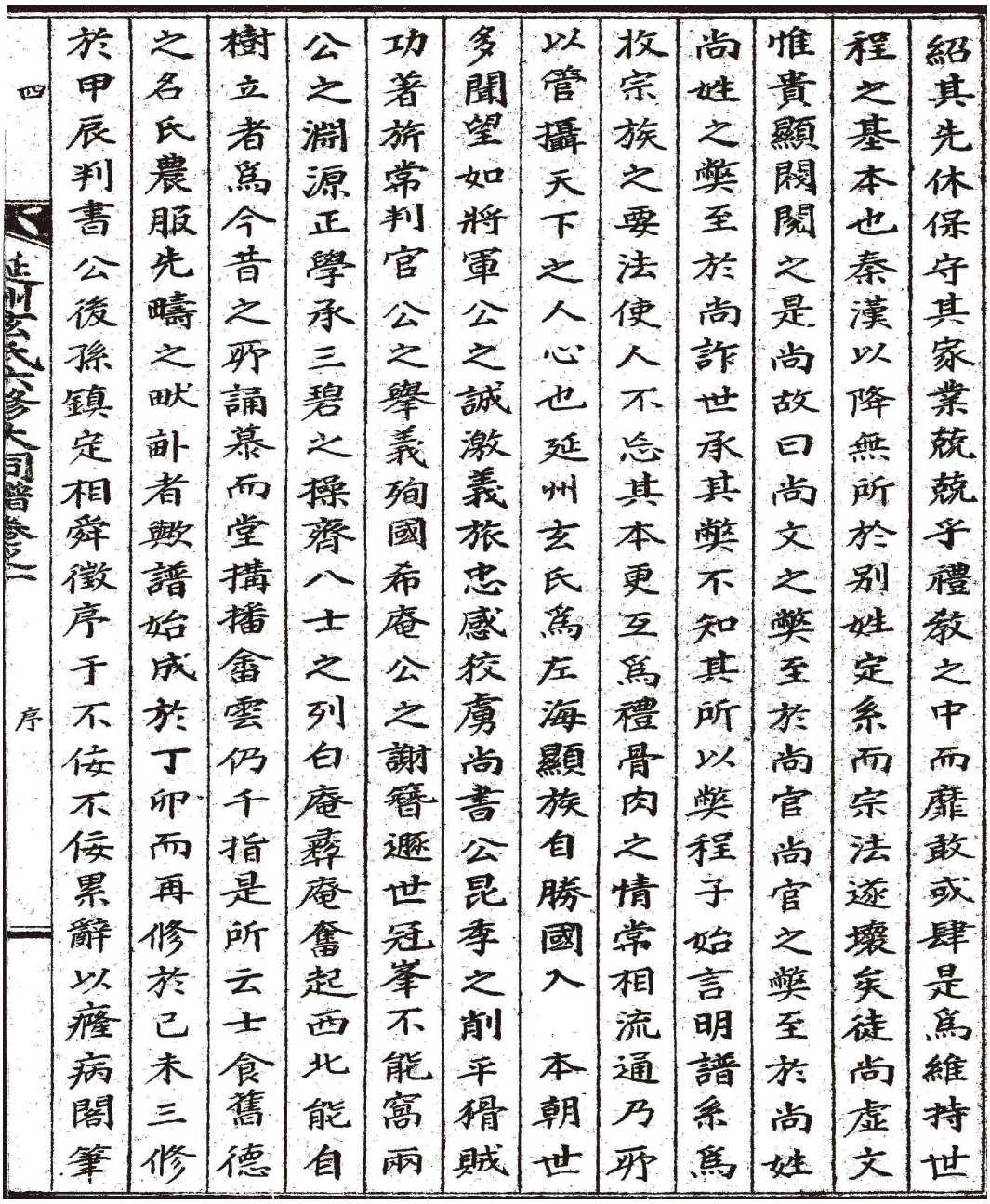
112) 職掌(직장) : 직무를 관장함. 직무상의 분장(分掌).

113) 世系(세계) : 대대의 계통(系統). 대대로 계승하는 혈통(血統). 세통(世統).

114) 蒼姬(창희) : 중국 주(周)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주나라는 푸른색[蒼]을 숭상하고 성(姓)이 희씨(姬氏)였기 때문이다.

나라의 융성함을 내보이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러한 대의(大義)를 알아서 (…)

【원문(原文)】


紹其先休保守其家業兢兢乎禮敎之中而靡敢或肆是爲維持世
程之基本也秦漢以降無所於別姓定系而宗法遂壞矣徒尙虛文
惟貴顯閥閱之是尙故曰尙文之弊至於尙官尙官之弊至於尙姓
尙姓之弊至於尙詐世承其弊不知其所以弊程子始言明譜系爲
收宗族之要法使人不忘其本更互爲禮骨肉之情常相流通乃所
以管攝天下之人心也延州玄氏爲左海顯族自勝國入　本朝世
多聞望如將軍公之誠激義旅忠感校虜尙書公昆季之削平猾賊
功著旂常判官公之擧義殉國希庵公之謝簪遯世冠峯不能窩兩
公之淵源正學承三碧之操齊八士之列白庵葬庵奮起西北能自
樹立者爲今昔之所誦慕而堂構播畬雲仍千指是所云士食舊德
之名氏農服先疇之畎畝者數譜始成於丁卯而再修於己未三修
於甲辰判書公後孫鎭定相辭徵序于不佞不佞累辭以癃病閣筆
四
延州玄氏多大司諫參之二
序

<그림 (10)> <갑진보서(甲辰譜序)> (2)

【판독(判讀)】

紹[115]其先休[116] 保守其家業兢兢乎 禮敎之中而靡敢或肆是爲維持 世程之其本也 秦漢以降 無所於別姓定系 而宗法遂壞矣 徒尙虛文[117] 惟貴顯[118]閥閱[119]之是尙 故曰 尙文之弊[120] 至於尙官 尙官之弊 至於尙姓 尙姓之弊 至於尙許[121] 世承其弊 不知其所以弊 程子始言[122]明譜系 爲收宗族之要法 使人不忘其本 更互[123]爲禮 骨肉之情[124] 常相流通 乃所以管攝[125]天下之人心也 延州玄氏爲左海[126]顯族[127] 自勝國[128]入本朝 世多聞望[129]如將軍公[130]之誠激義旅[131] 忠感狡虜 尙書公[132]昆季之削平猾賊 功著旂常[133] 判官公[134]之擧義殉國 希庵公[135]之謝簪遯世[136] 冠峯[137]不能窩[138]

---

115) 克紹(극소) : 훌륭하게 계승함.
116) 先休(선휴) : 선조의 아름다운 공.
117) 徒尙虛文(도상허문) : 형식적인 제도만 숭상함.
118) 貴顯(귀현) : 신분이 높고 세상에 이름이 알려짐. 또는 그런 사람.
119) 閥閱(벌열) : 공적(功績)과 경력(經歷).
120) 尙文之弊(상문지폐) : 문채(文彩)를 숭상한 듯한 폐단.
121) 許(허) : 무엇. '許(허)'는 본래 '허락하다', '혹시' 등의 뜻이 있으나 여기선 '무엇'이란 의미로 쓰였다.
122) 程子始言(정자시언) : 정자(程子)가 비로소 말하였다. 정자(程子)는 송(宋)나라 유학자 정호(程顥) 또는 정이(程頤)를 높여 칭하는 말로, 둘을 아울러 이정(二程)이라 일컫기도 한다. 《근사록(近思錄)》에 보면, "정자가 말씀하시길, 천하의 인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종족을 거두고 풍속을 후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근본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계보(系譜)를 밝히고 세족을 거두며 종자(宗子)에 관한 법을 세워야 한다.[程子曰 管攝天下人心 收宗族 厚風俗 使人不忘本 須是明譜系 收世族 立宗子法]"라고 했다.
123) 更互(경호). 번갈아. 교호(交互).
124) 骨肉之情(골육지정) : 부자 · 형제와 같이 서로 피를 나눈 사이의 정.
125) 管攝(관섭) : 관할하고 통제함.
126) 左海(좌해) : 바다의 동쪽에 삶. 동쪽 바다. 중국인의 시각에서 조선이란 나라는 바다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 그렇게 불렸으며, 아울러 동국(東國)이란 말은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127) 顯族(현족) : 명성이 있는 세족(世族).
128) 勝國((승국) : 망한 나라. 후에는 전대(前代)의 왕조를 일컬음. 이를테면 조선에 있어서 '승국'이라 함은 결국 고려(高麗)를 지칭하는 셈이 된다.
129) 聞望(문망) : 명성과 인망(人望).
130) 將軍公(장군공) : 시조인 현담윤(玄覃胤)을 지칭함. 북송 때 여진족이 침입하자 고려에 원병을 요청했는데, 이때 현담윤(玄覃胤)을 원병 대장군으로 임명 출정시켰기에 '장군공(將軍公)'이란 호칭이 생겨났다.
131) 義旅(의려) : 의로운 군사.
132) 尙書公(상서공) : 성산군(星山君) 현덕수(玄德秀)를 지칭함. 그의 마지막 관직명이 병부상서(兵部尙書)였기에 상서공(尙書公)으로 불리게 되었다.
133) 旂常(기상) : 왕후(王侯)를 상징하는 기(旗).
134) 判官公(판관공) : 통훈대부 전주판관을 역임한 현득리(玄得利)를 두고 이름인데, 연주현씨 10세손이다. 세조 13년(1467) 5월에 함경북도 길주에서 이시애(李施愛)가 난을 일으키자, 의병을 일으켜 난리를 진압하다가 목숨을 바친 인물이다. 판관공파 중시조이다.
135) 希庵公(희암공) : 유명한 성리학자인 현덕승(玄德升)을 두고 이름이다.
136) 謝簪遯世(사잠둔세) : 벼슬을 사양하고 세상을 피하여 숨어서 삶. 여기서 '簪(잠)'은 비녀의 뜻으로서 특히 관리가 되어 관에 꽂는 비녀를 말함인데, '謝簪(사잠)'이란 벼슬을 사양함의 뜻이다.
137) 冠峯(관봉) : 관봉(冠峯) 현상벽(玄尙璧)을 두고 이름이다. 현상벽은 영조 때 이름난 성리학자로서, 한수재(寒水齋)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이기도 하다.
138) 不能窩(불능와) : 현수중(玄守中, 1692~1733). 판관공파 19세이며 삼벽당 현약호(玄若昊)의 아들이다. 양주 석실에서 김창협, 김창흡 등에게 학문을 익혔음. 여기서 '窩(와)'라는 글자는 장물이나 도둑 따위를 숨기다는 뜻이다. 따라서 '不能窩(불능와)'란 '숨길 수 없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

兩公之淵源正學 承三碧[139]之操 齊八士[140]之列 白庵[141] 彝庵[142] 奮起西北 能自樹立者 爲今昔之所誦慕 而堂構[143]播畬 雲仍[144]千指 是所云 士食舊德之名氏 農服先疇之畎畝[145]者歟 譜始成於丁卯 而再修於己未 三修於甲辰 判書公後孫 鎭定[146] 相舜[147] 徵[148] 序于不佞[149] 不佞累辭以癃病[150] 閣筆[151]

【해석(解釋)】

선조의 아름다운 공을 잘 이어받아야 하리라. 가업(家業)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워하고, 예교(禮敎) 가운데서 방자함을 잃지 않도록

---

139) 三碧(삼벽) : 삼벽당(三碧堂) 현약호(玄若昊, 1657~1709)를 두고 이름이다. 삼벽당은 세 가지가 푸른 집이라는 뜻으로, 현약호가 자기가 사는 집이 위치한 구림리의 사시사철 푸른빛을 띠고 무성하게 자란 참대, 소나무, 측백나무의 의미를 취해 자신이 붙인 호이다. 전라도 영암(靈巖) 월출산(月出山)의 동쪽 구림리에서 살았는데, 김수항(金壽恒)이 숙종 1년(1675)에 영암으로 유배되어 귀양살이하면서 3년 동안 현징(玄徵, 현약호의 백부이자 양부)의 집에 묵었는데, 김창협(金昌協) 형제들이 아버지를 뵈러 그곳에 자주 왕래하면서 그들과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김창협의 《농암집(農巖集)》(제21권) <서(序)>편에 보면, '현생 약호(玄生若昊)에게 준 서(序)'가 실려 있고, 김창흡(金昌翕)의 《삼연집(三淵集)》(24권) <기(記)>편에 보면, '삼벽당기(三碧堂記)'가 실려 있기도 하다.

140) 八士(팔사) : 팔학사(八學士). 곧 한수재(寒水齋) 권상하(權尙夏,1641~1721, 성리학자 송시열의 수제자)의 문하생들을 '강문(江門) 제자'라고 불렀는데, 그중에서 특히 저명한 여덟 명의 제자들을 '강문팔학사' 또는 '호중팔학사(湖中八學士)'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관봉(冠峯) 현상벽(玄尙璧)을 비롯해,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 외암(巍巖) 이간(李柬) · 병계(屛溪) 윤봉구(尹鳳九) · 봉암(鳳巖) 채지홍(蔡之洪) · 화암(華巖) 이이근(李頤根) · 매봉(梅峯) 최징후(崔徵厚) · 추담(秋潭) 성만징(成晩徵) 등이 포함된다.

141) 白庵(백암) : 현이규(玄以規, 1641~1706, 판윤공파 22세). 족보에 보면, 자가 자강(自强)이고 호가 백암(白庵)이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선생의 문인으로 학행이 뛰어나 특히 관북(關北) 지방에서 유명하였다. 문집으로 《백암집(白庵集)》이 있다.

142) 彝庵(이암) : 현봉겸(玄鳳謙, 1709~1778). 족보에 보면, 자가 계진(季眞)이고 호가 이암(彝庵)으로 연주현씨 첨정공파 17세손이다. 세 아들을 두었는데, 현재묵(玄在默)과 현재덕(玄在德), 그리고 현재학(玄在學)이다.

143) 堂構(당구) : 조상(祖上)의 유업(遺業)을 계승함의 비유. 당구(堂構)의 본래 뜻은 집터를 닦고, 집을 지음이다.

144) 雲仍(운잉) : 운손(雲孫)과 잉손(仍孫). 매우 먼 대(代)의 후손. 본래 운손(雲孫)은 8대째의 손자를, 잉손(仍孫)은 7대손을 지칭하는 말임.

145) 士食(사식) … 畎畝(견묘) : "선비들은 선대의 덕(德)의 명호(名號)와 지위를 누리고, 농부들은 선인(先人)들의 전답을 경작하네.[士食舊德之名氏 農服先疇之畎畝]" 이 구절은 반고(班固)의 <서도부(西都賦)>에 실려 전하는 문구인데, 《문선(文選)》(1권)에 있다. 여기서 구덕(舊德)은 선대(先代)의 공덕(功德)을, 명씨(名氏)는 명호(名號)와 지위(地位)를, 복(服)은 경작하다를, 선주(先疇)는 선인(先人)을, 견무(畎畝)는 전답(田畓)을 제각기 뜻하는 말들이다. 곧 "나라가 찬란하게 흥성하니 백성들이 각기 마땅한 지위를 얻는다.[粲乎隱隱 各得其所]"란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들 가운데 그 일부로 소개된 것이다.

146) 鎭定(진정) : 현진정(玄鎭定, 1781~?). 족보에 보면, 자는 자안(子安)이고, 판관공파 21세이다.

147) 相舜(상순) : 현상순(玄相舜, 1798~1854). 자는 성우(聖宇), 호는 망북헌(望北軒)이며 판관공파 23세이다.

148) 徵(징) : 현징(玄徵). 족보에서 확인이 안된다. 1844년에 현진정, 현상순과 함께 홍직필을 찾아가서 갑진보 서문을 부탁했다..

149) 不佞(불녕) : 재주가 없음. 또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 보통 문장에서 일인칭인 '나'를 표현하는 겸사(謙辭)로 자주 쓰임.

150) 癃病(융병) : 노쇠하고 병듦.

151) 閣筆(각필) : 붓을 놓음. 쓰던 일을 그만둠.

하는 수고로움의 유지야말로 세상 법도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진(秦) · 한(漢) 이래로 성씨를 구별함이나 계파를 판정함이 없었기에 종법(宗法)이 마침내 파괴되고 말았다. 형식적인 제도만 숭상하고, 단지 부귀와 영달이나 공적과 경력만을 높게 사는 풍조가 있었기에 번지르르한 문채(文彩)만 숭상하는 폐단이 널리 퍼진 것이다. 벼슬을 숭상하면 '상관의 폐단[尙官之弊]'이라 말하고, 성씨를 숭상하면 '상성의 폐단[尙姓之弊]'이라 이르게 되면서, 무엇인가를 숭상하게 되면 대대로 이어받은 폐단이 되어버리는 꼴이어서 그 폐단의 원인을 알지 못할 것이다. 정자(程子)가 비로소 족보의 계통을 분명히 말하면서, 종족을 수합(收合)하는 중요한 법이 되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근본을 잊지 않게 하면서 번갈아 예가 되고, 혈육(血肉)의 정이 항상 서로 흐르고 통하면서 마침내 천하의 인심을 관활하고 통제하는 방법이 되었다.

연주현씨 집안은 동쪽 바다에서 명망이 있는 세족(世族)으로서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에 들어와서까지 대대로 그 명성과 인망(人望)이 높았다. 이를테면 장군공(將軍公) 같은 이는 의병의 군사들을 참으로 분기(奮起)시켜 그 충성스러움이 교활한 오랑캐들을 감복시켰는가 하면, 상서공(尙書公)과 아우형제들은 교활한 적의 무리들을 평정하여 그 공적이 기상(旂常)에까지 드러났다. 특히 조선에 들어와선 이시애의 난 당시 판관공(判官公)이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 순국했는가 하면, 희암공(希庵公)이 벼슬을 사양하고 세상을 피해서 은둔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 관봉(冠峯)과 불능와(不能窩) 두 분 공의 연원(淵源) 깊은 바른 학문은 삼벽당(三碧堂)의 절조(節操)를 이어받았는가 하면, 팔학사(八學士)의 반열에 나란히 늘어설 정도였다. 백암(白庵) · 이암(彝庵) 공 같은 분들이 관북(關北) 지역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스스로 학문을 이룩할 수 있었음은 그 칭송하고 흠모하는 바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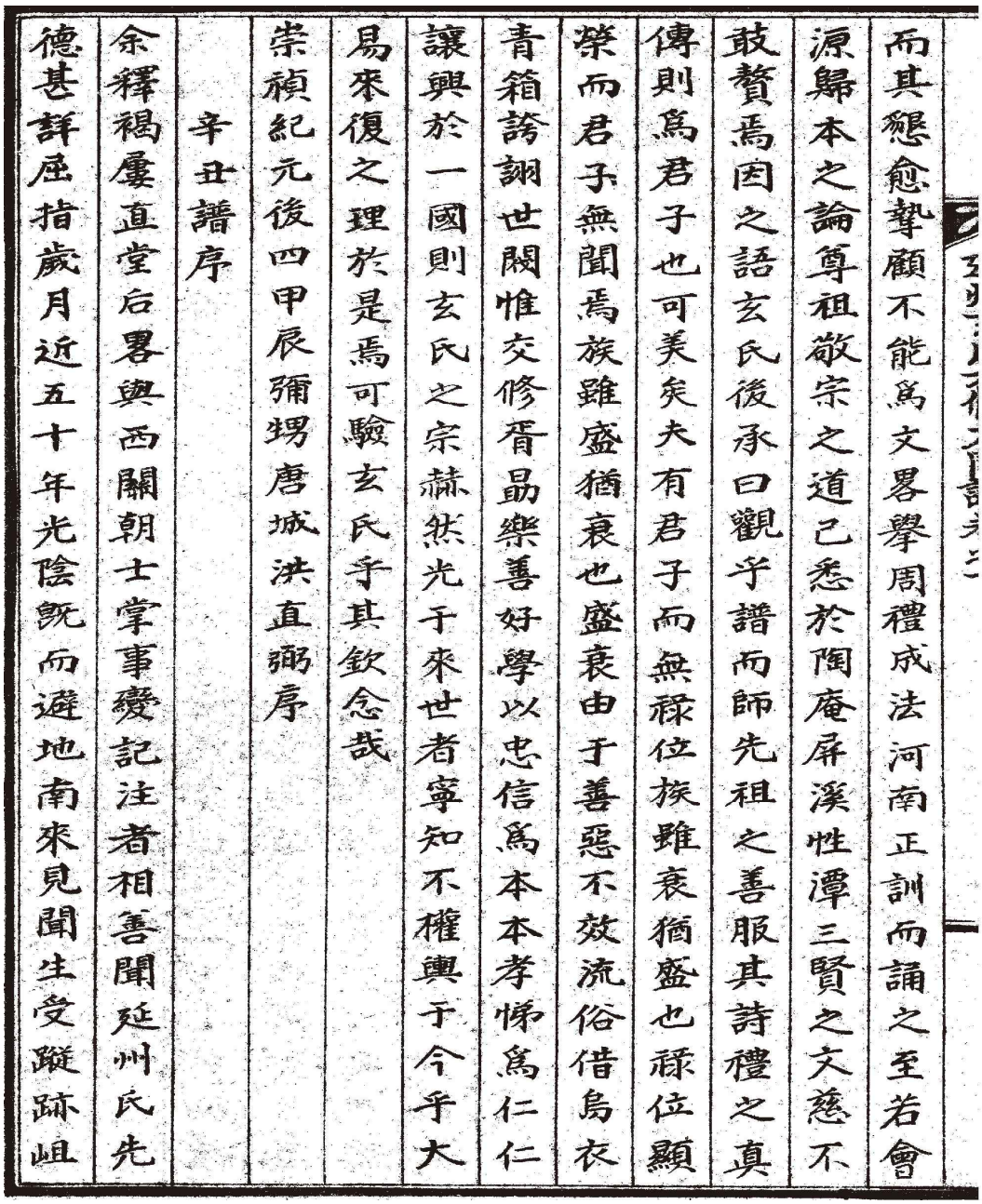
이렇듯 조상의 유업을 계승함의 일들이란 마치 농부가 씨앗을 파종하고 화전을 일구어내듯이 운손(雲孫)과 잉손(仍孫)의 불어남이 천(千) 손가락을 꼽을 정도이다. 이는 이른바 반고(班固)란 사람이 <서도부(西都賦)>

를 지어 노래한 가운데, “선비들은 선대의 덕(德)의 명호(名號)와 지위를 누리고, 농부들은 선인(先人)들의 전답을 경작하네.[士食舊德之名氏 農服先疇之畎畝]”라고 한 대목을 일컫는 말일 것이다.

연주현씨의 족보가 처음 만들어진 게 지난 정묘(丁卯, 1747)년 때였고, 그 뒤로 기미(己未, 1799)년에 재수(再修)를, 갑진(甲辰, 1844)년에 삼수(三修)의 작업을 벌인 바 있었다.

판서공(判書公)의 후손인 현진정(玄鎭定)ㆍ현상순(玄相舜)ㆍ현징(玄徵) 등 세 사람이 재주가 없는 이 사람을 찾아와 서문을 부탁했다. 내가 병석에 누워있는 몸이라서 여러 번 사양하면서 붓을 놓을 수밖에 없음을 (…)

【원문(原文)】



而其懇愈摯顧不能爲文畧擧周禮成法河南正訓而誦之至若會
源歸本之論尊祖敬宗之道已悉於陶庵屛溪性潭三賢之文慈不
敢贅焉因之語玄氏後承曰觀乎譜而師先祖之善服其詩禮之真
傳則爲君子也可美矣夫有君子而無祿位族雖衰猶盛也祿位顯
榮而君子無聞焉族雖盛猶衰也盛衰由于善惡不效流俗借烏衣
青箱誇詡世閥惟交修胥勗樂善好學以忠信爲本本孝悌爲仁仁
讓興於一國則玄氏之宗赫然光于來世者寧知不權輿于今乎大
易來復之理於是焉可驗玄氏乎其欽念哉
崇禎紀元後四甲辰彌甥唐城洪直弼序

辛丑譜序

余釋褐屢直堂后畧與西關朝士掌事變記注者相善聞延州氏先
德甚詳座指歲月近五十年光陰旣而避地南來見聞生受蹤跡岨

<그림 (11)> <갑진보서(甲辰譜序)> (3)

【판독(判讀)】

而其懇愈摯顧不能 爲文畧擧 周禮成法[152] 河南正訓[153] 而誦之 至若會源

152) 成法(성법) : 정해진 법률. 일정한 규칙. 현재의 판례.

歸本[154]之論 尊祖敬宗[155]之道 已悉於陶庵[156] 屛溪[157] 性潭[158] 三賢之文 慈 不敢贅焉 因之語玄氏後承曰 觀乎譜而 師先祖之善 服其詩禮之眞傳 則爲君子也可美矣 夫有君子而無祿位 族雖衰猶盛也 祿位顯榮[159]而君子無聞焉 族雖盛猶衰也[160] 盛衰由于善惡 不效流俗[161] 借烏衣[162]靑

153) 河南正訓(하남정훈) : 하남(河南)의 바른 가르침. 여기서 하남(河南)이란 본래 중국의 하남성(河南省)을 지칭함인데, 하남의 대표적 철학자 북송대의 이정(二程)의 학설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이정이란 명도선생(明道先生)으로 불리는 정호(程顥, 1032~1085)와 이천선생(伊川先生)으로 불리는 정이(程頤, 1033~1107)의 형제를 함께 지칭한다.

정호(程顥)는 중국 송(宋)나라 도학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성리학과 양명학 원류의 한 사람으로서 자는 백순(伯淳)이고 시호(諡號)는 순공(純公)이며, 명도선생(明道先生)으로 호칭되었다. 대대로 중산(中山)에 거주하였으나 후에 하남(河南)에 이주하였다. 부친 향(珦)은 지방관이었을 당시 주돈이(周敦頤)를 알아 정호, 정이 형제를 그에게 배우게 하였다고 한다. 진사에 급제한 후 지방관으로 활약하다가 1070년 경에 여공저(呂公著)의 추천으로 중앙정부에 들어갔는데, 왕안석의 신법(新法)이 거론되자 의견을 달리하여 직을 떠나 지방관으로 지냈다. 그 성격은 온후 관대하여 동생 이천이 이론적이며 준엄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명도사상(明道思想)의 특색은 인설(仁說) · 성론(性論)인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역적논리(易的論理)의 전개로서의 형이상적 사유이다. 한 살 어린 아우 정이(程頤)와 더불어 이정자(二程子)라 일컫고 그들의 학설을 '정학(程學)'이라 부르며 주자(朱子)의 학설과 함께 '정주학(程朱學)'이라 부르기도 한다. 인종(仁宗) 명도(明道) 원년(元年)에 나서 신종(神宗) 원풍(元豊) 8년(1085)에 54세로 죽었다. 이에 비해 정이(程頤)는 중국 북송(北宋) 때의 성리학자(性理學者)로 북송오자(北宋五子)의 한 사람인데, 자(字)는 정숙(正叔)이고 이천백(伊川伯)에 봉해졌으므로 이천선생(伊川先生)으로 불리었다. 하남(河南) 낙양(洛陽) 출신이다. 정호(程顥; 程明道)의 아우로서 정호와 함께 이정(二程), 또는 이정자(二程子)라 불리며, 오랜 기간 낙양(洛陽)에서 강학하였으므로 그들의 학문을 '낙학(洛學)'이라고 한다.

154) 會源歸本(회원귀본) : 근원(根源)에 모이고, 근본(根本)으로 돌아감.

155) 尊祖敬宗(존조경종) : 조상을 높이고, 종자(宗子)를 공경함. 또는 조(祖)를 높이기 위해서 종(宗)을 공경하는 의리.

156) 陶庵(도암) : 영조 때 학자였던 판서(判書) 이재(李縡, 1680~1746)를 두고 이름이다. 본관은 우봉(牛峯), 자는 희경(熙卿), 호는 도암(陶庵)·한천(寒泉), 시호는 문정(文正)이고 진사 이만창(李晩昌)의 아들이다. 김창협의 문인으로, 1702년 알성 문과에, 1707년 문과 중시(文科重試)에 급제하였다. 18세기 학문과 사상 논쟁인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한 낙론(洛論) 계열의 대표적 인물이다. 저서로는 《도암집(陶庵集)》, 《도암과시(陶庵科詩)》, 《사례편람(四禮便覽)》, 《어류초절(語類抄節)》 등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157) 屛溪(병계) : 윤봉구(尹鳳九, 1681~1767)를 가리킨다.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서응(瑞膺), 호는 병계(屛溪),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이며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의 한 사람이다.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호론의 중심인물로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하였다. 장령, 집의, 대사헌, 공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저서에 《병계집》이 있다.

158) 性潭(성담) : 조선 정조(正祖)~순조(純祖) 때의 문신이자 학자인 송환기(宋煥箕, 1728~1807)를 두고 이름이다. 자(字)가 자동(子東)이고 호는 성담(性潭), 심재(心齋)이다. 본관은 은진(恩津)으로 송시열(宋時烈)의 5대손이면, 송능상(宋能相)의 문인이기도 한 그는 우찬성(右贊成) 등을 지냈는데, 학덕을 겸비하여 조야의 존경을 받았으며, 시문집으로 《성담집(性潭集)》이 있다.

159) 顯榮(현영) : 입신출세하여 영화를 누림. 흥왕하고 번영함.

160) 夫有君子(부유군자) … 族雖盛猶衰也(족수성유쇠야) : "무릇 군자의 덕을 지니고 있으면서 봉록과 지위가 없으면 그 종족은 쇠락했더라도 번성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봉록과 지위가 영광스러워도 군자라는 명망이 없으면 그 종족은 비록 번성했다 해도 쇠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夫有君子而無祿位 族雖衰猶盛也 祿位顯榮而君子無聞焉 族雖盛猶衰也]" 이 문장은 명(明)나라 학자인 방효유(方孝孺, 1357~1402)란 사람이 말한 바를 인용한 것이다. 그가 "불후(不朽)의 바탕이 입덕(立德)과 입공(立功) 일진대, 공덕이 없으면 어찌 족보를 숭상하겠는가?"라고 한 뒤 이어졌던 표현이다. 참고로 방효유는 자가 희고(希古)이고 호가 손지(遜志)이다. 태조(太祖) 연간에 한중부 교수(漢中府敎授)가 되어 제생(諸生)을 가르쳤고, 촉 헌왕(蜀獻王)의 초빙을 받아 세자사(世子師)가 되었는데, 그의 집을 정학(正學)이라 불러서 제자들이 그를 정학 선생이라 불렀다. 혜제(惠帝) 때에 시강학사(侍講學士)가 되었는데, 후일의 성조(成祖), 즉 연왕(燕王)이 모반(謀叛)하여 군대를 일으켜서 도성(都城)을 함락하고 방효유를 체포하여 성조의 등극(登極)을 반포하는 조서(詔書)를 초하도록 강요하였으나 이를 끝까지 거부하여

箱[163] 誇詡[164]世閥 惟交修[165]胥勗[166] 樂善好學[167] 以忠信爲本 本孝悌爲仁 仁讓[168]興於一國 則玄氏之宗 赫然[169]光于來世者 寧知不權輿[170]于今乎 大易來復之理[171] 於是焉可驗 玄氏乎其欽念[172]哉

崇禎 紀元後四 甲辰[173] 彌甥[174] 唐城 洪直弼序

【해석(解釋)】

간절히 간청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글로써 대략 내보임에 있어 《주례(周禮)》의 일정한 규칙과 하남(河南) 이정(二程) 선생의 바른 가르침을 들어 그것을 칭송했다. 그런데 '근원에 모이고, 근본으로 돌아감[會源歸本]'을 논의함에 이르러서는, 조상을 높이고 종자(宗子)를 공경하는 도리에 맞아야 할 것이라. 앞서 이미 도암(陶庵) · 병계(屛溪) · 성담(性潭)의 세 어진 분들의 문장으로 자상(慈祥)하게 서술되었기에 쓸모없이 군더더기 말을 하진 않겠다. 다만 현씨 후손들에게 몇 마디 말을 덧붙인다면, 족보를 펼쳐볼 때마다 선조의 선행을 스승 삼아 본받으면서 시(詩)와 예(禮)의 진실에 감복함을 전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게 바로 군자

책형(磔刑)을 당하였다. 방효유의 저서에 《손지재고(遜志齋稿)》, 《후성집(侯成集)》, 《희고당고(希古堂稿)》 등이 있다. 《명사(明史)》(권141) <방효유열전(方孝儒列傳)> 참조.

161) 流俗(유속) : 그 당시 유행하는 풍속. 세속(世俗).

162) 烏衣(오의) : '오의제랑(烏衣諸郞)'은 진대(晉代)의 명문 귀족인 왕씨(王氏) · 사씨(謝氏) 두 집안의 자제(子弟)를 두고 일컬음인데, 여기에서 유래해 부귀한 집안의 자제를 '오의자제(烏衣子弟)'라 부르기도 한다.

163) 靑箱(청상) : 책과 글씨 · 그림 등을 간직하는 상자. 인신하여, 한 집안에 대대로 전해 오는 사학(史學).

164) 誇詡(과후) : 매우 자랑함. 과현(誇衒).

165) 交修(교수) : 서로가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여기서 '交(교)'는 교호(交互)의 뜻이 있고, '수(修)'는 교(敎)의 뜻으로 쓰였다. 이의 용례가 《서경(書經)》 <열명하(說命下)>편에 보인다. 곧, 왕이 부열(傅說)에게 가르침을 청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너는 짐의 뜻을 가르쳐서 만약 술과 단술을 만들거든 내가 누룩과 엿기름이 되며, 만약 간을 맞춘 국을 만들거든 네가 소금과 매실이 되어야 한다. 너는 여러 가지로 닦아서 나를 버리지 말라. 내가 능히 노의 가르침을 행할 것이다.[爾惟訓于朕志 若作酒醴 爾惟麴蘗 若作和羹 爾惟鹽梅 爾**交修**予 罔予棄 予惟克邁乃訓]"라고 했다.

166) 胥勗(서욱) : 서로 힘쓰다. 여기서 '勗(욱)'은 '勖(욱)'의 속자(俗字)이다.

167) 樂善好學(낙선호학) : 선(善)을 즐거워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다.

168) 仁讓(인양) : 인자(仁慈)하고 겸손함.

169) 赫然(혁연) : 찬란하고 빛나는 모양. 또는 성대한 모양.

170) 權輿(권여) : 사물의 시작. 시초. 싹틈. 움틈.

171) 大易來復之理(대역내복지리) : 《주역(周易)》에서 강조한 '내복(來復)'의 이치. 곧 복괘(復卦)의 뜻을 풀이한 것으로, 순음지월(純陰之月)을 지나 하나의 양기(陽氣)가 아래에서 회복되어 싹트기 시작하는 것처럼 암울한 시대를 극복하고 이제 국가 재건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172) 欽念(흠념) : 삼가 생각함. 공경하며 생각함.

173) 崇禎紀元後四甲辰(숭정기원후사갑진) : 헌종(憲宗) 10년인 1844년을 두고 이름이다. 참고로 '숭정기원후1갑진'은 현종(顯宗) 5년인 1664년이요, '숭정기원후2갑진'은 경종(景宗) 4년인 1724년이고, '숭정기원후3갑진'은 정조(正祖) 8년인 1784년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보다 60년 뒤인 1844년이 헌종 10년으로서 '숭정기원후4갑진'에 해당한다.

174) 彌甥(미생) : 외손자(外孫子). 홍직필(洪直弼 1776~1852) 조선후기 학자로 형조판서를 역임했다.

가 됨이요 진정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니라.

“무릇 군자의 덕을 지니고 있으면서 봉록과 지위가 없으면 그 종족은 쇠락했더라도 번성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봉록과 지위가 영광스러워도 군자라는 명망이 없으면 그 종족은 비록 번성했다 해도 쇠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가문의 성쇠는 선악(善惡)에 말미암은 것이니, 세상의 풍속처럼 귀족의 사료들을 빌려와 자신의 가문을 과장하여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가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서로 힘써야 할 것이란 선함을 즐거워하고 배우기를 좋아함이다. 믿음과 신뢰를 그 근본으로 삼고, 그 근본인 효(孝)와 제(悌)가 인(仁)이 되면, 그 인자함과 겸손함이 온 나라에서 감동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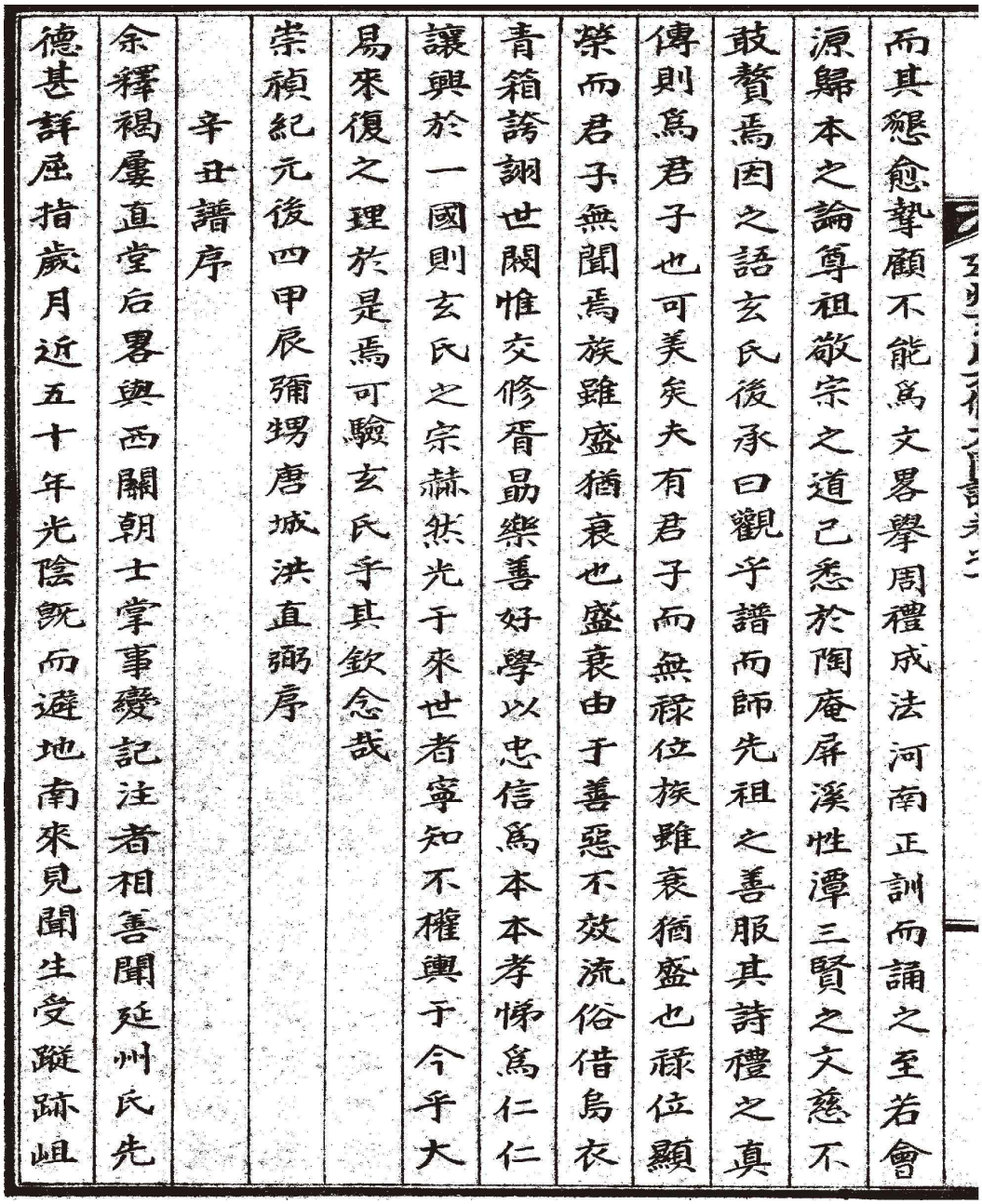
그러기에 현씨 종족이 앞으로 오는 세대에까지 찬란하게 빛날 것이니, 그 싹이 오늘에 와서야 피어나지 않았음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주역(周易)》에서 강조한 ‘내복(來復)’의 이치가 이로부터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니, 현씨들이여 부디 공경하고 유념할지어다!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네 번째 갑진(甲辰, 1844)년에,

외손자인 당성(唐城) 홍직필(洪直弼)은 서(序)한다.

5 사수보(四修譜) -《신축보(辛丑譜)》; 대한제국 광무 5년(1901)

【원문(原文)】



而其懇愈摯顧不能爲文畧擧周禮成法河南正訓而誦之至若會
源歸本之論尊祖敬宗之道已悉於陶庵屛溪性潭三賢之文慈不
敢贅焉因之語玄氏後承曰觀乎譜而師先祖之善服其詩禮之真
傳則爲君子也可美矣夫有君子而無祿位族雖衰猶盛也祿位顯
榮而君子無聞焉族雖盛猶衰也盛衰由于善惡不效流俗借烏衣
青箱誇詡世閥惟交修胥勗樂善好學以忠信爲本本孝悌爲仁仁
讓興於一國則玄氏之宗赫然光于來世者寧知不權輿于今乎大
易來復之理於是焉可驗玄氏乎其欽念哉

崇禎紀元後四甲辰彌甥唐城洪直弼序

辛丑譜序

余釋褐屢直堂后畧與西關朝士掌事變記注者相善聞延州氏先
德甚詳屈指歲月近五十年光陰旣而避地南來見聞生受踶跂岨

<그림 (12)> <신축보서(辛丑譜序)> (1)

【판독(判讀)】

辛丑譜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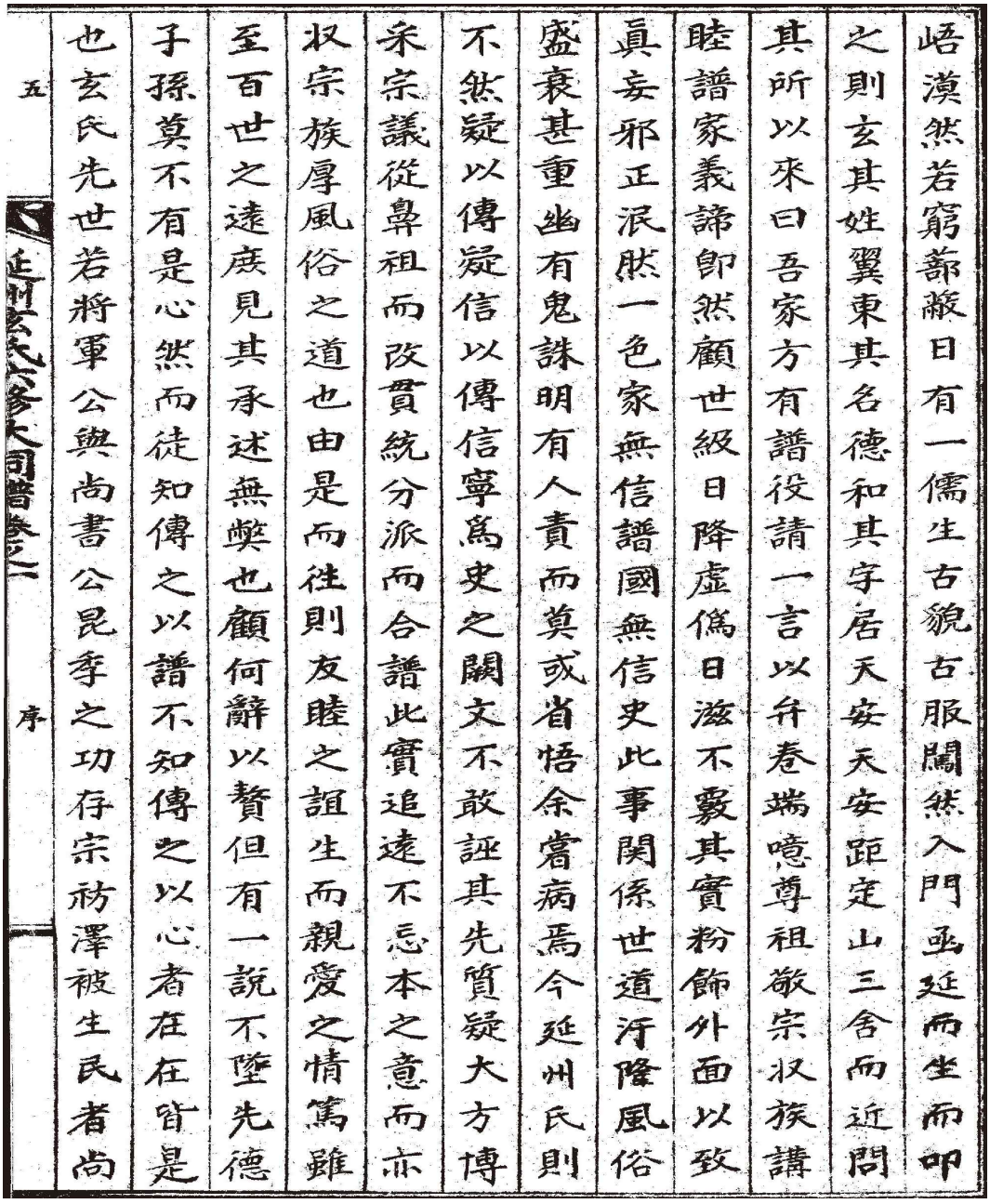
余釋褐[175]屢直堂后[176] 畧與西關朝士掌事變記注者相善[177] 聞延州氏先德甚詳屈指[178]歲月近五十年 光陰旣而避地[179]南來 見聞生受 蹤跡[180]岨

【해석(解釋)】

내가 벼슬길에 올라 여러 차례 당후(堂后)에서 숙직을 사는 동안, 사변(事變)의 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서관(西關) 출신의 한 조사(朝士)와 더불어 얼마간 사귄 적이 있다. “연주현씨의 선조가 세운 음덕이 매우 상세하고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전하는 그의 말을 들었던 세월이 거의 50년 전의 일이다. 시간이 흘러 난리를 피해 남쪽 지역으로 내려왔는데, 보고 들었던 바의 발자취가 꽉 막혀 서로 어긋나고 (…)

175) 釋褐(석갈) : “천복(賤服)인 갈(褐)을 벗는다.”는 뜻으로, 과거(科擧)에 합격(合格)한 자(者)가 평민(平民)의 옷을 벗고 새로이 관복(官服)을 입음. 곧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처음으로 벼슬함.
176) 堂后(당후) : 승정원(承政院) 주서(注書)의 별칭.
177) 相善(상선) : 서로 사귐. 이의 용례가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에 보이는데, 나도종(羅道琮)이 함께 상소했다가 귀양가게 되면서 그때 ‘사귄 이’라고 할 때, ‘同斥相善者(동척상선자)’란 표현이 있다.
178) 屈指(굴지) : 손가락을 꼽아서 셀 만큼 뛰어남.
179) 避地(피지) : 세상을 피하여 은거함. 이 서문을 쓸 당시인 1901년, 필자인 최익현은 위정척사(衛正斥邪) 운동의 선두에 선 대학자로서 충남 청양군 정산면으로 이거한 후, 항일 의병 활동을 모색하고 있었다.
180) 蹤跡(종적) : 발자취.

【원문(原文)】


岹漠然若窮蔀蔽日有一儒生古貌古服闖然入門亟延而坐而叩之則玄其姓翼東其名德和其字居天安天安距定山三舍而近問其所以來曰吾家方有譜役請一言以弁卷端噫尊祖敬宗收族講睦譜家義諦卽然顧世級日降虛僞日滋不覈其實粉飾外面以致眞妄邪正泯然一色家無信譜國無信史此事關係世道汙隆風俗盛衰甚重幽有鬼誅明有人責而莫或省悟余嘗病焉今延州氏則不然疑以傳疑信以傳信寧爲史之闕文不敢誣其先質疑大方博采宗議從鼻祖而改貫統分派而合譜此實追遠不忘本之意而亦收宗族厚風俗之道也由是而往則友睦之誼生而親愛之情篤雖至百世之遠庶見其承述無斁也顧何辭以贅但有一說不墜先德子孫莫不有是心然而徒知傳之以譜不知傳之以心者在在皆是也玄氏先世若將軍公與尚書公昆季之功存宗祊澤被生民者尚

<그림 (13)> <신축보서(辛丑譜序)> (2)

【판독(判讀)】

岹[181] 漠然若窮蔀蔽[182]日 有一儒生 古貌古服 闖然[183]入門 亟延[184]而坐

181) 岹峿(저어) : 산이 울퉁불퉁한 모양. 서로 어긋남. 저어(齟齬).

而叩[185]之 則玄其姓翼東其名[186] 德和其字 居天安 天安距定山三舍[187]而近 問其所以來 曰吾家方有譜役 請一言以弁卷[188]端 噫 尊祖敬宗[189] 収族[190]講睦[191] 譜家義諦[192]卽然 顧世級日降 虛僞日滋 不覈其實 粉飾外面 以致眞妄邪正泯然[193]一色 家無信譜 國無信史 此事関係[194]世道汙隆[195] 風俗盛衰甚重 幽有鬼誅[196] 明有人責 而莫或省悟 余嘗病焉 今延州氏則不然 疑以傳疑 信以傳信 寧爲史之闕文 不敢誣其先 質疑大方 博采[197]宗議 從鼻祖 而改貫 統分派而合譜 此實追遠不忘本之意 而亦収宗族[198]厚風俗之道也 由是而徃則友睦之誼生 而親愛之情篤 雖至百世之遠庶見其承述無斁也 顧何辭而贅 但有一說 不墜先德 子孫莫不有是心 然而徒知傳之以譜 不知傳之以心者 在在皆是[199]也 玄氏先世 若將軍公[200]與尙書公[201]昆季之功 存宗祊[202] 澤被生民者 尙

【해석(解釋)】

생각이 막연하여 몽매하고 비루하던 어느 날이었다. 옛날 사람 모양의 의복 차림을 한 유생(儒生)이 느닷없이 불쑥 대문 안으로 들어오기에 급히 그를 가까이 맞이해 자리에 앉혀놓고는 물어보았다. 곧 그는 성이 현

182) 蔀蔽(부폐) : 몽매하고 비루하다.
183) 闖然(틈연) : 느닷없이 불쑥 뛰어드는 모양.
184) 亟延(극연) : 급히 가까이 맞이하다.
185) 而坐而叩(이좌이고) : 앉혀서 물어보다.
186) 玄其姓翼東其名(현기성익동기명) : 현익동(玄翼東, 1853~1917). 족보에 보면, 자(字)가 덕화(德化)이고 본 연주현씨 <신축보(辛丑譜)>를 수보(修譜)할 때에 도유사(都有司)였는데, 판관공파 23세손이다.
187) 三舍(삼사) : 군대가 사흘에 행군할 거리. 90리(里)를 이름. 일사(一舍)는 30리(里).
188) 弁卷(변권) : 책의 서문(序文).
189) 尊祖敬宗(존조경종) : 조(祖)를 높이기 위해서 종(宗)을 공경함.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보면, "조는 윗대에서 바뀌고 종은 아래에서 바뀐다. 선조를 높이기 때문에 종을 공경하는 것이니, 종을 공경함이 조예를 높이는 것이다.〔祖遷於上 宗易於下 尊祖故敬宗 敬宗所以尊祖禰也〕"라고 하였다. 여기서 종(宗)은 승중(承重)한 종손을 지칭하고, 조예(祖禰)는 제사하는 조상을 말한다.
190) 収族(수족) : 종족(宗族)을 수렴(收斂)함. 여기서 '収(수)'는 '收(수)'의 속자(俗字)이다.
191) 講睦(강목) : 친목(親睦)을 강론(講論)함.
192) 義諦(의체) : 사물의 근본.
193) 泯然(민연) : 멸망하거나 없어진 모양. 아득히 먼 모양.
194) 関係(관계) : '關係(관계)'의 속자(俗字).
195) 汙隆(오륭) : 쇠함과 성함. 성쇠(盛衰).
196) 鬼誅(귀주) : 귀신이 몰래 죽임.
197) 博采(박채) : 널리 수집하여 채택함. 박채(博採). 참고로 '博採衆議(박채중의)'라 함은 뭇사람의 의견을 널리 수집하여 채택함이다.
198) 収宗族(수종족) : 종족을 수합(收合)함. 여기서 '収(수)'는 '收(수)'와 동자(同字)이다.
199) 在在皆是(재재개시) : 가는 곳마다 똑같다. 곳곳이 모두 그러하다.
200) 將軍公(장군공) : 연주현씨(延州玄氏) 시조인 현담윤(玄覃胤) 공을 지칭함.
201) 尙書公(상서공) : 고려시대 병부상서(兵部尙書)을 역임한 현덕수(玄德秀) 공을 지칭함.
202) 宗祊(종팽) : 종묘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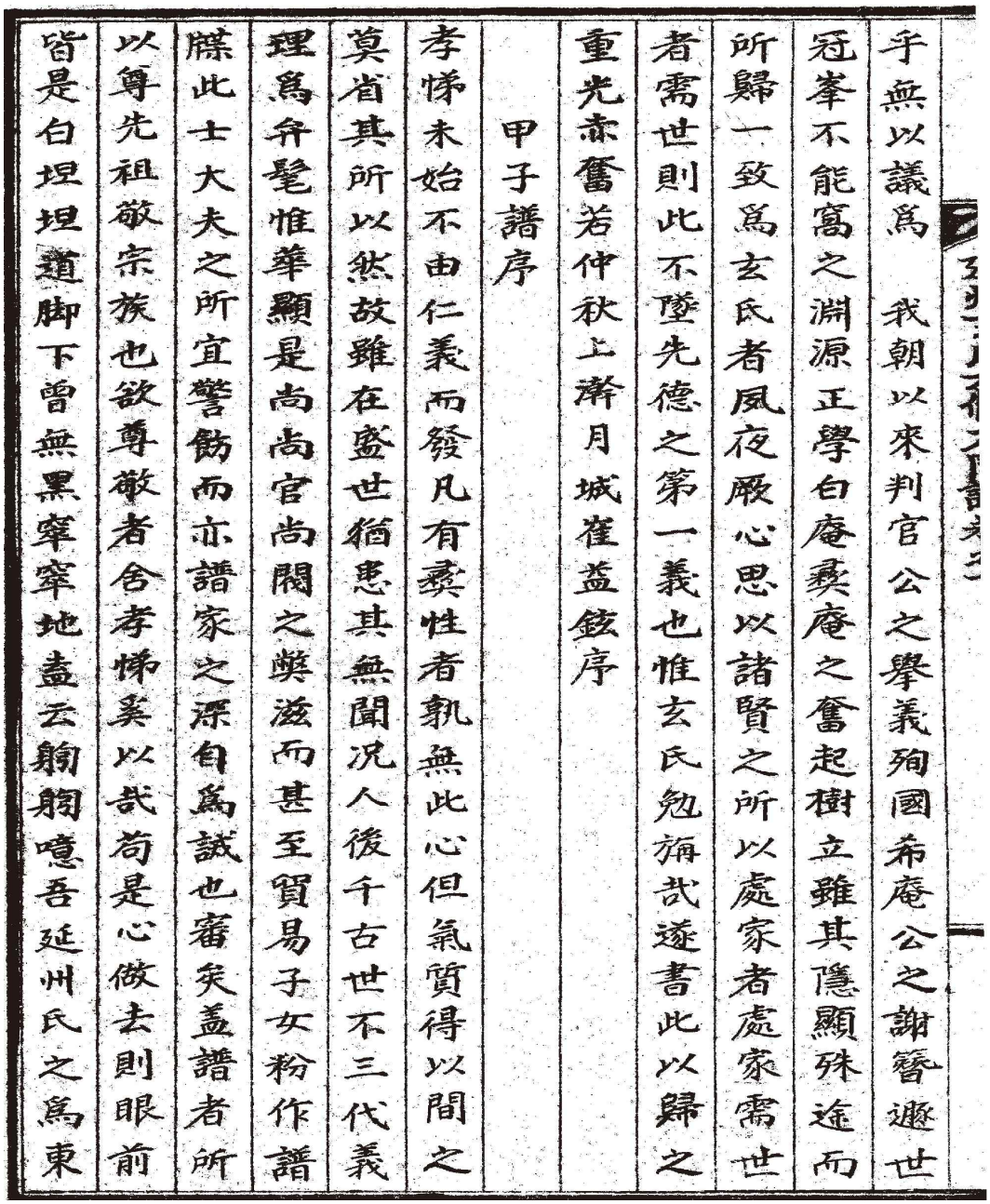
씨(玄氏)요 이름이 익동(翼東)이고 자가 덕화(德和)인데, 천안(天安)에 거주한다고 했다. 천안에서 정산(定山)까지 그 거리는 약 90리 가까이나 되는 먼 길인데, 찾아오게 된 까닭을 물어보았다. 그런즉 말하기를, "우리 집안에서 바야흐로 족보 만드는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 서문(序文)으로 쓰일 한마디 말씀을 청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아! '조(祖)를 높이기 위해서 종(宗)을 공경함'이나, '종족을 수렴하고 친목을 강론함'은 족보를 정리하는 근본이긴 하다. 그렇지만 세급(世級)이 날마다 내려가고, 허위(虛僞)가 날마다 자라나고 있는 것을 돌아보면, 그런 사실을 타파하지 않고서 외면만 번드레하게 꾸민다면, 진실과 망령됨이나 옳고 그름이 온통 아득히 멀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집안에 믿을 만한 족보가 없고, 나라에 신뢰할만한 역사가 없다면, 이 일은 세도(世道)의 융성과 쇠락에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풍속의 성쇠란 매우 중요한데, 어두우면 귀신이 몰래 죽이고, 밝으면 사람이 책임을 묻게 됨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나는 일찍이 병든 몸이다. 오늘의 연주현씨들은 그렇지 않아서 의심나면 의심난 대로 전하고 신뢰하면 신뢰한 대로 전하면서 차라리 역사에 관련된 문건이 될지언정, 그 선조를 감히 무함(誣陷)하지는 않는다. 큰 도리를 질의하고 뭇 종친의 의견을 수집하여 채택하는데, 시조(始祖)를 따라서 본관을 바꾸고 갈라진 지파를 통합하여 족보를 하나로 합쳤다. 이는 실로 조상을 추모하고 근본을 잊지 않으려는 의도로서 종족을 수합하고 풍속을 도탑게 하는 길이다. 이런 연유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우애와 화목함의 절의(節議)가 생기며, 친애한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 비록 일백 세대에 이를 정도로 멀어진다 해도 후손들의 시각에선 폐단이 없었다고들 서술함을 거의 내보일 것이다. 무슨 말을 고려해 덧붙일 말이 있단 말인가. 다만 한 가지 설만 든다면, 선조가 쌓아놓은 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자손으로서 이런 마음은 있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로써 전해지는 건 모두가 알게 되더라도 마음으로써 전해지는 건 알지 못함이 가는 곳마다 그러할 것이다.

연주현씨의 선조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특기할 만하다. 예컨대 장군공과 더불어 상서공 형제들의 공로가 종묘의 제단에까지 모셔져 그 은택(恩澤)이 일반 백성들에게 미치게 된 것은 (…)

【원문(原文)】


乎無以議爲　我朝以來判官公之擧義殉國希庵公之謝簪遯世
冠峯不能窩之淵源正學白庵裔庵之奮起樹立雖其隱顯殊途而
所歸一致爲玄氏者風夜厥心思以諸賢之所以處家者處家需世
者需世則此不墜先德之第一義也惟玄氏勉旃哉遂書此以歸之
重光赤奮若仲秋上澣月城崔益鉉序

甲子譜序

孝悌未始不由仁義而發凡有彝性者孰無此心但氣質得以間之
莫省其所以然故雖在盛世猶患其無聞況人後千古世不三代義
理爲弁髦惟華顯是尚尚官尚閥之獎滋而甚至貿易子女粉作譜
牒此士大夫之所宜警飭而亦譜家之深自爲誡也審矣蓋譜者所
以尊先祖敬宗族也欲尊敬者舍孝悌奚以哉苟是心做去則眼前
皆是白埕埕道脚下曾無黑窣窣地盡云翰翰噫吾延州氏之爲東

<그림 (14)> <신축보서(辛丑譜序)> (3)

【판독(判讀)】

乎[203]無以議爲[204]　我朝以來　判官公[205]之擧義殉國　希庵公[206]之謝簪遯

203) 尙乎(상호) : …한 지 오래되었다. 달리 '尙矣(상의)'라고도 쓴다.
204) 無以議爲(무이의위) : 의논함이 없어지다.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다. 더 논할 것이 없다.
205) 判官公(판관공) : 현득리(玄得利).
206) 希庵公(희암공) : 현덕승(玄德升).

世[207] 冠峯[208]不能窩[209]之淵源正學 白庵 彝庵之奮起樹立 雖其隱顯殊途[210] 而所歸一致 爲玄氏者 夙夜厥心 思以諸賢之所以 處家[211]者處家 需世[212]者需世 則此不墜先德之第一義也 惟玄氏勉旃[213]哉 雖書此以歸之 重光赤舊若[214] 仲秋上澣[215] 月城[216] 崔益鉉[217] 序

【해석(解釋)】

우러러볼 일이 되는 것이지, 논의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 우리의 조선에 들어와서는 판관공(判官公)이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 순국하신 일, 희암공(希庵公)이 벼슬을 사양하시고 은둔한 일, 관봉(冠峯)과 불능와(不能窩) 두 분 공이 연원(淵源) 깊은 바른 학문을 펼친 일, 백암(白庵) · 이암(彝庵) 공 같은 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스스로 학문을 이룩한 일 등이 그러하다. 비록 그 숨음과 드러남의 길이 다르면서도 돌아가는 바는 일치했다. 현씨 된 자들로서 아침저녁으로 지녀야 할 마음이란, 앞서 여러 어진 이들이 지녔던 그 방법을 늘 생각해야 한다. 벼슬을 사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집안을 잘 다스리고, 세상에 쓰임을 받으면 그 소임 대로 일을 잘 처리해나감이 이게 곧 선조의 덕을 떨어뜨리지 않는 첫 번째 의리이니라. 오직 현씨들이 힘써 실천할 지어다. 다만 이렇게 써주

---

207) 謝簪遯世(사잠둔세) : 벼슬을 사양해서 은둔생활을 함.

208) 冠峯(관봉) : 현상벽(玄尙璧)을 두고 이름인데, 그의 호가 관봉(冠峯)이다. 그는 영조 때 이름난 성리학자로서, 한수재(寒水齋)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이기도 하다.

209) 不能窩(불능와) : 현수중(玄守中, 1682~1733). 삼벽당 현약호(玄若昊)의 아들이다. 양주 석실에서 김창협, 김창흡 등에게 학문을 익혔음. 여기서 '窩(와)'라는 글자는 장물이나 도둑 따위를 숨기다는 뜻이다. 따라서 '不能窩(불능와)'란 '숨길 수 없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

210) 殊途(수도) : 다른 길. 보통 '殊塗(수도)'라고 표기함. 참고로 '殊塗同歸(수도동귀)'란 말은 "길을 달리하여도 도달하는 곳은 같다."란 뜻으로서,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같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211) 處家(처가) : 집안을 잘 다스림.

212) 需世(수세) : 세상에 쓰임.

213) 勉旃(면전) : 힘씀. 또는 힘쓰도록 함. 여기서 '旃(전)'은 '旜(전)'의 속자(俗字)임.

214) 重光赤舊若(중광적구약) : 고갑자(古甲子)로 '重光(중광)'은 '辛(신)'에, '赤舊若(적구약)'은 '丑(축)'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重光赤舊若(중광적구약)'이라 함은 '辛丑年(신축년)'을 두고 지칭하는 말로서 서력으로는 1901년이 되는데, 대한제국 광무 5년에 해당한다.

215) 上澣(상한) : 상순(上旬).

216) 月城(월성) : 여기서 '월성(月城)'은 경상북도 경주 분지 중앙에 있는 성(城)으로서 신라 때에 있었던 반달 모양의 성인데, 경주(慶州)를 상징하는 말로 쓰였다. 곧 경주를 본관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217) 崔益鉉(최익현) : 월성(月城) 최익현(崔益鉉, 1833~1907)은 조선 후기 장령, 돈녕부도정, 승정원동부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항일운동가이다. 본관이 경주이고 자는 찬겸(贊謙), 호는 면암(勉庵)이다. 성리학의 거두 이항로(李恒老)의 문하에서 수학한 후 철종 6년(1855) 명경과에 급제하면서 관직을 두루 역임했다. 만동묘를 비롯한 서원 철폐의 단행 등 대원군의 위세가 높아지자 이에 <계유상소(癸酉上訴>를 올렸는데, 대원군의 10년 집권이 무너지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어서 민씨 일족의 옹폐를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도로 유배되기도 했다. 그의 나이 74세 때 고령임에도 의병을 일으켜 최후의 진충보국(盡忠報國)을 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적지 대마도(對馬島) 옥사에서 순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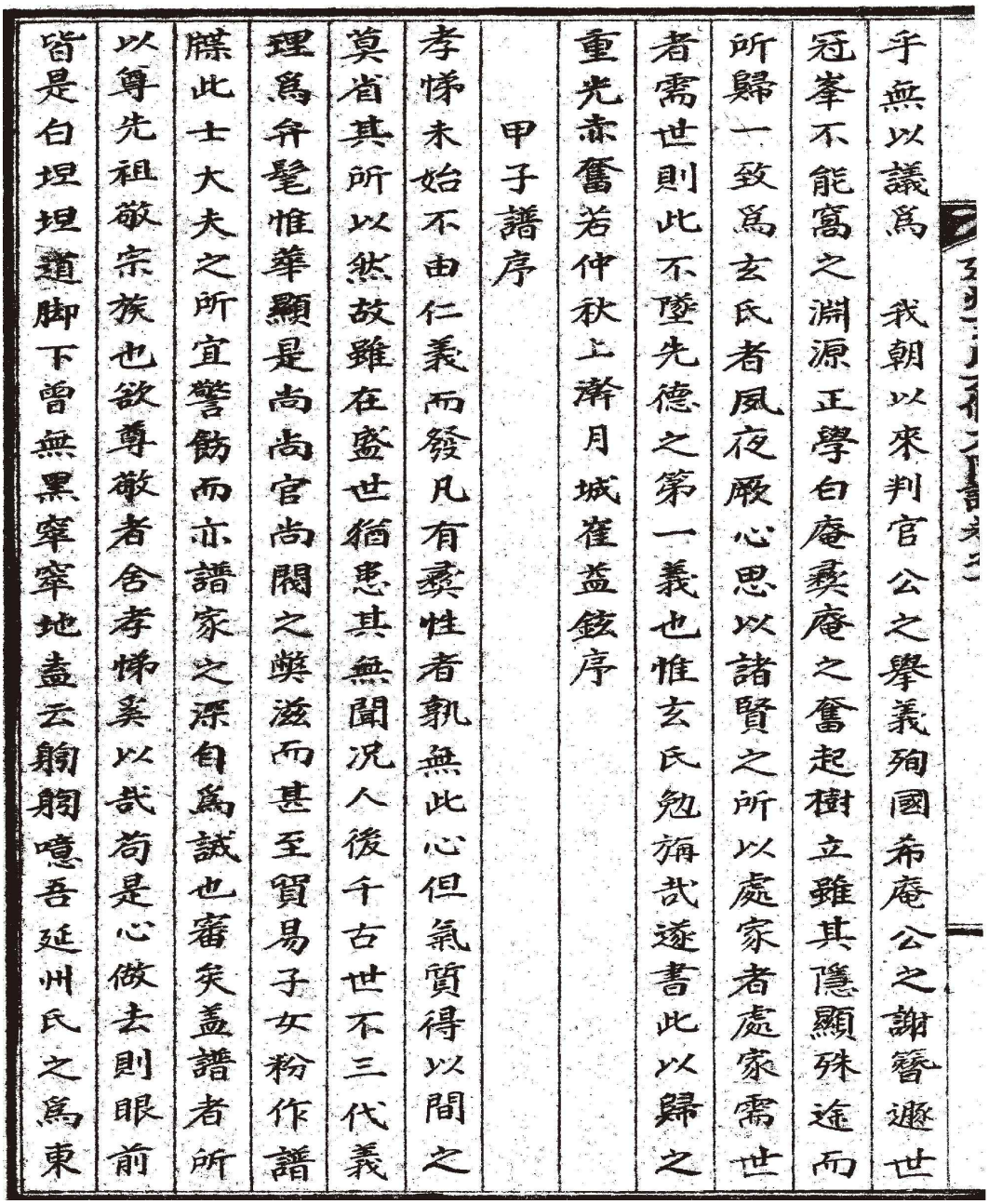
고서 돌려주었다.

중광적구약(重光赤舊若), 곧 신축(辛丑, 1901)년 중추 상순에,

월성(月城) 최익현(崔益鉉)은 서(序)한다.

⑥ 오수보(五修譜) -《갑자보(甲子譜)》; 일제강점기[1924]

【원문(原文)】



乎無以議爲 我朝以來判官公之擧義殉國希庵公之謝簪遯世
冠峯不能窩之淵源正學白庵裔庵之奮起樹立雖其隱顯殊途而
所歸一致爲玄氏者夙夜厥心思以諸賢之所以處家者處家需世
者需世則此不墜先德之第一義也惟玄氏勉旃哉遂書此以歸之
重光赤奮若仲秋上澣月城崔益鉉序

甲子譜序

孝悌未始不由仁義而發凡有彝性者孰無此心但氣質得以間之
莫省其所以然故雖在盛世猶患其無聞況人後千古世不三代義
理爲弁髦惟華顯是尚尚官尚閥之獎滋而甚至貿易子女粉作譜
牒此士大夫之所宜警飭而亦譜家之深自爲誡也審矣蓋譜者所
以尊先祖敬宗族也欲尊敬者舍孝悌奚以哉苟是心做去則眼前
皆是白坦坦道脚下曾無黑窣窣地盡云翰翰噫吾延州氏之爲東

<그림 (15)> <갑자보서(甲子譜序)> (1)

【판독(判讀)】

甲子譜序

孝悌[218]未始不由仁義而發 凡有彝性[219]者 孰無此心 但氣質[220]得以間之 莫省其所以然[221] 故雖在盛世 猶患其無聞[222] 况人後[223]千古世 不三代義理爲弁髦[224] 惟華顯是尙 尙官尙閥之弊 滋而甚至 貿易子女 粉作譜牒 此士大夫之所宜警飭[225] 而亦譜家之深自爲誠也審矣 盖譜者 所以尊先祖敬宗族也 欲尊敬者舍孝悌奚以哉 苟是心做去 則眼前皆是白坦坦道 脚下[226]曾無黑窣窣地[227] 盖云匑匑[228] 噫 吾延州玄氏之爲東

【해석(解釋)】

<갑자보서(甲子譜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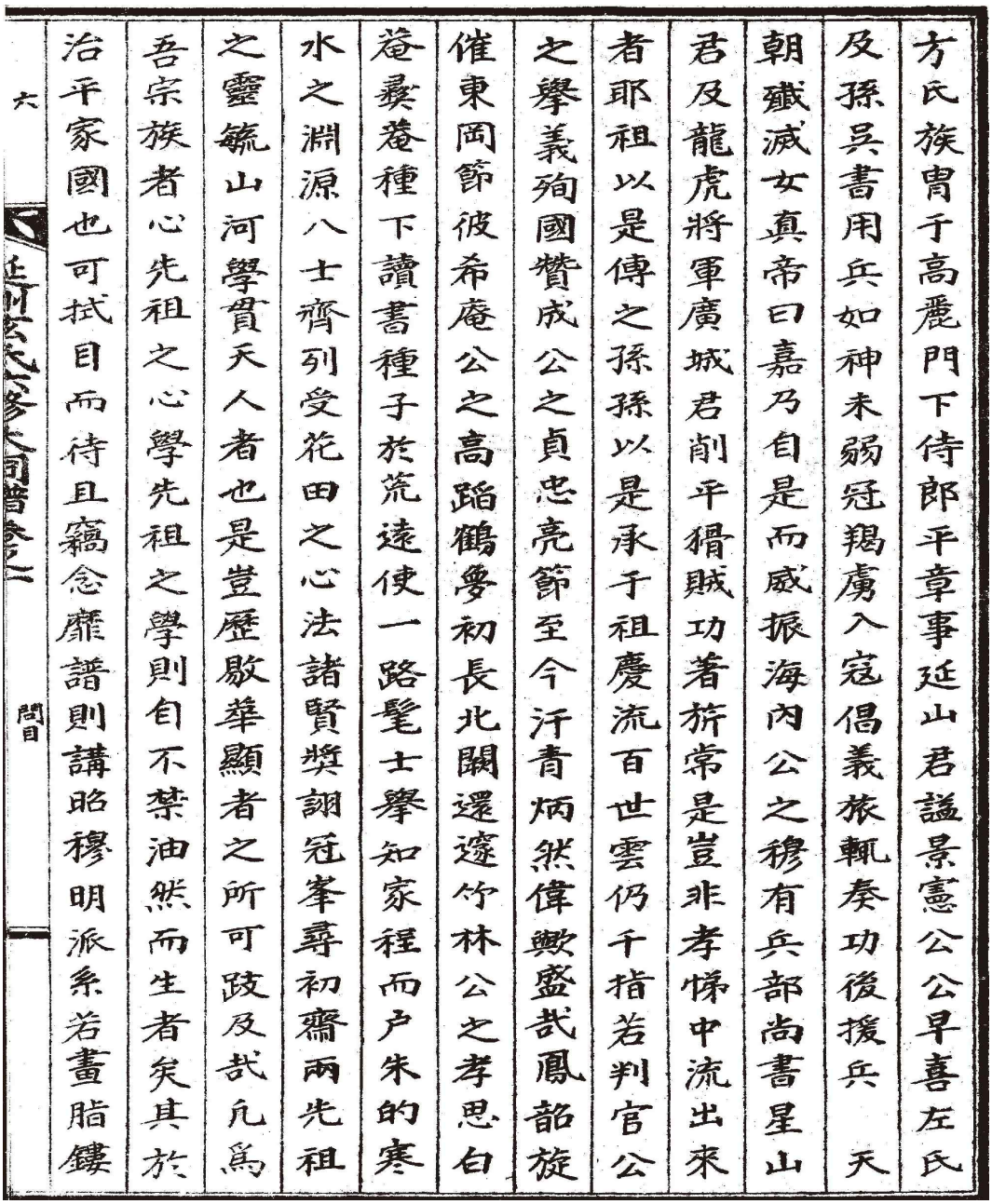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이나 어른을 공경함이란, 어질고 의로움이 생겨나지 않고서는 시작되지 않는 것이기에 무릇 떳떳한 본성을 지닌 자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없을 수 없다. 다만 기질(氣質)이 개입되어 반성이 그렇게 되는 까닭이다. 그러기에 비록 번성한 세대라 해도 오히려 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음'을 염려하게 되는데, 하물며 남의 양자(養子)가 되어 뒤를 잇는 게 오랜 옛적 세대부터이고 보면, 삼대를 넘기지 못해 쓸데없는 사람으로 남기 십상이다. 오직 화려한 현달(顯達)만이 숭상되기에 벼슬을 숭상하거나 문벌을 숭상하는 폐단이 심각하게 자라나서 심지

218) 孝悌(효제) :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이나 어른을 공경함. 효우(孝友).
219) 彝性(이성) : 떳떳한 본성(本性). 참고로 '이륜(彝倫)'이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220) 氣質(기질) : 사람의 심리(心理)나 생리(生理) 등의 바탕.
221) 所以然(소이연) : 그렇게 된 까닭.
222) 無聞(무문) : 세상에 알려지지 않음. 이의 용례가 공자의 말에 나타난다. 곧 《논어(論語)》 <자한(子罕)>편에 보면, "후생을 두렵게 여겨야 할 것이니, 앞으로 후생들이 지금의 나보다 못하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40세나 50세가 되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또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겠다.[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 四十五十而**無聞**焉 斯亦不足畏也已]"
223) 人後(인후) : 양자(養子)로 들어가는 일. 남의 밑, 또는 다른 사람의 뒤.
224) 弁髦(변모) : 쓸데없는 사람이나 물건이 비유. '弁(변)'은 관례(冠禮) 때 쓰는 치포관(緇布冠)으로 관례가 끝나면 버리고, '髦(모)'는 동자(童子)의 눈썹께까지 드리운 머리카락으로, 관례 때 깎아버려 모두 소용없게 되는 데서 이름.
225) 警飭(경칙) : 경계하여 주의시킴. 또는 그 경계.
226) 脚下(각하) : 발 밑. 발 아래.
227) 黑窣窣地(흑솔솔지) : 한밤중처럼 빛이 전혀 없어 새까만 것을 형용하는 말. 어리벙벙하게 헤매는 처지. 주희(朱熹)가 지은 《주자어류(朱子語類)》(권31)에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 각자 이 이치를 갖추어 태어나는 법이다. 단지 사람으로서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온통 암흑과 같이 보이는 것이다.〔人之生 各具此理 但是人不見此理 這裏都**黑窣窣地**〕"라고 하였다.
228) 匑匑(궁궁) : 공경하고 삼가는 모양. '匑匑(궁궁)'은 '朐朐(궁궁)'과 동자(同字)이다.

어 자녀를 사고팔기 위해서 보첩(譜牒)을 분칠해 꾸며 만들기도 한다. 이것이야말로 사대부들이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또한 족보를 만드는 집안에서는 정성을 다하고 깊게 살펴봐야 한다.

대개 족보라는 것은 선조를 존중하고 종족을 공경함에서 비롯한다. 존중하고 공경하고자 한다면서 효제(孝悌)를 외면한다면 어찌하겠는가. 다만 이게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눈앞에서는 이게 모두 환하게 보여 탄탄한 도로인 것 같지만, 발아래가 모두 캄캄하여 어둡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래서 삼가면서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아! 우리 연주현씨 집안은 (…)

【원문(原文)】


方氏族胄于高麗門下侍郎平章事延山君諡景憲公公早喜左氏
及孫吳書用兵如神未弱冠揭虜入寇倡義旅輒奏功後援兵　天
朝殲滅女真帝曰嘉乃自是而威振海內公之穆有兵部尚書星山
君及龍虎將軍廣城君削平猾賊功著旂常是豈非孝悌中流出來
者耶祖以是傳之孫孫以是承于祖慶流百世雲仍千指若判官公
之擧義殉國贊成公之貞忠亮節至今汗青炳然偉歟盛哉鳳韶旋
催東岡節彼希庵公之高蹈鶴夢初長北關還遼竹林公之孝思白
菴裹葢種下讀書種子於荒遠使一路髦士擧知家程而户朱的寒
水之淵源八士齊列受花田之心法諸賢奬詡冠峯尋初齋兩先祖
之靈毓山河學貫天人者也是豈歷敭華顯者之所可跂及哉凡爲
吾宗族者心先祖之心學先祖之學則自不禁油然而生者矣其於
治平家國也可拭目而待且竊念靡譜則講昭穆明派系若畫脂鏤

<그림 (16)> <갑자보서(甲子譜序)> (2)

【판독(判讀)】

方氏族 胄[229]于高麗門下侍郎平章事 延山君 諡景憲公 公早喜左氏及孫吳

229) 胄(주) : 본래 '맏아들'의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세계(世系)' 혹은 '혈통(血統)'의 뜻으로 쓰였다.

書[230] 用兵如神 未弱冠羯虜[231]入寇[232] 倡義[233]旅輒奏功[234] 後援兵天朝殲滅女眞 帝曰嘉 乃自是而威振海內 公之穆[235] 有兵部尙書星山君 及龍虎將軍廣域君 削平猾賊 功著旂常[236] 是豈非孝悌中流出來者耶 祖以是傳之孫孫 以是承于祖 慶流[237]百世 雲仍千指 若判官公[238]之擧義殉國 贊成公[239]之貞忠亮節[240] 至今汗靑[241]炳然[242] 偉歟盛哉 鳳韶[243]旋催 東岡[244]節 彼希庵公[245]之高踏[246]鶴夢[247]初長 北闕[248]還邃 竹林公[249]之孝思 白菴[250] 彝菴[251] 種下讀書 種子於荒 遠使一路 髦士[252]擧知 家程 而

230) 左氏及孫吳書(좌씨급손오서) : 《좌씨춘추(左氏春秋)》 및 《손오병법(孫吳兵法)》의 책들.
231) 羯虜(갈로) : 고대 부족으로 일찍이 흉노(匈奴)에 예속되어 있다가 위(魏)나라와 진(晉)나라 때에는 상당군(上黨郡)에 흩어져 살았는데, 동진(東晉) 때 갈인(羯人) 석륵(石勒)이 황하(黃河) 유역에서 후조(後趙)를 세워 십육국(十六國)의 하나가 되었음.
232) 入寇(입구) : 도적이나 적군이 침략하여 옴.
233) 倡義(창의) : 의병(義兵)을 일으킴.
234) 奏功(주공) : 공(功)을 아뢰다. 승전보를 전하다.
235) 穆(목) : 사당에서 위패를 모시는 서열로서의 아들의 자리. 참고로 아버지의 자리는 '소(昭)'라고 함.
236) 旂常(기상) : 왕후(王侯)를 상징하는 기(旗).
237) 慶流(경류) : 경사(慶事)가 (후손들에게) 퍼짐.
238) 判官公(판관공) : 현득리(玄得利, 생몰년 미상). 판서공(判書公) 현옥량(玄玉亮)의 증손이다. 세조 을유(乙酉, 1465)년에 문과에 급제해 전주판관을 역임했지만, 길주에서 이시애(李施愛)의 반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크게 싸우다가 순국(殉國)하였다.
239) 贊成公(찬성공) : 현석규(玄碩圭, 1441~1513). 그의 나이 17세 때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세종대왕과 조우하게 되어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아들 서원군(瑞原君)의 둘째 사위가 되었던 일화는 유명하다. 세조 경진(庚辰, 146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아가니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끝내는 벼슬이 우찬성(右贊成)에 이르렀다. 특히 성종대왕의 은총이 자못 높아지자 주위에서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많았다.
240) 貞忠亮節(정충양절) : 절개가 곧고 충성스러우며, 높은 절조(節操).
241) 汗靑(한청) : 한청(汗靑)은 옛날에 청죽(靑竹)을 불에 구워서 그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게 해서 쓰기에 편리하고 좀이 슬지 않게 한 것을 말하는데, 보통 역사책을 뜻한다. 곧 '한청(汗靑)'은 '한간(汗簡)'과 같은 말로서 문서, 서적, 또는 역사의 의미로도 쓰인다.
242) 炳然(병연) : 명백하고 뚜렷한 모양.
243) 鳳韶(봉소) : 성군(聖君) 혹은 태평성대를 이르는 말이다. 서경의 익직에 "소소를 아홉 번 연주하니 봉황이 와서 춤을 춘다.[簫韶九成 鳳凰來儀]"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소(韶)는 순(舜)임금 때의 음악인데, 일반적으로 제왕의 궁전에서 연주하는 음악을 의미한다.
244) 東岡(동강) : 동쪽 산비탈로, 벼슬에 나가지 않고 물러나 있는 곳을 뜻한다. 《후한서(後漢書)》 (권53) 〈주섭열전(周燮列傳)〉의 "선세(先世)로부터 훈총(勳寵)이 줄을 이었는데 그대만 어찌 유독 동강의 비탈을 지키는가?"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245) 希庵公(희암공) : 희암(希庵) 현덕승(玄德升, 1564~1627)을 두고 이름이다. 사헌부지평 정읍현감 등을 역임했으며 예조정랑으로 광해군 혼조(昏朝)를 당하여 벼슬을 사양하고 낙향하여 학문연구에만 전념하였다.
246) 高踏(고답) : 지위나 명리(名利)를 떠나 세속에 초연함.
247) 鶴夢(학몽) : 학의 꿈. 범속함을 초탈하여 멀리 떠나가는 것을 말한다. 당나라 사공도(司空圖)의 〈여이생론시서(與李生論詩書)〉에, "땅은 청량하여 학의 꿈 맑고, 숲은 고요하여 중의 모습 엄숙하네.[地凉淸**鶴夢** 林靜肅僧儀]"라 하였다.
248) 北闕(북궐) : 궁전의 북쪽 문루(門樓). 대신들이 알현 · 상소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곳인 데서, 궁궐이나 조정의 딴 이름이 되었음. 경복궁(景福宮)의 딴 이름.
249) 竹林公(죽림공) : 현징(玄徵, 1629~1702, 판관공파 17세)을 두고 이름이다. 성균관 진사이며 광릉참봉(光陵參奉)을 역임했다. 어머니를 잘 봉양하여 효성이 지극하다는 정평이 나있고, 구림에 죽림정(竹林亭)을 지어 독서에 열중했다.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이 영암에 유배와 3년간 죽림정에 머물게 되면서 자연스레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과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형제들과 교분을 쌓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주석 148의 현징과는 동명이인이다.

户朱[253]的寒水之淵源[254] 八士[255]齊列受花田之心法[256] 諸賢奬詡 冠峯[257] 尋初齋[258] 兩先祖之靈毓山河[259] 學貫天人者也 是豈歷貶華顯[260]者之所可跂及哉 凡爲吾宗族者 心先祖之心 學先祖之學 則自不禁油然[261]而生者矣 其於治平家國也 可拭目[262]而待 且竊念[263]靡諰[264]則講昭穆[265]明派系 若晝脂鏤

【해석(解釋)】

동방의 한 씨족으로서 그 혈통(血統)은 고려문하시랑평장사(高麗門下侍郎平章事)이시고 연산군(延山君)이시자 시호가 경헌공(景憲公)이신 분으

250) 白菴(백암) : 현이규(玄以規, 1639~1706). 자는 자강(自强)이며 호는 백암(白庵)이다. 예학을 전공하여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과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문하에서 배웠다.

251) 彝菴(이암) : 현봉겸(玄鳳謙, 1709~1778, 첨정공파 17세). 자는 계진(季眞이다.

252) 髦士(모사) : 뛰어난 선비. 여기서 '髦(모)'자는 본래 단발머리를 뜻하는 말이지만, 걸출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253) 家程而戶朱(가정이호주) : 집집마다 정자(程子)가 있고, 집집마다 주자(朱子)가 있는 셈.

254) 寒水之淵源(한수지연원) : '寒水(한수)'의 연원. 권상하(權尙夏)의 호가 한수재(寒水齋)인데, 주자의 시구에서 따온 이름이다. 곧 주희(朱熹)가 당(唐)나라 진자앙(陳子昻)의 〈감우(感寓)〉 시를 읽고 감명받아 이를 본떠 오언고시 20수를 지었다. 그중 제10수에 "삼가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온 마음을 생각해 보건대, 가을 달이 차가운 물을 비추네.[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라고 하였다. 《주자전서(朱子全書)》(권66) <재거감흥이십수(齋居感興二十首)>.

255) 八士(팔사) : 팔학사(八學士). 곧 한수재(寒水齋) 권상하(權尙夏)의 문하생들을 '강문(江門) 제자'라고 불렀는데, 그중에서 특히 저명한 여덟 명의 제자들을 '강문팔학사' 또는 '호중팔학사(湖中八學士)'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관봉(冠峯) 현상벽(玄尙璧)을 비롯해,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 외암(巍巖) 이간(李柬) · 병계(屛溪) 윤봉구(尹鳳九) · 봉암(鳳巖) 채지홍(蔡之洪) · 화암(華巖) 이이근(李頤根) · 매봉(梅峯) 최징후(崔徵厚) · 추담(秋潭) 성만징(成晩徵) 등이 포함된다.

256) 花田(화전) : 이재(李縡)의 별장이 있던 곳의 지명이 고양(高陽)의 화전(花田)이다. 따라서 여기서 '화전(花田)의 심법(心法)'이란 이재(李縡)의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두고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57) 冠峯(관봉) : 현상벽(玄尙璧)을 두고 이름이다.

258) 尋初齋(심초재) : 현명직(玄命直)을 두고 지칭함이다. 그의 자(字)가 자경(子敬)이다. 참고로 이재(李縡)의 《도암집(陶菴集)》(3권)에 보면, <현군(玄君) 자경(子敬) 심초재(尋初齋)에게 시를 지어보내다[寄題玄君子敬尋初齋]>란 시가 실려 있다.

259) 靈毓山河(영육산하) : 신령이 산하를 길러줌. 여기서 '靈毓영육)'은 '種靈毓秀(종령육수)'의 준말로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인물이 나온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毓(육)'이란 '育(육)'과 같은 글자로서 낳음 혹은 기름을 뜻하는 말이다. 참고로 '인걸은 영검이 있는 땅에서 남'이란 뜻으로 '인걸지령(人傑地靈)'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260) 歷貶華顯(역이화현) : 영화롭고 현달한 관직을 두루 거침.

261) 油然(유연) :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모양. 저절로 생기는 모양.

262) 拭目(식목) : 눈을 씻고 바라보면서 기대함.

263) 竊念(절념) : 사사로이 여러모로 생각함.

264) 靡諰(미보) : 족보가 없다면 …. 여기서 '靡(미)'는 '無(무)'와 같은 뜻으로 쓰여 '없다'라고 풀이된다. 이의 용례가 《시경(詩經)》 <패풍(邶風) · 천수(泉水)>편에 보인다. 곧 "위나라의 친정집 그리워 날마다 생각지 않음이 없어라.[有懷于衛 靡日不思]"라고 함이 그렇다.

265) 昭穆(소목) : 조상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는 차례를 소목(昭穆)이라고 한다. 왼쪽 줄을 '소(昭)', 오른쪽 줄은 '목(穆)'이라고 하는데, 시조의 신주는 한복판에 모시고 2、4、6대를 소에, 3、5、7대를 목에 모신다. 《예기(禮記)》〈왕제(王制)〉편에 "천자는 7묘로 3소 3목에 태조의 묘까지 7묘이고, 제후는 5묘로 2소 2목에 태조의 묘까지 5묘이며 대부는 3묘로 1소 1목에 태조의 묘까지 3묘이다. 사(士)는 1묘이고 서인(庶人)은 정침(正寢)에서 제사를 올린다."라고 하였다.

로부터 이어져 왔다. 시조인 공께서는 어려서부터 《좌씨춘추(左氏春秋)》 및 《손오병법(孫吳兵法)》의 책들을 좋아해서 즐겨 읽었고, 군사를 씀에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약관(弱冠)의 나이에 접어들기 이전에 갈로(羯虜)라는 적군이 쳐들어오자 의병을 일으켜 군사들로 하여금 승전보를 알리게 했다. 그 뒤로 천자의 나라인 중국에 구원병으로 참여해서 여진족을 섬멸시키니, 황제께서 이를 가상히 여겨 감탄의 말을 하였고, 마침내 이로부터 그 무위(武威)를 해내(海內)에 떨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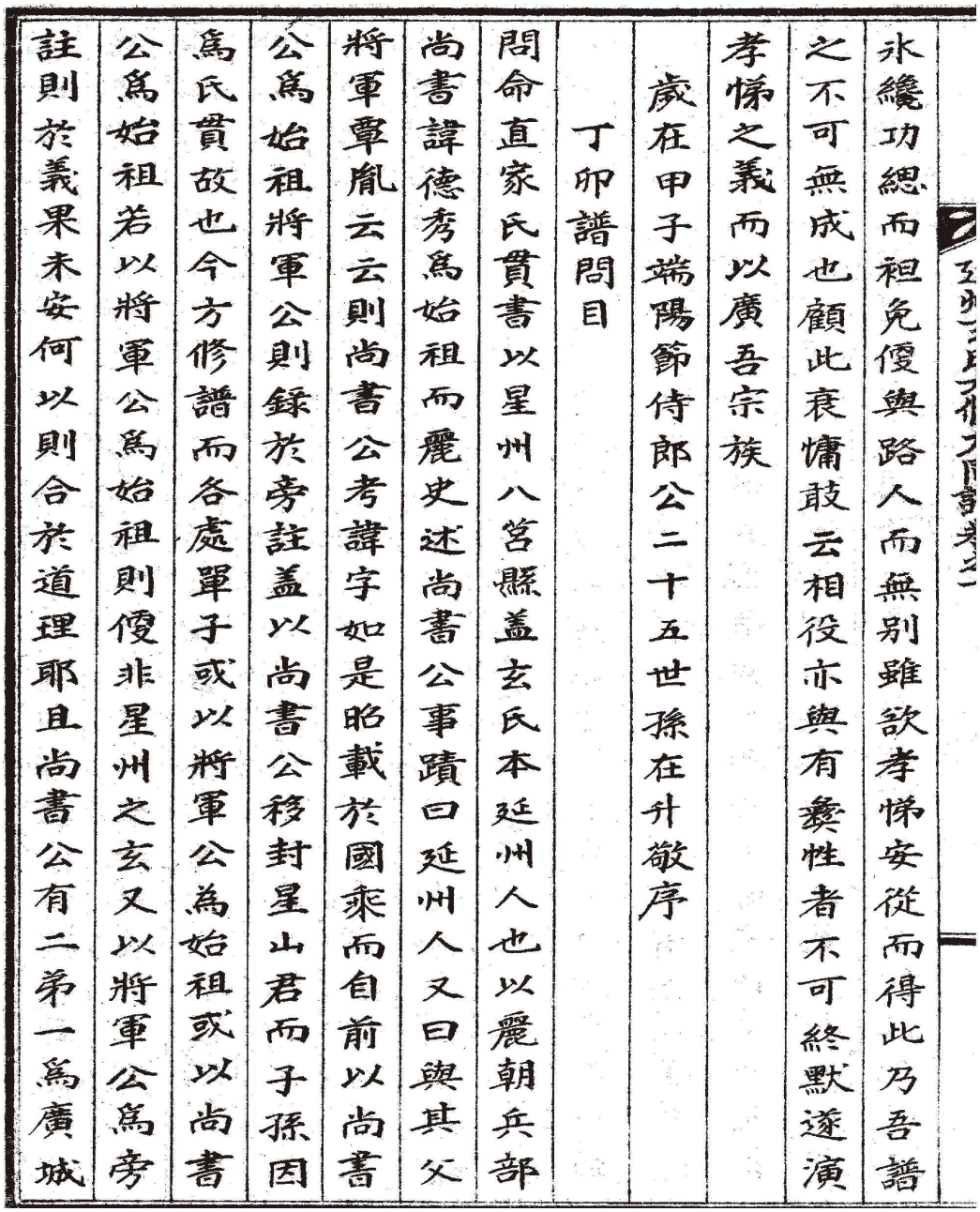
공의 아드님으로 병부상서(兵部尙書) 성산군(星山君)과 용호장군(龍虎將軍) 광성군(廣城君)이 있어 교활한 적을 모두 쓸어 평정하였는데, 그 공적이 기상(旂常)으로 이어질 정도였다. 이게 어찌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 우애하는 가운데에서 유출되어 나온 게 아니겠는가. 조상의 업적이 이로써 자자손손(子子孫孫)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이로써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경사(慶事)가 일백 세대의 후손들에게까지 퍼졌고, 운손(雲孫)과 잉손(仍孫)의 숫자가 손가락 일천 개를 꼽을 정도로 많아졌다. 이를테면 판관공(判官公)의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 순국(殉國)함이나, 찬성공(贊成公)의 절개 곧고 충성스러운 높은 절조(節操)는 오늘에 이르도록 역사책에 명백하고 뚜렷하게 남아있다.

위대하고도 거룩하도다! 태평성대를 맞아 봉황이 춤추며 선회하고 소(韶)의 선율이 빠르게 전개된다. 동쪽 언덕의 산비탈이 우뚝하게 솟아있어 그곳이 은둔하기 좋은 곳이라 생각했던 희암공(希庵公)은 지위나 명리를 떠나 세속을 멀리했다네. 저 희암공의 고답하고 학몽(鶴夢)한 점은 어려서 북궐(北闕)에서 성장했으나 돌아와서는 죽림공(竹林公)의 효사(孝思)를 따른 것이다. 백암(白庵) · 이암(彝庵) 두 분 공은 독서를 통한 종자(種子)를 황무지에 심어놓아 멀리까지 한길로 곧장 나아가게 해서 뛰어난 선비들 거개(擧皆)가 이를 알아차림은, 집집마다 정자(程子)가 있고 집집마다 주자(朱子)가 있는 셈이어서 한수(寒水)의 연원이 되었음이라. 여덟 학사를 나란히 배열하여 화전(花田)의 심법(心法)을 이어받으면서 여러 어진 이들을 격려하고 권장하기도 했었네. 관봉(冠峯) · 심초재(尋初齋) 두 분 선조께서는 신령이 산하(山河)를 길러준다고 했으니, 학문이 천도(天道)와 인사(人事)를 관통하였네. 이 어찌 영화(榮華)롭고 현달(顯達)한 관직을 두루 거친 자가 발돋움하며 언급(言及)할 바가 아니겠는가.

무릇 우리 현씨 종족이 된 사람들은, 마음먹기는 선조의 마음으로, 학문하기는 선조의 학문으로 하되 저절로 막히지 않고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듯이 생겨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평정함을 눈을 씻고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으리라.

게다가 그윽이 생각건대, 족보가 없으면 소목(昭穆)을 강설(講說)하거나 지파의 계보를 밝힘에 있어 헛수고만 하는 꼴이 됨은 마치 비곗덩어리에 그림을 그리고 얼음덩어리에 조각하면 나중에 녹아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음과 같은 것이다. (…)

【원문(原文)】


氷纔功緦而袒免傻與路人而無別雖欲孝悌安從而得此乃吾譜
之不可無成也顧此衰慵敢云相役亦與有夀性者不可終默遂演
孝悌之義而以廣吾宗族
歲在甲子端陽節侍郎公二十五世孫在升敬序
丁卯譜問目
問命直冢氏貫書以星州八莒縣蓋玄氏本延州人也以麗朝兵部
尚書諱德秀爲始祖而麗史述尚書公事蹟曰延州人又曰與其父
將軍覃胤云云則尚書公考諱字如是昭載於國乘而自前以尚書
公爲始祖將軍公則錄於旁註蓋以尚書公移封星山君而子孫因
爲氏貫故也今方修譜而各處單子或以將軍公爲始祖或以尚書
公爲始祖若以將軍公爲始祖則傻非星州之玄又以將軍公爲旁
註則於義果未安何以則合於道理耶且尚書公有二弟一爲廣城

<그림 (17)> <갑자보(甲子譜序) (3)

【판독(判讀)】

氷[266] 纔功緦[267]而袒免[268] 傻與[269]路人而無別 雖欲孝悌安從而得此 乃

266) 畫脂鏤氷(화지누빙) : 비곗덩어리에 그림을 그리고 얼음덩어리에 조각하면 나중에 녹아버려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는 뜻으로, 헛수고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267) 功緦(공시) : 상복(喪服) 중의 대공(大功, 9개월 복) · 소공(小功, 5개월 복) · 시마(緦麻, 3개월 복)

吾譜之不可無成也 顧此衰慵[270]敢云相役 亦與有彝性[271]者 不可終默 遂演孝悌之義 而以廣吾宗族

歲在 甲子端陽節[272] 侍郎公二十五世孫 在升[273] 敬序

【해석(解釋)】

겨우 사람을 알아본다는 게, 상복(喪服) 중 시마(緦麻)나 얻어서 입을 정도의 먼 친척으로 알거나 바로 길 가는 사람과 같을 정도로 여겨 구별이 없게 된다. 다만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 우애를 다지고자 한다면 어디에서 이런 실행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에 우리의 족보가 이뤄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노쇠하고 게으른 이 몸이 어찌 감히 서로의 역사(役事)를 운위할 수 있으리오마는 또한 더불어 본성(本性)이 있는 자인 만큼 끝내 침묵할 수만은 없다. 드디어 효제(孝悌)의 의리(義理)를 시연(示演)함에 있어 우리 현씨 종족을 광대하게 펼쳐서 내보이노라.

세재(歲在)는 갑자(甲子, 1924)년 단오절(端午節)에,

시랑공(侍郎公) 25세손 현재승(玄才升)이 공경하며 서(序)하다.

의 총칭. 주로 손자, 종손자 이하의 항렬이나 다소 먼 친족이 이에 해당한다.

268) 袒免(단문) : 윗통을 벗어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관(冠)을 벗고 머리를 묶음. 오복친(五服親) 이외 친족의 상사(喪事)에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방법.

269) 便與(편여) : 바로 …과 같다. 여기서 '便(편)'은 '便(편)'과 동자(同字)이다.

270) 衰慵(쇠용) : 노쇠해 게으른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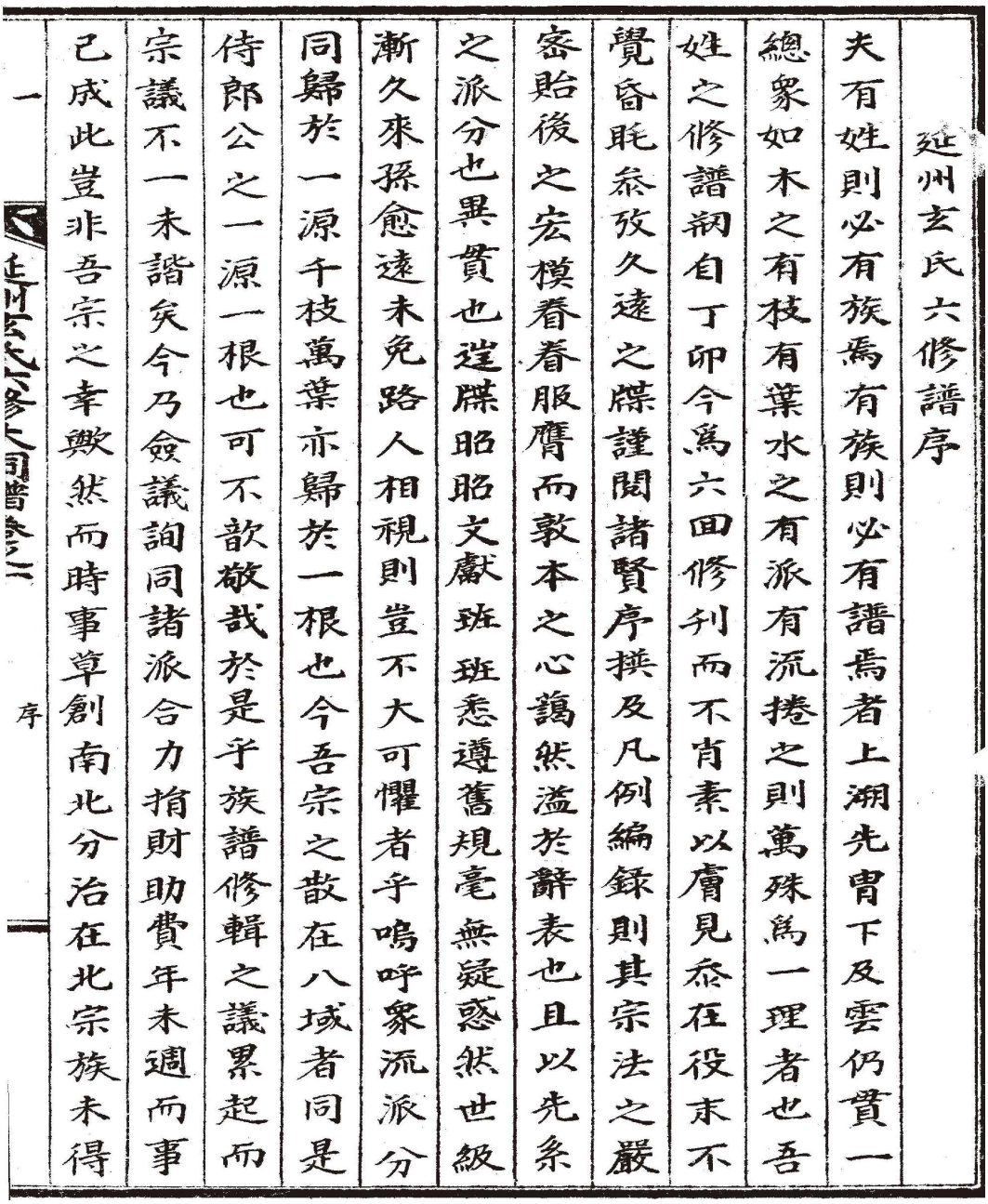
271) 彝性(이성) : 본성(本性).

272) 甲子端陽節(갑자단양절) : 갑자(甲子, 1924)년 단오절(端午節)을 두고 이름이다.

273) 在升(재승) : 현재승(玄在升, 1862~1925). 족보에 보면, 자(字)가 사명(士明)이고 호가 존재(存齋)인데 판관공파 25세손이다.

⑦ 육수보[六修譜] -《정유보(丁酉譜)》; 1957년

【원문(原文)】



延州玄氏六修譜序

夫有姓則必有族焉有族則必有譜焉者上溯先冑下及雲仍貫一總衆如木之有枝有葉水之有派有流捲之則萬殊爲一理者也吾姓之修譜祠自丁卯今爲六回修刋而不肖素以庸見忝在役末不覺昏耗忝攷久遠之牒謹閱諸賢序撰及凡例編錄則其宗法之嚴密貽後之宏模着着服膺而敦本之心藹然溢於辭表也且以先系之派分也異貫也遑牒昭昭文獻班班悉遵舊規毫無疑惑然世級漸久來孫愈遠未免路人相視則豈不大可懼者乎嗚呼衆流派分同歸於一源千枝萬葉亦歸於一根也今吾宗之散在八域者同是侍郎公之一源一根也可不敬敬哉於是乎族譜修輯之議累起而宗議不一未諧矣今乃僉議詢同諸派合力捐財助費年未週而事已成此豈非吾宗之幸歟然而時事草創南北分治在北宗族未得

<그림 (18)> <정유보(丁酉譜)> (1)

【판독(判讀)】

延州玄氏六修譜序[丁酉譜序]

夫有姓則必有族焉 有族則必有譜焉者 上溯先胄 下及雲仍 貫一總衆 如木之有枝有葉 水之有派有流 捲之則萬殊[274]爲一理[275]者也 吾姓之修譜刱[276]自丁卯 今爲六回修刊 而不肖素以膚見[277]忝在役末 不覺昏眊[278] 叅攷久遠之牒 謹閱諸賢序撰 及凡例編錄 則其宗法之嚴密 貽[279]後之宏模眷眷[280] 服膺[281]而敦本之心 藹然[282]溢於辭表[283]也 且以先系之派分也異貫也 逖牒[284]昭昭[285] 文獻班班[286] 悉遵舊規毫無疑惑 然世級[287]漸久來孫[288]愈遠 未免路人相視 則豈不大可懼者乎 嗚呼 衆流派分同歸於一源千枝萬葉亦歸於一根也 今吾宗之散在八域者 同是侍郎公之一源一根也 可不歙敬[289]哉 於是乎[290] 族譜修輯之議 累起而宗議不一未諧矣 今及僉議詢同[291] 諸派合力捐材助費 年未週而事已成 此豈非吾宗之幸歟 然而時事草創[292] 南北分治 在北宗族未得

【해석(解釋)】

<연주현씨육수보서(延州玄氏六修譜序) - 정유보서(丁酉譜序)>

무릇 "성씨(姓氏)가 있으면 반드시 씨족(氏族)이 있고, 씨족이 있으면 반드시 족보(族譜)가 있다."라고 함은 위로는 선조로 소급되고, 아래로는 운손(雲孫)과 잉손(仍孫)에까지 미치면서 여러 무리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로 꿸 수 있음을 말한다. 이를테면 나무에는 가지가 있고 잎이 있으며, 물에는 지류(支流)가 있고 본류(本流)가 있듯이 그것을 요약하면 만

274) 萬殊(만수) : 만 가지로 다름. 여러 가지로 다름.
275) 一理(일리) : 하나의 도리. 같은 이치.
276) 刱(창) : 처음 시작하다. '刱(창)'은 '創(창)'의 속자(俗字)인데, '創(창)'과는 동자(同字)이다.
277) 膚見(부견) : 피상적 관찰. 천박한 견문이나 견해. 천견(淺見).
278) 昏眊(혼모) : 눈이 침침함.
279) 貽(이) : 후대에 물려주다.
280) 眷眷(권권) : 애타게 그리워하는 모양.
281) 服膺(복응) : 마음에 깊이 새김.
282) 藹然(애연) :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양. 성(盛)한 모양.
283) 溢於辭表(일어사표) : 말과 표정에 넘쳐흘러. 언외(言外)에 흘러넘쳐. 여기서 '辭表(사표)'란 글자는 말과 표정이란 뜻으로 쓰여 통용되는 '사직할 뜻을 알리는 문서'와는 별개이다.
284) 逖牒(왕첩) : 지난 과거의 문서. 보통 역사로 해석됨. 여기서 '逖(왕)'은 '徃(왕)'의 고자(古字)임.
285) 昭昭(소소) : 명백함. 현저함.
286) 班班(반반) : 명백하게 밝히는 모양.
287) 世給(세급) : 문화 수준.
288) 來孫(내손) : 현손(玄孫)의 아들. 곧, 오대손(五代孫). 원손(遠孫)을 범칭함.
289) 歙敬(흠경) : 부러워하고 공경함. 흠선(歙羨)하고 존경(尊敬)함.
290) 於是乎(어시호) : 이리하여. 어시(於是).
291) 僉議詢同(첨의순동) : 모두들 의논이 똑같다.
292) 草創(초창) : 어떤 일을 처음으로 일으켜 시작함. 원고를 초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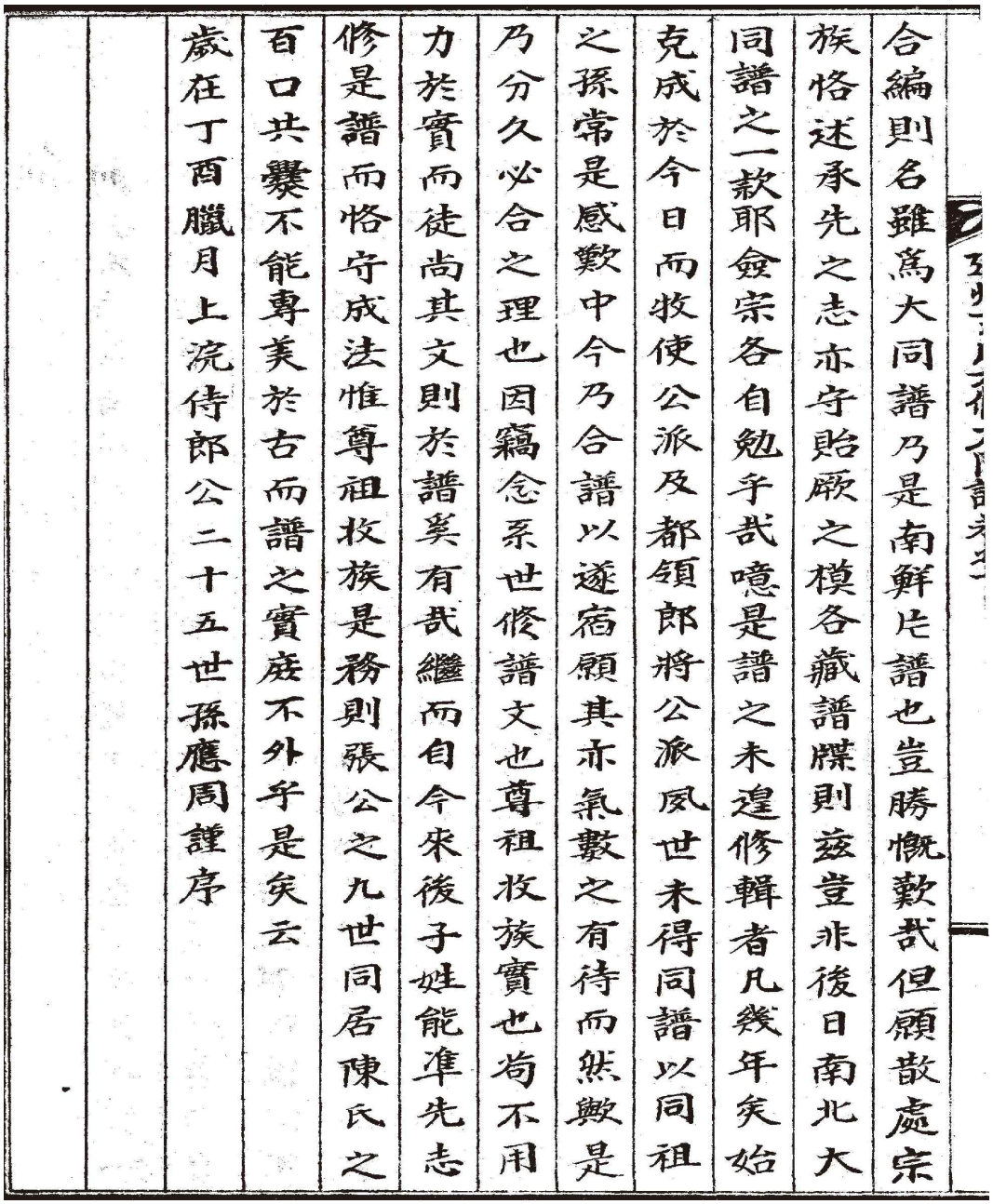
가지로 다름의 구분을 하나의 도리로 된 근원으로 여김이다.

우리 연주현씨(延州玄氏)라는 성씨의 족보가 처음 만들어졌던 지난 정묘(丁卯, 1747)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수보(修譜)를 간행해 낸 바 있다. 불초인 나도 소박하게나마 얕은 소견을 내보이려 말단의 자리에 앉아서 눈이 침침해 옴을 느끼지도 못한 채로 오래된 보첩(譜牒)을 참고하게 되었다. 삼가 여러 어진 이들이 서문(序文)을 쓰고 범례(凡例)를 모아 기록한 자료를 열람하였는데, 그 종법(宗法)의 엄밀함을 후대에 물려주려는 그 큰 규모야말로 바로 애타게 그리워하는 모양새였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근본을 돈독히 하려는 심사는 더욱 왕성하여 말과 표정으로도 넘쳐날 정도였다. 더욱이 앞선 세대에서 지파가 갈리고 본관을 달리함에야. 지난 과거의 역사가 현저하고, 문헌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지는 이상 옛 규약을 모두 준수함에 털끝만큼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세급(世給)이 점차 오래되고, 내손(來孫)이 더욱 멀어지면서 길 가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 쳐다보듯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어찌 크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 무리 지어 흐르면서 지파로 갈라졌다가도 하나의 근원(根源)으로 돌아오고, 일천 가지 일만 잎도 한 뿌리에서 귀착된다. 이제 우리 현씨 종친들이 전국 팔도에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시랑공(侍郎公)을 한 근원이요 한 뿌리로 삼아 시조로 모실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부러워하고 공경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이리하여 족보를 수정하고 편집하는 일을 의논에 부칠 것을 여러 번 제기했으나, 종친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서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모두의 의논들이 똑같아졌기에 여러 지파에서 힘을 한데 모아 출연(出捐)하여 재료와 비용을 대고, 해가 일년이 지나지 않아 일이 이미 성사되었다. 이 어찌 우리 연주현씨 종친의 다행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원고를 초안 잡을 당시의 시대적 사태가 남북이 갈라져 통치하던 때라 북한 종족들의 자료는 얻을 수 없었기에 (…)

【원문(原文)】


合編則名雖爲大同譜乃是南鮮片譜也豈勝慨歎哉但願散處宗族恪述承先之志亦守貽厥之模各藏譜牒則茲豈非後日南北大同譜之一款耶僉宗各自勉乎哉噫是譜之未遑修輯者凡幾年矣始克成於今日而牧使公派及都領郎將公派夙世未得同譜以同祖之孫常是感歎中今乃合譜以遂宿願其亦氣數之有待而然歟是乃分久必合之理也因竊念系世修譜文也尊祖收族實也苟不用力於實而徒尚其文則於譜奚有哉繼而自今來後子姓能準先志修是譜而恪守成法惟尊祖收族是務則張公之九世同居陳氏之百口共爨不能專美於古而譜之實庶不外乎是矣云

歲在丁酉臘月上浣侍郎公二十五世孫應周謹序

<그림 (19)> <정유보서(丁酉譜序)> (2)

【판독(判讀)】

合編則名雖爲大同譜 及是南鮮片譜也 豈勝慨歎哉 但願散處宗族恪述[293]承先之志亦守貽厥[294]之模各藏譜牒 則茲豈非後日南北大同譜之一款[295]耶

293) 恪述(각술) : 정성 들여 서술함.
294) 貽厥(이궐) : 후세에 전하여짐. 특별히 '자손의 장래를 위하여 계획함'이란 의미로 '貽厥孫謀(이궐손

僉[296]宗各自勉乎哉 噫 是譜之未遑[297]修輯者凡幾年矣 始克成於今日而牧使公[298]派 及都領郎將公[299]派 夙世[300]未得同譜 以同祖之孫 常是感歎中今乃合譜以遂宿願[301] 其亦氣數[302]之有待而然歟 是乃分久必合之理也 因竊念系世修譜文也 尊祖收族實也 苟不用力於實而徒尙其文 則於譜奚有哉繼而自今來後 子姓[303]能準先志 修是譜而恪守成法 惟尊祖收族[304]是務則張公之九世同居[305] 陳氏之百口共爨[306] 不能尊美於古而譜之實 庶不外乎是矣云

歲在 丁酉 臘月[307] 上浣[308] 侍郎公 二十五世孫 應周[309] 謹書

【해석(解釋)】

합편(合編)이란 명칭을 달아 비록 대동보(大同譜)라고 하긴 했어도 이는

모)'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곧 자손에게 좋은 계책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시경(詩經)》〈문왕유성(文王有聲)〉의 "풍수 옆에도 기 곡식이 자라는데, 무왕이 어찌 이곳에 천도(遷都)하는 것과 같은 큰일을 하지 않으리오. 그의 자손들에게 좋은 계책을 물려주고, 그의 아들에게 편안함과 도움을 주려 함이니, 무왕은 참으로 임금답도다.〔豐水有芑 武王豈不仕 **詒厥孫謀** 以燕翼子 武王烝哉〕"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295) 一款(일관) : 한 조목.

296) 僉(첨) : 모두 다.

297) 遑(황) : 당황하여 서두르다.

298) 牧使公(목사공) : 제주 입도조(入島祖)인 '제주목사(濟州牧使) 현사경(玄思敬)'을 두고 이름이다.

299) 都領郎將公(도령낭장공) : 성산공(星山公) 현덕수(玄德秀)의 3자인 현원빈(玄元賓+灬)을 지칭함이다.

300) 夙世(숙세) : 전세(前世). 숙세(宿世).

301) 宿願(숙원) 늘 바라던 소망.

302) 氣數(기수) : 운명. 운수.

303) 子姓(자성) : 자식 또래. 자녀.

304) 尊祖收族(존조수족) : 조상을 높이고 친족을 거둔다. 이 말의 어원은 본래 《예기(禮記)》에서 비롯했다. 그것에 이르기를, "사람의 도는 부모를 친히 하는 것이다. 부모를 친히 하기 때문에 조상을 높이고, 조상을 높이기 때문에 종통(宗統)을 공경하고 종통을 공경하기 때문에 종족을 거둔다.[人道親親也 親親故尊祖 **尊祖**故敬宗 敬宗故**收族**]"라고 했다.

305) 張公之九世同居(장공지구세동거) : 장공(張公)이 아홉 세대를 동거하다. 이는 《소학(小學)》 <선행(善行)>편에 실린 말이다. 장공은 당(唐)나라 때 사람 장공예(張公藝)를 두고 이름이다. 그의 집에 아홉 세대의 친족이 함께 살았는데, 고종(高宗)이 그 집을 방문하여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방도를 묻자, 참을 '인(忍)' 자 100개를 써서 바쳤다 한다.

306) 陳氏之百口共爨(공찬) : 진씨(陳氏)의 온 집안식구가 한솥밥을 먹다. 여기서 '백구공찬(百口共爨)'은 보통 '同居共爨(동거공찬)'이라고도 한다. 한편 '爨《(찬)'이란 글자는 불을 때서 밥을 짓다는 의미이다. 소학(小學)》(권6) 〈선행(善行)〉에 보면, 사마광(司馬光)이 이종악을 두고 말하기를 "국조의 공경 중에 옛 법을 지켜 오래도록 쇠하지 않는 자는 오직 고인이 된 이상(李相)의 집안이다. 자손이 몇 대에 걸쳐 2백여 식구가 되었는데, 오히려 함께 살면서 밥을 지어 먹었다. 전원과 객점의 수입, 관직에 있는 자의 봉록을 모두 한 창고에 모아, 식구를 헤아려 날로 양식을 공급하였다. 또 혼인과 초상과 장례의 비용에 모두 일정한 액수가 있어, 자제들에게 나누어 명하여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으니, 그 규모는 이상의 아들 한림학사 이종악이 만든 것에서 나왔다.[國朝公卿能守先法, 久而不衰者, 唯故李相家. 子孫數世至二百餘口, 猶同居**共爨**, 田園邸舍所收及有官者俸祿, 皆聚之一庫, 計口日給餉. 婚姻喪葬所費, 皆有常數, 分命子弟, 掌其事. 其規模大抵出於翰林學士宗諤所制也.]"라고 하였다.

307) 臘月(납월) : 섣달. 음력 12월.

308) 上浣(상완) : 상순(上旬).

309) 應周(응주) : 현응주(玄應周, 1890~?). 족보에 보면, 자(字)는 중억(仲憶)이고 호는 화은(華隱)인데 판관공파 25세손이다.

결국 남한만의 반쪽 족보인 셈이다. 어찌 이를 다 개탄(慨歎)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원컨대 각처로 흩어진 종족들을 정성 들여 서술하고, 선조의 뜻을 이어받음 또한 '자손에게 좋은 계책을 물려줌[貽厥孫謀]'을 지키는 일로서 제각기 보첩을 소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즉 이게 어찌 후일 만들어질 남북대동보(南北大同譜)의 한 조목이 되지 않겠는가. 현씨 종친들 모두가 제각기 스스로 힘쓸지어다!

아! 이 족보를 개수하고 편집하는 일에 당황해하거나 서두르지 않으며 진행해온 지 무릇 몇 년이 지났다. 비로소 오늘에 이르러 목사공파(牧使公派)와 도령낭장공파(都領郎將公派)를 함께 실어 비로소 오늘에야 다 마치게 되었다. 이전 세대에는 똑같은 족보를 얻어보지 못했어도 똑같은 시조의 자손임을 늘 감탄해마지않던 가운데 오늘 마침내 통합된 족보를 만드는 숙원 사업이 이뤄짐으로써 이게 또한 운수(運數)에 기대를 걸게 만드는 그런 일이지 않겠는가. 이는 마침내 갈라짐이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고야 만다는 논리이다.

그러기에 그윽이 생각건대, 세대를 계통(系統) 지어 족보를 개수(改修)함은 장식[文]이요, 조상을 존중하고 종족을 수합(收合)함은 실제[實]인 것이라. 그럴진대 하물며 실제적인 일에 힘을 쏟지 않고서 모두가 그 장식만을 숭상하게 된다면 족보는 있어 무엇하겠는가. 계속하여 이제부터 뒤에 오는 자식 또래들은 선조의 뜻을 기준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족보를 수보(修譜)하면서 성법(成法)으로 정성껏 지킨 건 오직 '조상을 높이고 종족을 거둠[尊祖收族]'이란 것으로서 이 일에만 힘을 쏟았다. 이는 곧 '장공(張公)의 아홉 세대를 동거(同居)함'이나, '진씨(陳氏)의 온 집안 식구가 한솥밥을 먹음'과 같은 사례이다.

"옛것에서 아름다움을 존숭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족보의 실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니라."라고 할 만하다.

세재(歲在)는 정유(丁酉, 1957)년 섣달[臘月] 상순[上浣]에,

시랑공(侍郎公) 25세손 현응주(玄應周)는 삼가 적음.

<역자소개>

현행복(玄行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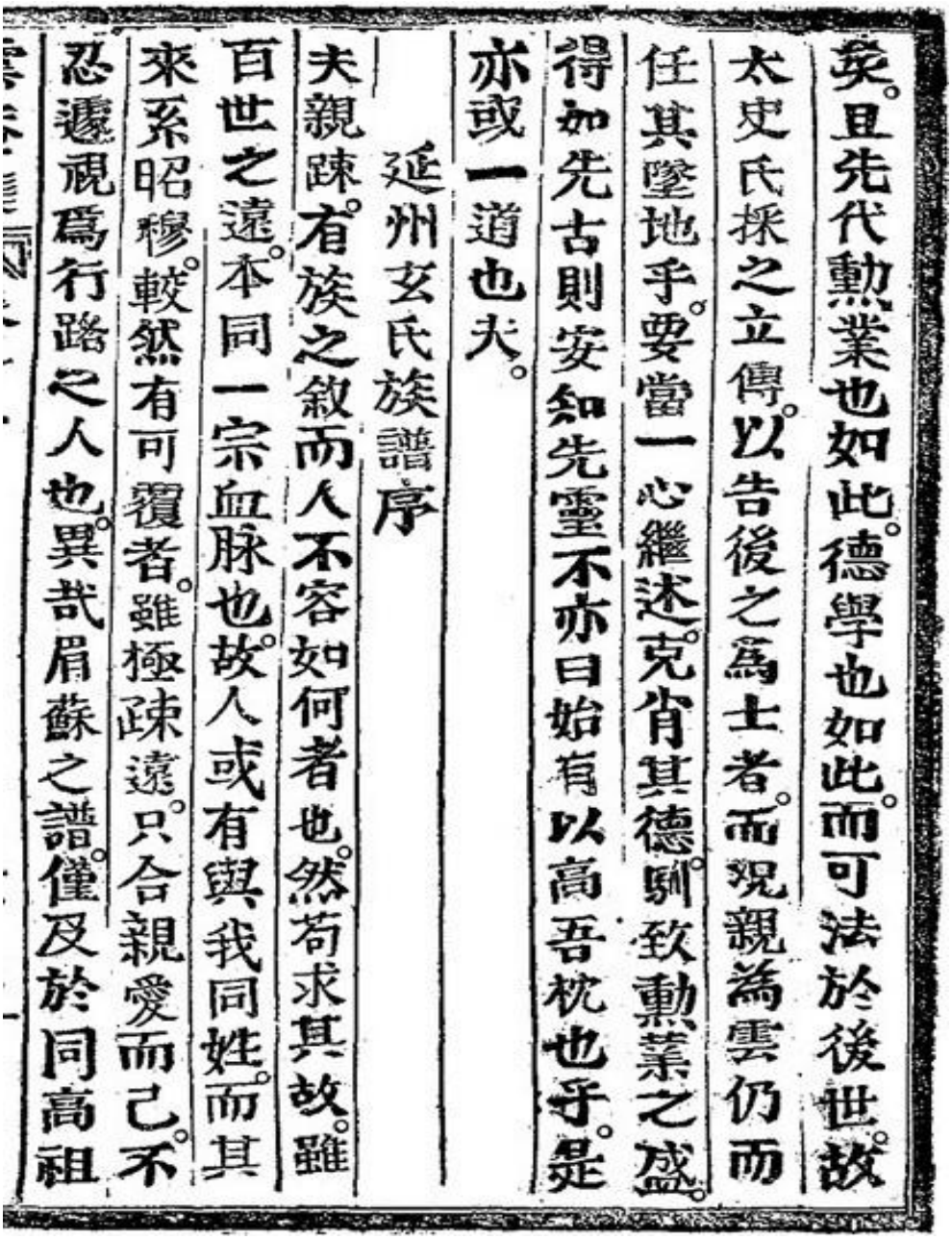
- 1956년 3월 8일(陰) 제주도 남원읍 위미리 태생.
- 연주현씨 목사공 양의막파 29세. 호(號) 마명(馬鳴).
- 어린 시절 외조부로부터 한학(漢學)과 서예(書藝) 기초 학습.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주대학교, 영남대학교, 제주한라대학, 제주관광대학에서 강의
- 제주 자연을 배경 삼은 체험 음악회 최초 창안
  (1)우도동굴음악회(1997), (2)용연선상음악회(1999), (3)방선문계곡음악회(2004)
- 주요 논문 및 저서
  · <공자(孔子)의 음악사상>, <일본에 건너간 탐라의 음악 - 도라악(度羅樂) 연구>, <동굴의 자연음향과 음악적 활용 가치>, <15세기 제주 유배인 홍유손 연구>
  · 《엔리코 카루소》(1996), 《악(樂) 관(觀) 심(深)》(2003), 《방선문(訪仙門)》(2004), 《취병담(翠屛潭)》(2006), 《탐라직방설(耽羅職方說)》(2008), 《우도가(牛島歌)》(2010), 《영해창수록(嶺海唱酬錄)》(2011), 《귤록(橘錄)》(2016), 《청용만고(聽舂漫稿)》(2018)



개인문집 수록 <연주현씨족보서(延州玄氏族譜序)> 2종

(1) 박문일(朴文一, 1822~1894, 李恒老 이항로의 문인, 유학자로 관직은 나서지 않았다. 시호는 文憲문헌)의 《운암집(雲庵集)》

【원문(原文)】



延州玄氏族譜序

夫親疎有族之敘而人不容如何者也然苟求其故雖百世之遠本同一宗血脉也故人或有與我同姓而其来系昭穆較然有可覆者雖極疎遠只合親愛而已不忍遽視爲行路之人也異哉眉蘇之譜僅及於同高祖亦或一道也夫

得如先古則安知先靈不亦曰始有以高吾枕也乎是

任其墜地乎要當一心繼述克肖其德馴致勳業之盛

太史氏採之立傳以告後之爲士者而觀親義雲仍而

矣且先代勳業也如此德學也如此而可法於後世故

<그림 (22)> <운암(雲庵) 박문일(朴文一)의 '연주현씨족보서(延州玄氏族譜序)'> (1)

【판독(判讀)】

夫親疎 有族之叙而人不容如何者也 然苟求其故 雖百世之遠 本同一宗血脉也 故人或有與我同姓 而其來系昭穆 較然[310]有可覆者 雖極疎遠 只合親愛而已 不忍遽視爲行路之人也 異哉 眉蘇之譜[311] 僅及於同高祖

【해석(解釋)】

무릇 친밀함과 소원함이 친족들에게는 베풀어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무슨 때문인가. 그러나 다만 그 연고(緣故)를 찾아본다면, 비록 백세(百世)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근본이 같고 한 종족인 혈맥(血脈)인 셈이기 때문이라. 옛날 사람이 혹시 나와 더불어 같은 성씨를 지녔다면, 그 내려온 계통이 소목(昭穆)으로 분명하고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지극히 소원하다 할지라도 다만 친애(親愛)하는 마음으로 합쳐질 뿐이니, '길 가는 사람' 힐끗 쳐다보듯 한다고 함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다르구나! 미산소씨(眉山蘇氏)의 족보에서는 겨우 고조(高祖)까지를 그 같음에 미치고 있다.

310) 較然(교연) : 분명하고 뚜렷한 모양.

311) 眉蘇之譜(미소지보) : '미산소씨(眉山蘇氏)'의 족보. 여기서 '미산소씨'라 함은, 북송(北宋) 때 소순(蘇洵) · 소식(蘇軾) · 소철(蘇轍)의 삼부자(三父子)를 두고 이름이다. 특히 노천(老泉) 소순(蘇洵)이 지은 <소씨보서(蘇氏譜序)>에 보면, "그 친(親)이 다하면 정(情)이 다하고, 정이 다하면 기쁜 일에 경축하지 않고 근심스런 일에 조문하지 않으니, 길 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다.[親盡則情盡 情盡則喜不慶憂不弔 喜不慶憂不弔則塗人也]"라고 한 대목이 있어 주목을 끈다.

【원문(原文)】



者。而爲之序曰。其至於路人者。吾無如之何云爾。則此爲
譜家三尺而移易不得者乎。曰否。古者宗法之行也。固
有五世者。而初不過小宗之謂也。若夫大宗。雖百世。亦
不與之告毁。則初豈有路人視之者乎。然則蘇說固爲
一種譜法。而於大宗之義。却未該也。夫。盖玄氏之創譜
也。不以延州爲統。而二三其籍者。固有所商量處。而二
公折衷之論。如是嚴切。系統改正之舉。如是痛快。則尊
祖重本之義。於是乎無憾。而於宗法之漸。亦大有相焉。
後之修譜者。復何爲哉。只循塗守轍而莫之失墜也已。
然乃若所憂則有之。世之治譜者。問其所以。則人皆曰。

<그림 (23)> <운암(雲庵) 박문일(朴文一)의 '연주현씨족보서(延州玄氏族譜序)'> (2)

【판독(判讀)】

者 而爲之序曰 其至於路人者 吾無如之何[312]云爾 則此爲譜家三尺[313]而

312) 吾無如之何(무여지하) : 내 어찌할 수 없는 것. 여기서 '無如之何(무여지하)'의 용례가 《대학장구(大

移易不得者乎 曰否 古者宗法之行也 固有五世者 而初不過小宗之謂也 若夫大宗 雖百世 亦不與之告毁則初豈有路人視之者乎 然則蘇說固爲一種譜法 而於大宗之義 却未該也夫 盖玄氏之創譜也 不以延州爲統 而二三其籍者 固有所商量[314]處 而二公[315]折衷之論 如是嚴切系統 改正之擧 如是痛快則尊祖重本之義 於是乎無憾[316] 而於宗法之漸 亦大有相焉 後之修譜者復何爲哉 只循塗守轍[317]而莫之失墜也已 然乃若所憂則有之 世之治譜者問其所以則人皆曰

【해석(解釋)】

그래서 서문(序文)에서 말하길, 심지어 '데면데면한 사람[路人]'이라고 말할 정도로 된 것은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수수방관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게 족보를 정리하는 법이기 때문에 고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옛날에 종법(宗法)을 시행함에는 확실히 오세(五世)까지 있어 처음에는 이를 소종(小宗)이라 일컬음에 지나지 않았다. 무릇 대종(大宗)은 비록 백세(百世)라고 해도 더불어 알려서 훼손하지만 않는다면 처음에 어찌 '길 가는 사람' 보듯 한다고 할 것인가? 그런즉 소씨(蘇氏) 집안의 족보에 대한 설은 참으로 일종의 족보법이긴 해도 대종(大宗)의 의의(意義)에서는 도리어 해당되지 않는다.

대개 현씨(玄氏) 집안에서 족보를 창간해낼 당시에는 '연주(延州)'로 통합되지 않았다. 두세 갈래의 서적은 참으로 비교하여 헤아려 볼 처지가 있었던 바라 두 분 공(公)을 절충한 논리였다. 이렇게 되면 엄정(嚴正)하고 절실(切實)한 계통(系統)의 문제로 족보를 개정하자는 논의가 서게 되

學章句)》 <전(傳 10장>에 보인다. 곧, "나라의 어른이 되어 재용을 힘쓰는 자는 반드시 소인으로부터 시작된다. 저 소인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천재(天災)와 인해(人害)가 함께 이르니, 비록 잘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어쩔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을 일러 '나라는 이익을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의를 이익으로 여긴다.'라고 한다.[長國家而務財用者, 必自小人矣. 彼(爲善之)小人之使爲國家, 菑害竝至, 雖有善者, 亦**無如之何**矣. 此謂國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라고 했다.

313) 譜家三尺(보가삼척) : 족보를 정리하는 법. 여기서 '三尺(삼척)'이란 '三尺法(삼척법)'의 준말로 법률을 뜻한다. 《사기(史記)》 권122 〈혹리열전(酷吏列傳) 두주(杜周)〉에 나오는 말이다. 두주가 정위(廷尉)로 있으면서 법률이 아닌 황제의 의중에 따라 일을 처리하자, 문객들이 "그대는 천자의 공평한 판결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삼척의 법에 따르지 않고 오로지 황제의 의결에 따라 판결하니, 사법관이란 원래 이런 것인가?"라고 질책하였다. 당시에는 삼척 정도의 죽간(竹簡)에 법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삼척법이 법률을 뜻하게 되었다.

314) 商量(상량) : 비교하여 헤아림.

315) 二公(이공) : 여기서 '二公(이공)'이란 장군공(將軍公) 현담윤(玄覃胤)과 상서공(尙書公) 현덕수(玄德秀)를 두고 지칭한 듯하다.

316) 無憾(무감) : 유감(遺憾)이 없다.

317) 循塗守轍(순도수철) : 지난 일만 그대로 따라 하다.

고, 또 이렇게 되면 통쾌한 일로서 조상을 존숭하고 근본을 중시하는 의리가 서게 되는 것이다. 이에 유감(遺憾)이 없게 되었다. 게다가 종법(宗法)의 점진적 공부가 또한 커지면서 도와주는 자가 생겨났다. 뒤에 족보를 개수(改修)하려는 자가 할 일이 또 뭐가 있겠는가. 다만 지난 일들만 그대로 따라 하면서 실추(失墜)하는 일만 없도록 할 뿐이다. 그렇지만 만약 우려하는 바가 있게 되면 족보를 만드는 세상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어볼 때 사람들 모두가 말하기를, (…)

【원문(原文)】


我欲收宗族厚風俗。有如古之人所爲也。人誰曰不可
也。而豈獨鋟梓者之所能乎。必也卞昭穆分親疎。合同
而和。懇惻而與。弔有憂賀有慶。懷懿親棄小忿。不以遠
近。必曰其兄也。如此。其叔也。如此。始爲實踐而無歉於
修譜。然則使之敦敍大宗。亦何所不可也哉。不此之務
而與之批論。則挾盛凌辱與之交遊。則忘德思怨。邁邁
悠悠。有如越瘠之視。則此謂無忠倣恕不出者也。宗族
惡得以攸風俗惡得以厚。而爲蘇氏者。又豈肯遽竪降
幡也哉。故傳曰。苟能充之。足以保四海。不能充之。不足
以事父母。噫。幸而充之。則四海猶在所保。而況大宗之

<그림 (24)> <운암(雲庵) 박문일(朴文一)의 '연주현씨족보서(延州玄氏族譜序)'> (3)

【판독(判讀)】

我欲收宗族厚風俗　有如古之人所爲也　人誰曰不可也　而豈獨鋟梓[318]者之

318) 鋟梓(침재) : 판목에 글을 새김. 책을 간행함을 이름.

所能乎 必也卞昭穆[319]分親疎 合同而和 懇惻[320]而與 弔有憂賀有慶 懷懿親[321]棄小忿 不以遠近 必曰某兄也如此 某叔也如此 始爲實踐而無歉[322]於修譜 然則使之敦叙大宗[323] 亦何所不可也哉 不此之務而與之批論 則挾盛凌孱 與之交遊則忘德思怨 邁邁[324]悠悠[325] 有如越瘠之視[326]則此謂 無忠 做恕不出者也 宗族惡[327]得以收 風俗惡得以厚 而爲蘇氏[328]者 又豈肯遽竪降幡[329]也哉 故傳[330]曰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不能充之 不足以事父母 噫 幸而充之則四海猶在所保 而況大宗之

【해석(解釋)】

“나는 종족을 수합(收合)하고 풍속을 두터이 하고자 합니다.”라고 할 것이니, 옛날 사람이 말한 바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 그 누가 ‘안된다’라고 할 것이며 어찌 홀로 책을 간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바이겠는가. 반드시 소(昭)와 목(穆)은 분별하고, 친함과 소원함은 나누어야 한다. 동류(同類)들과 회합하여 화목하게 하고, 간절하고 지성스러우면서도 함께해

---

319) 卞昭穆(변소목) : 소목(昭穆)을 분별하다. 여기서 ‘卞(변)’은 ‘辨(변)’과 통용되는 글자이다. 한편 ‘소목(昭穆)’이란 종묘나 사당에 신주를 모시는 차례를 뜻하는 말인데, 시조를 중앙에 두고, 2세 · 4세 · 6세를 시조의 왼쪽에 두는 이를 ‘昭(소)’라 하고, 3세 · 5세 · 7세를 시조의 오른쪽에 두는데 이를 ‘穆(목)’이라고 함. 이밖에 항렬이나 촌수, 혹은 같은 종족(宗族)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320) 懇惻(간측) : 간절하고 지성스러움.

321) 懿親(의친) : 매우 가까운 친척.

322) 無歉(무겸) : 불만을 품음이 없다. 여기서 ‘歉(겸)’은 포한(抱恨)의 뜻으로 쓰여 ‘원망스런 마음을 가지다’이다.

323) 大宗(대종) : 시조의 맏아들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종가의 계통. 한편 ‘小宗(소종)’은 대종가(大宗家)에서 갈라져 나간 방계(傍系)를 두고 이름이다.

324) 邁邁(매매) : 업신여기는 모양. 가는 모양.

325) 悠悠(유유) : 긴 모양. 오랜 모양.

326) 越瘠之視(월척지시) : 월(越)나라 사람의 야윈 것 보듯 한다. 이를 달리 ‘秦視越瘠(진시월척)’이라고도 한다. 진나라는 중국의 서북쪽에 있고, 월나라는 동남쪽에 있어서 서로 멀리 떨어져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곧 서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말이다. 이의 출처는 당(唐)나라 때 대학자 한유(韓愈)가 지은 <쟁신론(諍臣論)>이다. 그 글에서, “지금 양자(陽子)는 … 정사(政事)에 관한 득실을 보는 눈이 마치 남쪽 월(越)나라 사람이 북쪽 진(秦)나라 사람들의 살찌고 여윈 것을 보듯 하여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의 마음에 기쁨이나 슬픔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오.[今陽子 … 視政之得失 若越人 視秦人之肥瘠 忽焉 不加喜戚於其心]”라고 했다.

327) 惡(오) : 어찌. 어디. 여기에서 ‘惡’은 본래 죄악의 나쁠 ‘악’이 아니고, ‘何’와 같은 뜻으로 쓰여, ‘오’로 읽는다.

328) 爲蘇氏(위소씨) : 소씨(蘇氏)를 위함이다. 본래 이 말은 소순(蘇洵)이 지은 <족보서(族譜序)>에 “족보는 소씨를 위하여 만들었는데, 오직 내가 나온 바를 상세히 하고 높임은 어째서인가. 족보는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譜**爲蘇氏**作 而獨吾之所自出 得詳與尊 何也 譜吾作也]”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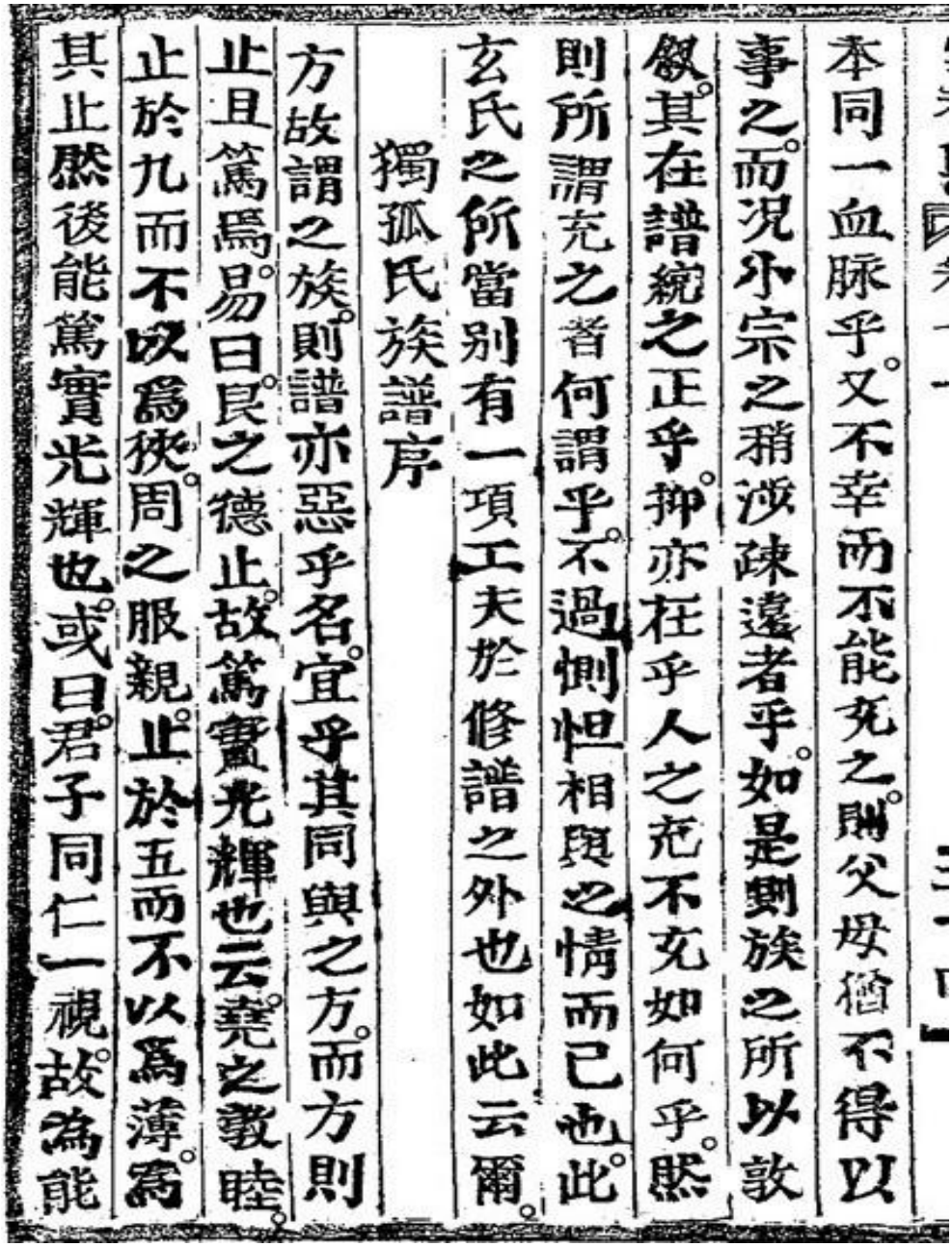
329) 降幡(항번) : 항복을 알리는 깃발로 전쟁에서 항복을 뜻한다.

330) 故傳(고전) : 고사(故事)로 전해짐. 여기서 고사는 구체적으로 《맹자(孟子)》 <공손추장구(公孫丑章句) 상(上)>에 보이는 ‘사단(四端)’ 관련 이야기를 지칭함이다. 그곳에 보면, “사람이 누구든지 이 ‘네 단서[四端]’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 이를 잘 확충해 나가면 족히 사해(四海)를 보전할 수 있지만, 이를 잘 확충해 나가지 못하면 부모님조차 변변히 모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凡有四端於我者 …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苟不充之 不足以事父母]”라고 했다.

야 한다. 슬픈 일이 있을 때면 조문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를 한다. 가까운 친척을 마음으로 품어야 하며, 하찮은 분노는 저버려야 하고, 멀고 가까움으로 친목을 대하지 않는다. 반드시 '아무개 형'이라고 부름이 이와 같고 '아무개 삼촌'이라고 함도 이와 같다. 이처럼 처음부터 실천하게 되면서 족보를 개수(改修)하면서도, 불만을 품지 않게 된다. 그런즉 그것으로써 대종(大宗)을 돈독하게 펼쳐지게 하니, 못할 바가 무엇이겠는가. 이런 데는 힘쓰지 않고, 그것을 비판하는 논의만 있게 되면, 협잡(挾雜)이 성행하고 업신여김이 들쭉날쭉 나타날 것이다. 족보와 더불어 교유(交遊)함에 있어서도 덕을 잊어버리고 원망만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업신여김이 오래도록 이어짐이라! 마치 월(越)나라 사람의 야윈 모습 거론하듯이 서로 아무런 관심이 없게 되면, 이는 곧 "충(忠)이 없으면 서(恕)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함을 말하는 것이 된다. 종족(宗族)은 어찌 수합[收]될 수 있으며, 풍속(風俗)은 어찌 두터워[厚]질 수 있단 말인가. 족보의 서문에 '소씨를 위하여[爲蘇氏]'라고 하는 게 더욱이 어찌하여 항복을 알리는 깃발을 꽂아서 받아들인 것이란 말인가. 고사(故事)에 전하는 말에, "이를 잘 확충해 나가면 족히 사해(四海)를 보전할 수 있지만, 이를 잘 확충해 나가지 못하면 부모님조차 변변히 모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 말이 있다.

아! 다행스럽게도 그것을 잘 확충해서 사해(四海)가 도리어 잘 보존되는 바가 되었음이라. 하물며 대종(大宗)의 (…)

【원문(原文)】



本同一血脉乎。又不幸而不能充之。則父母猶不得以事之。而況小宗之稍涉疎遠者乎。如是則族之所以敦敘。其在譜統之正乎。抑亦在乎人之充不充如何乎。然則所謂充之者何謂乎。不過惻怛相與之情而已也。此玄氏之所當別有一項工夫於修譜之外也如此云爾。

獨孤氏族譜序

方故謂之族。則譜亦惡乎名。宜乎其同與之方。而方則止且篤焉。易曰。艮之德止。故篤實光輝也云。堯之教睦。止於九而不以爲狹。周之服親。止於五而不以爲薄。爲其止然後能篤實光輝也。或曰。君子同仁一視。故爲能

<그림 (25)> <운암(雲庵) 박문일(朴 文一)의 '연주현씨족보서(延州玄氏族譜序)'> (4)

【판독(判讀)】

本同一血脉乎 又不幸而不能充之 則父母猶不得以事之 而况小宗之稍涉疎遠者乎 如是則族之所以敦叙 其在譜統之正乎 抑亦在乎人之充不充如何乎

然則所謂充之者何謂乎 不過惻怛[331]相與之情而已也 此玄氏之所當別有一項 工夫於修譜之外也 如此云爾

【해석(解釋)】

(대종의) 본이 같은 하나의 혈맥임에도, 그것을 확충하지 못했음은 불행한 일이다. 부모를 도리어 모실 수 없게 되고 하물며 소종(小宗)의 소원하고 먼 물길을 건너야 함에랴. 이처럼 종족을 돈독히 펼쳐나가는 까닭이 족보의 통합을 바르게 함에 있지 않던가? 아니면 또한 사람이 확충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라 하는 여부의 문제에 달려있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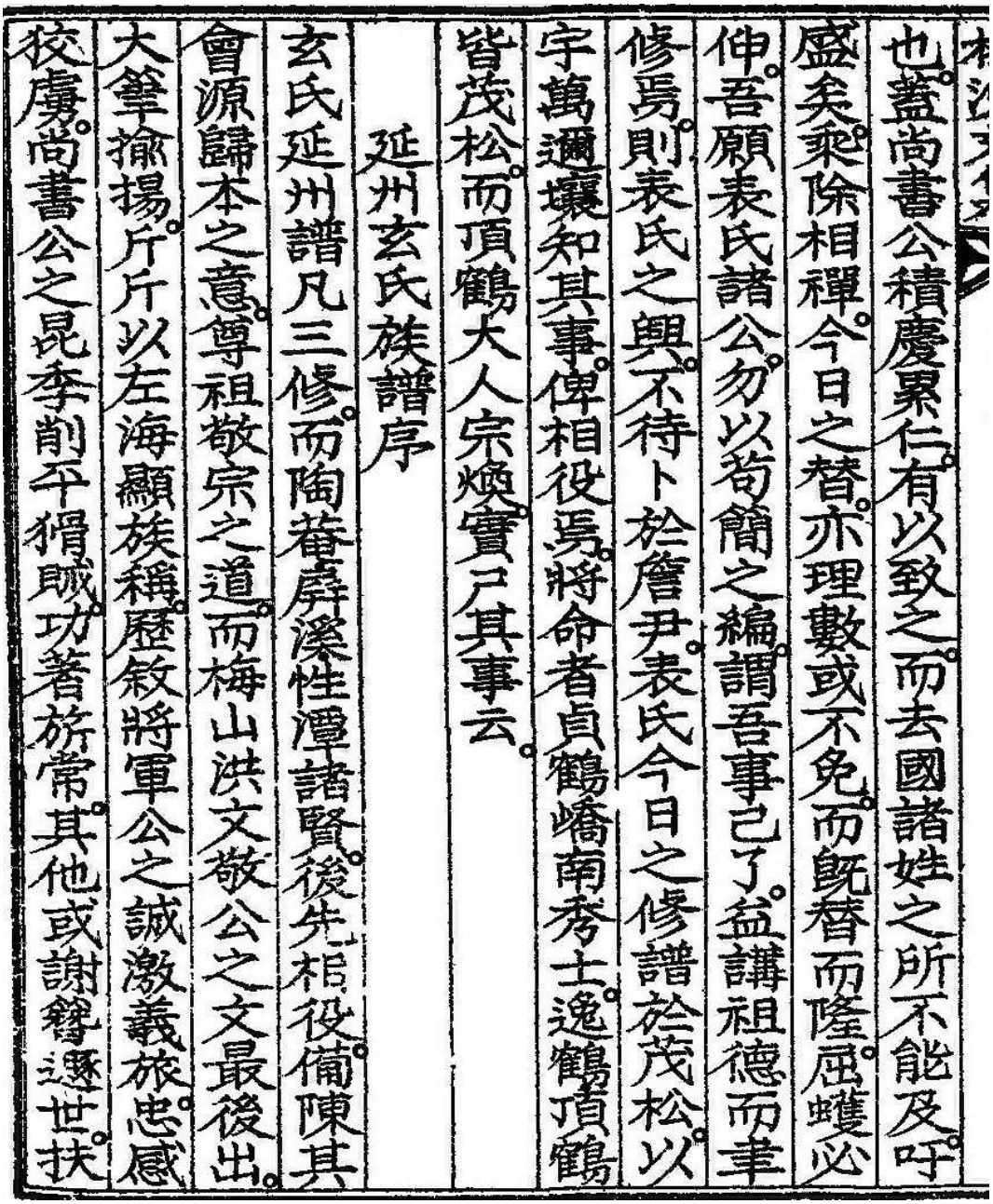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른바 그것을 확충함이란 무엇을 말함인가? 슬프고 마음 아파함에 지나지 않는 서로 간의 끈끈한 정(情)일 따름이니라. 이는 현씨(玄氏)라면 의당 특별히 공부해두어야 할 한 항목으로서 족보를 개수(改修)하는 일 밖의 일이 되는 셈이라. 이와 같이 서문에서 말하노라.

331) 惻怛(측달) : 슬퍼함. 슬프고 마음 아픔.

⑧ 기타 - 개인문집 수록 <연주현씨족보서(延州玄氏族譜序)> 2종

(2) 기우만(奇宇萬, 1846~1916, 전남장성출신 의병장)의 《송사집(松沙集)》

【원문(原文)】



延州玄氏族譜序

玄氏延州譜凡三修而陶菴屛溪性潭諸賢後先相役備陳其會源歸本之意尊祖敬宗之道而梅山洪文敬公之文最後出大筆揄揚斤斤以左海顯族稱歷敘將軍公之誠激義旅忠感狡虜尙書公之晜季削平猾賊功著於常其他或謝簪遯世扶

<그림 (26)>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의 <연주현씨족보서(延州玄氏族譜序)> (1)

【판독(判讀)】

玄氏延州譜凡三修 而陶菴 屛溪 性潭諸賢 後先相役 備陳[332]其會源歸本之意 尊祖敬宗之道 而梅山洪文敬公[333]之文最後出 大筆掄揚[334] 斤斤[335]以左海[336]顯族稱 歷敍將軍公[337]之誠激義旅 忠感狡虜 尙書公[338]之昆季削平猾賊 功著旂常[339] 其他或謝簪遯世 扶

【해석(解釋)】

연주현씨(延州玄氏) 족보(族譜)는 모두 세 차례나 개수(改修)하였는데, 도암(陶菴) 이재(李縡) · 병계(屛溪) 윤봉구(尹鳳九) ·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 등 여러 현인(賢人)들이 앞뒤로 일을 맡아서 그 근원으로 모이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뜻을 자세히 진술(陳述)하였다. 특히 '조상을 높이고, 종자(宗子)를 공경한다'는 뜻의 '존조공경(尊祖敬宗)'이란 말은 매산(梅山) 홍문경공(洪文敬公: 홍직필)의 글로서 맨 뒤로 나왔다. 썩 잘 쓴 문장 솜씨로 연주현씨를 선양(宣揚)하길, 근근이 동쪽 바다의 명망(名望) 높은 세족(世族)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루 서술하길, 장군공(將軍公)께서 의병의 군사들을 참으로 분기시켜 그 충성스러움이 교활한 오랑캐들을 감복시켰다고 했는가 하면, 상서공(尙書公)과 아우형제들은 교활한 적의 무리들을 평정하여 그 공적이 기상(旂常)에까지 드러났다고 했다. 그 밖에 혹 벼슬을 사양하고 은둔생활을 한 이라든지, (…)

---

332) 備陳(비진) : 자세히 진술(陳述)함. 빠짐없이 진열함.
333) 梅山洪文敬公(매산홍문경공) :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을 두고 이름이다.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로 문장에 뛰어났고 육경(六經)은 물론 제자백가(諸子百家)에 통달하였다.
334) 大筆掄揚(대필유양) : 썩 잘 쓴 문장 솜씨로 선양(宣揚)함.
335) 斤斤(근근) : 자세히 살핌. 삼감. 근신함.
336) 左海(좌해) : 동쪽 바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 시각으로 조선을 두고 '동국(東國)'이라 함과 통한다.
337) 將軍公(장군공) : 연주현씨(延州玄氏)의 시조(始祖)인 현담윤(玄覃胤)을 두고 이름이다. 북송(北宋) 때 여진족이 침입하자 고려에 원병을 요청했는데, 이때 현담윤을 원병(援兵) 대장군(大將軍)으로 임명 출정시켜 대공(大功)을 세웠기에 '장군공(將軍公)'이란 호칭이 생겨났다. 달리 시랑공(侍郎公)이라고도 한다.
338) 尙書公(상서공) : 연주현씨(延州玄氏) 시조(始祖) 현담윤(玄覃胤) 공의 장자(長子)인 현덕수(玄德秀)를 두고 이름이다. 그의 최종 관직이 병부상서(兵部尙書)였기에 그렇게 불리는데, 달리 성산공(星山公)이라고도 한다.
339) 旂常(기상) : 왕후(王侯)를 상징하는 기(旗). 왕조에 공덕(功德)이 있는 신하를 여기에 기록한다고 알려져 있다.

【원본(原本)】


植名教或淵源正學講服道義皆爲延州氏百世帡幪而此序
全譜也其一枝之入耽羅爲二十世蓋牧使公嘗宰是州其三
子因家焉其入海微意未易窺測而槩不過乎擊磬襄之遺意
耳公生簪紱名家一朝翩然高蹈與世相忘爵祿不入于心百
世之下猶想像其高尚之志而古人遺子孫安亦默寓於其中
不食之報子姓寔繁今數千家衣冠文行往往有可稱述孝烈
爲家風文藝作世業寔至今無替而見今尊周爲時義帝秦爲
淩恥而所蹈卽海豈入海之祖先見今日景色而然爾耶諸子
孫相與謀曰竊見古家世族多遺失先系者皆在於兵火流散
之餘懲前慨後譜不容緩而廣收同貫勢有所不通情有所不
行宜若古人譜近之爲而牧使公三胤之後追念入海當日事

<그림 (27)>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의 <연주현씨족보서(延州玄氏族譜序)> (2)

【판독(判讀)】

植[340] 名教[341] 或淵源正學 講服道義 皆爲延州氏百世帡幪[342] 而此序全譜

340) 扶植(부식) : 인재(人才)나 세력 따위를 육성하고 확립함.
341) 名教(명교) : 바른 명분을 중시하는 예교(禮教).

也 其一枝之入耽羅 爲二十世 蓋牧使公[343]嘗宰是州 其三子[344]因家焉 其入海微意 未易窺測 而槩不過乎擊磬襄[345]之遺意耳 公生簪紱[346]名家 一朝翩然高蹈 與世相忘 爵祿不入于心 百世之下 猶想像其高尙之志 而古人遺子孫安 亦默寓於其中[347] 不食之報[348] 子姓寔繁 今數千家 衣冠[349]文行 往往有可稱述 孝烈爲家風 文藝作世業 寔至今無替 而見今尊周爲時義 帝秦[350]爲深恥 而所蹈卽海 豈入海之祖 先見今日景色[351]而然爾耶 諸子孫相與謀曰 竊見[352]古家世族[353] 多遺失先系者 皆在於兵火流散之餘 懲前毖後[354] 譜不容緩 而廣收同貫 勢有所不通 情有所不行 宜若古人譜近之爲 而牧使公三胤之後 追念入海當日事

【해석(解釋)】

명교(名敎)를 숭상하여 부식(扶植)함에 앞장선 사람, 연원 깊은 바른 학문을 추구한 사람, 도의(道義)를 익히고 마음에 깊이 새긴 사람 등을 소개했다. 모두 연주현씨(延州玄氏) 일백 세대의 가림막과 덮개가 되어준 인물들로서 이게 온전한 족보의 서문(序文) 내용이다.

그 가운데 한 지파가 탐라(耽羅)였던 제주(濟州)로 들어와서 이제 연주

---

342) 幷幪(병몽) : 장막. 둘러치는 것은 '幷(병)'이라 하고, 위를 가리는 것은 '幪(몽)'이라고 함. 인신하여, 덮어 가림.

343) 牧使公(목사공) : 제주(濟州) 입도조(入島祖)인 행(行) 제주목사(濟州牧使) 현사경(玄思敬)을 두고 이름이다.

344) 其三子(기삼자) : 세 아드님. 곧 현수인(玄壽仁) · 현부인(玄富仁) · 현귀인(玄貴仁)을 두고 이름이다. 이들이 각각 거로파(巨老派) · 신산파(神山派) · 양의막파(羊衣幕派)의 파조(派祖)로 불린다.

345) 擊磬襄(격경양) : 경(磬)쇠를 치던 양(襄). 노(魯)나라가 쇠미해져 예악(禮樂)이 무너지자, 예관(禮官)과 악관(樂官)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떠나갔는데, 그중에 "소사(少師) 양(陽)과 격경(擊磬) 양(襄)은 바닷속 섬으로 들어갔다.〔少師陽擊磬襄入於海〕"라는 말이 《논어》 〈미자(微子)〉에 나온다. 소사(少師)는 악관(樂官)의 보좌관이고, 격경(擊磬)은 경쇠를 치는 악인(樂人)이며, 양(陽)과 양(襄)은 각각 그들의 이름이다.

346) 簪紱(잠불) : 관에 꽂는 비녀와 갓끈. 관리의 예복으로, 현귀함 또는 벼슬아치의 비유.

347) 古人(고인) … 其中(기중) : 옛사람이 자손에게 편안함을 물려줌 또한

348) 不食之報(불식지보) : 조상의 음덕(蔭德)으로 자손이 잘 되는 보응(報應).

349) 衣冠(의관) : 사대부(士大夫). 벼슬아치.

350) 帝秦(제진) : 진(秦)나라를 황제(皇帝)로 칭함. 이는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고사(高士)인 노중련(노중련(魯仲連)과 그 관련성이 깊다. 곧 그가 조(趙)나라에 가 있을 때 진(秦)나라 군대가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邯鄲)을 포위하였는데, 이때 위(魏)나라가 장군 신원연(新垣衍)을 보내 진나라 임금을 황제로 섬기면 포위를 풀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노중련이 "진나라가 방자하게 황제를 칭한다면 나는 동해를 밟고 빠져 죽겠다." 하니, 진나라 장군이 이 말을 듣고 군사를 50리 뒤로 물렸다고 한다. 《사기(史記)》(卷83) <노중련열전(魯仲連列傳)>편 참조.

351) 景色(경색) : 경치. 풍경.

352) 竊見(절견) : 가만히 보건대, ….

353) 古家世族(고가세족) : 여러 세대(世代)에 걸쳐 세도(勢道)를 누린 큰 집안.

354) 懲前毖後(징전비후) : 지난날의 실패를 교훈삼아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심함. 참고로 조선 중기의 문신 유성룡(柳成龍)이 임진왜란의 원인과 전황(戰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징비록(懲毖錄)》이다. 여기에서 '懲 (징)'이란 글자는 본래 징벌하다의 뜻이 있지만, 여기에선 교훈삼다의 뜻으로 쓰였다.

현씨(延州玄氏) 20대손이 되었다. 대개 목사공(牧使公)이 이 고을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이로 인해 세 아드님도 함께 살게 되었다. 그 바다 섬으로 들어간 숨은 뜻을 쉽게 규찰(窺察)하여 추측할 수는 없지만, 이는 대개 노(魯)나라가 쇠미해지자 경쇠 치던 양(襄)이 바다 섬으로 들어가야 했던 남겨진 뜻에 불과할 따름으로 여겨진다.

공은 대대로 벼슬하던 명망(名望)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루아침에 뒤틀린 모습으로 높은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세상사는 서로 잊은 채 관작과 봉록도 외면했던 마음이란 일백 세대나 지난 뒤에서야 그 고상한 뜻을 상상해볼 수 있으리라. 고인(古人)이 자손에게 편안함을 물려주었다는 고사 또한 암묵 중에 마음에 담고, 조상의 음덕(蔭德)으로 자손이 잘되는 보응(報應)에 힘입어 자손이 실로 불어나서 이제 수천 가구가 되었다. 더욱이 사대부(士大夫)로서의 의관(衣冠)을 갖춤이나, 문명(文名)을 날리는 여러 행동들이 왕왕 거론되며 칭찬의 말로 이어지기도 한다. 효자(孝子)와 열녀(烈女)로 태어남은 집안의 유풍(遺風)이 되었으며 문화와 예술을 사랑함은 대대로 이어지는 가업(家業)으로 작용한다. 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바뀜이 없으니, 이제 주(周)나라의 문물을 존대함이 시대적 의의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

진(秦)나라를 황제(皇帝)로 칭함이 깊이 부끄러워 밟는다고 말한 게 곧 바다였으니, 어찌 바다로 들어간 선조가 오늘날 산수들의 아름다운 모양을 미리 예견해서 이랬을 리야 있겠는가.

여러 자손이 서로 함께 모의(謀議)하며 이렇게 말했다.

“가만히 보건대 여러 세대에 걸쳐 세도를 누린 집안에서조차 선대(先代)의 계보(系譜)를 많이 빠뜨리게 된 원인이 전쟁으로 인한 화마의 손길이 뻗쳐 흩어져버린 나머지의 결과이니 지난날의 실패를 교훈 삼아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족보의 편찬을 늦출 수가 없는 일입니다.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본관이 같아지도록 함에는 형세(形勢)가 통하지 않고, 정리(情理)가 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당 고인(古人)이 가까운 사람으로 족보를 만들었던 것처럼 해야 하는데, 목사공(牧使公) 세 아들의 후손들은 바다에 들어갈 당시의 일을 떠올려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원본(原本)】


當百世如一家。不可分也。譜將竣。秀士圭弼圭鎔仁學。聯轡渡海。問序於宇萬。善哉是役也。念祖者所以垂後。所垂於後者。講明祖德。吾知海上玄氏之興未艾也。方今文敎頹廢。讀書種子。頗聞在海上。古所謂海外鄒魯者。可見於今日。願以是奉勗焉。

三恨朴公日錄序

翁恨早違慈天。無他兄弟。恨樵採爲養。學不能充其志。恨年踰中身。家聲墜失。乃拈出三恨爲號。喫緊經子。以朝聞夕可爲心。嗚呼。幼而無聞。壯而無述。老而追補。則其所謂二恨者。將次第見晛。而其一則在天而不在人祇。有立身顯親爲答恩之一道。翁所述作。一字一句。皆悔恨追慕語。讀之令人涕零。古所謂一出言一舉足。不敢忘父母。翁其人歟。若其文辭。則謹而不放。淡

<그림 (28)>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의 <연주현씨족보서(延州玄氏族譜序)> (3)

【판독(判讀)】

當百世如一家 不可分也 譜將竣 秀士圭弼[355] 圭鎔[356] 仁學[357] 聯轡渡海

355) 圭弼(규필) : 현규필(玄圭弼, 1863~1945). 족보에 보면, 자(字연) 공열(公說)이고 호(號)는 금계(錦

問序於宇萬 善哉是役也 念祖者所以垂後 所垂於後者 講明[358]祖德 吾知海上玄氏之興未艾[359]也 方今文敎[360]頹廢[361] 讀書種子 頗聞在海上 古所謂海外鄒魯[362]者 可見於今日 願以是奉勖焉

【해석(解釋)】

일백 세대는 응당 한 집안으로 여겨 지파를 나누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족보가 곧 완성될 무렵이 되자, 수사(秀士)인 현규필(玄圭弼) · 현규용(玄圭鎔) · 현인학(玄仁學) 등 세 사람이 나란히 말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 나[宇萬]에게 찾아와서 서문(序文)을 써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좋소이다, 이 일을 내게 맡기심이! 조상을 생각함이란 후손에게 드리워지는 법이니, 그 후손에게 드리워짐이란 조상의 덕을 해설하여 명백하게 밝힘일지라. 바다 위에서 현씨 집안의 부흥(復興)이 끊기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바야흐로 오늘날의 문치(文治)로 교화함이 쇠퇴하고 황폐해졌지만,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자못 바다 가운데 섬인 제주에 많다고 알려졌는데, 옛사람들이 말하던 이른바 바다 밖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고을로 불리던 곳을 오늘날 볼 수 있음이라.

바라건대, 이 글로써 받들고 힘쓸지어다!

溪)인데 연주현씨(延州玄氏) 27세손으로 제주목사공파이다.

356) 圭鎔(규용) : 현규용(玄圭鎔, 1865~1932). 족보에 보면, 자(字)는 군석(君錫)이고 연주현씨(延州玄氏) 27세손으로 제주목사공파이다.

357) 仁學(인학) : 현인학(玄仁學, 1872~1938). 족보에 보면, 자(字)가 달부(達夫)이고, 호(號)가 광헌(廣軒)인데, 연주현씨(延州玄氏) 26세손으로 제주목사공파이다.

358) 講明(강명) : 해설하여 명백하게 함.

359) 艾(애) : 엉거시과의 다년초 풀인 쑥. 그런데 '艾'라는 글자는 그 독음이 '애'와 '예' 두 형태가 있다. 여기서는 '예'로 읽혀 베이다, 혹은 끊기다의 뜻으로 쓰였다.

360) 文敎(문교) : 예악과 법도로써 민속(民俗)을 교화함. 곧, 문치(文治)로 교화함.

361) 頹廢(퇴폐) : 기울어지고 황폐해짐. 쇠퇴하여 해이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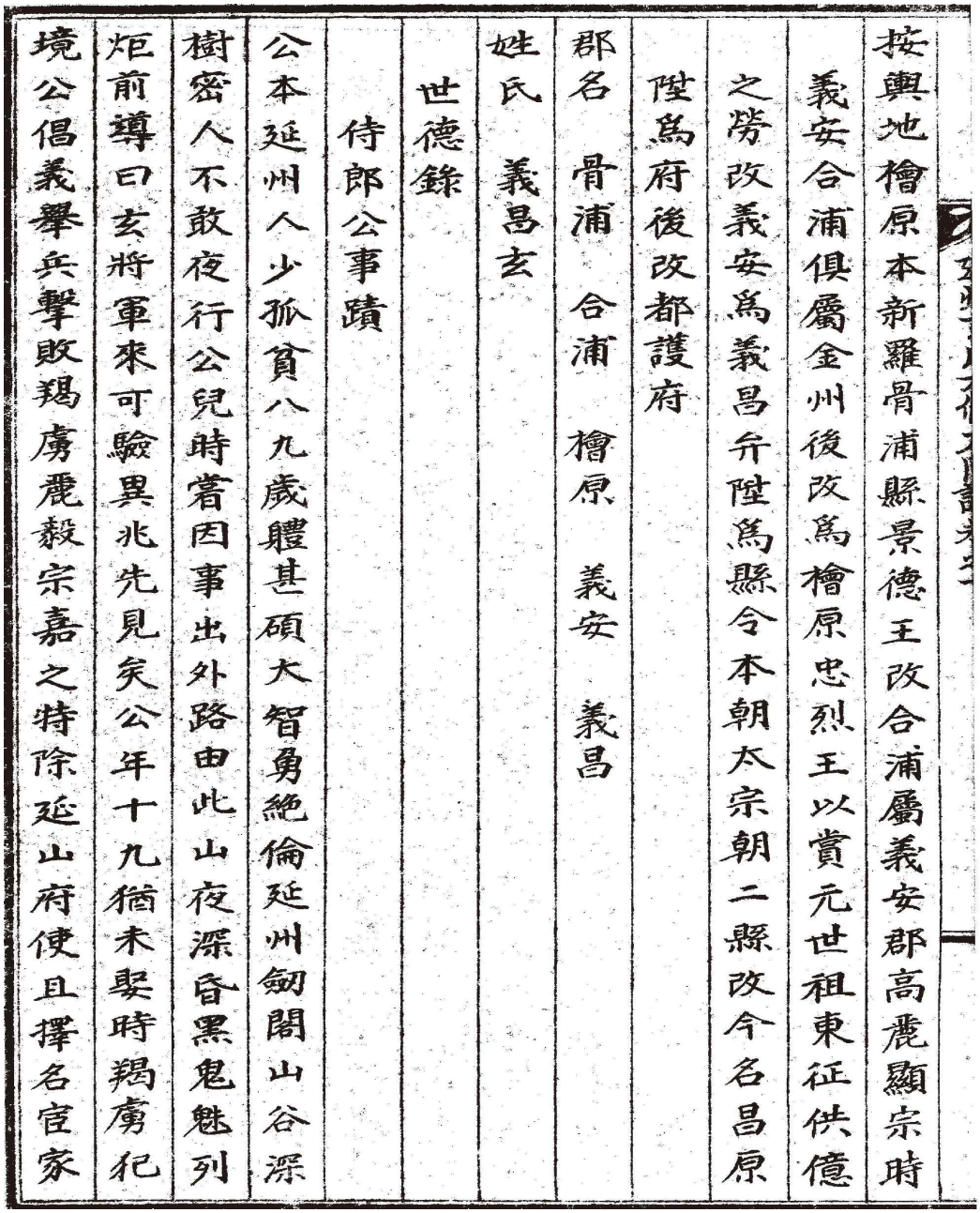
362) 鄒魯(추로) : 추(鄒)나라와 노(魯)나라. 여기서 '鄒(추)'는 맹자(孟子)의 고향인 데서, '魯(노)는 공자(孔子)의 고향인 데서, 문화와 예의가 흥성한 지방. 또는 공자와 맹자를 이름.

<제2편> <연주현씨(延州玄氏) 세덕록(世德錄)>

현행복(玄行福) 역주(譯註)

시랑공(侍郎公) 사적(事蹟)

【원문(原文)】


按輿地檜原本新羅骨浦縣景德王改合浦屬義安郡高麗顯宗時
義安合浦俱屬金州後改爲檜原忠烈王以賞元世祖東征供億
之勞改義安爲義昌并陞爲縣令本朝太宗朝二縣改今名昌原
陞爲府後改都護府
郡名 骨浦 合浦 檜原 義安 義昌
姓氏 義昌玄
世德錄
侍郎公事蹟
公本延州人少孤貧八九歲體甚碩大智勇絶倫延州劒閣山谷深
樹密人不敢夜行公兒時嘗因事出外路由此山夜深昏黑鬼魅列
炬前導曰玄將軍來可驗異兆先見矣公年十九猶未娶時羯虜犯
境公倡義擧兵擊敗羯虜麗毅宗嘉之特除延山府使且擇名宦家

<그림 (29)> 시랑공(侍郎公) 사적(事蹟) (1)

【판독(判讀)】

世德[363]錄

侍郎公事蹟[364]

公本延州人 少孤貧[365] 八九歲體尋碩大智勇絶倫[366] 延州劒閣山 谷深樹密 人不敢夜行 公兒時嘗因事出外[367] 路由此山 夜深昏黑 鬼魅[368]列炬前導 曰 玄將軍來可驗異兆[369] 先見矣 公年十九猶未娶時 羯虜[370]犯境 公倡義擧兵擊敗羯虜 麗毅宗嘉之 特除[371]延山府使 且擇名宦家[372]

【해석(解釋)】

《세덕록(世德錄)》

<시랑공(侍郎公) 사적(事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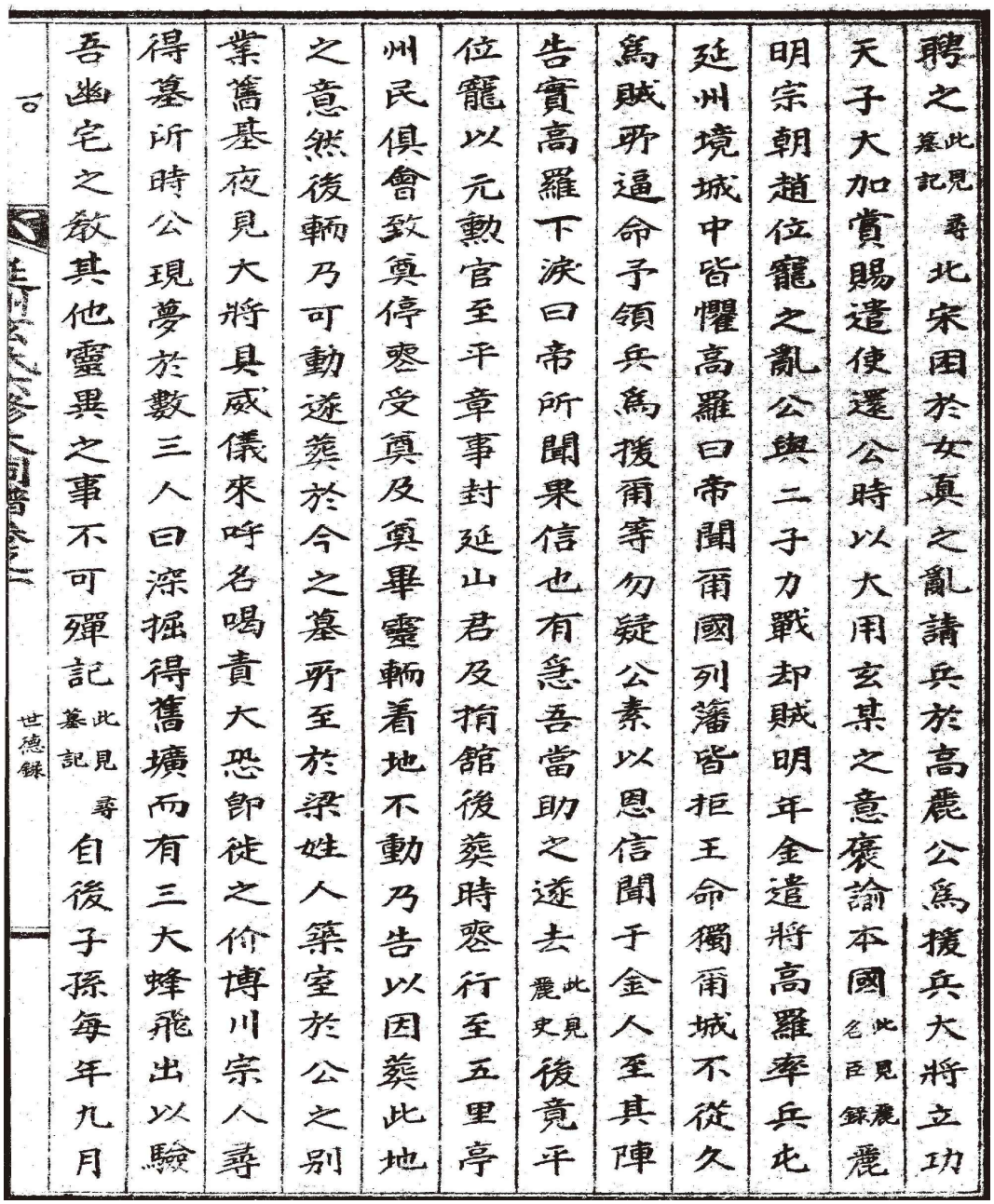
공(公)은 본래 연주인(延州人)이다. 어려선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가난했다. 그의 나이 8, 9세가 되면서부터 몸집이 우람하고, 지혜와 용기가 월등하게 빼어났다. 연주의 검각산(劍閣山) 깊은 골짜기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 밤길을 가기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꺼리곤 했다. 공은 어린 시절에 볼 일 때문에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이 산을 가로질러 가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온 사방이 깜깜해졌는데 어디선가 횃불 든 도깨비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 길을 안내하며 말하기를, "현장군(玄將軍)께서 오셨다! 이상한 조짐 내보이려 미리 나타나신 거다!"라고 했다.

공의 나이 19세 때는 아직 미혼이었는데, 오랑캐가 국경을 침범하자 공은 의병을 일으켜서 그들 오랑캐를 격파해 물리쳤다. 고려 의종(毅宗)

363) 世德(세덕) : 여러 대를 거쳐 쌓아 내려오는 공덕(功德).
364) 事蹟(사적) : 사건의 자취. 일의 행적.
365) 孤貧(고빈) : 의지할 데가 없고 가난함. 외롭고 가난함.
366) 絶倫(절륜) : 월등하게 뛰어남. '倫'은 류(類). 절군(絶群). 절등(絶等). 절류(絶類).
367) 出外(출외) :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감.
368) 鬼魅(귀매) : 도깨비.
369) 異兆(이조) : 징조를 달리함.
370) 羯虜(갈로) : 오랑캐. 《치평요람(治平要覽)》에 보면, 갈로(羯虜)는 고대 부족으로 일찍이 흉노(匈奴)에 예속되어 있다가 위(魏)나라와 진(晉)나라 때에는 상당군(上黨郡)에 흩어져 살았는데, 동진(東晉) 때 갈인(羯人) 석륵(石勒)이 황하(黃河) 유역에서 후조(後趙)를 세워 십육국(十六國)의 하나였다고 전한다.
371) 特除(특제) : 특별히 벼슬을 제수(除授)함.
372) 名宦家(명환가) : 명성이 높은 벼슬아치 집안.

이 이를 가상히 여겨 연산부사(延山府使)를 제수(除授)했다. 더구나 명성이 높은 벼슬아치 집안을 선택해서 (…)

【원문(原文)】


聘之(此見墓記尋) 北宋困於女眞之亂請兵於高麗公爲援兵大將立功
天子大加賞賜遣使還公時以大用玄某之意褒諭本國(此見麗名臣錄麗)
明宗朝趙位寵之亂公與二子力戰却賊明年金遣將高羅率兵屯
延州境城中皆懼高羅曰帝聞爾國列籓皆拒王命獨爾城不從久
爲賊所逼命予領兵爲援爾等勿疑公素以恩信聞于金人至其陣
告實高羅下淚曰帝所聞果信也有意吾當助之遂去(此見麗史)後竟平
位寵以元勳官至平章事封延山君及捐館後葬時麥行至五里亭
州民俱會致奠停麥受奠及奠畢靈輀着地不動乃告以因葬此地
之意然後輀乃可動遂葬於今之墓所至於梁姓人築室於公之別
業舊基夜見大將具威儀來呼名喝責大恐卽徙之俗傳川宗人尋
得墓所時公現夢於數三人曰深掘得舊壙而有三大蜂飛出以驗
吾幽宅之敎其他靈異之事不可殫記(此見墓記尋) 自後子孫每年九月

<그림 (30)> 시랑공(侍郎公) 사적(事蹟) (2)

【판독(判讀)】

聘[373]之此見尋墓記 北宋困於女眞之亂 請兵於高麗 公爲援兵大將 立功[374] 天子大加賞賜 遣使還公時 以大用 玄某之意 褒諭[375]本國此見麗名臣錄 麗明宗朝 趙位寵之亂[376] 公與二子 力戰却賊 明年金遣將高羅 率兵屯延州境 城中皆懼 高羅曰 帝聞爾國[377] 列藩[378]皆拒王命 獨爾城不從久爲賊所逼 命予領兵爲援爾等 勿疑 公素以恩信 聞于金人 至其陣 告實 高羅下淚曰 帝所聞果信也 有急吾當助之遂去 此見麗史 後竟平位寵以元勳[379] 官至平章事[380] 封延山君 及捐舘[381]後葬時 喪行至五里亭[382]州民俱會致奠[383] 停喪受奠及 奠畢靈輀[384] 着地不動 及告以因葬此地之意 然後輀乃可動 遂葬於今之墓所 至於梁姓人築室於公之別業[385]舊基 夜見大將軍威儀[386] 來呼名喝責[387] 大恐 卽徙之价博川[388] 宗人尋得墓所時 公現夢於數三人曰 深掘得舊壙而 有三大蜂飛出 以驗 吾幽宅之敎 其他靈異之事 不可殫記[389] 此見尋墓記 自後子孫 每年九月

【해석(解釋)】

장가들게 했다. 이는 <심묘기(尋墓記)>에 보인다.

북송(北宋)이 여진족(女眞族)의 난리로 곤란에 처하자 고려에 군사 파병을 요청했다. 공은 지원병의 대장이 되어서 공을 세웠다. 이에 (북송의) 천자(天子)께서 큰 상을 하사하시고,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공을 돌려보낼 때에 현(玄) 아무개의 의사를 크게 활용해서 본국에서 포상하는

373) 聘(빙) : 장가들다. 예를 갖추어 아내를 맞다.
374) 立功(입공) : 공을 세움. 특히 입공(立功)은 입덕(立德), 입언(立言)과 더불어 '언제까지 없어지지 않는 훌륭한 세가지'란 뜻의 '삼불후(三不朽)' 중 하나이기도 하다.
375) 褒諭(포유) : 포상(褒賞)하는 유지(諭旨).
376) 趙位寵之亂(조위총지난) : 조위총(趙位寵)의 난.
377) 爾國(이국) : 너희 나라. 여기서 '爾(이)'는 '爾(이)'의 약자(略字)이다.
378) 列藩(열번) : 여러 번국(藩國). 참고로 번국(藩國)이란 분봉(分封)한 나라를 지칭한다.
379) 元勳(원훈) : 으뜸이 되는 공훈. 건국(建國), 혹은 국정(國政)에 이바지한 큰 공.
380) 平章事(평장사)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 2품 벼슬.
381) 捐舘(연관) : 거처하던 집을 버림. 죽음의 완곡한 표현. 여기서 '舘'은 '館'의 속자(俗字)임. 연관사(捐館舍).
382) 五里亭(오리정) : 각 고을의 읍치(邑治)에서 5리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정자로 정승이나 관찰사를 이곳까지 마중 나와 예우하던 곳이다.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고향에 돌아올 때에도 그 고을의 아전이 이곳으로 마중을 나왔다. 《세종실록(世宗實錄)》 '11年 4月 15日'조 참조.
383) 致奠(치전) : 죽은 이에게 제물과 제문을 가지고 조의를 표하는 일.
384) 靈輀(영이) : 상여. 상거(喪車).
385) 別業(별업) : 전원의 집이란 뜻으로 별장을 이르는 말. 별서(別墅). 별저(別邸). 별택(別宅)
386) 威儀(위의) : 위엄 있는 용모와 행동.
387) 喝責(갈책) : 꾸짖다. 질책하다.
388) 博川(박천) : 평안북도 서남단에 위치한 한 고을 이름.
389) 不可殫記(불가탄기) :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유지를 주선하기도 했다. 이는 <고려명신록(高麗名臣錄)>에 보인다.

고려조 명종(明宗) 임금 때에 '조위총(趙位寵)의 난'이 일어나자, 공은 두 아들(곧 德秀와 利厚)과 더불어 힘껏 싸워 적들을 패퇴시켰다. 이듬해에 금(金)나라에서는 장수 고라(高羅)를 파견시켰는데, 병사들을 이끌고 연주 땅 가까이에 주둔했기에 성안 사람들이 모두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고라가 말을 전하기를, "우리 황제께서 당신네 나라의 여러 고을들(곧 조위총의 무리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으나, 홀로 당신네만은 그편에 붙지 않았기에 오랫동안 적들의 위협을 받아 그 형세가 매우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에게 군대를 인솔하고 가서 원조해주라는 명령을 받고 온 것이니 의심하지 않길 바라오!"라고 하였다. 공은 예전부터 금나라 사람들에게 은덕과 신의가 있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므로 그가 금군의 병영으로 가서 그런 내용을 사실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고라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우리 황제께서 들으셨던 바가 과연 옳습니다. 위급한 일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도울 것이니 당신들은 한결같이 충성과 의리를 다하여 왕실을 받들길 바라오!"라고 부탁하고는 드디어 돌아갔다. 이는 《고려사(高麗史)》에 보인다.

그 후에 마침내 조위총의 난을 평정한 큰 공로로 공은 관직이 평장사(平章事)에 올랐고, 연산군(延山君)에 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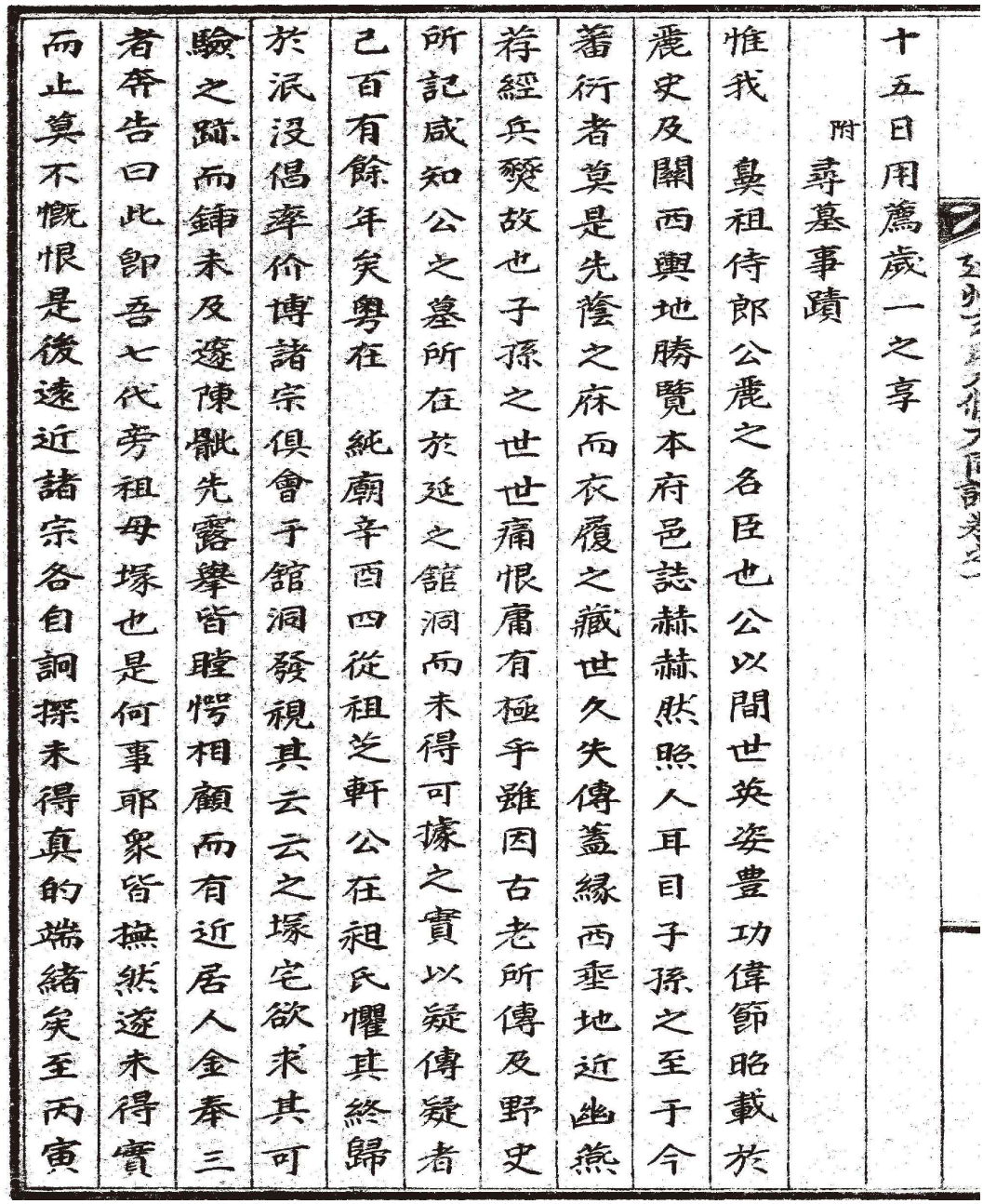
공이 세상을 떠나 장사를 지낼 때의 일이다. 상여가 오리정(五里亭)에 이르자 고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치전(致奠)을 드리기 위해 멈춰 섰다. 그런데 치전의 의례가 끝나서 상여가 떠나려고 하니 땅에 찰싹 붙은 채 움직이질 않았다. 그때 누군가 '이곳에 묻히고 싶은 뜻이 있는가 보다'라고 말하자, 그제야 상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그곳에다 장사를 지내니, 그게 바로 오늘의 묘소가 된 것이다.

한편 양씨(梁氏) 성을 지닌 어떤 이가 공(公)의 옛 별장 터에 집을 짓고 살았다. 어느 날 밤중에 대장군(大將軍)의 위엄있는 용모와 행동을 내보이는 어떤 이가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선 질책하는 게 아닌가. 이에 크게 놀란 양씨는 곧바로 일 부리는 사람을 구해서 박천(博川) 땅으로 집을 옮겨야만 했다.

우리 현씨 종친들이 공의 묘소를 찾아 나섰을 때의 일이다. 공이 우리 일행 두세 사람의 꿈속에서 나타나 말하기를, "기존의 옛 무덤 속을 더

깊게 파보아라.”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 광 속에서 큰 벌 세 마리가 날갯짓하며 나왔다. 이처럼 ‘묘소 터에 대한 교훈[幽宅之敎]’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 것이다. 이 밖에 영험하고 기이한 일들을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는 <심묘기(尋墓記)>에 보인다. 이때부터 우리 현씨 자손들은 매년 9월 (…)

【원문(原文)】



十五日用薦歲一之享

附 尋墓事蹟

惟我 裔祖侍郎公麓之名臣也公以間世英姿豊功偉節昭載於麓史及關西輿地勝覽本府邑誌赫赫然照人耳目子孫之至于今蕃衍者莫是先蔭之庥而衣履之藏世久失傳蓋緣西垂地近幽燕荐經兵燹故也子孫之世世痛恨庸有極乎雖因古老所傳及野史所記咸知公之墓所在於延之館洞而未得可據之實以疑傳疑者已百有餘年矣粤在 純廟辛酉四從祖芝軒公在祖氏懼其終歸於泯沒倡率佥博諸宗俱會于館洞發視其云云之塚宅欲求其可驗之蹤而鍾未及遂陳骭先露擧皆瞠愕相顧而有近居人金奉三者奔告曰此卽吾七代旁祖母塚也是何事耶衆皆撫然遂未得實而止莫不慨恨是後遠近諸宗各自詗探未得真的端緒矣至丙寅

<그림 (31)> 시랑공(侍郎公) 사적(事蹟) (3)

【판독(判讀)】

十五日 用薦歲一之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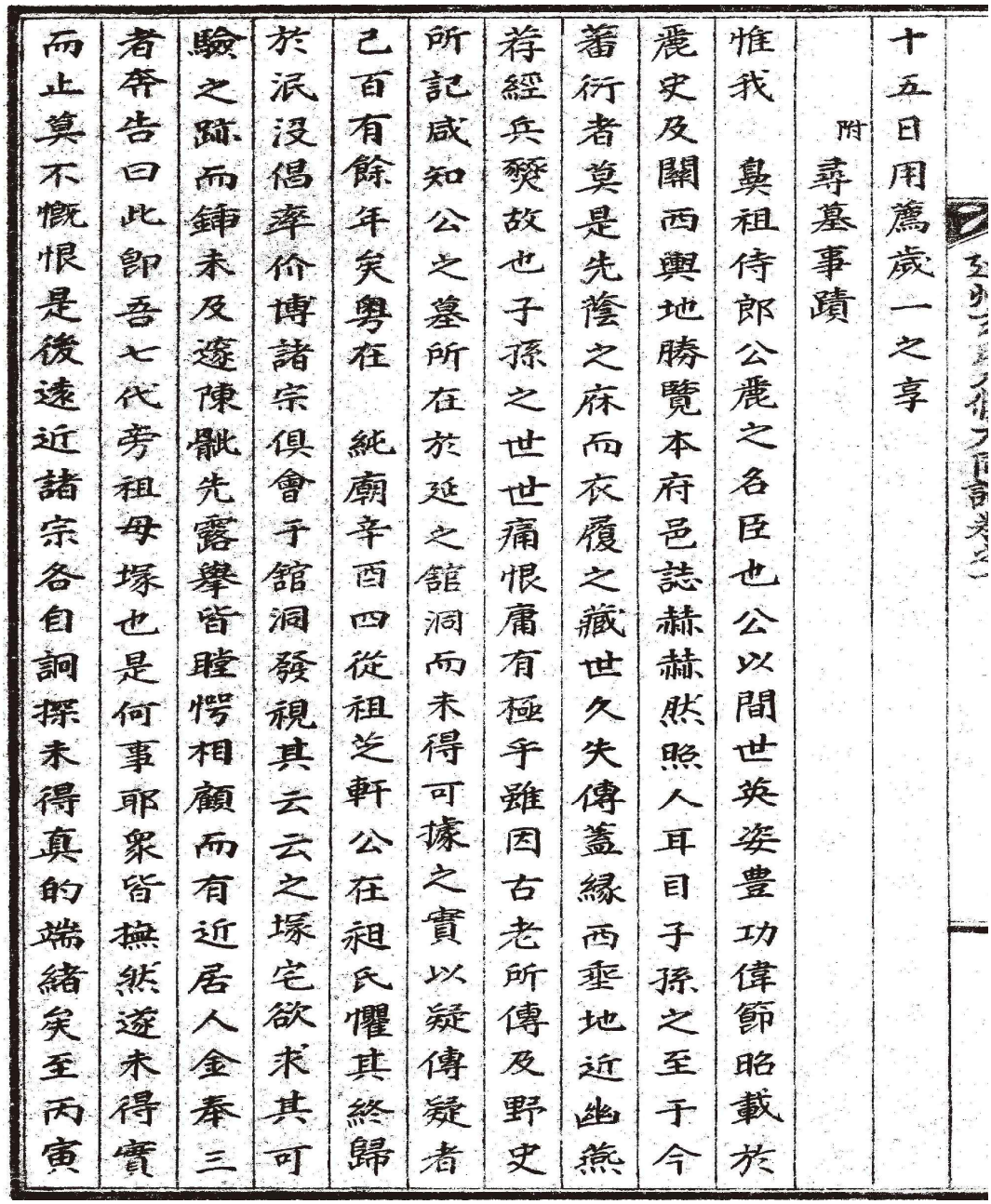
【해석(解釋)】

15일에, 해마다 한 번씩 제사를 올리게 되었다.

<연주현씨(延州玄氏) 세덕록(世德錄)>

심묘사적(尋墓事蹟)

【원문(原文)】


十五日用薦歲一之享

附 尋墓事蹟

惟我 裔祖侍郎公麓之名臣也公以間世英姿豊功偉節昭載於麓史及關西輿地勝覽本府邑誌赫赫然照人耳目子孫之至于今蕃衍者莫是先蔭之庥而衣履之藏世久失傳蓋緣西垂地近幽燕荐經兵燹故也子孫之世世痛恨厝有極乎雖因古老所傳及野史所記咸知公之墓所在於延之館洞而未得可據之實以疑傳疑者已百有餘年矣粤在 純廟辛酉四從祖芝軒公在祖氏懼其終歸於泯沒倡率佾博諸宗俱會于館洞發視其云云之塚宅欲求其可驗之蹟而鋪未及遂陳骸先露擧皆瞠愕相顧而有近居人金奉三者奔告曰此卽吾七代旁祖母塚也是何事耶衆皆撫然遂未得實而止莫不慨恨是後遠近諸宗各自訶探未得真的端緒矣至丙寅

<그림 (32)> 심묘사적(尋墓事蹟) (1)

【판독(判讀)】

附尋墓事蹟

惟我[390] 鼻祖[391]侍郎公 麗之名臣也 公以間世[392]英姿[393]豐功[394]偉節[395]昭於麗史 及關西輿地勝覽 本府邑誌 赫赫[396]然照人耳目 子孫之至于今蕃衍[397]者 莫是先蔭[398]之庥[399] 而衣履[400]之藏世久失傳 蓋緣西垂[401]地 近幽燕[402]荐經兵燹[403]故也 子孫之世世[404] 痛恨[405]庸有極乎[406] 雖因古老所傳 及野史所記 咸知 公之墓所在於延之舘洞[407] 而未得可據之實 以疑傳疑者已百有餘年矣 粤在[408] 純祖辛酉[409] 四從祖芝軒公在昶[410]氏 懼其終歸 於泯沒[411] 倡率[412]价博[413]諸宗俱會于舘洞 發視其云云之塚宅 欲求其可驗之跡 而鍤[414]未及 邃陳骴[415]先露擧皆瞠愕[416]相顧 而有近居人金奉三者奔告[417]曰 此卽吾七代旁祖母塚也 是何事耶 衆皆撫然 遂未得實而止莫不慨恨[418] 是後遠近諸宗 各自詷[419]探未得 眞的端緖矣 至丙寅[420]

---

390) 惟我(유아) : 생각건대 우리 ….
391) 鼻祖(비조) : 시조(始祖).
392) 間世(간세) : 세대를 거름.
393) 英姿(영자) : 준수하고 위풍당당한 풍채. 탁월한 자질.
394) 豐功(풍공) : 공업(功業)을 풍성하게 함. 큰 공적.
395) 偉節(위절) : 고상한 절조(節操).
396) 赫赫(혁혁) : 빛나고 왕성한 모양.
397) 蕃衍(번연) : 번창하여 매우 많음.
398) 先蔭(선음) : 조상(祖上)의 숨은 은덕.
399) 庥(휴) : 그늘.
400) 衣履(의리) : 옷과 신발. 곧 무덤을 상징하기도 함.
401) 西垂(서수) : 서쪽 변방.
402) 幽燕(유연) : 유연(幽燕)은 본래 지금 중국의 하북(河北)과 요령(遼寧) 일대로, 북방의 오랑캐들이 살던 곳이다. 안녹산(安祿山)이 이 지역에서 난(亂)을 일으켜 현종이 서쪽으로 몽진(蒙塵)하였던 역사적 사건이 있다. 여기서는 전쟁이나 난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란 상징어로 쓰였다.
403) 荐經兵燹(천경병선) :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를 자주 겪는 곳. '荐(천)'은 '거듭'이란 뜻이고, '燹(선)'은 들불[野火]의 뜻이 있다.
404) 世世(세세) : 거듭된 세대. 대대로.
405) 痛恨(통한) : 몹시 한탄스럽게 여김.
406) 庸有極乎(용유극호) : 어찌 끝이 있겠는가.
407) 舘洞(관동) : 평안도 관리면(館里面) 소재의 '관동(館洞)'이란 마을을 지칭하는 듯하다.
408) 粤在(월재) : 저 지난번 …인 때에.
409) 純祖辛酉(순조신유) : 순조(純祖) 임금 때 신유(辛酉)년은 순조 1년인 1801년을 말함이다.
410) 在昶(재창) : 현재창(玄在昶, 1733~1809). 족보에 보면, 자(字)가 지재(至哉)이고 호(號)가 지헌(芝軒)으로 첨정공파 18세손이다. 글쓴이가 이 글 끝부분에서 소개한 삼종숙 현석리(玄錫利)의 백부(伯父)이기도 하다.
411) 泯沒(민몰) : 없어짐. 소실함.
412) 倡率(창솔) : 솔선하여 인도함.
413) 价博(개박) : 개천(价川)과 박천(博川). 여기서 '价(개)'는 본래 '선량하다' 혹은 '심부름꾼'의 뜻이 있고, '博(박)'은 (견문이) 넓다는 의미가 있다.
414) 鍤(삽) : 땅을 파는 농기구로서의 가래.
415) 骴(자) : 육탈(肉脫)이 덜 된 죽은 사람의 뼈.
416) 瞠愕(당악) : 여기서 '瞠(당)'은 눈을 똑바로 바라봄이고, '愕(악)'은 몹시 놀람의 뜻이 있다.
417) 奔告(분고) : 빨리 가서 알림.

【해석(解釋)】

<부침> <심묘사적(尋墓事蹟)>

아! 우리의 시조(始祖)이신 시랑공(侍郎公)께서는 고려조 명신(名臣)이셨다. 세대를 걸러 공의 탁월한 자질과 큰 공적, 고상한 절조는 《고려사(高麗史)》나 《관서여지승람(關西輿地勝覽)》뿐만 아니라 본부(本府)의 《읍지(邑誌)》에도 소상히 실려있다. 그 빛나고 왕성한 모양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환하게 비추는 듯하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손의 번창함은 조상의 숨은 음덕의 그늘 때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공의 무덤이 오랫동안 묻혀져 전해지지 못했음은 대개 그 땅이 서쪽 변방에 위치한 연고로 전쟁이나 난이 자주 발생하여 이로 인한 화마(火魔)의 손길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손 대대로 몹시 한탄해마지않음이 어찌 끝이 있었겠는가. 비록 옛 노인이 전하는 바나 야사(野史)에 전하는 기록으로 볼 때, 모두가 인지하는 것은 공의 묘소가 연주(延州)의 관동(館洞)이란 땅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에 입각한 명백한 근거를 얻지 못했기에 의심스러운 것은 의심스러운 대로 전해지면서 백여 년 남짓의 세월이 흘러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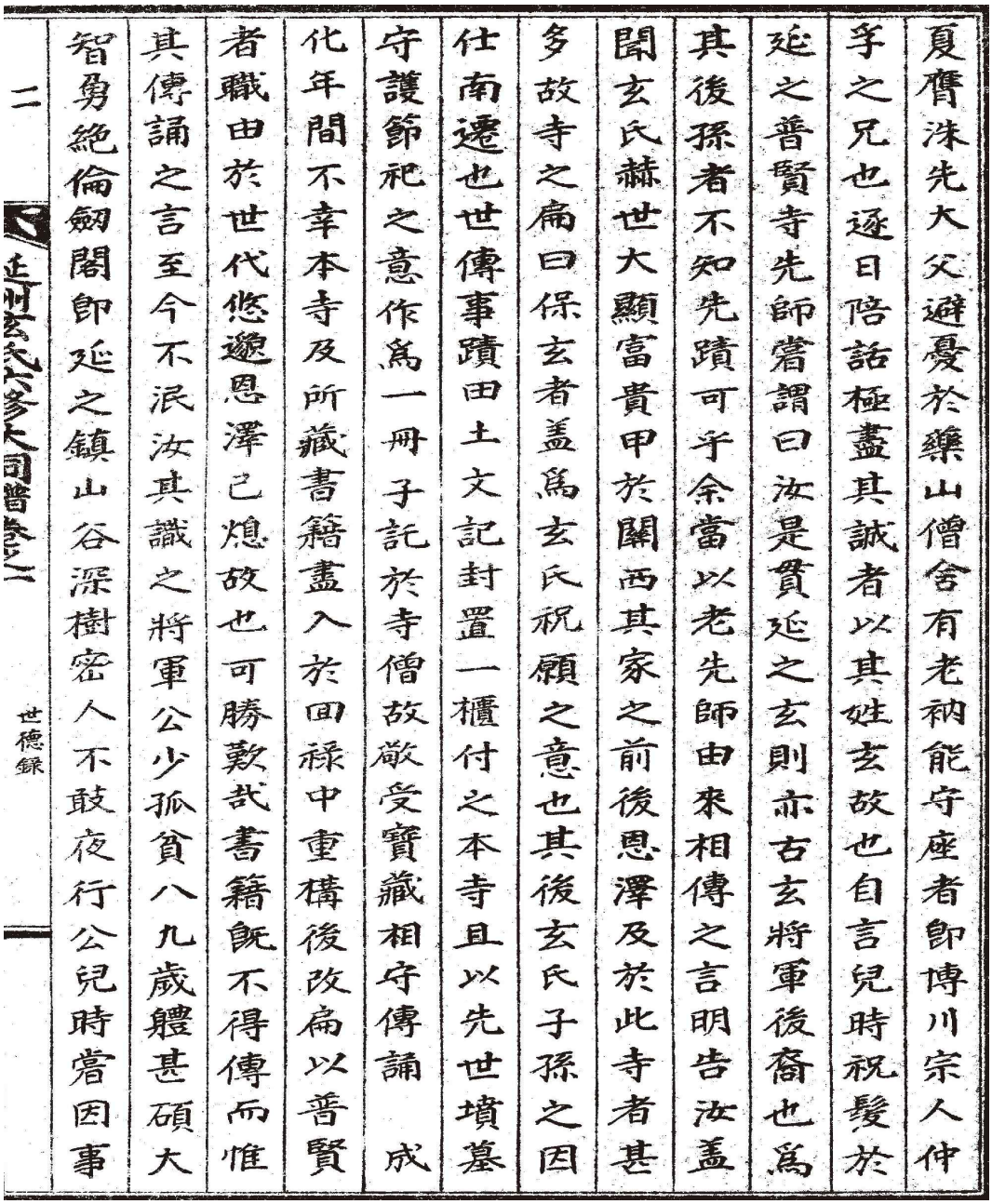
저 지난번 순조(純祖) 신유(辛酉, 1801)년 때에, 4종조(從祖)이신 지헌공(芝軒公) 현재창(玄在昶) 씨께서 끝내는 그게 소실되었을 것이라고 두려움 때문에 평안도 개천(价川)과 박천(博川)에 사는 종친들을 솔선하여 인도해 관동(館洞)에서 모두 모이도록 주선했다. 그 무덤이라고 얘기되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그 흔적의 자취를 확인할 요량이었다. 농기구인 가래를 이용해 흙을 퍼내며 파고 들어가자 얼마 없어 육탈(肉脫)이 덜 된 뼈가 먼저 드러났다. 모두 황당해하고 경악하면서 서로를 돌아다볼 뿐이었다. 이윽고 근처 마을에 거주하는 김봉삼(金奉三)이란 자가 황급히 달려와서는 말하는 게, “여기 묻힌 이 묘의 주인은 우리 7대 방조모(旁祖母)이신데, 이게 도대체 뭣 하는 일이란 말입니까?”라고 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모두 허탈해하며 실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418) 慨恨(개한) : 탄식하고 한스러워함.
419) 詷(동) : 같이. 함께
420) 丙寅(병인) : 여기서 ‘丙寅(병인)’은 순조(純祖) 6년의 1806년임.

채 거기서 그 작업을 그쳐야만 하게 됨을 몹시 한탄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부터 원근 각지에 있는 여러 종친들이 제각기 함께 모여 묘소의 진위를 탐색해보았으나 참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병인(丙寅, 1806)년 (…)

【원문(原文)】


夏膺洙先大父避憂於藥山僧舍有老衲能守座者卽博川宗人仲孚之兄也逐日陪話極盡其誠者以其姓玄故也自言兒時祝髮於延之普賢寺先師嘗謂曰汝是貴延之玄則亦古玄將軍後裔也爲其後孫者不知先蹟可乎余當以老先師由來相傳之言明告汝蓋閭玄氏赫世大顯富貴甲於關西其家之前後恩澤及於此寺者甚多故寺之扁曰保玄者蓋爲玄氏祝願之意也其後玄氏子孫之因仕南遷也世傳事蹟田土文記封置一櫃付之本寺且以先世墳墓守護節祀之意作爲一冊子託於寺僧故敬受寶藏相守傳誦 成化年間不幸本寺及所藏書籍盡入於回祿中重構後改扁以普賢者職由於世代悠邈恩澤已熄故也可勝歎哉書籍旣不得傳而惟其傳誦之言至今不泯汝其識之將軍公少孤貧八九歲體甚碩大智勇絶倫劒閣卽延之鎭山谷深樹密人不敢夜行公兒時嘗因事

<그림 (33)> 심묘사적(尋墓事蹟) (2)

【판독(判讀)】

夏膺洙先大父[421] 避憂於藥山僧舍[422] 有老衲[423]能守座者 卽博川宗人 仲孚之兄也 逐日[424] 陪話[425]極盡 其誠者以其姓玄故也 自言兒時 祝髮[426]於延之普賢寺[427] 先師嘗謂曰 汝是貫延之玄 則亦古玄將軍後裔也 爲其後孫者 不知先蹟可乎 余當以老先師由來相傳之言 明告汝 盖聞 玄氏赫世大顯[428] 富貴甲於關西 其家之前後恩澤[429]及 於此寺者 甚多 故寺之扁曰保玄者盖爲玄氏祝願之意也 其後玄氏子孫之因仕 南遷也 世傳事蹟田土文記置一櫃[430]付之本寺 且以先世墳墓守護 節祀[431]之意 作爲一冊子託於寺僧 故敬受寶藏相守傳誦 成化年間[432] 不幸本寺及所藏書籍盡入於回祿[433]中 重構後改扁以普賢者 職由[434]於世代悠邈[435]恩澤已熄[436]故也 可勝歎哉 書籍旣不得傳 而惟其傳誦之言 至今不泯 汝其識之 將軍公[437]少孤貧 八九歲 體甚碩大 智勇絶倫 劒閣卽延之鎭山 谷深樹密 人不敢夜行 公兒時嘗因事

---

421) 膺洙先大父(응수선대부) : 이 글을 쓴 현응수(玄膺洙, 1792~1872, 첨정공파 20세)의 할아버지 현재관(玄在觀, 1747~1807) 씨를 두고 지칭하는 듯하다. 참고로 '선대부(先大夫)는 죽은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이고, 남의 죽은 아버지를 두고선 '선대인(先大人)'이라 호칭한다.

422) 僧舍(승사) : 절. 사원(寺院). 승우(僧宇).

423) 老衲(노납) : 늙은 승려. 또는 노승(老僧).

424) 逐日(축일) : 날마다. 매일.

425) 陪話(배화) : 모시고 이야기 나눔.

426) 祝髮(축발) : 삭발하고 계율을 받아서 중이 됨.

427) 普賢寺(보현사) : 영변 3대 사찰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혔던 절로서 현재 북한 국보 문화유물 제40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이 절의 창건 시기는 고려 광종 19년(968)이었으며, 그 뒤 여섯 차례의 중창(重創) 사실이 있기도 하다. 수행처로서의 좋은 좋은 조건을 갖춘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구국의 선봉장이었던 서산대사(西山大師)의 입적처(入寂處)로도 유명하다. 이 절의 공식 명칭은 '선교양종대본산묘향산보현사(禪敎兩宗大本山妙香山普賢寺)'이다. 참고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인조(仁祖) 7년 3월 21일>조 기사에 보면, 김류(金瑬)가 대답한 말 가운데 "영변(寧邊)에서 지나가는 길에 보현사(普賢寺)가 있는데, 이곳은 바로 (중국을) 왕래하는 사신이 휴식하는 곳이다.[自寧邊經過之路, 有普賢寺, 此乃往來使星休息之地]"란 언급이 있다.

428) 赫世大顯(혁세대현) : '赫世公卿(혁세공경)'과 비슷한 의미로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높은 벼슬아치, 혹은 큰 인물을 뜻하는 표현이다.

429) 恩澤(은택) : 은혜로운 덕택. 은덕(恩德). 은혜(恩惠).

430) 櫃(궤) : 의복이나 책 따위를 넣어 두는 궤.

431) 節祀(절사) : 철 따라 지내는 제사.

432) 成化年間(성화년간) : 성화(成化)는 중국 명(明)나라 헌종(憲宗) 때 사용한 연호(年號)로서 그 기간은 1464년에서 1487년 사이로 28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433) 回祿(회록) : 불을 맡아본다는 전설상의 신. 인신하여, 화재(火災). 화신(火神).

434) 職由(직유) : 일이 일어나는 까닭.

435) 悠邈(유막) : 아득히 멂. 유원(悠遠).

436) 已熄(이식) : 이미 사그라들다.

437) 將軍公(장군공) : 곧 연주현씨 시조인 현담윤(玄覃胤) 장군(將軍).

【해석(解釋)】

여름이 되자, 현응수(玄膺洙)의 선대부(先大父)께서 일상의 근심 걱정을 덜 양으로 약산(藥山)에 있는 절에 휴양차 머무른 적이 있다. 그 절에는 능수좌(能守座)라는 한 노승(老僧)이 있었는데, 그는 곧 박천(博川)에 사는 종인(宗人) 현중부(玄仲孚)의 형이었다. 날마다 그 스님을 모시고 극진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진실함을 털어놓게 되면서 스님은 자신의 성씨가 현씨(玄氏)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연주(延州)의 보현사(普賢寺)란 절에서 처음 삭발하고 계율을 받아서 스님이 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앞서 돌아가신 선대의 노(老)스님께서 일찍이 자신에게 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했다.

"너는 본관이 연주현씨로 옛날 현장군(玄將軍)의 후예가 된다. 그러기에 후손 된 자로서 선대의 유적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야 되겠느냐. 나는 의당 노선사(老先師)가 그 유래에 대해 서로 전해지는 말이라고 하면서 전한 말을 명확히 너에게 밝혀주마. 대체로 듣기에 현씨 집안 사람들은 대대로 높은 벼슬아치를 산 인물들이어서 재물이 많고 세력가 집안으로는 관서(關西)에서 으뜸으로 친다. 그 집안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여러모로 이 절에 끼친 은혜로운 덕택이란 심히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절의 편액(扁額)으로 내걸기를 '保玄寺(보현사)'라 했는데, 이는 대개 현씨를 위한 축원(祝願)의 뜻을 담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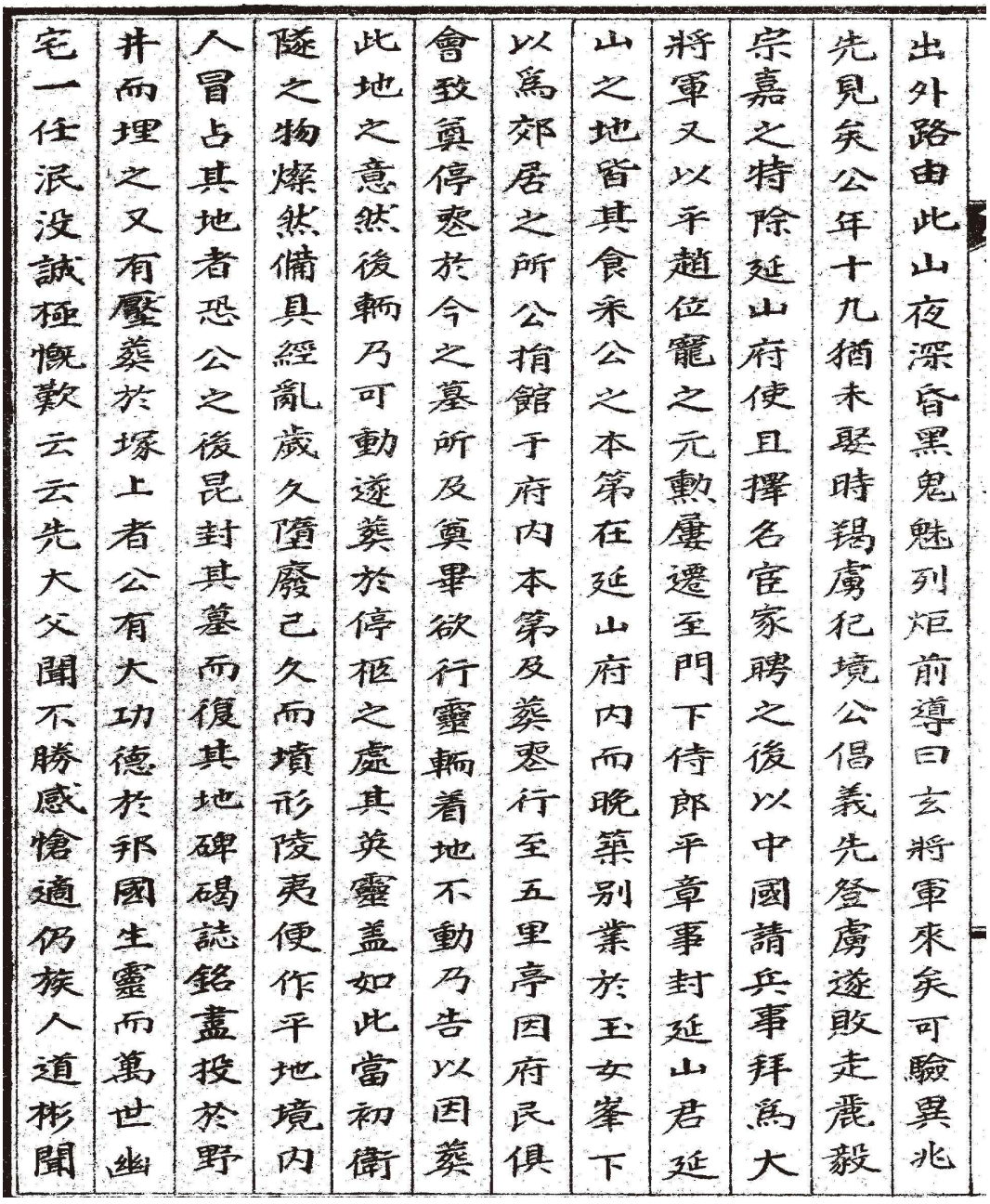
그 후로 현씨 자손들이 벼슬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옮아가게 되었다. 세상에 전해지는 현씨 관련 사적(事蹟)이나 토지 문서에 대한 기록물들이 절에 비치된 괘짝 하나에 담겨 이 절에 보관돼왔던 것이었다. 게다가 앞선 세대에서 분묘(墳墓)를 수호해왔거나 철 따라 지내는 제사의 의미 등을 담은 기록을 책자 하나로 만들어 줄 것을 이 절의 스님께 부탁을 드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기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 보배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서로 지키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던 것이다.

불행히도 성화(成化) 연간(1464~1487)에 발생한 화재로 말미암아 본 사찰의 건물은 물론 소장한 서적 모두가 불에 타버렸다. 절을 중수(重修)한 뒤에 절 이름의 편액도 '普賢寺(보현사)'라고 바꿔 걸었고, 세대가 아득히 멀어지면서 현씨의 은택(恩澤) 또한 어느새 사그라들고 말았으니,

어찌 탄식을 금할 수가 있겠는가? 서적은 이미 불타 없어져 전해 내려오지 않고, 다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만 남아 이제껏 없어지지 않고 남았으니, 너는 그런 사실을 인지해야만 하느니라."

장군공(將軍公)이 어려선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가난했다. 그의 나이 8, 9세가 되면서부터 몸집이 우람하고, 지혜와 용기가 월등하게 빼어났다. 검각산(劍閣山)은 연주(延州)의 진산(鎭山)인데, 그 깊은 골짜기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 밤길을 가기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꺼리곤 했다. 공은 어린 시절에 볼 일 때문에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

【원문(原文)】


出外路由此山夜深昏黑鬼魅列炬前導曰玄將軍來矣可驗異兆
先見矣公年十九猶未娶時羯虜犯境公倡義先登虜遂敗走農穀
宗嘉之特除延山府使且擇名宦家聘之後以中國請兵事拜爲大
將軍又以平趙位寵之元勳屢遷至門下侍郎平章事封延山君延
山之地皆其食采公之本第在延山府內而晩築別業於玉女峯下
以爲郊居之所公捐館于府內本第及葬亟行至五里亭因府民俱
會致奠停亟於今之墓所及奠畢欲行靈輀着地不動乃告以因葬
此地之意然後輀乃可動遂葬於停柩之處其英靈蓋如此當初衛
隧之物燦然備具經亂歲久墮廢已久而墳形陵夷便作平地境內
人冒占其地者恐公之後昆封其墓而復其地碑碣誌銘盡投於野
井而埋之又有壓葬於塚上者公有大功德於邦國生靈而萬世幽
宅一任泯沒誠極慨歎云云先大父聞不勝感愴適仍族人道彬聞

<그림 (34)> 심묘사적(尋墓事蹟) (3)

【판독(判讀)】

出外路由此山 夜深昏黑 鬼魅列炬前導 曰 玄將軍來矣 可驗異兆先見矣 公年十九猶未娶時 羯虜犯境 公倡義先登 虜遂敗走 麗毅宗 嘉之特除 延山府使 且擇名宦家聘之 後以中國請兵事 拜爲大將軍 又以平趙位寵之元勳 屢遷 至門下侍郎平章事 封延山君 延山之地 皆其食采[438] 公之本第[439] 延山府內 以晩築別業 於玉女峯下 以爲郊居之所 公捐舘[440]于府內本第 及葬喪行 至五里亭[441] 因府民俱會 致奠停 喪於今之墓所 及奠畢欲行靈輔 着地不動 乃告以因葬此地之意 然後輔乃可動 遂葬於停柩之處 其英靈 盖如此 當初衛隧之物 燦然[442]備具 經亂歲久 墮廢已久 而墳形陵夷[443]便作平地 境內人冒占[444]其地者恐 公之後昆 封其墓而復其地 碑碣誌銘 盡投於野井而埋之 又有壓葬[445]於塚上者 公有大功德於邦國[446] 生靈而萬世幽宅 一任[447]泯沒[448]誠極慨歎云云 先代父[449]聞不勝感愴[450] 適仍族人道彬[451] 聞

【해석(解釋)】

이 산을 가로질러 가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온 사방이 깜깜해졌는데 어디선가 횃불 든 도깨비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 길을 안내하면서 말하기를, "현장군(玄將軍)께서 오셨다! 별난 조짐 내보이려고 미리 나타나신 거다!"라고 했다.

공의 나이 19세 때는 아직 미혼이었는데, 오랑캐가 국경을 침범해 들어왔다. 공은 의병을 일으켜 선두에 서니 오랑캐가 드디어 패주해 갔다. 고려 의종(毅宗)이 이를 가상히 여겨 연산부사(延山府使)를 특별히 제수

438) 食采(식채) : 봉읍(封邑)의 조세를 받음.
439) 本第(본제) : 고향에 있는 자기의 집. 본가(本家).
440) 捐舘(연관) : 거처하던 집을 버림. 곧 죽음의 완곡한 표현. 여기서 '舘(관)'은 '館(관)'의 속자(俗字)임.
441) 五里亭(오리정) : 각 고을의 읍치(邑治)에서 5리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정자로 정승이나 관찰사를 이곳까지 마중 나와 예우하던 곳이다.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고향에 돌아올 때에도 그 고을의 아전이 이곳으로 마중을 나왔다.《세종실록(世宗實錄)》'11年 4月 15日'조 참조.
442) 燦然(찬연) : 깨끗하고 아름답게. 뚜렷함.
443) 陵夷(능이) : 언덕의 경사가 완만한 모양. 처음에는 성하다가 나중에는 쇠퇴함의 비유.
444) 冒占(모점) : 이름을 사칭하여 남의 물건을 훔침.
445) 壓葬(압장) : 남의 묘 위에 다른 사람의 묘를 조성하는 것.
446) 邦國(방국) : 나라. 국가(國家).
447) 一任(일임) : 전적으로 맡김.
448) 泯沒(민몰) : 없어짐. 소실함.
449) 先大夫(선대부) : 돌아가신 부친.
450) 感愴(감창) :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슬픔.
451) 道彬(도빈) : 현도빈(玄道彬, 1730~ 미상).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첨정공파 16세이다.

(除授)했고, 더구나 명성이 높은 벼슬아치 집안을 선택해서 장가들게 했다. 그 뒤에 중국에서 군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의 일로 대장군(大將軍)의 관직을 제수받았고, 더욱이 조위총(趙位寵)의 난을 평정하는 일에 큰 공훈을 세워 여러 번 천거되어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의 지위에 오르면서 아울러 연산군(延山君)에 봉해졌다. 연산(延山) 일대의 땅이란 거의 다 봉읍(封邑)의 조세로 받은 것으로서 공의 본가도 연산부(延山府) 내에 있었다. 만년에 옥녀봉(玉女峯) 아래쪽에 별장을 짓고서 교외에서 거주하는 장소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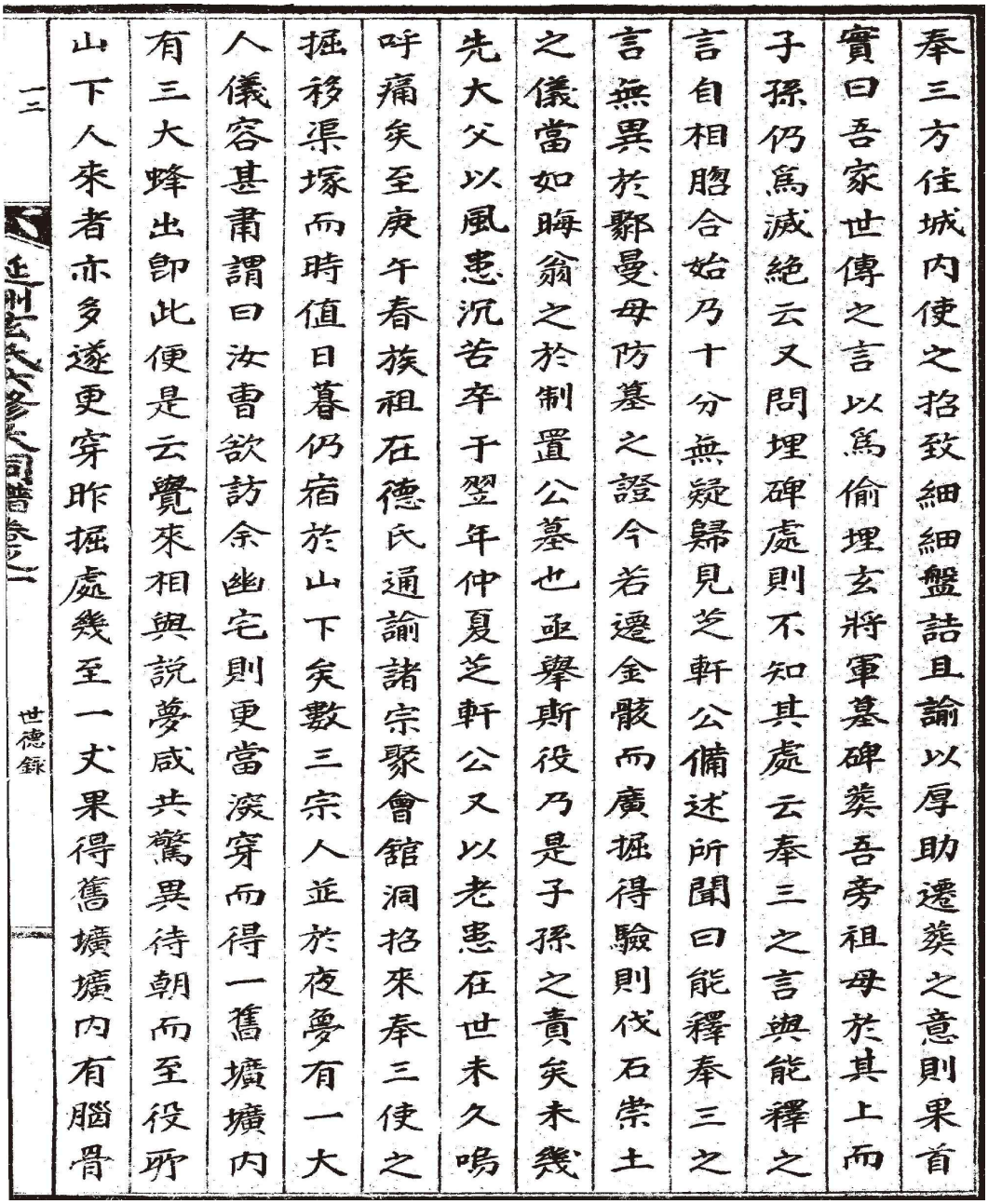
공이 연산부 내 고향의 집 본가에서 돌아가셨다. 장사를 지내려고 상여가 오리정(五里亭)에 이르자 고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치전(致奠)을 드리기 위해 멈춰 섰다. 그런데 치전의 의례가 끝나서 상여를 움직이려 하니 땅에 찰싹 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이곳에 묻히고 싶은 뜻이 있는가 보다'라고 누군가가 고하니, 그제야 상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그곳에다 장사를 지내니, 그게 바로 오늘의 묘소가 된 곳이다. 그 영명하고 신령스러움이 대개 이와 같았다.

애당초 무덤으로 통하는 길과 그것을 지키는 영물들이 뚜렷하게 잘 갖춰져 있었지만, 난리를 겪고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떨어지고 마모되어버린 것이다. 분묘(墳墓)의 형태도 경사가 완만해져 평지처럼 되어버렸다. 그곳 주변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해서 남의 땅을 훔친 자가 있었다. 그가 노상 두려워한 게 바로 공의 후손이 나타나 그 묘를 봉쇄하고 다시 그 땅을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었다. 비갈명(碑碣銘)과 묘지명(墓誌銘)은 모두 들판의 우물 속에다 던져지고 묻혀져버렸다. 게다가 무덤 위에 또다시 다른 사람의 묘를 쓰는 압장(壓葬)이 행해진 것이다.

공(公)은 국가에서 큰 공덕을 쌓은 인물이기에 그 영혼을 살림이 만세(萬世)에 이르도록 유택(幽宅)에 전적으로 맡긴 것인데, 이제 그게 허물어지고 없어져 버렸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돌아가신 선대부(先大夫)께서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슬픔을 누를 길이 없어 했는데, 마침 먼 친척 어른이신 현도빈(玄道彬) 씨께서 (…)

【원문(原文)】


奉三方住城內使之招致細細盤詰且諭以厚助遷葬之意則果首
實曰吾家世傳之言以爲偷埋玄將軍墓碑葬吾旁祖母於其上而
子孫仍爲滅絶云又問埋碑處則不知其處云奉三之言與能釋之
言自相脗合始乃十分無疑歸見芝軒公備述所聞曰能釋奉三之
言無異於鄭曼母防墓之證今若遷金骸而廣掘得驗則伐石崇土
之儀當如晦翁之於制置公墓也亟擧斯役乃是子孫之責矣未幾
先大父以風患沉苦卒于翌年仲夏芝軒公又以老患在世未久嗚
呼痛矣至庚午春族祖在德氏通諭諸宗聚會館洞招來奉三使之
掘移渠塚而時值日暮仍宿於山下矣數三宗人並於夜夢有一大
人儀容甚肅謂曰汝曹欲訪余幽宅則更當深穿而得一舊壙壙內
有三大蜂出卽此便是云覺來相與說夢咸共驚異待朝而至役所
山下人來者亦多遂更穿昨掘處幾至一丈果得舊壙壙內有腦骨

<그림 (35)> 심묘사적(尋墓事蹟) (4)

【판독(判讀)】

奉三[452]方住城內 使之招致[453] 細細盤詰[454] 且諭以厚助遷葬[455]之意 則果首

實[456]曰 吾家世傳[457]之言 以爲偸埋[458] 玄將軍墓碑 葬吾旁祖母 於其上而 子孫仍爲滅絶[459]云 又問則埋碑處 不知其處云 奉三之言 與能釋[460]之言 自相脗合[461] 始乃十分[462]無疑 歸見芝軒公[463]備述所聞 曰能釋奉三之言 無異於鄒[464] 曼母防墓[465]之證 今若遷金骸 而廣掘得驗 則伐石崇土[466]之儀 當如 晦翁[467]之於制置[468]公墓也 亟擧[469]斯役 乃是子孫之責矣 未幾[470] 先大父以風患[471]沉苦卒 于翌年仲夏 芝軒公又以老患在世未久 嗚呼痛矣 至庚午[472]春 族祖[473]在德[474]氏 通諭[475]諸宗聚會館洞 招來

---

452) 奉三(봉삼) : 앞서 언급된 인물로서 그곳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인 '김봉삼(金奉三)'을 지칭함.
453) 招致(초치) : 불러서 오게 함.
454) 盤詰(반힐) : 자세히 캐물어 조사함. 반핵(盤覈).
455) 遷葬(천장) : 부부가 아닌 사람을 사후에 합장하는 일. 이장(移葬).
456) 首實(수실) : 범죄사실을 자백함.
457) 世傳(세전) : 대대로 전함. 세세상전(世世相傳).
458) 偸埋(투매) : 남몰래 매장함.
459) 滅絶(멸절) : 멸망하여 끊어짐. 멸진(滅盡).
460) 能釋(능석) : 앞서 나온 보림사의 노승(老僧) 능수좌(能守座) 스님을 이른다. 여기서 '釋(석)'이란 본래 석가모니(釋迦牟尼)의 준말로서 인신하여, 불승(佛僧)이다.
461) 脗合(민합) : 위아래 입술이 합치는 것처럼 딱 들어맞음.
462) 十分(십분) : 전부.
463) 芝軒公(지헌공) : 이 글 서두에서 '四從祖芝軒公在昶(사종조지헌공재창)'을 언급한 바 있기에, 현재창(玄在昶) 씨를 두고 이름이다.
464) 鄒(추) : 지금의 산동성(山東省)에 있었던, 춘추(春秋) 때 노(魯)의 읍으로 공자(孔子)의 고향. '鄒(추)'와 같은 글자이다.
465) 曼母防墓(만모방묘) : 공자가 방산(防山)에 있던 아버지 묘에 어머니를 합장한 일을 가리킨다. 《예기(禮記)》〈단궁 상(檀弓上)〉편에 보면, "공자가 이미 방 땅에 합장하고 말하기를 '내 들으니 옛날에 묘는 만들고 봉분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금 나는 동서남북으로 다니는 사람인지라 표지(標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이에 봉분을 쌓아 높이 4척을 만들었다. 공자께서 먼저 돌아오고 문인이 뒤에 올 때 심하게 내리는 비를 만났다가 도착하니, 공자가 물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늦었느냐?'라고 하였다. '방 땅의 묘가 무너졌습니다.'라고 하니, 공자께서 응대하지 않았다. 공자께서 주루룩 눈물을 흘리시며 '내 들으니, 옛날에 묘를 보수하지 않는다더구나.' 하였다.[孔子旣得合葬於防, 曰吾聞之, 古也墓而不墳. 今丘也, 東西南北之人也, 不可以弗識也. 於是封之, 崇四尺. 孔子先反, 門人後, 雨甚至, 孔子問焉曰爾來何遲也? 曰防墓崩. 孔子不應. 孔子泫然流涕, 曰吾聞之, 古不脩墓.]"라고 하였다.
466) 伐石崇土(벌석숭토) : 돌을 캐고, 흙을 쌓아서 봉분을 새로 만들다.
467) 晦翁(회옹) : 주자(朱子). 주희(朱熹)의 호가 회암(晦庵)이다.
468) 制置(제치) : 처치(處置).
469) 亟擧(극거) : 하루바삐 서둘러 거행(擧行)하다.
470) 未幾(미기) : 얼마 되지 않음.
471) 風患(풍환) : 중풍(中風). 풍질(風疾).
472) 庚午(경오) : 순조(純祖) 10년인 1810년을 말함이다.
473) 族祖(족조) : 증조(曾祖)의 형제. 대체로 족조(族祖)는 증조(曾祖)의 형제를, 제조(諸祖)는 조부(祖父)의 형제를, 제부(諸父)는 아버지의 형제를 두고 일컫는 호칭이다.
474) 在德(재덕) : 현재덕(玄在德, 1742~1812). 족보에 보면, 자(字)가 초보(初甫)이고, 통덕랑(通德郎)이었으며 첨정공파 18세손이다.

奉三使之掘移[476]渠塚　而時値[477]日暮仍宿於山下矣　數三宗人　並於夜夢有一大人　儀容[478]甚肅謂曰　汝曺欲訪余幽宅　則更當深穿[479]而　得一舊壙[480]　壙內有　三大蜂出卽　此便是云　覺來相與說　夢咸共驚異　待朝而至役所　山下人來者亦多　遂更穿昨掘處　幾至一丈　果得舊壙　壙內有腦骨

【해석(解釋)】

김봉삼(金奉三)이란 자가 마침 성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서 오도록 해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자세히 캐물었다. 게다가 만일 이장(移葬)할 의사가 있다면 두툼한 보상을 해주겠노라고 회유(回諭)를 하자 과연 그는 범죄사실을 이렇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말로서, ‘현장군(玄將軍)의 묘비를 몰래 파묻은 뒤 다시 그 묘 위에 우리 방조모(旁祖母)를 장사지냈는데, 자손들은 모두 멸망하여 후손이 끊겨버렸다.’라고 한 말을 들었다.”라고 했다. 재차 또 그 묘비를 파묻은 장소를 캐묻자, “그곳을 자기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했다. 그러고 보면 봉삼이 전한 말은 예전 보현사의 능수좌(能守座) 스님이 들려주던 말과 절로 잘 들어맞는다. 비로소 전부 다 의심할 바가 전혀 없기에 돌아와서 지헌공(芝軒公)을 만나고선 자신이 들은 바를 모조리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기를, “스님과 봉삼이가 한 말은 춘추시대 때 저 추(鄒)라는 고을에서 공자가 방산(防山)에 있던 부친의 묘에 모친을 합장한 사례와 다름이 없다. 이제 만약 김씨의 유해(遺骸)를 옮기고서 넓게 파헤쳐 들어가면 증험(證驗)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곧 돌을 캐고 흙을 쌓아서 봉분을 새로 만드는 의례가 회옹(晦翁) 주자(朱子)께서 처치한 일과 의당 똑같은 게 공의 묘인 것이라. 하루바삐 서둘러 이 역사(役事)를 행해야 함은 이게 곧 자손의 책무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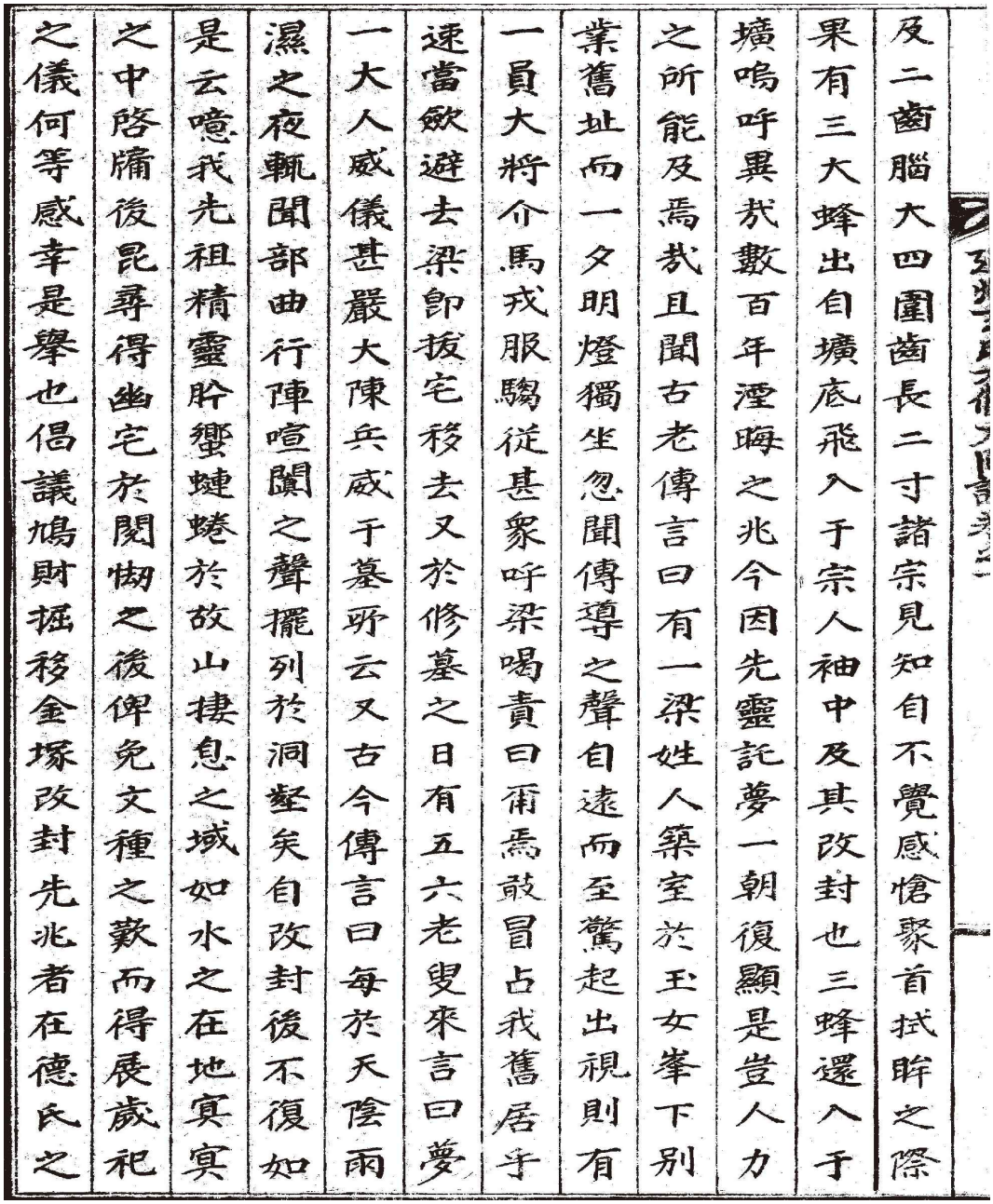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나의 선대부께서는 심한 중풍으로 고생하시다가 이듬해 여름철에 돌아가셨고, 지헌공(芝軒公) 또한 노환으로 이 세상에 오래 있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다. 아! 애통하도다.

---

475) 通諭(통유) : 통지(通知)하다. 알리다.
476) 掘移(굴이) : 무덤을 파서 옮김.
477) 時値(시치) : 현재의 시세. 시가(時價).
478) 儀容(의용) : 외모(外貌).
479) 深穿(심천) : 깊게 뚫다. 여기서 ‘深’은 ‘深’의 고자(古字)이다.
480) 舊壙(구광) : 옛 무덤 속.

경오(庚午, 1810)년 봄에 이르러 증조할아버지뻘 형제간 친척인 현재덕(玄在德) 씨가 친척 여러분에게 통지를 보내서 관동(館洞)으로 모이도록 했다. 김봉삼 씨를 불러내어 그에게 무덤을 깊고 넓게 파서 옮기도록 했다. 때가 마침 저물녘이 되면서 곧바로 산 아래쪽에서 숙박하게 되었다. 몇몇 종인(宗人)들이 잠을 자다가 덩달아 꿈을 꾸었는데, 꿈결에 엄숙한 외모 차림을 한 사람이 등장하여 말을 전하길, “너희들이 내 유택(幽宅)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의당 곧장 깊이 파내도록 하라. 그러면 옛 무덤을 찾게 될 텐데, 무덤 속에서 세 개의 큰 벌이 나타나게 될 것인즉 그게 바로 내 무덤이니라.”라고 했다고 한다. 서로에게 느낀 바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공통된 꿈속 이야기를 공유함이란 경이로운 일이기도 하다. 아침을 기다렸다가 일을 벌일 장소에 도착했는데, 산 아래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드디어 어제 파던 곳에서 거의 한 장(丈)의 길이나 더 파고 들어가니 과연 옛 무덤의 모습을 찾아내게 되었다. 무덤 속에선 두뇌 뼈 및 (…)

【원문(原文)】


及二齒腦大四圍齒長二寸諸宗見知自不覺感愴聚首拭眸之際果有三大蜂出自壙底飛入于宗人袖中及其改封也三蜂還入于壙鳴呼異哉數百年湮晦之兆今因先靈託夢一朝復顯是豈人力之所能及焉哉且聞古老傳言曰有一梁姓人築室於玉女峯下別業舊址而一夕明燈獨坐忽聞傳導之聲自遠而至驚起出視則有一員大將介馬戎服騶從甚衆呼梁喝責曰爾焉敢冒占我舊居乎速當歛避去梁卽拔宅移去又於修墓之日有五六老叟來言曰夢一大人威儀甚嚴大陳兵威于墓所云又古今傳言曰每於天陰雨濕之夜輒聞部曲行陣喧闐之聲擺列於洞壑矣自改封後不復如是云噫我先祖精靈肹蠁蜷蜷於故山棲息之域如水之在地冥冥之中啓牖後昆尋得幽宅於閔惻之後俾免文種之歎而得展歲祀之儀何等感幸是擧也倡議鳩財掘移金塚改封先兆者在德氏之

<그림 (36)> 심묘사적(尋墓事蹟) (5)

【판독(判讀)】

及二齒 腦大四圍 齒長二寸 諸宗見 知自不覺感愴[481] 聚首[482]拭眸[483]之際 果有三大蜂 出自壙底 飛入于宗人袖中 及其改封[484]也 三蜂還入于壙 嗚呼異哉[485] 數百年湮晦[486]之兆 今因先靈託夢[487] 一朝[488]復顯 是豈人力之所能 及焉哉 且聞古老傳言曰 有一梁姓人築室[489] 於玉女峯下 別業舊址[490] 而一夕明燈獨坐 忽聞傳導[491]之聲 自遠而至 驚起出視則有一員大將介馬戎服[492] 騶從[493]甚衆 呼梁喝責曰 爾[494]焉敢冒占[495]我舊居乎速當斂避去 梁卽拔宅移去 又於修墓之日 有五六老叟[496]來言曰 夢一大人威儀[497]甚嚴 大陳兵威于墓所云 又古今傳言曰 每於天陰雨濕之夜 輒聞部曲[498]行陣喧闐[499]之聲 擺列[500]於洞壑[501]矣 自改封後 不復如是云 噫[502]我先祖精靈肹蠁[503]蜎蜿[504] 於故山[505]棲息之域 如水之在地 冥冥[506]之中 啓牖[507]後昆[508] 尋得幽宅 於閱怯[509]之後俾 免文種之歎[510] 而得展歲祀

---

481) 感愴(감창) :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슬픔.
482) 聚首(취수) : 여럿이 머리를 맞댐. 모임.
483) 拭眸(식모) : 눈 비비고 바라보다.
484) 改封(개봉) : 무덤에 흙을 더 얹고 떼를 입히는 것을 두고 이름이다.
485) 嗚呼異哉(오호이재) : 아, 이상한 일이다!
486) 湮晦(인회) : 사라져 없어짐. 매몰됨.
487) 託夢(탁몽) : 꿈에 귀신이나 망령이 모습을 드러내고 당부함을 이름.
488) 一朝(일조) : 하루아침. 한 번. 일단(一旦).
489) 築室(축실) : 집을 지음.
490) 舊址(구지) : 예전에 건물이나 성곽 등이 있던 터. 구기(舊基). 구허(舊墟).
491) 傳導(전도) : 전하여 인도함. 일이나 전기가 물체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아가는 현상.
492) 戎服(융복) : 군복(軍服). 또는 군복을 입음.
493) 騶從(추종) : 신분이 높은 사람이 외출할 때, 수레의 앞뒤에서 수행하는 시종(侍從). 공봉(供奉). 추복(騶僕).
494) 爾(이) : 너(2인칭 대명사). '爾(이)'는 '爾(이)'의 약자(略字)이다.
495) 冒占(모점) : 이름을 사칭하여 남의 물건을 차지함.
496) 老叟(노수) : 늙은이. 노옹(老翁).
497) 威儀(위의) : 위엄 있는 용모와 행동.
498) 部曲(부곡) : 나라에 공납을 바치면서 독립 생활을 하던, 투항자(投降者)들로 이뤄진 부락. 군대.
499) 喧闐(훤전) : 시끄럽게 떠듦. 훤전(喧塡).
500) 擺列(파열) : 벌여놓음. 진열(陳列).
501) 洞壑(동학) : 깊은 계곡.
502) 噫(희) : 아! 한탄하거나 비통할 때 내는 소리. 감탄사
503) 肹蠁(힐향) : 소리의 울림이 사방으로 퍼짐. 또는 향기가 가득함을 이름. 또는 신령이 감응(感應)함. 또는 영감으로 오묘함에 통함의 비유. 여기서 '肹(힐)'은 '肹(힐)'과 동자(同字)임.
504) 蜎蜿(연권) : 지렁이 벌레.
505) 故山(고산) : 옛 산. 곧, 고향(故鄕).
506) 冥冥(명명) : 어두운 모양.
507) 啓牖(계유) : 본래 '들창을 열다'의 뜻이 있지만, 보통 후손들을 일깨워 깨우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508) 後昆(후곤) : 후세의 자손. 후손(後孫).
509) 閱怯(열겁) : 세월이 흐르다. 여기서 '怯(겁)'은 '두려워하다'는 의미의 '怯(겁)'과 동자(同字)이다.
510) 文種之歎(문종지탄) : 문종(文種)의 탄식(歎息). 문종(文種, ?~기원전 472)은 중국 춘추시대 월(越)나라의 대신이자 모략가로, 본래 초(楚)나라 사람이었으나 범려(範蠡)와 함께 월나라로 가서 대부가 된

之儀 何等感幸 是擧也 倡議鳩財[511] 掘移金塚 改封先兆[512]者 在德[513]氏之

【해석(解釋)】

두 개의 치아가 나왔는데, 두뇌 뼈는 크고 사면으로 에워싸여있고, 치아는 그 길이가 2촌(寸) 정도 되어 보였다. 종인(宗人) 여럿이 이를 지켜보면서 절로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슬픔이 우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눈을 비비면서 일의 진척 상황을 바라볼 즈음에 과연 세 개의 큰 벌이 무덤 아래쪽으로부터 날아와서는 한 종인(宗人)의 옷소매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무덤에 흙을 더 얹고 떼를 입히기 시작하자 세 개의 벌이 도로 무덤 속 안으로 들어갔다.

아, 이상한 일이다! 수백 년 동안 사라져 없어진 징조가 이제 선령(仙靈)의 모습으로 꿈속에 의탁해서 하루아침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으니 이 어찌 사람의 힘만으로 미칠 수 있는 바의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한편 고로(古老)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양씨(梁氏) 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옥녀봉(玉女峯) 아래 있던 공의 옛 별장터에 집을 짓고서 살았는데, 어느 날 저녁 등을 밝히고 홀로 앉아 있노라니, 홀연히 어디 먼 곳에서부터 전도(傳導)하는 소리가 나기에 이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 나가보게 되었다. 군복 차림의 말을 탄 한 대장군(大將軍)이 있었는데, 뒤를 쫓아 수행하는 군사들이 매우 많았다. 갑작스레 양씨를 부르면서 질책하기를, “너는 어찌해 내가 예전에 살았던 곳을 몰래 훔쳐서 살고 있느냐? 어서 빨리 이곳에서 당장 떠나거라!”라고 했다. 양씨는 곧바로 집을 뜯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더구나 공의 묘를 수리하는 날, 대여섯 명의 노인네들이 찾아와서 전하는 말인즉슨, “꿈속에 위엄있는 용모와 행동을 하는 한 대인(大人)이

인물이다. 월나라 왕 구천(句踐)이 오(吳)나라 왕 부차(夫差)에게 패하자 나라 안에서 국정을 다스리면서 오왕 부차를 멸망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오나라가 멸망한 후 범려가 그에게 공이 너무 높으면 도리어 위험하게 될 것이니 함께 은거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듣지 않았고, 결국 월왕 구천(句踐)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때 범려가 문종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바로 ‘토사구팽(兎死狗烹)’이다.

그런데 본문에 쓰인 ‘文種(문종)’이란 단어는, 그 의미가 특정 인물을 지칭한 고유명사가 아니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의 보통명사로 쓰인 것으로 짐작된다.

511) 鳩財(재물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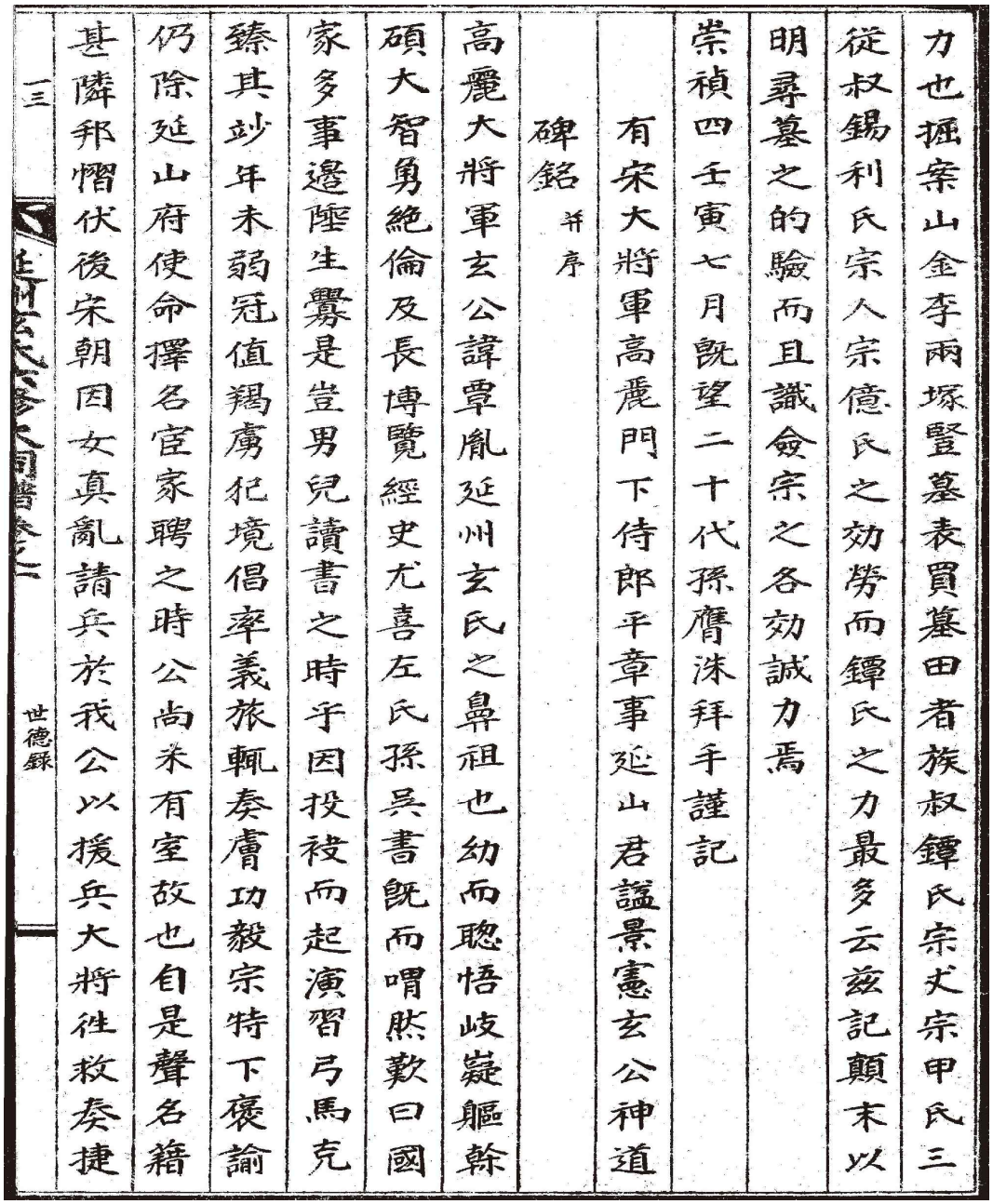
512) 先兆(선조) : 선영(先塋).

513) 在德(재덕) : 현재덕(玄在德, 1742~1812). 족보에 보면 첨정공파 18세손이다.

나타나서 매우 엄숙하게 무덤 앞에서 군사들의 대오(隊伍)를 위엄있게 진열(陳列)시키는 모습을 선보였다.”라고 했다. 또 예로부터 지금까지 전하는 말에 따르면, “매번 날씨가 우중충해서 비가 내리거나 습기가 많은 날 밤이면 갑자기 군대가 행진하면서 내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깊은 골짜기를 가득 채운다. 그러다가 무덤을 개봉(改封)한 이후로는 절로 이와 같은 소리가 다시는 들려오지 않았다.”라고 했다.

아! 우리의 선조들 정령(精靈)의 향기가 사방으로 스며들어 퍼짐이 고향 산천 벌레들이 서식하는 곳이나 물과 같은 땅속의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었구나. 그런데 들창을 열어젖히는 후손들의 깨우침이 있어 유택(幽宅)을 찾아낼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문종(文種)의 탄식(歎息)’은 면해서 해마다 날을 정해 제사를 올리는 세사(歲祀) 의례를 펼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고맙고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이 일을 거행(擧行)하면서 처음 의논을 일으키는 일, 재물을 모으는 일, 김씨 무덤을 파헤쳐 옮기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선영(先塋)을 개봉(改封)하는 일 등에는 현재덕(玄在德) 씨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원문(原文)】



力也摳案山金李兩塚竪墓表買墓田者族叔鐔氏宗丈宗甲氏三
從叔錫利氏宗人宗億氏之効勞而鐔氏之力最多云玆記顚末以
明尋墓之的驗而且識僉宗之各効誠力焉
崇禎四壬寅七月既望二十代孫膺洙拜手謹記

有宋大將軍高麗門下侍郎平章事延山君諡景憲玄公神道
碑銘 并序

高麗大將軍玄公諱覃胤延州玄氏之鼻祖也幼而聰悟岐嶷軀幹
碩大智勇絶倫及長博覽經史尤喜左氏孫吳書既而喟然歎曰國
家多事邊塵生釁是豈男兒讀書之時乎因投袂而起演習弓馬克
臻其妙年未弱冠值羯虜犯境倡率義旅輒奏膚功毅宗特下褒諭
仍除延山府使命擇名宦家聘之時公尚未有室故也自是聲名籍
甚隣邦慴伏後宋朝因女真亂請兵於我公以援兵大將往救奏捷

<그림 (37)> 심묘사적(尋墓事蹟) (6)

【판독(判讀)】

力也 掘案山[514]金李兩塚 豎[515]墓表 買墓田者 族叔[516]鐔[517]氏 宗丈[518]宗甲[519]氏 三從叔錫利[520]氏 宗人宗億[521]氏之效勞[522] 而鐔氏之力最多云 茲記顚末 以明尋墓之的驗 而且識 僉宗[523]之各效誠力焉
崇禎四壬寅[524]七月旣望[525] 二十代孫膺洙[526] 拜手[527] 謹記

【해석(解釋)】
묏자리 맞은 편에 있는 안산(案山)의 김씨(金氏) · 이씨(李氏)의 두 무덤을 파헤치고, 묘표(墓表)를 세우고, 묘지의 땅을 사는 일에 있어선 족숙(族叔) 현심(玄鐔) 씨와 종장(宗丈) 현종갑(玄宗甲) 씨를 비롯해 3종숙(從叔) 현석리(玄錫利) 씨와 종인(宗人) 현종억(玄宗億) 씨 등의 공로가 컸다. 특히 현심(玄鐔) 씨의 노고가 가장 많았다고들 말한다. 이에 묘를 찾았던 체험을 소상히 밝히며 그 전말(顚末)을 그 기록으로 남겨둔다. 끝으로 종친 여러분들 각자가 펼쳐온 정성과 노력이 그 효과를 거두었음을 기록해 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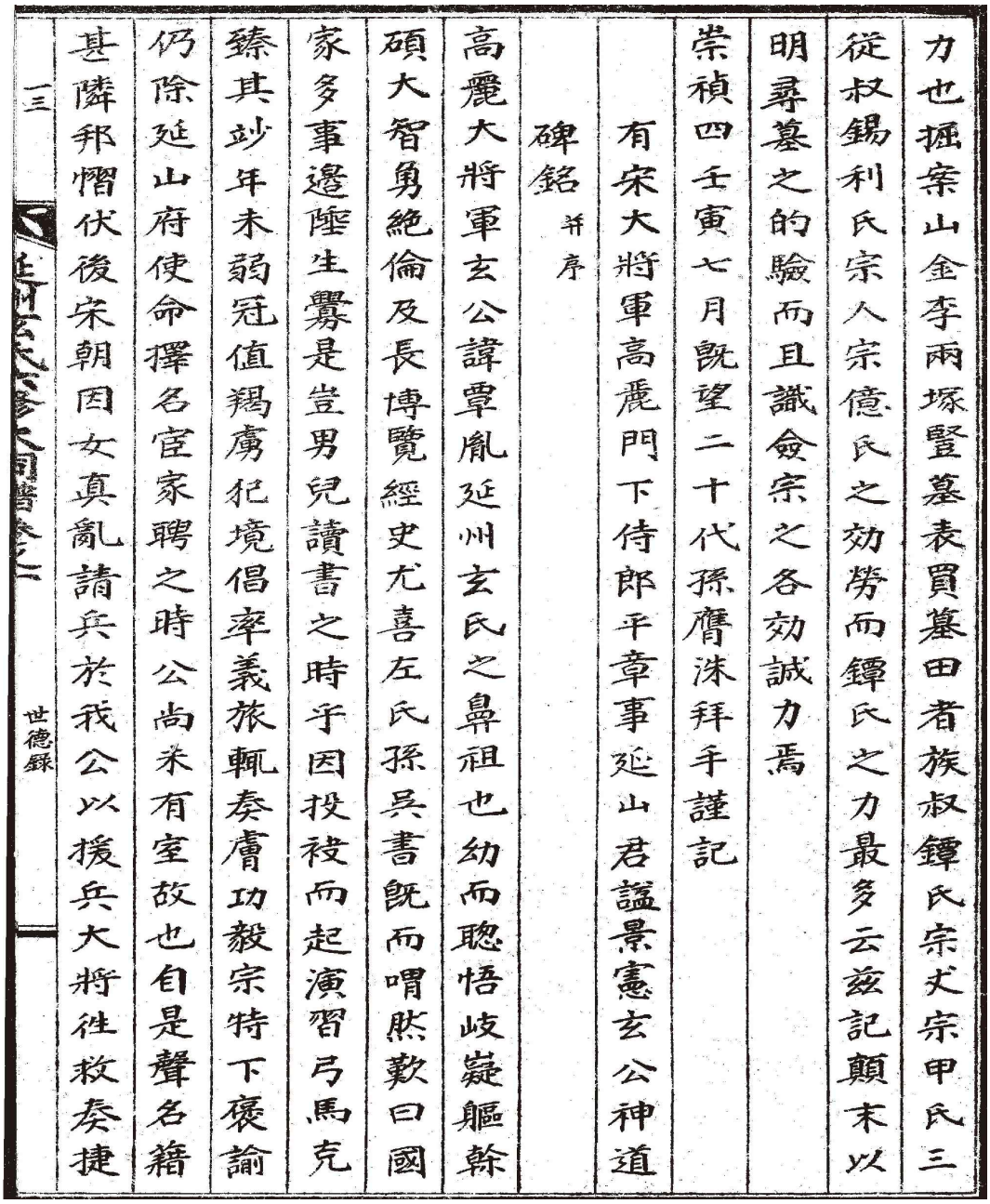
514) 案山(안산) : 묏자리 맞은 편에 있는 산.
515) 豎(수) : 세우다. 보통 묘소 앞에 비를 세움을 두고서 '수립(竪立)'이라 하지만, 원래 '竪(수)'는 '豎(수)'의 속자(俗字)이다.
516) 族叔(족숙) : 유복친(有服親) 안에 들지 않는 아저씨뻘이 되는 사람.
517) 鐔(담) : 현담(玄鐔, 1765~1849). 족보에 보면, 자(字)가 이용(利用)이고, 첨정공파 19세손이다. 참고로 '鐔'이란 한자어는 그 독음이 '심'과 '담', 두 가지 형태로 읽힐 수 있다.
518) 宗丈(종장) : 집안 어른.
519) 宗甲(종갑) : 현종갑(玄宗甲, 1759~1795). 족보에 보면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존재하는데, 한 사람은 자(字)가 대백(大伯)이고 생몰년이 '1759년~1795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字)가 문숙(文淑)이고 생몰년이 '1793년~1817년'인데, 본문의 '宗甲(종갑)'은 아마도 지리적으로 볼 때 영동정공 의량파인 1759년생 종갑으로 보인다. 후자는 판관공파 23세이다,.
520) 錫利(석리) : 현석리(玄錫利, 1777~1851). 족보에 보면, 자(字)가 대현(大見)이고 첨정공파 19세손이다.
521) 宗億(종억) : 현종억(玄宗億, 1781~?). 족보에 보면, 호(號)가 경촌(經村)이고 의주부윤공파 24세손이다.
522) 效勞(효로) : 힘써 일함. 공로(功勞).
523) 僉宗(첨종) : 여러 종친.
524) 崇禎四壬寅(숭정사임인) : 조선조 헌종 8년인 1842년을 이름이다. 숭정(崇禎)이란 연호는 명(明)나라 마지막 황제인 의종(毅宗)이 쓴 연호로서, 그 기간은 17년으로 1628년(인조 6년)부터 1644년(인조 22년)까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조선의 선비들은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오랑캐 나라이기에 그 연호를 쓰지 않고 그 대신에 숭정이란 연호를 계속 상용해 왔다. 따라서 '崇禎一壬寅(숭정일임인)'은 1662년(현종 3년)이 되기에, '崇禎二壬寅(숭정이임인)'은 1722년(경종 2년)이 되고, '崇禎三壬寅(숭정삼인인)'은 1782년(정조 6년)이므로 '崇禎四壬寅(숭정사임인)'은 1842년(헌종 8년)에 해당한다. 보통 '숭정(崇禎)'이란 말 다음에 '기원후(紀元後)'를 붙이는 게 일반적 추세이다.
525) 旣望(기망) : 보름 다음 날인 음력 16일.
526) 膺洙(응수) : 현응수(玄膺洙, 1792~1872)는 자(字)가 수여(綏汝)이고 호가 춘암(春庵)이고 첨정공파 20세손이다.
527) 拜手(배수) : 손을 땅에 대어 절함.

숭정(崇禎) 4 임인(壬寅, 1842)년 7월 기망(旣望)일에,
20대손 현응수(玄膺洙)가 두 손 모아 절하며, 삼가 적음.

<연주현씨(延州玄氏)세덕록(世德錄)>

1. 고려 대장군(大將軍) 현공(玄公) 휘(諱)담윤(覃胤) 신도비명(神道碑銘)

【원문(原文)】


力也摳案山金李兩塚竪墓表買墓田者族叔鐔氏宗丈宗甲氏三
從叔錫利氏宗人宗億氏之効勞而鐔氏之力最多云玆記顚末以
明尋墓之的驗而且識僉宗之各効誠力焉
崇禎四壬寅七月旣望二十代孫膺洙拜手謹記

有宋大將軍高麗門下侍郎平章事延山君諡景憲玄公神道
碑銘 幷序

高麗大將軍玄公諱覃胤延州玄氏之鼻祖也幼而聰悟岐嶷軀幹
碩大智勇絶倫及長博覽經史尤喜左氏孫吳書旣而喟然歎曰國
家多事邊陲生釁是豈男兒讀書之時乎因投袂而起演習弓馬克
臻其妙年未弱冠值羯虜犯境倡率義旅輒奏膚功毅宗特下褒諭
仍除延山府使命擇名宦家聘之時公尚未有室故也自是聲名籍
甚隣邦慴伏後宋朝因女真亂請兵於我公以援兵大將往救奏捷

<그림 (38)> 유송(有宋) 대장군(大將軍) 고려(高麗)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연산군(延山君) 시(諡) 경헌(景憲) 현공(玄公) 신도비명(神道碑銘) (1)

【판독(判讀)】

有宋 大將軍 高麗門下侍郎平章事 延山君 諱景憲 玄公神道碑銘[528]幷書

高麗大將軍 玄公諱覃胤 延州玄氏之鼻祖[529]也 幼而聰悟[530]岐嶷[531] 軀幹[532]碩大 智勇絶倫[533] 及長 博覽經史 尤喜 左氏孫吳書[534] 旣而喟然[535] 歎曰 國家多事邊陲生釁[536] 豈男兒讀書之時乎 因投袂[537] 而起演習弓馬 克臻 其竗年[538]未弱冠[539]値 羯虜[540]犯境倡率[541] 義旅[542] 輒奏膚功[543] 毅宗[544]特下褒諭[545] 仍除延山府使 命擇名宦家聘之 時公尙未有

---

528) 神道碑銘(신도비명) : 신도비(神道碑)란 고려조, 조선조 시대에 걸쳐 임금이나 종2품 이상 벼슬아치의 무덤 앞이나 근처 길목에 세워 죽은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두고 이르던 말이다. 본래 신도(神道)란 의미는 풍수학에서 묘의 동남쪽을 지칭함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2품직 이상의 품계를 지닌 양반층 관료에게만 신도비가 허용되었고, 3품직 이하는 묘갈명(墓碣銘)을 쓰도록 했다. 한 인물의 전기를 기록하는 사전(史傳)의 경우 그의 업적 중 선악(善惡)을 모두 기록하는 포폄(褒貶)의 형태를 띠지만, 신도비 등 비지문(碑誌文)의 경우 대개 "선조의 아름다운 행실은 말하지만 나쁜 행실은 언급하지 않는다.[稱美而不稱惡]"란 원칙을 고수한다. 더불어 비지문의 찬술동기나 계기를 보면 대개 피전자의 후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나서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는 대체로 찬자(撰者) · 서자(書者) · 각자(刻者)라는 세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이뤄지기 마련이다.

529) 鼻祖(비조) : 시조(始祖)나, 어떤 일을 처음 창시한 사람을 말한다. 《양자방언(揚子方言)》에 보면, "사람이 임신을 하면 코가 먼저 생긴다. 그래서 시조를 비조라고 한다.(凡人懷胎, 鼻先受形. 故稱始祖爲鼻祖.)"라고 했다. 또 이르기를, "'비(鼻)'는 시작이다. 짐승이 처음 생길 때를 '비'라고 한다. 양주와 익주에서는 코를 '초(初)'라고 하기도 하고 '조(祖)'라고 하기도 한다.(鼻始也. 獸之初生謂之鼻. 梁益之閒, 謂鼻爲初, 或謂之祖.)"라고도 했으며, 여기에 주석을 달기를, "'비'와 '조'는 모두 시작의 별칭이다(鼻祖皆始之別稱也.)"라고 했다. 한편 허정양(許旌陽)의 《복기서(服氣書)》에 보면, "사람이 어머니에게 수태될 때 코부터 먼저 생성되며, 화가가 사람을 그릴 때 코부터 시작하므로 '비(鼻)'를 '조(祖)'라고 한다.(人受胎於母, 其生始成鼻. 畵家畵人, 鼻始. 故鼻云祖.)"라고 했다. 이상의 전적들에서 유래하여 '비조'는 시조나, 어떤 일을 창시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530) 聰悟(총오) : 총명함. 영민(英敏)함.

531) 岐嶷(기억) : 어린아이가 영리하고 지혜로움.

532) 軀幹(구간) : 몸. 신체.

533) 絶倫(절륜) : 같은 무리와 견주어서 월등하게 뛰어남.

534) 左氏孫吳書(좌씨손오서) : 《좌씨춘추(左氏春秋)》와 《손자병법(孫子兵法)》, 《오자병법(吳子兵法)》 등의 책.

535) 喟然(위연) : 탄식하거나 감탄하는 모양.

536) 邊陲生釁(변수생흔) : 변경(邊境) 지역에 화란(禍亂)이 생김.

537) 投袂(투몌) : 소매를 흔듦. 분발함의 형용.

538) 竗年(묘년) : 젊은 나이. 방년(芳年). 묘령(妙齡). 여기서 '竗(묘)'는 '妙(묘)'와 동자(同字)임.

539) 弱冠(약관) : 남자의 나이 스무 살.

540) 羯虜(갈로) : 오랑캐. 본래 갈로(羯虜)는 고대 부족으로 일찍이 흉노(匈奴)에 예속되어 있다가 위(魏)나라와 진(晉)나라 때에는 상당군(上黨郡)에 흩어져 살았는데, 동진(東晉) 때 갈인(羯人) 석륵(石勒)이 황하(黃河) 유역에서 후조(後趙)를 세워 십육국(十六國)의 하나가 되었음.

541) 倡率(창솔) : 앞장서서 이끌다.

542) 義旅(의려) : 의병(義兵).

543) 輒奏膚功(첩주부공) : 문뜩 큰 전공을 세워 아뢰다. 여기서 '膚(부)'자는 '크다'란 의미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 유월(六月)>편에 보면, "잠깐 험윤을 정벌하여, 큰 전공을 아뢰네.[薄伐玁狁 以奏膚公]"이란 표현이 있다.

544) 毅宗(의종) : 고려 제 18대왕인 의종(毅宗)은 인종(仁宗)의 맏아들로 재위기간은 24년(1146년~1170년)이다. 즉위 초부터 계속된 이자겸의 전횡 및 묘청의 난 등으로 왕실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문신세력이 크게 득세하였다. 결국 의종대의 왕권과 문신세력의 갈등은 정치적 사회적 혼돈을 초래했고, 결

室[546]故也 自是聲名藉甚 隣邦慴伏[547] 宋朝因女眞亂 請兵於我 公以援兵大將往救 奏捷

【해석(解釋)】

중국 송(宋)나라 시절 대장군(大將軍)이시고 고려(高麗)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인 연산군(延山君) 시호(諡號) 경헌(景憲) 현공(玄公)의 신도비(神道碑) 병서(幷書)

고려(高麗) 대장군(大將軍) 현공(玄公) 휘(諱) 담윤(覃胤)은 연주현씨(延州玄氏)의 시조(始祖)이시다. 어려서 총명하고 영리하고 지혜로웠으며, 몸집이 크고 지혜와 용맹스러움은 그 같은 또래에서 월등하게 뛰어났다. 급기야 성장하여 두루 경전(經典)과 사서(史書)를 섭렵하였으며, 특히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과 《손오병법(孫吳兵法)》의 책들을 즐겨 보았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하기를 "국가에 일이 많고 변경 지역에 화란(禍亂)이 발생했는데, 어찌 사내가 책만 읽을 때이겠는가?"하고서 소매를 떨쳐 일어나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혔다. 묘년(妙年)에 이르러 약관(弱冠)이 되지 않았을 때, 오랑캐 족들이 국경을 침범해왔다. 그러자 의병을 맨 먼저 이끌고 문뜩 큰 공로를 세워 아뢰니, 의종(毅宗)이 특별히 포상과 칙령을 내리셨고, 인하여 연산부사(延山府使)를 제수하셨다. 이름난 벼슬아치의 집안을 선택해 장가들게 했는데, 당시 공은 아직 미혼이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좋은 평판은 더욱 많이 나서 이웃나라에서조차 두려워 복종할 정도였다. 송나라가 여진족의 난리로 인해 우리나라에 병력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공은 원병군의 대장으로 가서 구해 줌으로써 승전을 아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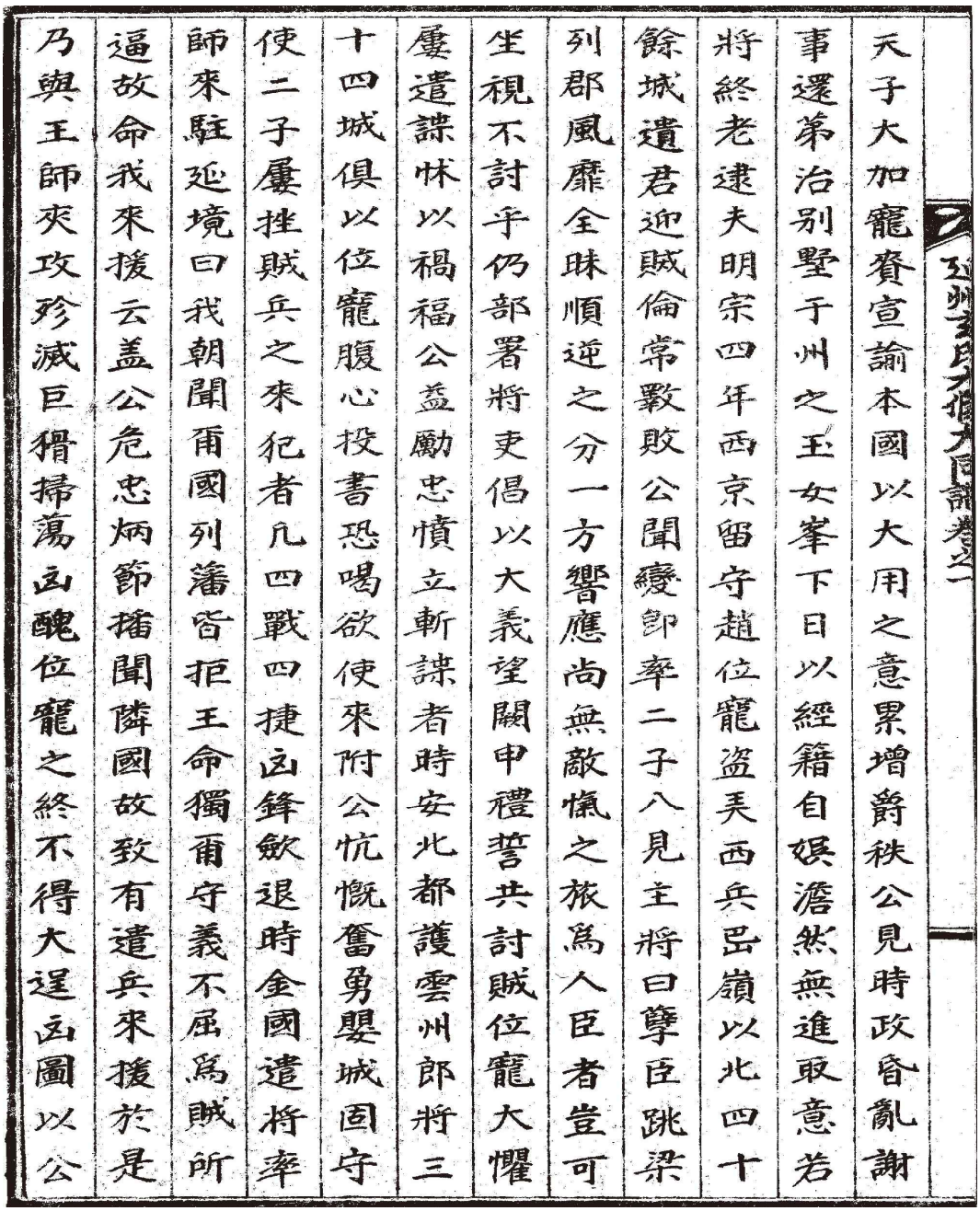
국 의종 24년(1170)에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의종을 폐하고 아우인 명종을 왕위에 올리는 무신정변이 있었다. 그 뒤 명종 4년(1174)에 당시 서경유수(西京留守)였던 조위총(趙位寵)이 정중부와 이의방 등이 중심세력인 무신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현담윤(玄覃胤)을 도령(都令)으로 하는 연주성(延州城)을 제외한 자비령 이북의 40여 성이 모두 호응해 이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545) 褒諭(포유) : 표창하고 유지(諭旨)를 내리다.

546) 未有室(미유실) : 미혼(未婚). 참고로 《예기(禮記)》 <곡례(曲禮)>편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 10년이 되면 어리니 배운다. 20세를 약이라 하니 관례를 하고, 30세를 장이라 하니 아내를 두며, 40세를 강이라 하니 벼슬을 한다.[人生十年曰幼學 二十曰弱冠 三十曰壯有室 四十曰彊而仕]"라고 했다.

547) 慴伏(습복) : 두려워서 굴복함. 습복(慴服).

【원문(原文)】



<그림 (39)> 유송(有宋) 대장군(大將軍) 고려(高麗)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연산군(延山君) 시(諡) 경헌(景憲) 현공(玄公) 신도비명(神道碑銘) (2)

【판독(判讀)】

天子大加寵賚[548] 宣諭本國 以大用之意 累增爵秩[549] 公見時政 昏亂[550]

辭事還第[551] 治別墅[552]于州之玉女峯下 日以經籍自娛 澹然[553]無進取[554]意 若將終老逮[555]夫 明宗四年 西京留守 趙位寵盜弄[556]西兵 岊嶺[557]以北四十餘城 遺君迎賊 倫常[558]斁敗[559] 公聞變 卽率二子 入見主將曰 孽臣[560]跳梁[561] 列郡[562]風靡[563] 全昧順逆之分[564] 一方響應[565] 尙無敵愾之旅[566] 爲人臣者 豈可坐視不討乎 仍部署[567]將吏[568] 倡以大義 望闕申禮 誓共討賊 位寵[569]大懼 屢遣諜 怵以禍福[570] 公益勵忠憤[571] 立斬諜者 時安北都護雲州郎將 三十四城 俱以位寵腹心 投書恐喝[572] 欲使來附 公忼慨[573]奮勇[574] 嬰城[575]固守 使二子屢挫[576]賊兵之來 犯者 凡四戰四捷 凶鋒[577]斂退時 金國遣將率師[578]來 駐延境曰 我朝聞 爾國列藩 皆拒王命 獨爾守義不屈 爲賊所逼 故命我來援云 盖公危忠炳節[579] 播聞[580]隣國 故

548) 寵賚(총뢰) : 은총을 하사하다.
549) 爵秩(작질) : 작위와 봉록. 작록(爵祿).
550) 昏亂(혼란) : 세상이 어지러움.
551) 還第(환제) : 집으로 돌아옴.
552) 別墅(별서) : 별장(別莊).
553) 澹然(담연) : 욕심이 없이 담담한 모양. 편안하고 고요한 모양.
554) 進取(진취) :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함.
555) 老逮(노체) : 늘그막을 편안하게 보내다.
556) 盜弄(도롱) : 남몰래 농간을 부리다.
557) 岊嶺(절령) : 현재의 자비령을 두고 이름인데 황해도 황주 봉산군과 서흥면 경계에 있음. 이곳은 바로 개성과 평양간의 정치적 요충지였음.
558) 倫常(윤상) :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윤이(倫彝).
559) 斁敗(두패) : 해이하여 무너지다. 보통 '이륜두패(彝倫斁敗)'란 표현은 '인륜이 무너지다'란 의미로 쓰인다.
560) 孽臣(얼신) : 사악한 신하. 여기서 '孽(얼)'은 '그루터기'란 뜻이 아닌 '모질다'란 의미로 쓰였다.
561) 跳梁(도량) : 날뛰어 오르다. 본래 '도량(跳梁)'은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물에 쳐놓은 그물, 곧 통발을 말한다. 곧 그물에 걸린 고기가 빠져나가려고 아등바등 하는 모습을 비유한 말이다.
562) 列郡(열군) : 여러 고을.
563) 風靡(풍미) : 바람에 불려 쏠리듯이 어떤 위세에 따라서 저절로 쏠림.
564) 順逆之分(순역지분) : 순종(順從)과 반역(反逆)의 구분.
565) 響應(향응) : 민첩하게 반응함의 비유.
566) 敵愾之旅(적개지려) : 적에 대해 분노하고 증오하는 군사.
567) 部署(부서) : 할 일을 나누어 배치함.
568) 將吏(장리) : 무관과 문관. 보통 직임을 맡고 있는 무관을 '장(將)'이라 하고 문관을 '이(吏)'라 한다 [謂見任武官爲將 文官爲吏]
569) 位寵(위총) : 조위총(趙位寵)을 두고 일컬음.
570) 怵以禍福(술이화복) : 화(禍)와 복(福)으로 위협하다. 곧 재앙을 받게 한다며 협박하다.
571) 忠憤(충분) : 충의(忠義)로 인하여 일어나는 분노.
572) 投書恐喝(투서공갈) : 어떤 사실의 내막을 몰래 알리기 위하여 자기를 밝히지 않은 채 위협함.
573) 忼慨(강개) : 분개하고 한탄함. 몹시 격분함. '慷慨(강개)'와 같다.
574) 奮勇(분용) : 용감히 떨쳐 일어나다.
575) 嬰城(영성) : 성을 에워싸고 지킴. 영수(嬰守).
576) 屢挫(누좌) : 여러 번 좌절시킴.
577) 凶鋒(흉봉) : 흉적의 칼날. 곧 흉적의 기세(氣勢).
578) 率師(솔사) : 군사를 인솔하다.
579) 危忠炳節(위충병절) : 국가의 위난에 충성을 바친 빛나는 절개. 달리 '위충탁절(危忠卓節)'이라고도 표현함.

致有遣兵來援 於是 乃與王師 夾攻殄滅[581] 巨猾[582]掃蕩凶醜[583] 位寵之終不得大逞凶圖[584] 以公

【해석(解釋)】

그러자 송(宋)의 천자는 은총을 하사하면서 크게 가자(加資)하며 백성들에게 유시(諭示)를 포고했다. 고려조정에서도 크게 쓰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여러 차례 벼슬의 품계를 높여주었다. 그러나 공께서는 당시 정치상황 상 세상이 어지러움을 보시고는 일을 사양하고서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연주(延州) 고을의 옥녀봉(玉女峯) 아래에다 별장을 짓고서 날마다 경서(經書)를 읽으며 스스로 즐기곤 했다. 욕심이 없이 담담함이 마치 벼슬살이에 뜻이 없이 늘그막을 편안하게 보낼 심사였다. 그러던 중 명종 4년(1174년)에 서경(西京)의 유수(留守)인 조위총(趙位寵)이 서경의 병사들에게 남몰래 농간을 부렸는데, 절령(岊嶺, 현 자비령) 이북 40여 성들이 임금을 버리고 적을 맞이하면서 윤리와 강상이 해이하여 무너져 버렸다. 이에 공은 변란의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거느리고 주장(主將)을 만나서 말씀하기를 “간악한 신하가 날뛰어 오르자 여러 고을들이 마치 바람에 불려 쏠리듯이 그 위세에 쓰러지면서 모두가 좇음으로써 순종(順從)과 반역(反逆)의 구분조차 되지 않은 채 한쪽 지방에서만 향응하면서 오히려 적개(敵愾)하는 군사가 없으니, 어찌 신하(臣下)된 사람으로서 이에 좌시하지 않고 토벌치 않을 수 있단 말이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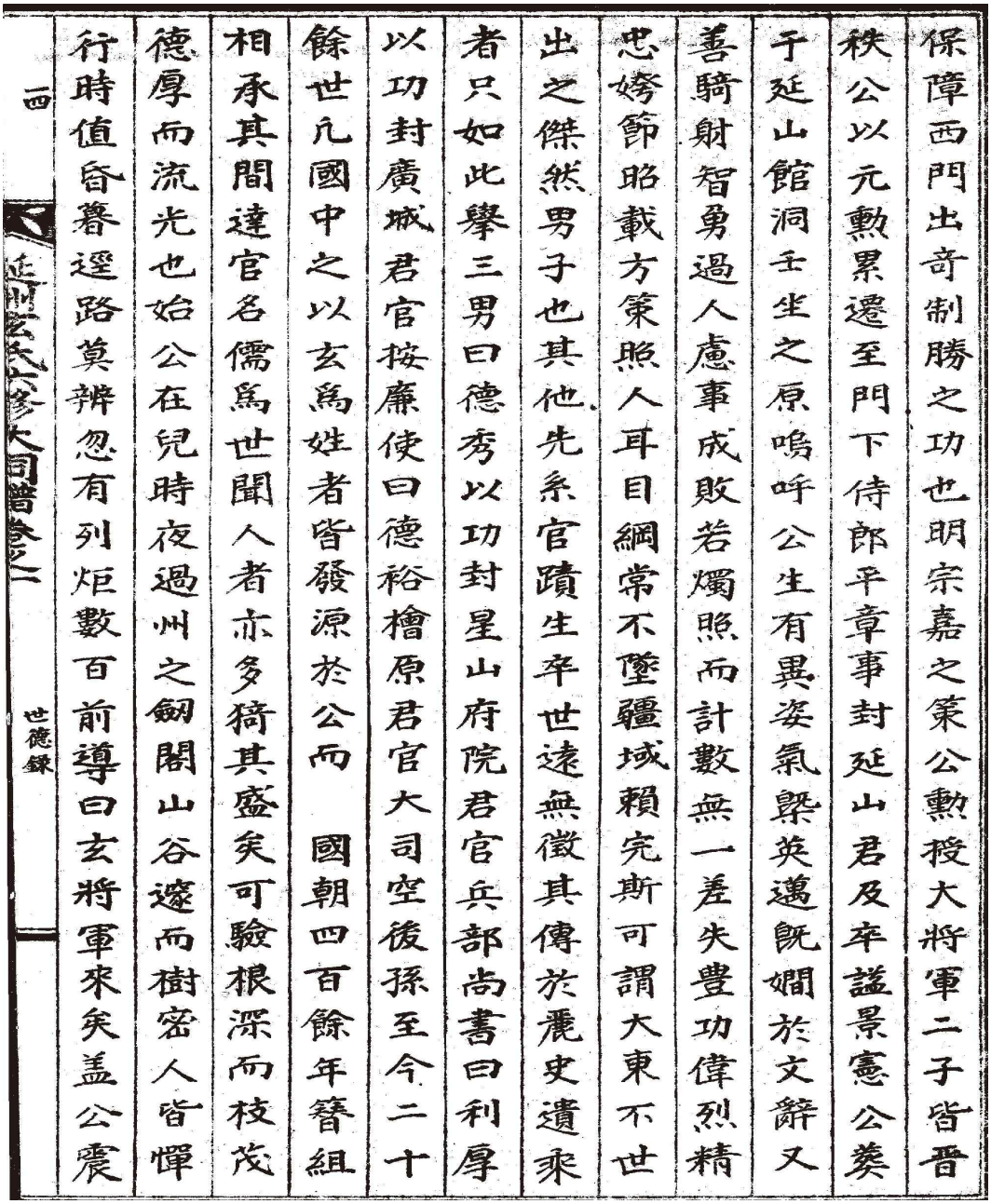
이에 무관과 문관들로 나누어 할 일을 배치하고 대의(大義)로 창의하며 대궐을 향하여 예를 표한 뒤 함께 적을 토벌할 것을 맹서했다. 조위총은 크게 두려워하며 여러 차례 첩자를 보내 곧 재앙을 받게 한다며 협박해댔다. 공은 더욱 충의(忠義)로 인한 분노를 일으키며 선 채로 첩자의 목을 베었다. 이때 안북도호부(安北都護府)의 운주(雲州) 낭장(郎將) 34개의 성이 모두 조위총과 관계가 깊었기에 몰래 글을 보내 협박하면서 공으로 하여금 동조케 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공은 몹시 분개하면서 용

580) 播聞(파문) : 소문이 퍼짐.
581) 殄滅(진멸) : 다 무찔러 없앰.
582) 巨猾(거활) : 아주 교활한 사람.
583) 凶醜(흉추) : 흉하고 추악한 것들.
584) 大逞凶圖(대령흉도) : 크게 펼치려던 흉악한 기도(企圖). 여기서 ‘逞(령)’은 ‘펼치다’, ‘드러내 보이다’란 의미이다.

감히 떨쳐 일어나 성을 에워싸고 굳건하게 지켰다. 두 아들로 하여금 여러 번 적병들이 진격해 옴을 좌절시키게 해 결국 네 번 싸워 네 번 이김으로써 적의 흉악한 창칼을 모두 물리쳤다.

당시 금(金)나라에서는 장군을 보내어서 군사를 거느리고 연주(延州)의 경계에 주둔케 하고선 이렇게 말했다. “우리 조정에서 듣건대, 너희 나라의 여러 고을들이 모두 임금의 명을 거역했지만, 오직 그대들만은 의로움을 지켜 굽히지 않아 적들의 핍박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기에 나에게 명하기를 가서 도와주라고 했다.”라는 것이었다. 대개 공에게는 국가의 위난에 충성을 바친 빛나는 절조가 있음이 이웃나라에까지 전파되었기에 군사를 보내 도와주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마침내 임금의 군사와 더불어 협공을 펼쳐서 아주 교활한 적들을 섬멸하고 흉악한 우두머리를 소탕하였던 것이다. 조위총은 결국 크게 펼쳐보려던 흉악한 기도를 끝내 이룰 수 없었으니,

【원문(原文)】


保障西門出奇制勝之功也明宗嘉之策公勳授大將軍二子皆晉秩公以元勳累遷至門下侍郎平章事封延山君及卒謚景憲公葬于延山館洞壬坐之原嗚呼公生有異姿氣槩英邁旣嫺於文辭又善騎射智勇過人慮事成敗若燭照而計數無一差失豐功偉烈精忠嵂節昭載方策照人耳目綱常不墜疆域賴完斯可謂大東不世出之傑然男子也其他先系官蹟生卒世遠無徵其傳於麗史遺乘者只如此擧三男曰德秀以功封星山府院君官兵部尚書曰利厚以功封廣城君官按廉使曰德裕檜原君官大司空後孫至今二十餘世凡國中之以玄爲姓者皆發源於公而 國朝四百餘年簪組相承其間達官名儒爲世聞人者亦多猗其盛矣可驗根深而枝茂德厚而流光也始公在兒時夜過州之劒閣山谷邃而樹密人皆憚行時值昏暮逕路莫辨忽有列炬數百前導曰玄將軍來矣蓋公震

<그림 (40)> 유송(有宋) 대장군(大將軍) 고려(高麗)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연산군(延山君) 시(諡) 경헌(景憲) 현공(玄公) 신도비명(神道碑銘) (3)

【판독(判讀)】

保障[585]西門[586] 出奇制勝[587]之功也 明宗嘉之 策公勳授 大將軍 二子皆

晉秩[588] 公以元勳[589]累遷 至門下侍郎平章事[590] 封延山君 及卒謚景憲公 葬于延山館洞壬坐之原[591] 嗚呼公生有異姿[592] 氣槩英邁[593] 旣嫺[594]於文辭 又善騎射智勇 過人[595]慮事成敗 若燭照而計數無一差失 豐功偉烈[596] 精忠姱節[597] 昭載方策[598] 照人耳目 綱常不墜[599] 疆域賴完[600] 斯可謂大東 不世出之傑然[601]男子也 其他先系官蹟 生平世 遠無徵 其傳於麗史[602] 遺乘者 只如此擧 三男曰 德秀以功 奉星山府院君 官兵部尙書 曰利厚 以功奉廣城君 官按廉使[603] 曰德裕檜原君 官大司空 後孫至今 二十餘世 凡國中之 以玄爲姓者 皆發源於公 而國朝四百餘年簪祖[604]相承 其間達官名儒爲世聞人者 亦多猗其盛矣 可驗 根深而枝茂[605] 德厚而流光[606]也 始公

585) 保障(보장) : 적을 방어하는 보루와 장벽.

586) 西門(서문) : '고려조(高麗朝)의 서문(西門)'이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을 지칭한 말로 이해된다. 예컨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성종(成宗) 14년 12월 3일>조에 보면, 병조판서 이극증(李克增)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평안도와 황해도 두 도는 나라의 서문이라.[平安、黃海兩道, 國之西門也]"라고 한 표현이 있다.

587) 制勝(제승) : 상대방을 제압하여 승리를 거두는 것을 말하는데, 곧 전쟁에서 승리함을 뜻한다. 이의 용례로, 윤선도(尹善道)의 《고산유고(孤山遺稿)》 <병가의 장기에 대한 대책문[對兵家長技策]>에 보면, "병가(兵家)의 제승(制勝)은 본디 자기의 장점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단점을 공격하는 방법에 있는 것이요, 자기의 장점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단점을 공격하는 방법을 제대로 쓰는 것은 실로 장수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兵家之制勝。固在於用長攻短之法。而能用用長攻短之法。實在於將也]"라고 함을 들 수 있다.

588) 晉秩(진질) : '진질(晉秩)'은 가자(加資)와 같은 말로 품계品階)를 올려준다는 말이다. 참고로 조선조의 품계는 정1품(正一品)에서 종9품까지 18품이 있고, 다시 정1품에 3계(階), 종1품부터 종6품까지 각각 2계가 있어 모두 31계인데, 이를 계자(階資) 또는 자급(資級)이라고 한다.

589) 元勳(원훈) : 나라를 위해 세운 가장 큰 공.

590) 門下侍郎平章事(문하시랑평장사) : 고려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2품 관직.

591) 壬坐之原(임좌지원) : 묘의 위치가 임(壬)의 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 병(丙)을 바라보는 위치인 임좌병향(壬坐丙向)을 지칭함이다. 풍수(風水)에서 임(壬)이란 북향(北向)과 북서향(北西向)사이를 지칭하며, 병(丙)이란 남향(南向)과 남동향(南東向) 사이를 지칭한다. 결국 묘의 위치란 '북북서(北北西)의 자리에 앉아 남남동(南南東)을 바라봄'의 자리임을 알 수 있다.

592) 異姿(이자) : 남다른 자태.

593) 英邁(영매) : 영특하고 뛰어남.

594) 旣嫺(기한) : 익숙하다. 여기서 '嫺(한)'은 단아하다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595) 智勇過人(지용과인) : 지혜와 용맹이 남보다 뛰어나다.

596) 豐功偉烈(풍공위열) : 풍성한 공훈(功勳)과 위대한 업적(業績).

597) 精忠姱節(정충과절) : 순수한 충정(忠情)과 아름다운 절개(節槪).

598) 昭載方策(소재방책) : 방책(方策)이 밝게 실림.

599) 綱常不墜(강상불추) : 강상(綱常)이 무너지지 않음. 여기서 강상(綱常)이란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두고 지칭함이다.

600) 疆域賴完(강역뢰완) : 국토가 힘입어 온전하게 됨.

601) 傑然(걸연) : 걸출(傑出)한 모양.

602) 麗史(려사) : 고려사(高麗史).

603) 安廉使(안렴사) : 고려 시대 지방장관의 하나인데, 충렬왕 2년(1276) 관제개정에 따라 안찰사(按察使)를 개칭한 것이다.

604) 簪祖(잠조) : 관직에 있음을 의미한다.

605) 根深而枝茂(근심이지무) :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무성한다. 참고로 백거이(白居易)의 <해주자사배군부인이씨묘지명(海州刺史裴君夫人李氏墓志銘)>에 보면, "근원이 먼 자는 흐름이 길며 뿌리가 깊은 자는 가지가 무성하다.〔夫源遠者流長 根深者枝茂〕"라고 한 말이 보인다.

606) 德厚而)流光(덕후이유광) : "덕이 두터워 광채가 흐른다.〔德厚流光〕"는 것은 《춘추곡량전(春秋穀梁

在兒時 夜過州之劒閣山谷 邃而樹密 人皆憚行[607] 時値昏暮 逕路莫辨 忽有列炬數百前導 曰 玄將軍來矣 盖公震

【해석(解釋)】

공이 관서(關西) 지역을 보장(保障)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공로라 하겠다. 명종(明宗) 임금은 그것을 가상하게 여겨 공의 훈공으로 대장군(大將軍)을 책봉했고, 두 아들에게는 모두 품계를 올려 주었다. 공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원훈(元勳)으로서 여러 번 천거되다가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이르렀고, 연산군(延山君)으로 봉해졌다. 돌아가시게 되자 경헌공(景憲公)이라는 시호를 추증받았는데, 연산(延山) 관동(館洞)에서 장사지냈고 묘소는 임좌(壬坐)의 좌향이다.

아! 공은 태어나면서 남다른 자질을 지녀 기개는 영특하고 뛰어났다. 문장은 단아하였고 또한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고 지혜와 용맹이 남들보다 뛰어났으며 일의 성패를 헤아리기란 마치 촛불을 비추어 정확한 수치를 헤아리듯이 한 치의 어긋남도 없었다. 풍성한 공훈과 위대한 업적, 그리고 순수한 충정과 아름다운 절개는 방책(方策)이 밝게 실리면서 사람들의 귀와 눈에 비춰진다. 강상(綱常)이 무너지지 않고 이에 힘 업어 국토가 온전하게 지켜진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낳은 불세출의 걸출한 남자라고 일컬을 만하다 하겠다. 이 밖에 선조들의 계통과 벼슬의 업적, 태어남과 돌아가심에 대한 기록은 세대가 멀어 증명할 길이 없다. 다만 《고려사》에서보다 집안에 남긴 족보에 전해짐이란 단지 이 일 정도와 같다. 세 분의 아드님이 있으니, 덕수(德秀)는 공적(功績)으로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으로 봉해졌고 벼슬은 병부상서(兵部尙書)이다. 이후(利厚)는 공적으로 광성군(廣城君)으로 봉해졌고 벼슬은 안렴사(安廉使)이다. 덕유(德裕)는 회원군(檜原君)으로 벼슬은 대사공(大司空)이다. 후손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20여세(世)가 되는데, 무릇 나라 안에서 '현(玄)'을 성씨로 쓰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公)에게서 발원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정의 400여 년 동안 벼슬을 한 사람들이 서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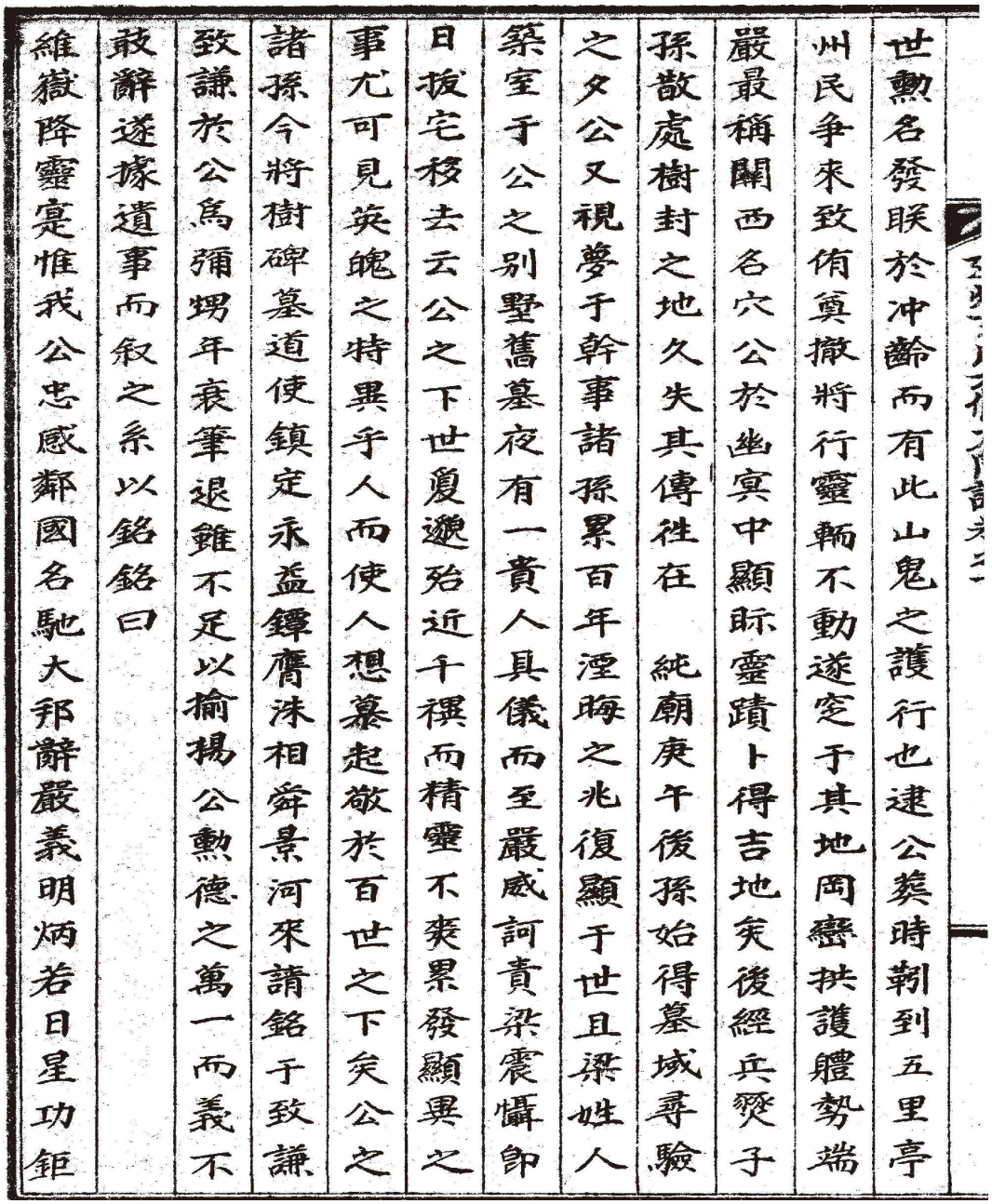
傳)》〈희공(僖公)15년〉의 "덕이 두터운 자는 광채가 흐른다.〔德厚者流光〕"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곧 이는 덕화(德化)가 크기 때문에 복택(福澤)도 후세에까지 미친다는 의미이다.

607) 憚行(탄행) : 가기를 꺼림. 또는 가기를 두려워함.

어져 왔는데, 그 가운데 높은 벼슬을 한 사람과 이름난 선비들 또한 많았다. 아, 성대함이여!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무성하고, 덕이 두터우니 광채가 흐른다고 한 말을 징험함일 지라.

공이 어린아이 시절 밤중에 고을의 검각산을 지나게 되었을 때의 일이다. 계곡이 깊고 나무는 우거져 으스스하기에 사람들이 모두 이 길을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때 마침 어두운 저녁나절이라 오솔길을 구분치 못하는데, 갑자기 줄지은 횃불 수백이 앞을 인도하면서 말하기를 “현장군이 오신다”라고 하였다.

【원문(原文)】



<그림 (41)> 유송(有宋) 대장군(大將軍) 고려(高麗)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연산군(延山君) 시(諡) 경헌(景憲) 현공(玄公) 신도비명(神道碑銘) (4)

【판독(判讀)】

世勳名[608]發眹於冲齡[609]而有此山鬼之護行也逮公葬時靷到五里亭州民爭

來致侑奠撤將行靈輀[610]不動遂穸[611]于其地岡巒[612]拱護體勢[613]端嚴[614]最稱關西名穴公於幽冥中顯示靈蹟[615]卜得吉地矣後經兵燹[616]子孫散處樹封之地久失其傳徃在　純廟庚午後孫始得墓域尋驗[617]之夕公又視夢于幹事諸孫累百年湮晦[618]之兆復顯于世且梁姓人築室于公之別塋舊墓夜有一貴人具儀而至嚴威訶責[619]梁震懾[620]卽日[621]拔宅移去[622]云公之下世夐邈[623]殆近千禩[624]而精靈不爽累發顯異之事尤可見英魄之特異乎人而使人想慕起敬[625]於百世之下[626]矣公之諸孫今將樹碑墓使鎭定永益鐔[627]膺洙相舜景河[628]來請銘于致謙[629]致謙於公爲彌甥[630]年衰筆退雖不足以揄揚[631]公勳德之萬一而義不敢辭遂據遺事而叙之系以銘曰

維嶽降靈　寔惟我公　忠感隣國　名馳大邦　辭嚴義明　炳若日星　功鉅

【해석(解釋)】

608) 震世勳名(진세훈명) : 세상에 진동한 공훈과 명성.
609) 冲齡(충령) : 어린 나이. 특히 제왕(帝王)이 어린나이에 즉위하는 경우, 이의 표현이 주로 쓰인다.
610) 靈輀(영이) : 상여(喪輿).
611) 穸(알) : (땅을) 파다.
612) 岡巒(강만) : 길게 이어진 산봉우리.
613) 體勢(체세) : 몸가짐의 자세.
614) 端嚴(단엄) : 단정하고 엄숙함.
615) 靈蹟(영적) : 신령스런 자취.
616) 兵燹(병선) : 전쟁 때문에 일어난 화재. 병화(兵火).
617) 墓域尋驗(묘역심험) : 묘역 찾기.
618) 湮晦(인회) : 사라져 없어짐. 매몰됨.
619) 訶責(가책) : 꾸짖으며 질책하다.
620) 震懾(진섭) : 두려워 떨다.
621) 卽日(즉일: 일이 있는 바로 그 날. 당일.
622) 拔宅移去(발택이거) : 집을 뽑아 다른 곳으로 옮겨감.
623) 下世夐邈(하세형막) : 세상을 떠난 지 아득히 멀다.
624) 殆近千禩(태근천사) : 천년에 거의 가깝다. 여기서 '禩(사)'는 '祀(사)'와 동자(同字)이다.
625) 起敬(기경) : 공경심을 일으키다.
626) 百世之下(백세지하) : 백대의 아래로. 참고로 《맹자》 〈진심 하(盡心下)〉에 보면, "백세 위에서 떨쳐 일어남에 백세 아래에서 이를 듣고 흥기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성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직접 배운 제자의 경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奮乎百世之上, *百世之下*, 聞者莫不興起也, 非聖人而能若是乎? 而況於親炙之者乎?]"라고 했다.
627) 鐔(담) : 칼코등이. 이 글자는 종종 외자로 쓰여 이름을 나타내기도 한다. 심이라고 읽기도 한다
628) 鎭定永益鐔膺洙相舜景河(진정영익심응수상순경하) : 여기 부분은 현씨 가문의 여섯 사람의 이름들로서, 곧 진정(鎭定), 영익(永益), 담(鐔), 응수(膺洙), 상순(相舜), 경하(景河) 등이 그들이다.
629) 致謙(치겸) : 이 글의 찬자(撰者)인 윤치겸(尹致謙, 1772~?)의 이름이다. 윤치겸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서 자는 중익(仲益)이고, 본관은 해평(海平)이다. 순조 7년(1807)에 식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이후 정언(正言)에 임명되었는데, 관리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직간을 서슴지 않았다. 순조 22년(1822)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고, 이후 헌종 3년(1837)에는 사간원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이후 병조참판 · 한성부판윤 ·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630) 彌甥(미생) : 외손(外孫).
631) 揄揚(유양) : 칭찬하여 치켜세움.

대개 공이 세상에 진동한 공훈과 명성이 이처럼 어린 나이 때에도 산 귀신이 나타나 보호하며 길 안내를 함이 있었던 것이리라.

공의 장례 때의 일이다. 당시 상여가 오리정(五里亭)에 이르자, 고을의 백성들이 앞다투어 제사를 올리고자 하였다. 그런데 제사를 마치고선 장차 운구를 하려고 하자 상여가 움직이질 않았다. 마침내 그곳에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드니, 길게 이어진 산봉우리들이 보호하여 받드는 듯하고, 묘자리의 형세가 단정하고도 엄숙해서 관서(關西)지역 최고의 명당으로 불릴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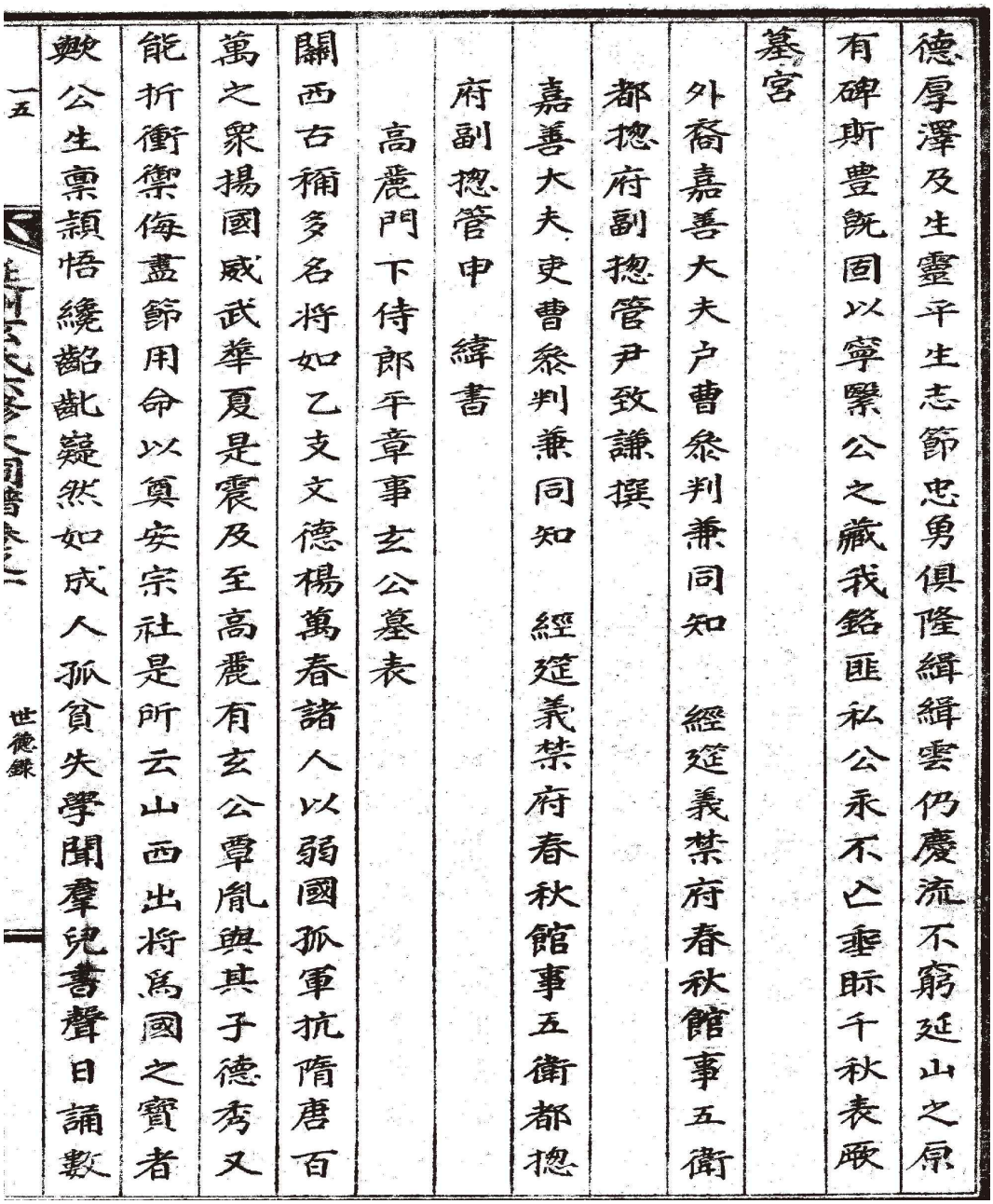
공은 유명(幽冥)을 달리한 후에도 신령한 자취를 보여주었는데, 점을 쳐서 길지(吉地)임을 얻게 하심이다. 여러 번 전쟁 때문에 화마(火魔)를 겪고, 자손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묘지를 조성한 땅을 잃어버려 오랫동안 전해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순조(純祖)조 경오(庚午, 1810)년에 후손들이 비로소 묘역 찾기를 시도했는데, 징험을 찾던 저녁에 공이 또한 그 일을 주재하던 간사(幹事)의 꿈에 나타나서 수백 년 사라진 조짐을 다시 세상에 보여준 것이다.

어느 날 양씨(梁氏) 성을 쓰는 사람이 공의 옛 별장 터에 집을 지으려 하자, 밤에 어떤 귀인 한 분이 의관을 갖춘 채 나타나 엄중하고 위엄 있게 꾸짖으며 질책했다. 그러자 양씨는 두려워 그날로 바로 집을 뜯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이다. 공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아득히 멀어 거의 1천 년이 됨에도 정령(精靈)은 없어지지 않고 여러 번 기이한 일을 나타냄이란 가히 빼어난 영혼의 특이함을 보여줌이라 할 것이다. 사람을 불러내어 다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백대(百代)의 아래로 공경한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리라.

이제 공의 여러 후손들, 진정(鎭定) · 영익(永益) · 담(鐔) · 응수(膺洙) · 상순(相舜) · 경하(景河) 등이 나 치겸(致謙)에게 찾아와 비명(碑銘)을 청하였다. 나 치겸은 공에게는 외손(彌甥)이 되는데, 이제는 나이도 많고 붓도 무디어져 비록 공의 훈덕(勳德)을 칭찬하여 치켜세우기엔 만에 하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정의로 보아 감히 사양하질 못하겠다. 드디어 유사(遺事)를 근거하여 서술하고 새기노라. 명(銘)에 이르기를,

“높은 산에 신령함 내렸으니[維嶽降靈]
이게 바로 우리 조상님이시라[寔惟我公].
충성은 이웃나라를 감동시키고[忠感隣國],
명성은 중국에까지 이르렀네[名馳大邦].
말씀 엄중해 의로움 밝아[辭嚴義明],
그 밝기가 마치 해와 별 같았네[炳若日星].

【원문(原文)】


德厚澤及生靈平生志節忠勇俱隆緝緝雲仍慶流不窮延山之原
有碑斯豐既固以寧繄公之藏我銘匪私公永不亡垂眎千秋表厥
墓宮
外裔嘉善大夫户曹叅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五衛
都摠府副摠管尹致謙撰
嘉善大夫吏曹叅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五衛都摠
府副摠管申　緯書
高麗門下侍郎平章事玄公墓表
關西古稱多名將如乙支文德楊萬春諸人以弱國孤軍抗隋唐百
萬之衆揚國威武華夏是震及至高麗有玄公尊胤與其子德秀又
能折衝禦侮盡節用命以奠安宗社是所云山西出將爲國之寶者
歟公生稟頴悟纔齠齔嶷然如成人孤貧失學聞羣兒書聲日誦數
一五
世德錄

<그림 (42)> 유송(有宋) 대장군(大將軍) 고려(高麗)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연산군(延山君) 시(諡) 경헌(景憲) 현공(玄公) 신도비명(神道碑銘) (5)

【판독(判讀)】

德[632]厚澤及生靈平生志節忠勇俱隆緝緝[633]雲仍[634]慶流不窮[635]延山之原

632) 鉅德(거덕) : 큰 덕. 여기서 '鉅(거)'는 '巨(거)'와 통용되는 말이다.

有碑斯豊旣固以寧繄公之藏我銘匪私公永不亡垂視千秋[636]表厥墓宮

外裔[637]嘉善大夫户曹參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五衛都摠府摠管尹致謙撰

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申緯[638]書

【해석(解釋)】

공은 크고 덕은 두터워[功鉅德厚]

그 혜택 백성들에게 미쳤지요[澤及生靈].

평생의 지조 절개[平生志節],

충성과 용기 모두가 드높았나니[忠勇俱隆].

먼 후손들 계속 이어져[緝緝雲仍]

경사(慶事)가 끝이 없네[慶流不窮].

연산의 언덕이여[延山之原]!

비석 있어 이에 아름답고[有碑斯豊]

참으로 든든하고 편안하심[旣固以寧],

공께서 묻히신 장소라[繄公之藏].

---

633) 緝緝(집집) : 소곤거리는 소리.

634) 雲仍(운잉) : 운손(雲孫)과 잉손(仍孫). 여기서 운손(雲孫)이란 8대째의 손자를, 잉손(仍孫)은 7대손을 두고 이름이다. 또한 운잉(雲仍)은 통칭해 대수가 먼 후손이란 뜻으로도 쓰인다.

635) 慶流不窮(경류불궁) : 경사(慶事)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이어지다.

636) 垂視千秋(수시천추) : 남겨서 천년토록 이어짐. 여기서 '視(시)'는 원문에서는 '目+示'의 형태로 쓰였는데, '視(시)'의 고자(古字)이다.

637) 外裔(외예) : 외가(外家)의 후예(後裔). 여기서 특별히 '외가의 후예[外裔]'라고 한 사연은 아마도 그의 선조(先祖) 중 선조(宣祖) 임금과 인조(仁祖) 임금 때 부자(父子)가 연달아 두 영의정을 배출한 해평윤씨(海平尹氏) 가문의 내력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사료 된다. 곧 조선전기 사헌부감찰과 충청도사를 역임한 윤변(尹忭, 1493~1549)은 후처로 부사직(副司直) 현윤명(玄允明, 1470~?)의 딸을 부인으로 삼아 슬하에 두 아들 윤두수(尹斗壽)와 윤근수(尹根壽), 그리고 딸 1명을 두었다. 윤두수와 동생 윤근수가 정1품 벼슬까지 올라가면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특히 윤두수(尹斗壽)와 그의 아들 윤방(尹昉)은 부자가 모두 선조와 인조 때 각각 영의정(領議政) 벼슬을 역임하면서 해평윤씨 가문의 중흥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 신도비문을 찬한 윤치겸 역시 해평윤씨 윤두수의 후손이기에 특별히 외가로 연주현씨의 후손임을 강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638) 申緯(신위) : 신위(申緯, 1769~1845)는 19세기 전반에 시(詩) · 서(書) · 화(畵)의 삼절(三絶)로 유명했던 문인이다. 시에 있어서는 <동인논시절구>, <소악부>, <관극절구> 등의 작품이 유명하다. 1799년 문과에 급제, 벼슬길에 나갔는데 10여 년간 한직에 머물거나 파직, 복직을 되풀이하는 등 기복이 많았다. 그후 이조참판·병조참판을 지냈다. 1812년 중국에 가서 옹방강을 비롯한 그곳의 학자들을 만나고 돌아온 후 그 전에 쓴 자신의 시들을 다 태워버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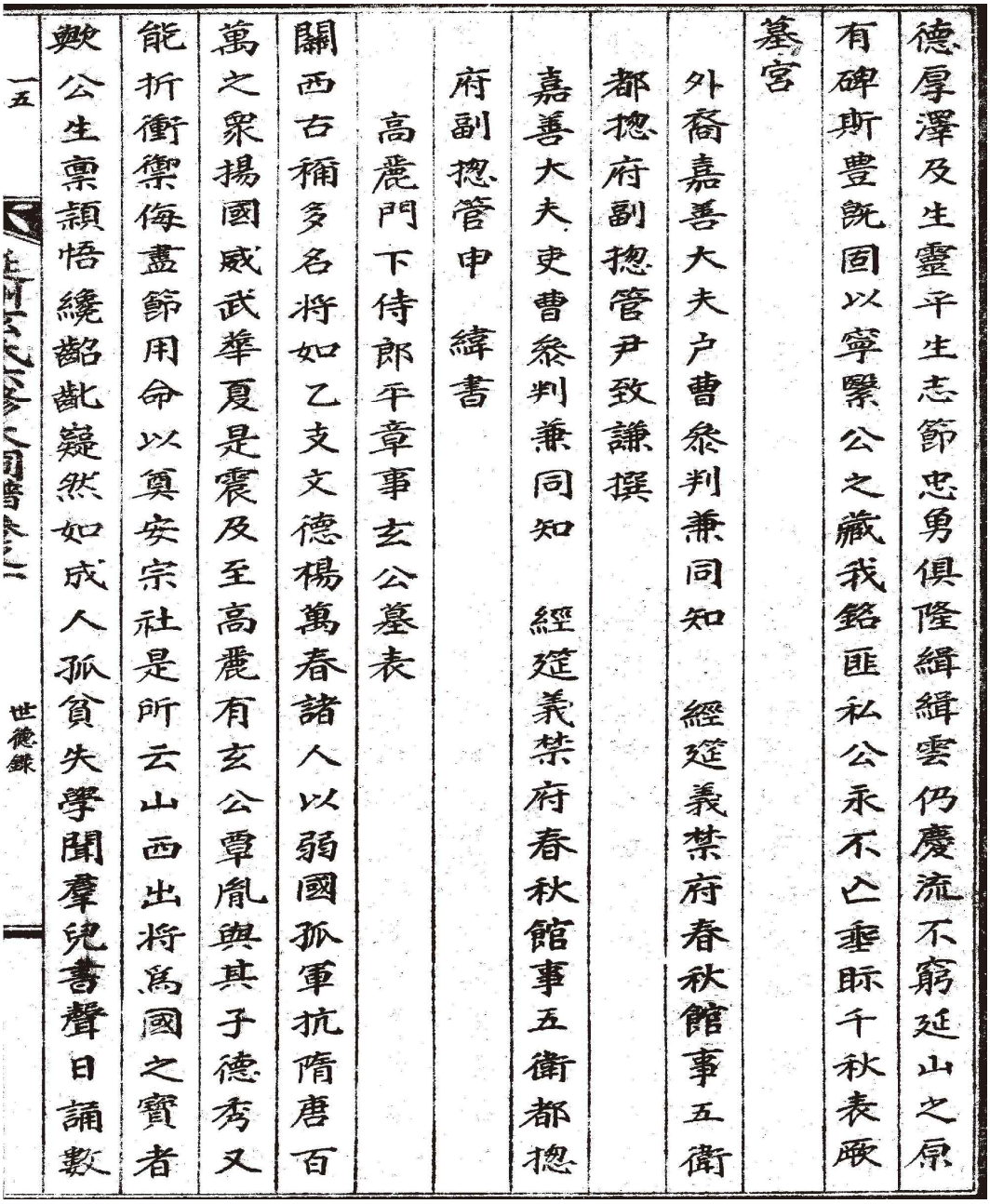
우리의 비명은 사사롭지 않으니[我銘匪私]
공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리라[公永不亡].
천추(千秋)에 드리워 이어지도록[垂視千秋]
그 무덤 표시한다오[表厥墓宮].

외손[外芮] 가선대부(加善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 겸 동지(同知) 경연(經筵) 의금부(義禁府) 춘추관사(春秋館事)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총관(摠管) 윤치겸(尹致謙)이 짓고,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 겸 동지(同知) 경연(經筵) 의금부(義禁府) 춘추관사(春秋館事)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副摠管) 신위(申緯)가 쓰다.

2. 고려(高麗)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현공(玄公) 묘표(墓表)

【원문(原文)】


德厚澤及生靈平生志節忠勇俱隆緝緝雲仍慶流不窮延山之原有碑斯豐既固以寧纍公之藏我銘匪私公永不亾垂昭千秋表厥墓宮

外裔嘉善大夫戶曹叅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尹致謙撰

嘉善大夫吏曹叅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申 緯書

高麗門下侍郎平章事玄公墓表

關西古稱多名將如乙支文德楊萬春諸人以弱國孤軍抗隋唐百萬之衆揚國威武華夏是震及至高麗有玄公覃胤與其子德秀又能折衝禦侮盡節用命以奠安宗社是所云山西出將爲國之寶者歟公生稟頴悟纔齠齔嶷然如成人孤貧失學聞聲兒書聲日誦數

<그림 (43)> 고려(高麗)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현공(玄公) 묘표(墓表) (1)

【판독(判讀)】

高麗門下侍郎平章事玄公墓表

關西古稱多名將 如乙支文德 楊萬春 諸人 以弱國孤軍 抗隋唐 百萬之衆 揚國威武[639] 華夏[640]是震 及至高麗 有玄公覃胤 與其子德秀 又能折衝禦侮[641] 盡節用[642] 命以奠安宗社[643] 是所云 山西出將爲國之寶者歟 公生稟穎悟[644] 齠齔[645]然如成人 孤貧[646]失學 聞羣兒書聲 日誦數

【해석(解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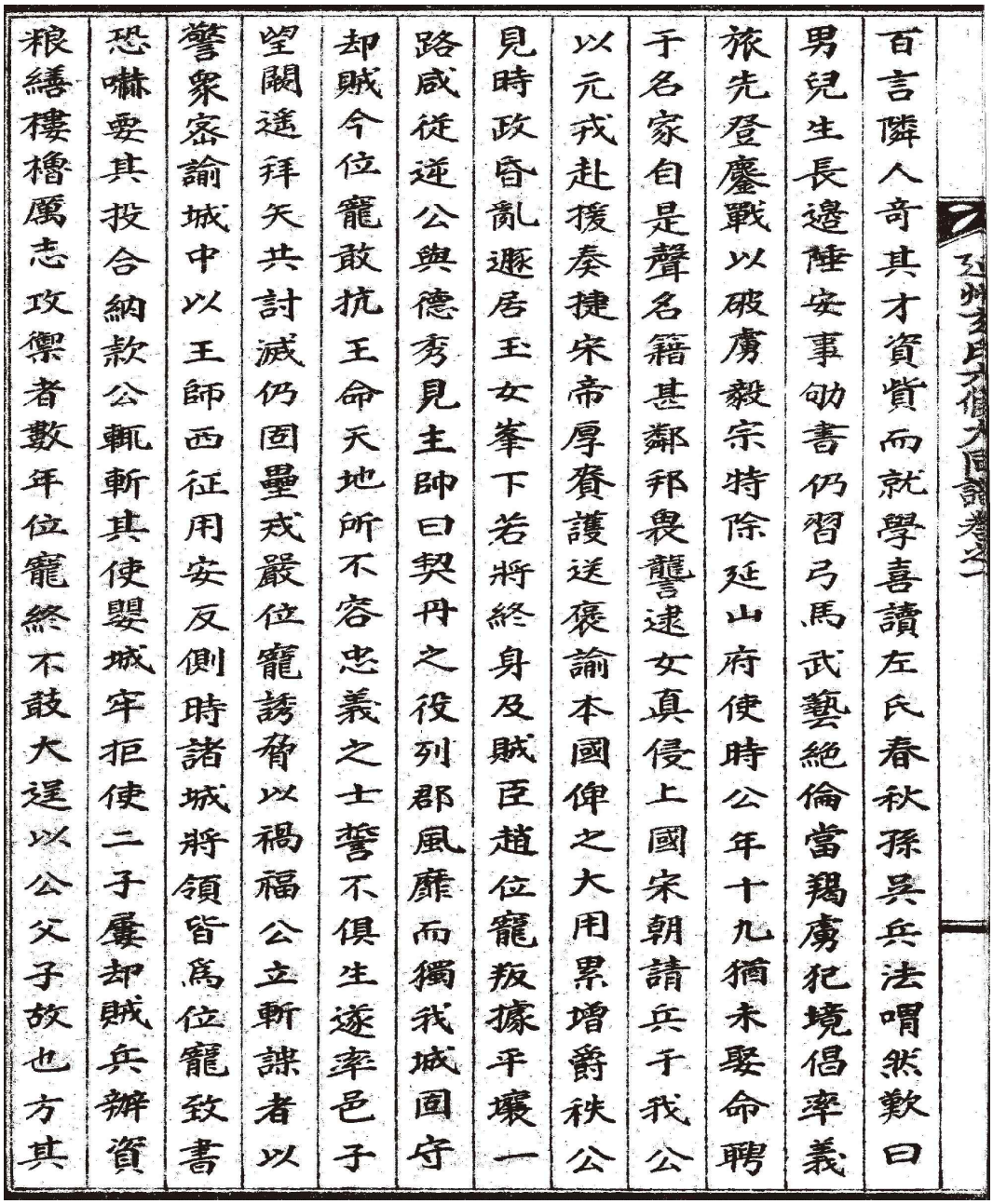
<고려(高麗)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현공(玄公) 묘표(墓表)>

관서(關西) 지역은 예로부터 명장(名將)이라 불리는 이들이 많았다. 예컨대 을지문덕(乙支文德), 양만춘(楊萬春) 같은 사람들이라 하겠다. 약한 나라로서 고군분투(孤軍奮鬪)하여 수(隋)나라 당(唐)나라와 대항하면서 백만 군사의 위력과 무력을 잘 막아내면서 그 떨친 국력이 중국 본토인 화하(華夏)를 진동케 했었다. 고려 때에 이르러서는 현공(玄公) 담윤(覃胤)이 그 아들 덕수(德秀)와 더불어 공격해오는 적을 잘 방어하고 반격하면서 종묘와 사직을 편안케 하라는 명을 받아 그 쓰임을 다했다. 이것이 이른바, “산서(山西) 지역이 배출한 장수가 나라의 보배가 되었다.”라고 한 것이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영리하고 슬기로웠다. 어린 시절 모습이 마치 다 큰 성인과 같았다. 의지할 데가 없이 외롭고 가난하여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뭇 아이들이 내는 책 읽는 소리를 듣고서 수백 마디의 말을 암송해내니, (…)

639) 揚國威武(양국위무) : 군대의 위력과 무력으로써 나라를 떨치다.
640) 華夏(화하) : 중국 본토를 이르는 말. ‘夏(하)’는 대(大)의 뜻.
641) 折衝禦侮(절충어모) : 공격해오는 적(敵)을 반격함을 이름.
642) 節用(절용) : 절약하여 씀.
643) 奠安宗社(전안종사) :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편안케 하다.
644) 生稟穎悟(생품영오) : 타고난 자질이 영리하고 슬기롭다.
645) 齠齔(초츤) : 어린 시절. 어린아이.
646) 孤貧(고빈) : 의지할 데가 없이 외롭고 가난함.

【원문(原文)】



百言隣人奇其才資貲而就學喜讀左氏春秋孫吳兵法喟然歎曰
男兒生長邊陲安事毗書仍習弓馬武藝絶倫當羯虜犯境倡率義
旅先登屢戰以破虜殺宗特除延山府使時公年十九猶未娶命聘
于名家自是聲名籍甚鄰邦畏讐逮女真侵上國宋朝請兵于我公
以元戎赴援奏捷宋帝厚賚護送褒諭本國俾之大用累增爵秩公
見時政昏亂遯居玉女峯下若將終身及賊臣趙位寵叛據平壤一
路咸從逆公與德秀見主帥曰契丹之役列郡風靡而獨我城固守
却賊今位寵敢抗王命天地所不容忠義之士誓不俱生遂率邑子
望闕遙拜矢共討滅仍固壘戍嚴位寵誘脅以禍福公立斬諜者以
警衆密諭城中以王師西征用安反側時諸城將領皆爲位寵致書
恐嚇要其投合納款公輒斬其使嬰城牢拒使二子屢却賊兵辦資
粮繕樓櫓厲志攻禦者數年位寵終不敢大逞以公父子故也方其

<그림 (44)> 고려(高麗)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현공(玄公) 묘표(墓表) (2)

【판독(判讀)】

百言 隣人奇其才資 貲[647]而就學 喜讀左氏春秋孫吳兵法 喟然歎[648]曰 男

647) 貲而就學(자이취학) : 돈을 대며 취학시켜줌.
648) 喟然歎(위연탄) : 한숨을 내쉬며 탄식함.

兒生長 邊陲[649]安事劬[650]書 仍習弓馬武藝絶倫[651] 當羯虜犯境 倡率[652]義旅 先登鏖戰[653] 以破虜 毅宗特除 延山府使 時公年十九 猶未娶 命聘[654] 于名家 自是聲名藉甚[655] 隣邦畏讋[656]逮 女眞侵上國[657] 宋朝請兵于我 公以元戎[658]赴援[659]奏捷[660] 宋帝厚賚[661]護送褒諭[662] 本國俾之[663]大用累增爵秩[664] 公見時政昏亂 遯居[665]玉女峯下 若將終身 及 賊臣趙位寵 叛據平壤 一路咸從逆 公與德秀 見主帥曰 契丹之役[666] 列郡風靡[667]而獨我城固守 却賊今位寵敢抗王名 天地所不容 忠義之士 誓不俱生[668]遂率邑子 望闕[669]遙拜[670] 矢共[671]討滅 仍固壘[672]戎嚴 位寵誘脅以禍福 公立斬[673]謀者[674] 以警衆 密諭城中 以王師西征用安[675] 反側[676]時 諸城

649) 邊陲(변수) : 변경(邊境). 곧 나라의 경계가 되는 변두리 땅.
650) 劬(구) : 애쓰다.
651) 絶倫(절륜) : 월등하게 뛰어남. 절군(絶群). 절등(絶等). 절류(絶類).
652) 倡率(창솔) : 솔선하여 인도함.
653) 鏖戰(오전) : 격렬하게 싸움.
654) 聘(빙) : 장가들다. 예를 갖추어 아내를 맞다. 참고로 '빙부(聘父)'는 장인어른을, '빙모(聘母)'는 장모를 지칭하기도 한다.
655) 藉甚(자심) : 성하고 큼. 자자함. 또는 매우 뛰어남.
656) 畏讋(외섭) : 두려워하다.
657) 上國(상국) : 속국(屬國)이 종주국(宗主國)을 일컫는 말.
658) 元戎(원융) : 다수(多數)의 군사. 대군(大軍).
659) 赴援(부원) : 구원하러 감. 부구(赴救).
660) 奏捷(주첩) : 승전(勝戰)을 보고하다. 승전보를 아뢰다.
661) 厚賚(후뢰) : 두툼하게 하사품을 보내다.
662) 褒諭(포유) : 임금이 칙서를 내려 칭찬함.
663) 俾之(비지) : 그것을 따르다.
664) 爵秩(작질) : 작위(爵位)와 봉록(俸祿). 작록(爵祿).
665) 遯居(둔거) : 숨어서 삶.
666) 契丹之役(계단지역) : '거란과의 싸움'. 참고로 고종 6년(1269)에 강동성에서 고려、몽고、동진(東眞)의 연합군이 거란을 무찌른 싸움을 두고서는 흔히 '강동의 싸움[江東之役]'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契丹(거란←글안)'은 몽고 지방에서 유목(遊牧)하던 부족의 이름으로서 10세기 초에 나라를 세워 요(遼)라 하였는데, 금(金)에게 멸망당했다.
667) 列郡風靡(열군풍미) : 여러 고을이 바람에 쏠리듯 무너지다.
668) 誓不俱生(서불구생) :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맹서함.
669) 望闕(망궐) : 궁궐을 우러러봄. 곧 임금을 그리워함의 비유. 참고로 '망궐례(望闕禮)'란 궁궐이 멀리 있어서 직접 궁궐에 나아가 왕을 배알하지 못함에, 멀리서 궁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를 지칭한다.
670) 遙拜(요배) 멀리서 절함.
671) 矢共(시공) : 함께 맹세하다. 여기서 '矢(시)'는 보통 화살, 혹은 곧음의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맹세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672) 固壘(고루) : 견고한 상태.
673) 立斬(입참) ; '立斬以徇(입참이순)'의 준말. 곧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대중에게 두루 보임.
674) 謀者(첩자) : 첩보의 임무를 띠고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람. 간첩(間諜). 여기서 '謀(첩)'은 '諜(첩)'과 동자(同字)임.
675) 用安(용안) : '利用安身(이용안신)'의 준말. 곧 '쓰임을 이롭게 해서 몸을 안전하게 함'. 이의 출전은 《주역》〈계사전 하(繫辭傳下)〉로 그 5장에 보면, "자벌레가 몸을 굽히는 것은 장차 펴기 위해서이고, 용과 뱀이 땅속에 들어앉은 것은 몸을 보전하기 위해서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의리를 정밀히 연구하여 신묘한 경지에 드는 것은 극진하게 쓰기 위함이요, 그 씀을 이롭게 하여 몸을 편안히 하는 것은 덕을 높이기 위함이다.[尺蠖之屈 以求信也 龍蛇之蟄 以存身也 精義入神 以致用也 利用安身 以崇德也]"라는 말에서 발췌한 것이다.

將領 皆爲位寵致書[677]恐嚇[678] 要其投合 納款[679] 公輒斬其使 嬰城[680]牢拒[681] 使二子屢却敵兵 辦資粮[682] 繕樓櫓[683]厲志 攻禦者 數年 位寵終不敢大逞[684] 以公父子故也 方其

【해석(解釋)】

이웃 사람들이 그 타고난 자질을 기이하게 여겨 돈을 대어 공부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어느 날 《좌씨춘추(左氏春秋)》와 《손오병법(孫吳兵法)》을 즐겨 읽다가,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하기를, “남아로서 변경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어찌 편안하게 책만 볼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에 활쏘기와 말타기 등 무예를 익혔는데 그 실력이 남보다 월등하게 뛰어났다.

당시 오랑캐인 갈로(羯虜)가 국경을 침범해왔다. 그러자 공은 의병(義兵)들을 솔선하여 인도하고 선두에 서서 격렬하게 싸워 오랑캐들을 물리쳤다. 고려 의종(毅宗)은 공에게 연산부사(延山府使)를 특별히 제수(除授)했다. 이때 공의 나이는 19세로서 아직 미혼인 상태였는데, 임금께서 명을 내려 이름난 집안에 장가들도록 주선한 것이다. 이로부터 명성이 자자(藉藉)해서 이웃한 나라들조차 알아챌 정도였다.

여진(女眞)이 자신들의 종주국인 나라를 침범하니, 송(宋)나라 조정에서는 우리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자 공이 다수의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가선 승전보를 알리게 되었다. 이에 송(宋) 황제가 두툼하게 하사품을 내려보내시면서 칙서의 유지를 내렸는데, 본국인 고려조정에서도 그것을 따라서 크게 서용(敍用)하고 작위와 봉록을 여러 번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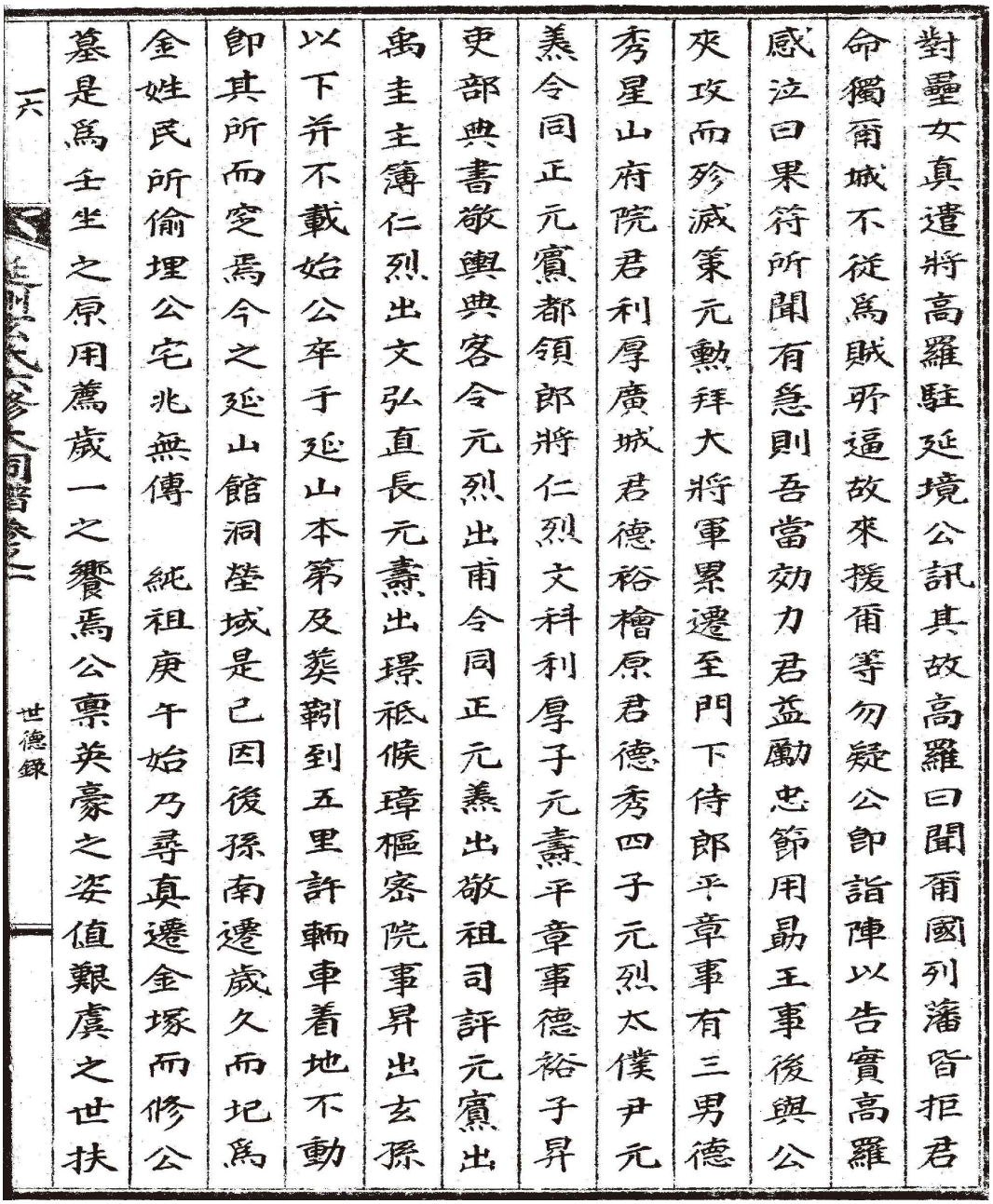
공이 보시기에 당시의 정국(政局)이 혼란하다고 판단하여 옥녀봉(玉女峯) 아래에서 은둔해 살면서 마치 생을 마감하려는 듯했다. 그런데 마침 적신 조위총(趙位寵)이 평양을 거점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니 외곬으로 모두가 역적의 무리를 따라나섰다. 공은 덕수와 더불어 주요 장수들을

676) 反側(반측) : 두 마음으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것.
677) 致書(치서) : 편지글을 쓰다.
678) 恐嚇(공하) : 공갈(恐喝) 협박(脅迫)함.
679) 納款(납관) : 귀순(歸順)함. 항복함.
680) 嬰城(영성) : 성을 빙 둘러서 굳게 지킴. 영수(嬰守).
681) 牢拒(뇌거) : 굳게 막아서다.
682) 辦資粮(판자량) : 자재와 양식을 마련하다.
683) 繕樓櫓(선루노) : 병선(兵船)을 수리하다.
684) 大逞(대령) : 크게 욕심을 부리다.

불러 모아서 말하길, “예전 거란[契丹]과의 싸움에서 여러 고을이 바람에 쓰러지듯 무너졌지만, 그러나 홀로 우리 성만은 확실히 지켜낼 수 있었다. 도리어 적 조위총은 이제 왕명을 거역하고 있으니 세상천지가 용납할 수 없는 바이며, 충성스럽고 의로운 선비들은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라고 했다. 마침내 고을의 자제들을 거느리고 멀리 궁궐을 우러러보며 절을 하고선 적을 토벌하여 멸망시킬 것을 함께 맹세했다. 이에 따라 견고한 상태로 계율을 엄하게 다스렸다. 조위총은 첩자(諜者)를 보내어 복(福)을 들어 유혹하는가 하면, 화(禍)를 들어 협박하기도 했다. 공은 그 자리에서 첩자의 목을 베었는데, 여러 사람에게 경계(警戒)토록 하기 위해서다. 한 통의 비밀스런 유지(諭旨)가 성안으로 날아들어 왔는데, “왕의 군대가 서역을 정벌하고 있으니 씀을 이롭게 하여 몸을 안전하게 가져가야 할 것이니라. 사세(事勢)에 따라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함은 여러 성의 장령(將領)들이 모두가 조위총이 치서(致書)한 공갈 협박에 넘어가 의기투합(意氣投合)해 항복하는 일이 될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공은 돌연 그 사자(使者)의 목을 베었고, 성을 빙 둘러 굳게 지킬 요량으로, 두 아들(德秀, 利厚)로 하여금 적병을 여러 번 물리치게 하였다. 자재와 양식을 마련하고, 병선(兵船)을 수리하는가 하면 뜻을 굳게 다지기도 하면서 공격과 방어가 여러 해 동안 이어졌다. 조위총이 마침내 큰 욕심을 부리지 못함은 바로 공의 부자(父子) 때문이었다.

【원문(原文)】


對曰女眞遣將高羅駐延境公訊其故高羅曰聞甫國列藩皆拒君命獨甫城不從爲賊所逼故來援甫等勿疑公卽詣陣以告實高羅感泣曰果符所聞有急則吾當効力君益勵忠節用勗王事後與公夾攻而殄滅策元勳拜大將軍累遷至門下侍郎平章事有三男德秀星山府院君利厚廣城君德裕檜原君德秀四子元烈太僕尹元羲令同正元賓都領郎將仁烈文科利厚子元燾平章事德裕子昇吏部典書敬輿典客令元烈出甫令同正元羲出敬祖司評元賓出禹圭主簿仁烈出文弘直長元燾出璟祗候璋樞密院事昇出玄孫以下并不載始公卒于延山本第及葵鞠到五里許輀車着地不動卽其所而窆焉今之延山館洞塋域是已因後孫南遷歲久而圮爲金姓民所偷埋公宅兆無傳　純祖庚午始乃尋眞遷金塚而修公墓是爲壬坐之原用薦歲一之饗焉公稟英豪之姿值艱虞之世扶

<그림 (45)> 고려(高麗)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현공(玄公) 묘표(墓表) (3)

【판독(判讀)】

對曰 女眞遣將高羅 駐延境 公訊其故 高羅曰 聞甫國列藩 皆拒君命 獨甫城不從 爲賊所逼 故來援甫等 勿疑 公卽諸陣以故實 高羅感泣 曰果符所

聞 有急卽吾當效力 君益勵忠節用 勗[685]王事[686]後 與公夾攻 而殄滅 策元勳拜大將軍 累遷至門下侍郎平章事 有三男 德秀星山府院君 利厚廣城君 德裕檜原君 德秀四子 元烈太僕尹 元旿(美+灬)[687]令同正 元旻(賓+灬)[688]都領郎將 仁烈文科 利厚子 元燾平章事 德裕子昇吏部典書 敬輿典客令 元烈出甫令同正 元旿出敬祖司評 元旻出禹圭主簿 仁烈出文弘直長 元燾出璟祇候璋樞密院事 昇出 玄孫[689]以下并不載 始公出于延山本第[690]及葬鞾[691]到五里許[692]輀車[693]着地不動卽其所而窆[694]焉今之延山館洞塋域[695]是已 因後孫南遷 歲久而圮[696]爲金姓民所偸埋[697] 公宅兆[698]無傳純祖庚午[699] 始乃尋眞 遷金塚而修公墓 是爲壬坐之原[700] 用薦歲[701]一之饗焉 公稟英豪[702]之姿 値艱虞之世[703]扶

【해석(解釋)】

한편 조위총과 보루(堡壘)를 마주 대하고 있을 무렵, 여진(女眞)에선 장수 고라(高羅)를 파견하여 연주의 변경에 주둔하기에 이르렀다. 공이 파견 경위에 대해 신문(訊問)하자, 고라가 대답하기를, “듣자 하니, 그대들 나라는 여러 번국(藩國, 여기서는 城의 뜻)으로 이뤄진 나라인데, 모두가 임금의 명을 거역하고 있음에도 유독 당신네 성에서만 이 추세를 따르지 않아 적들로부터 많이 핍박받고 있다고 들었소. 그래서 그대들을

685) 勗(욱) : 힘쓰다. 여기서 ‘勗(욱)은 ’勖(욱)‘의 속자(俗字)임.
686) 王事(왕사) : 조정의 큰 행사.
687) 元美(+灬) : 원미란 이름에서 ‘미’는 본래 ‘美+灬’의 형태이나 이런 글자는 자전에 없다.
688) 元賓(+灬) : 원빈이란 이름에서 ‘빈’은 본래 ‘賓+灬’의 형태이나 이런 글자 자전에 없다.
689) 玄孫(현손) : 손자의 손자. 고손(高孫).
690) 本第(본제) : 고향에 있는 자기의 집. 본가(本家).
691) 葬鞾(장인) : 상여(喪輿).
692) 五里許(오리허) : 오리(五里) 정도의 거리에서. 다른 기록엔 이 부분이 ‘오리정(五里亭)’으로 되어 있다.
693) 輀車(이거) : 관을 운반하는 수레.
694) 窆(폄) : 매장하다. 하관(下棺)하다.
695) 塋域(영역) : 영지(塋地). 묘지(墓地).
696) 圮(비) : 허물어지다,
697) 偸埋(투매) : 몰래 훔쳐서 매장하다.
698) 宅兆(택조) : 묏자리. 묘지(墓地).
699) 純祖庚午(순조경오) : 1810년을 이름이다.
700) 壬坐之原(임좌지원) : (묘소가 위치한 자리가) 임좌(壬坐)의 언덕. 여기서 ‘임좌(壬坐)’란 ‘임좌병향(壬坐丙向)’의 준말로 임방(壬方)을 등지고 병방(丙方)을 향한 좌향이다. 곧 북서 방향을 등지고 남동 방향을 바라보는 방향이다.
701) 用薦歲(용천세) : 제물(祭物)을 올려 세시(歲時)의 제례(祭禮)를 거행함. 대개 ‘用薦歲事(용천세사)’란 표현을 쓴다.
702) 英豪(영호) : 영웅(英雄)과 호걸(豪傑).
703) 値艱虞之世(치간우지세) : 나라의 어려움이 있는 세대에 걸맞게 ….

구원하려고 여기에 들어온 것이니, 부디 의심하지 말길 바라오."라고 했다. 공은 곧 여러 진영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고라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길, "과연 소문대로 딱 들어맞는구만요. 위급한 일이 생기면 곧 우리가 의당 효력을 발동할 것이오. 그대는 더욱 충성에 매진해서 쓰임을 다하길 바라오."라고 했다. 고려 조정의 일을 돕기로 합의한 후, 공은 그와 더불어서 협공을 시도해 적을 모조리 섬멸시켰다. 그 공으로 원훈(元勳)에 책봉되고, 대장군(大將軍)을 배수(拜受) 받았고, 여러 번 천거되어 벼슬이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이르렀다.

공은 세 아드님을 낳았는데,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 덕수(德秀)와 광성군(廣城君) 이후(利厚), 그리고 회원군(檜原君) 덕유(德裕)이다. 덕수는 네 아들을 두었는데, 태복윤(太僕尹) 원열(元烈)과 영동정(令同正) 원미, 도령낭장(都令郎將) 원빈과 문과(文科) 인열(仁烈)이 그들이다. 이후는 아들이 평장사(平章事)인 원도(元燾)이고, 덕유는 아들이 이부전서(吏部典書) 승(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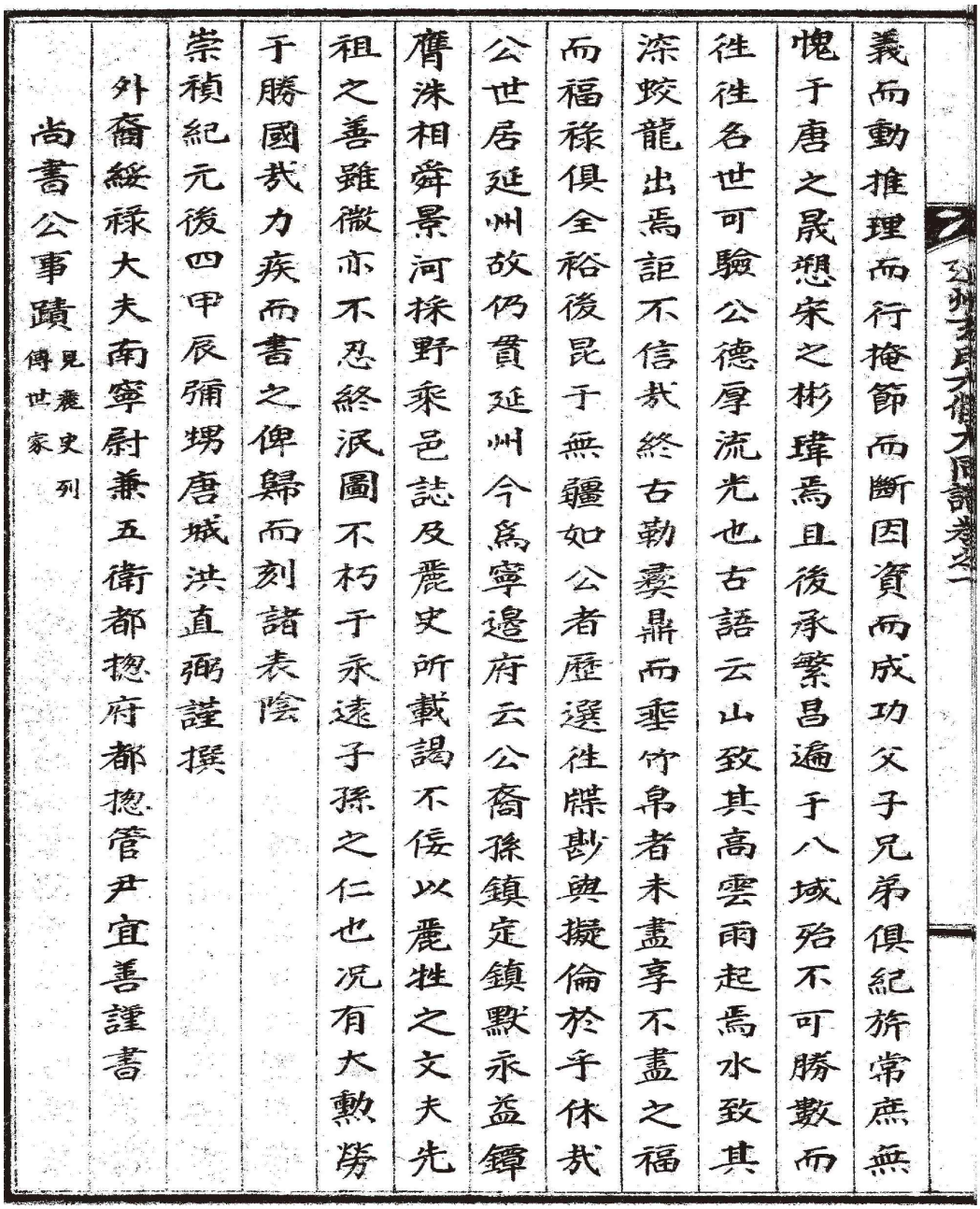
전객령(典客令) 경여(敬輿)는 원열(元烈)이 낳았고, 영동정(令同正) 보(甫)는 원미가 낳았고, 사평(司評) 경조(敬祖)는 원빈이 낳았다. 주부(主簿) 우규(禹奎)는 인열(仁烈)이 낳았고, 직장(直長) 문홍(文弘)은 원도(元燾)가 낳았다. 지후(祗候) 경(璟)과 추밀원사(樞密院事) 장(璋)은 승(昇)이 낳았다. 현손(玄孫) 이하는 함께 다 싣지 못한다.

바야흐로 공이 태어난 연산(延山)의 본가(本家)에서 세상을 떠나셨다. 발인(發靷) 후에 5리쯤에 이르자 상여가 땅에 찰싹 달라붙은 채로 움직이질 않았다. 그래서 곧 그 장소가 매장지가 되었다. 오늘날 연산부(延山府) 관동(館洞) 고을이 이곳이다. 후손들이 남쪽으로 옮아가게 되고 세월이 오래 흐르면서 묘소는 허물어졌는데, 김씨(金氏) 성을 지닌 백성이 그곳에 몰래 묻히게 되면서 공의 묏자리도 전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가 순조(純祖) 경오(庚午, 1810)년에 이르러 비로소 진짜 묘소인 곳을 찾아가 김씨 무덤을 옮기고 난 뒤, 공의 묘소를 그곳 임좌(壬坐)의 언덕에 위치하도록 수축(修築)했다. 해마다 한 차례씩 제물을 올려 세시(歲時)의 제례를 거행하게 되었다.

공은 타고난 품성이 영웅호걸(英雄豪傑)의 자태를 지녔기에,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세태에 걸맞게 (…)

【원문(原文)】


義而動推理而行掩節而斷因資而成功父子兄弟俱紀旂常庶無
愧于唐之晟懋宋之彬瑋焉且後承繁昌遍于八域殆不可勝數而
往往名世可驗公德厚流光也古語云山致其高雲雨起焉水致其
深蛟龍出焉詎不信哉終古勒彝鼎而垂竹帛者未盡享不盡之福
而福祿俱全裕後昆于無疆如公者歷選往牒卲與擬倫於乎休哉
公世居延州故仍貫延州今爲寧邊府云公裔孫鎮定鎮默永益鐔
膺洙相舜景河採野乘邑誌及麗史所載謁不佞以麗牲之文夫先
祖之善雖微亦不忍終泯圖不朽于永遠子孫之仁也況有大勳勞
于勝國哉力疾而書之俾歸而刻諸表陰
崇禎紀元後四甲辰彌堲唐城洪直弼謹撰
外裔綏祿大夫南寧尉兼五衛都摠府都摠管尹宜善謹書
尚書公事蹟見麗史列傳世家

【판독(判讀)】

義而動 推理而行 掩節而斷 因資而成功[704] 父子兄弟 俱紀旂常[705] 庶無

704) 扶義而動(부의이동) … 因資而成功(인자이성공) : 《회남자(淮南子)》 <병략훈(兵略訓)>에 보면, “상대방이 나오는 것을 관찰해서 각각 대응하여 이기는 수단을 강구한다.[觀彼之所以來 各以其勝應之]”라고 전제한 뒤에, 곧바로 “의(義)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理)를 헤아리어 행하며, 집중력을 다해서 타격

愧于 唐之晟懇[706] 宋之彬瑋[707]焉 且後承[708]繁昌 遍于八域 殆不可勝數而 徃徃名世可驗 公德厚流光也 古語云 山致其高雲雨起焉 水致其深蛟龍出焉[709] 詎不信哉 終古[710] 勒彝鼎[711]而垂竹帛[712]者 未盡享 不盡之福而福祿俱全 裕後昆[713] 于無疆 如公者 歷選徃牒[714] 尠[715] 與擬倫[716] 於乎休哉[717] 公世居[718]延州 故仍貫延州 今爲寧邊府云云 裔孫 鎭定[719] 鎭默[720] 永益[721] 鐔[722] 膺洙[723] 相舜[724] 景河[725] 採野乘[726] 邑誌及麗史

을 주고, 있는 병력에 응하여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扶義而動 推理而行 掩節而斷割 因資而成功]"라고 소개한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서 인용한 것이다. 다만 본문에 소개한 문장 중에서 '掩節而斷(엄절이단)'은 원래 '掩節而斷割(엄절이단할)'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割(할)'이란 한 글자가 본문에선 실수로 빠졌다.

참고로 여기서 '扶義(부의)'는 정의(正義)에 따라 행동함을 이름이고, 달리 장의(仗義)라고도 한다.

705) 旂常(기상) : 천자의 깃발로 즉 임금을 돕는 장상(將相)의 역할을 의미함. 곧 근왕(勤王)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 사상(司常)>편에 보면, 본래 기(旂)는 교룡(交龍)을 그린 깃발이고, 상(常)은 일월(日月)을 그린 깃발로서 임금을 상징한다.

706) 唐之晟懇(당지성소) : 중국 당(唐)나라 때 부자(父子)가 동시에 명장(名將)의 반열에 오른 이성(李晟, 727~793)과 이소(李愬, 773~821)를 두고 이름이다. 참고로 이성(李晟)은 중국 당(唐)나라 덕종(德宗) 때의 장군으로서 주자(朱泚)의 난을 평정하여 그 공으로 사도(司徒)가 되고, 봉천(奉天)의 포위를 푼 공으로 서평왕(西平王)에 봉해진 인물이다. 《구당서(舊唐書)》 <이성전(李晟傳)> 참조. 한편 그의 아들 이소(李愬, 773~821)는 자(字)가 원직(元直)으로 당나라 헌종(憲宗) 때의 명장이다. 원화(元和) 연간에 회서(淮西)에서 절도사 오원제(吳元濟)가 반기를 들자, 당등(唐鄧) 절도사로 임명되어 오원제를 사로잡고 난을 평정하였다. 이우(李祐)는 본래 오원제의 장수였는데, 이소에게 사로잡힌 다음 그의 정성에 감복하여 귀순하였다가 그가 채주성(蔡州城)을 공격할 적에 선봉이 되어 오원제를 사로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구당서(舊唐書)》 <이소전(李愬傳)> 참조.

707) 宋之彬瑋(송지빈위) : 북송(北宋) 초기 때 부자(父子)가 동시에 명장(名將)의 반열에 오른 조빈(曹彬)과 그의 4남 조위(曹瑋)를 두고 이름이다. 참고로 《송사(宋史)》(권258) <조빈열전(曹彬列傳)>편에 보면, "조빈(曹彬)은 송나라 명장으로 송 태조(宋太祖)를 도와 천하를 정하였다. 촉(蜀)을 정벌하고 남당(南唐)을 이겼으나 한 사람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 노국공(魯國公)에 봉해졌고 죽은 뒤에 제양군왕(濟陽郡王)에 봉해졌다."라고 했다.

708) 後承(후승) : 대(代)를 잇는 자식. 후사(後嗣).

709) 山致其高(산치기고) … 교룡출언(蛟龍出焉) : 산(山)이 일정한 높이에 이르면 구름과 비가 발생하고, 물이 일정한 깊이에 이르면 교룡(蛟龍)이 생긴다. 《설원(說苑)》 <귀덕(貴德)>편에 보면, "산(山)이 일정한 높이에 이르면 구름과 비가 발생하고, 물이 일정한 깊이에 이르면 교룡(蛟龍)이 생기고, 군자가 일정한 도덕(道德)에 이르면 복록(福祿)이 절로 돌아온다.[山致其高 雲雨起焉 水致其深 蛟龍生焉 君子致其道德 而福祿歸焉]"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인용했다.

710) 終古(종고) : 예로부터. 자고 이래로. 항상.

711) 勒彝鼎(늑이정) : 이정(彝鼎)에 새기다. 여기서 '이정(彝鼎)'이란 제사에 쓰던 정(鼎) · 준(尊) · 뇌(罍) 등의 예기(禮器)를 두고 이름이다.

712) 垂竹帛(수죽백) : 역사책에 이름을 올리다. 여기서 죽백(竹帛)은 고대에 종이가 없을 때 죽간(竹簡)과 명주에 글을 썼던 데서 온 말로 서책(書冊)을 뜻한다. 보통 역사에 이름을 남김의 뜻으로 '垂名竹帛(수명죽백)'이라 표기한다.

713) 裕後昆(유후곤) : 후손에게 덕행을 많이 남겨 준다는 뜻으로, 《서경》 〈중훼지고(仲虺之誥)〉에 "의로일을 바로잡고 예로 마음을 바로잡아 후세에 덕행을 남겨 주소서.〔以義制事 以禮制心 垂**裕後昆**〕"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714) 歷選徃牒(역선왕첩) : 두루 지나간 역사 문헌을 다 찾아봐도 ….

715) 尠(선) : 드물다. 적다.

716) 擬倫(의륜) : 같은 유의 무리로 견줌.

717) 於乎休哉(어호휴재) : 아, 훌륭하도다! 아, 아름답도다!

718) 世居(세거) : 한 고장에서 대대로 삶.

719) 鎭定(진정) : 현진정(玄鎭定, 1781~?). 족보에 보면, 자(字)가 자안(子安)이고, 판관공파 21세손이다.

720) 鎭默(진묵) : 현진묵(玄鎭默, 1790~1835). 족보에 보면, 자(字)가 계심(季沈)이고 적성현감(積城縣監)을 역임했고, 판관공파 21세손이다.

所載 謁不佞[727] 以麗牲之文[728] 夫先祖之善 雖微[729] 亦不忍終泯[730] 圖不朽于永遠 子孫之仁也 况有大勳勞[731] 于勝國[732]哉 力疾[733]而書之 俾歸而刻[734]諸表陰[735]

崇禎紀元後四甲辰[736] 彌甥[737] 唐城[738] 洪直弼[739] 謹撰

外裔[740]綏祿大夫南寧尉兼五衛都摠府都摠管尹宜善[741]謹書

---

721) 永益(영익) : 현영익(玄永益, 1784~1845). 족보에 의하면, 자(字)가 사수(士壽)이고 사포서직장(司圃署直長)을 역임했으며 판관공파 22세손이다.

722) 鐔(담) : 현담(玄鐔, 1765~1849). 족보에 보면, 자(字)가 이용(利用)이고, 첨정공파 19세손이다. 참고로 '鐔'이란 한자어는 그 독음이 '심'과 '담', 두 가지 형태로 읽힐 수 있다.

723) 膺洙(응수) : 현응수(玄膺洙, 1792~1872). 족보에 보면 자(字)가 수여(綏汝)이고 호가 춘암(春庵)인데 첨정공파 20세손이다.

724) 相舜(상순) : 현상순(玄相舜, 1824~?). 족보에 보면, 자(字)가 화여(華如)이고, 판관공파 23세손이다.

725) 景河(경하) : 현경하(玄景河, 1782~1844). 족보에 보면, 자(字)가 내명(乃明)이고 중서사인공파 22세손이다.

726) 野乘(야승) : 야사(野史). 책명을 《대동야승(大東野乘)》이라 한 게 유명한데, 조선시대 여러 사람들이 쓴 야사와 잡록을 모아놓은 대표적인 전집이다.

727) 不佞(불녕) : 재주가 없음. 또는 그러한 사람. 보통 글을 쓴 이의 자신을 두고 겸사(謙辭)의 표기로 많이 쓰이곤 한다.

728) 麗牲(여생) : 제사에 쓸 희생을 비석에 묶는 일. 옛날에 제사를 지낼 적에 사당이나 묘소 앞에 희생(犧牲)으로 쓰는 짐승을 붙잡아 매어 세워 놓은 돌로, 전하여 비석(碑石)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예기》〈제의(祭義)〉에 보면, "종묘에 제사하는 날, 임금이 희생으로 바칠 소를 끌고 가면 세자가 이를 돕고 경대부는 차례대로 따른다. 이미 종묘의 문에 들어가서 비석에 희생을 잡아 맨다.[祭之日, 君牽牲, 穆答君, 卿大夫序從. 旣入廟門, 麗於碑.]"라고 하였다. 따라서 '麗牲之文(여생지문)'은 비문(碑文)을 지칭하는 말이 된다.

729) 先祖之善雖微(선조지선수미) : 선조의 훌륭한 행적이 비록 은미(隱微)하더라도 ….

730) 不忍終泯(불인종민) : 차마 끝내 인멸(湮滅)시키지 못함.

731) 勳勞(훈로) : 공훈(功勳). 공로(功勞). 공을 세움을 이름.

732) 勝國(승국) : 망한 나라. 후에는 전대(前代)의 왕조를 이름. 여기서 '승국(勝國)'은 조선에 망한 나라, 곧 고려(高麗)를 지칭함임.

733) 力疾(역질) : 있는 힘을 다하여 병든 몸을 지탱함.

734) 俾歸而刻(비귀이각) : 가지고 돌아가서 …에 새기도록 함.

735) 表陰(표음) : '墓表陰記(묘표음기)'의 준말. 곧 매장한 곳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우는 돌이나 나무기둥을 묘표(墓表)라고 하며, 비석 뒤에 새기는 글을 두고서 음기(陰記)라고 함.

736) 崇禎紀元後四甲辰(숭정기원후사갑진) : 조선조 헌종 10년인 1844년을 이름이다. 숭정(崇禎)이란 연호는 명(明)나라 마지막 황제인 의종(毅宗)이 쓴 연호로서, 그 기간은 17년으로 1628년(인조 6년)부터 1644년(인조 22년)까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조선의 선비들은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오랑캐 나라이기에 그 연호를 쓰지 않고 그 대신에 숭정이란 연호를 계속 상용해 왔다. 따라서 '崇禎紀元後一甲辰(숭정기원후일갑진)'은 1664년(현종 5년)이 되기에, '崇禎紀元後二甲辰(숭정기원후이갑진)'은 1724년(경종 4년)이 되고, '崇禎紀元後三甲辰(숭정기원후삼갑진)'은 1784년(정조 8년)이므로 '崇禎紀元後四甲辰(숭정기원후사갑진)'은 1844년(헌종 10년)에 해당한다.

737) 彌甥(미생) : 외손자.

738) 唐城(당성) : 경기 남양(南陽)의 옛 이름. 홍씨(洪氏)의 본관이 남양(南陽)이다.

739) 洪直弼(홍직필) :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은 조선 후기의 주리파 성리학자로 문장에 뛰어났고 육경은 물론 제자백가에 통달하였다. 평생 많은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자(字)가 백응(伯應)이고 호(號)가 매산(梅山)이다. 저서로는 《매산집(梅山集)》 52권이 있고,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당성(唐城)은 남양(南陽)의 고호(古號)이다.

740) 外裔(외예) : 외가로 현씨의 후예.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선조가 전 영의정 윤방(尹昉)이고, 그의 부친 역시 영의정을 역임한 윤두수(尹斗壽)인데, 동생 윤근수(尹根壽)와 더불어 이들 모친이 바로 판관공파 12세손 현윤명(玄允明)의 따님이시다.

741) 尹宜善(윤의선) : 윤의선(尹宜善, 1823~1887)은 전 영의정 윤방(尹昉)의 후손인데, 자는 경교(景敎)

【해석(解釋)】

“의(義)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理)를 헤아려 행하며, 집중력을 다해서 타격을 주고, 있는 병력에 응하여 효과를 거둔다.”란 정책으로 일관했다. 공은 자신과 아들, 그리고 아들 형제들이 모두 근왕(勤王)의 임무를 수행해온 장수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저 당(唐)나라 때 부자(父子)가 모두 명장이었던 이성(李晟) · 이소(李愬)나, 송(宋)나라 때의 부자(父子) 명장인 조빈(曹彬) · 조위(曹瑋)와 비교해봐도 거의 손색이 없다.

게다가 후대의 자손들은 날로 번창하여 팔도에 두루 퍼져있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왕왕 세상에 이름을 떨친 이들도 보게 된다. 공은 덕이 두터워 그 광채를 후세에 전했다. 옛말에 “산(山)이 일정한 높이에 이르면 구름과 비가 발생하고, 물이 일정한 깊이에 이르면 교룡(蛟龍)이 생긴다.”라고 한 것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로부터 제사 그릇인 이정(彝鼎)에 글을 새겨놓고, 역사책에 이름을 올리는 일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없을뿐더러 그런 복을 다하진 못했다. 그러나 공은 복록(福祿)이 온전히 구비되어 후손을 윤택하게 하면서 무강(無疆)케 했다. 이처럼 공과 같은 사람이란, 옛 문헌을 다 들추어봐도 드물다. 누구와 더불어 견주어본다 한들, ‘아, 훌륭하도다!’

공은 연주(延州)라는 한 고장에서 대대로 살아와서, 이에 그 본관이 연주인데 지금의 영변부(寧邊府)라고 일컬어지는 곳이다.

마침 공의 후예(後裔)인 현진정(玄鎭定) · 현진묵(玄鎭默) · 현영익(玄永益) · 현담(玄鐔) · 현응수(玄膺洙) · 현상순(玄相舜) · 현경하(玄景河) 등이 여러 야사(野史)에서 채록했거나 《읍지(邑志)》 및 《고려사(高麗史)》 등에 수록된 자료들을 들고서 비문(碑文)을 부탁하려고 나[不佞]를 찾아왔다.

무릇 선조(先祖)의 훌륭한 행적이 비록 은미(隱微)하더라도 차마 끝내 인멸(湮滅)시키지 못하고, 썩지 않고 영원히 오래도록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자손의 인(仁)이다. 하물며 망한 나라에서 큰 공훈을 세운 사람임에야. 아픈 몸을 이끈 채로 있는 힘을 다해 글을 썼으니 이 글을 가지고 가서 묘표(墓表)로서 비석 뒷면에다 새겨놓도록 하시오.

이고, 순조(純祖)의 부마(駙馬, 사위)로서 나라에 끼친 공훈이 없다며 유언으로 시호 하사를 거절한 인물이다.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4갑진(甲辰, 1844)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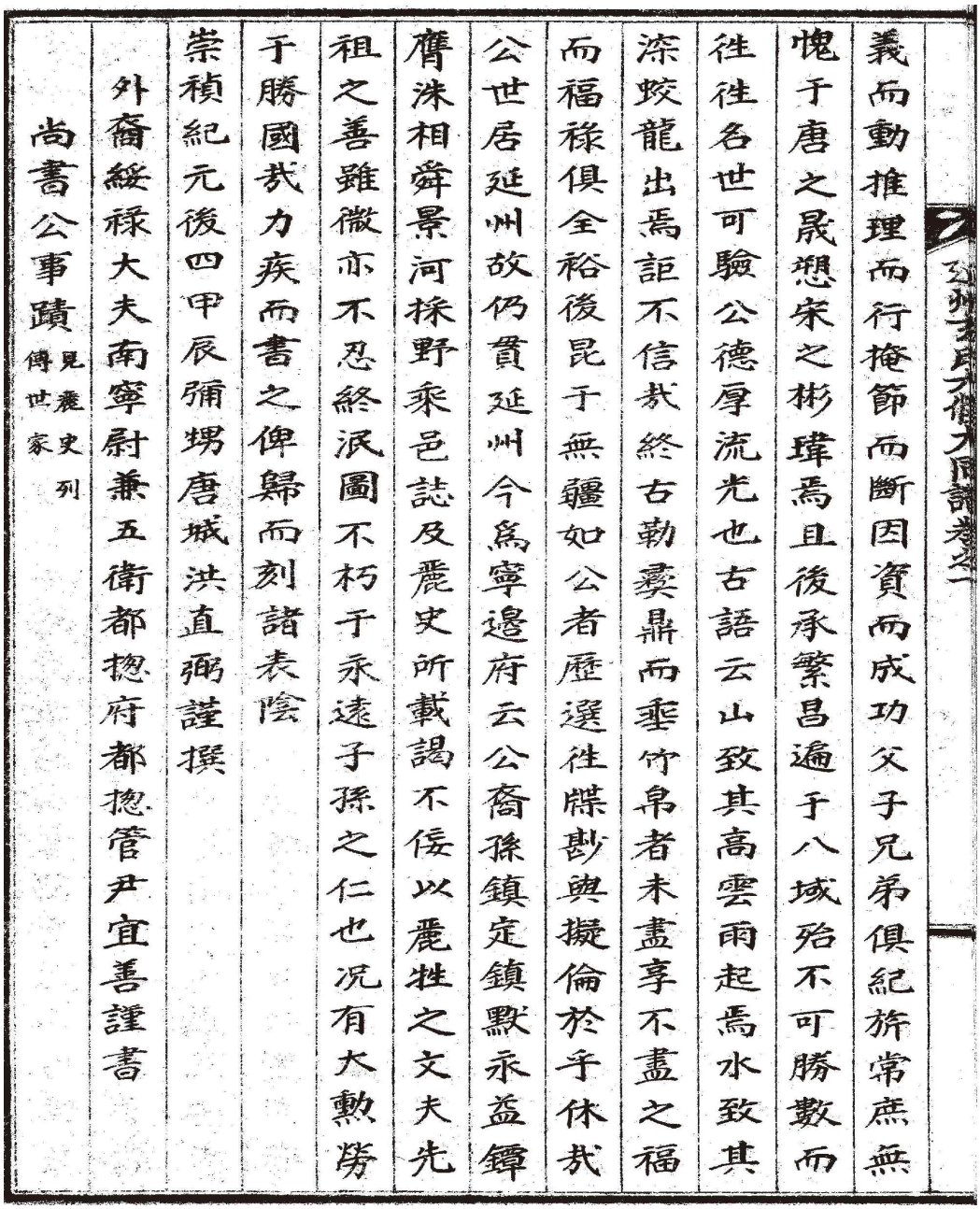
외손자[彌甥] 당성(唐城) 홍직필(洪直弼)은 삼가 지음.

외손 후예[外裔] 수록대부(綏祿大夫) 남녕위(南寧尉) 겸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총관(都摠管) 윤의선(尹宜善)이 삼가 글씨를 씀.

<연주현씨(延州玄氏) 세덕록(世德錄)>

상서공(尙書公) 사적(事蹟)

【원문(原文)】


義而動推理而行掩節而斷因資而成功父子兄弟俱紀旂常庶無
愧于唐之晟懋宋之彬瑋焉且後承繁昌遍于八域殆不可勝數而
往往名世可驗公德厚流光也古語云山致其高雲雨起焉水致其
深蛟龍出焉詎不信哉終古勒彝鼎而垂竹帛者未盡享不盡之福
而福祿俱全裕後昆于無疆如公者歷選往牒鄙與擬倫於乎休哉
公世居延州故仍貫延州今爲寧邊府云公裔孫鎭定鎭默永益鐔
膺洙相舜景河採野乘邑誌及麗史所載謁不佞以麗牲之文夫先
祖之善雖微亦不忍終泯圖不朽于永遠子孫之仁也況有大勳勞
于勝國哉力疾而書之俾歸而刻諸表陰

崇禎紀元後四甲辰蒲塘唐城洪直弼謹撰

外裔綏祿大夫南寧尉兼五衛都摠府都摠管尹宜善謹書

尙書公事蹟見麗史列傳世家

<그림 (47)> 상서공(尙書公) 사적(事蹟)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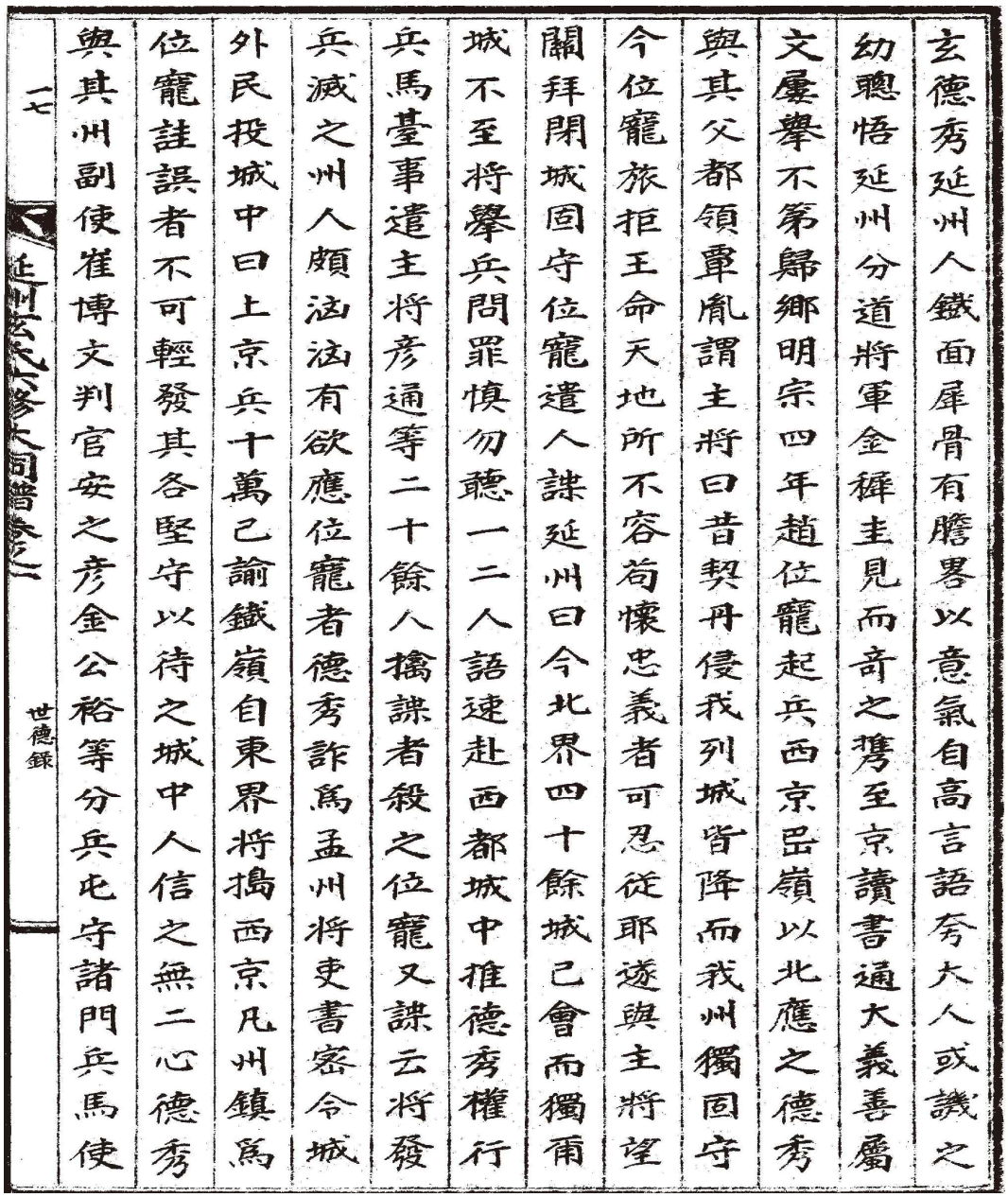
【판독(判讀)】

尙書公事蹟見麗史列傳世家

【해석(解釋)】

<상서공(尙書公) 사적(事蹟)>《고려사(高麗史)》의 <열전(列傳)>편과 <세가(世家)>편에 보임

【원문(原文)】


玄德秀延州人鐵面犀骨有膽畧以意氣自高言語夸大人或譏之
幼聰悟延州分道將軍金稡圭見而奇之携至京讀書通大義善屬
文屢擧不第歸鄉明宗四年趙位寵起兵西京岳嶺以北應之德秀
與其父都領覃胤謂主將曰昔契丹侵我列城皆降而我州獨固守
今位寵旅拒王命天地所不容苟懷忠義者可忍從耶遂與主將望
闕拜閉城固守位寵遣人誘延州曰今北界四十餘城已會而獨甫
城不至將擧兵問罪慎勿聽一二人語速赴西都城中推德秀權行
兵馬臺事遣主將彦通等二十餘人擒誘者殺之位寵又誘云將發
兵滅之州人頗洶洶有欲應位寵者德秀詐爲孟州將吏書密令城
外民投城中曰上京兵十萬已諭鐵嶺自東界將搗西京凡州鎭爲
位寵註誤者不可輕發其各堅守以待之城中人信之無二心德秀
與其州副使崔博文判官安之彦金公裕等分兵屯守諸門兵馬使

<그림 (48)> 상서공(尙書公) 사적(事蹟) (2)

【판독(判讀)】

玄德秀 延州人 鐵面犀骨 有膽畧 以意氣自高 言語夸大 人或譏之幼聰悟 延州分道將軍 金稡圭[742]見而奇之 携至京 讀書通大義 善屬文 屢擧不第 歸鄕 明宗四年 趙位寵起兵西京 岊嶺[743]以北應之 德秀與其父都領覃胤 謂主將曰 昔契丹[744]侵我 列城皆降 而我州獨固守 今位寵旅拒王命 天地所不容 苟懷忠義者 可忍從也 遂與主將 望闕拜[745] 閉城固守 位寵遣人謀[746] 延州曰 今北界四十餘城 已會 而于獨甭[747]城 不至 將兵[748]問罪 愼勿聽一二人語 速赴西都 城中 推德秀 權行兵馬臺事 遣州將 彦通等 二十餘人 擒謀者 殺之 位寵又謀 將發兵滅之 州人頗洶洶[749] 有欲應位寵者 德秀詐爲 孟州將吏 書密令城外民投城中 曰上京兵十萬已踰 鐵嶺自東界 將搗西京 凡州鎭爲位寵 詿誤[750]者 不可輕發 其各堅守以待之 城中人 信之無二心 德秀與 其州副使崔博文 判官安之彦 金公裕等 分兵屯守諸門 兵馬使

【해석(解釋)】

현덕수(玄德秀)는 연주(延州) 사람인데, 사사로움을 모를 정도로 강직한 철면(鐵面)이었고, 귀한 이의 관상을 지닌 서골(犀骨)이었다. 담략과 지력도 있었으나, 의기양양(意氣揚揚) 스스로 뽐내며 말을 과장되게 함으로써 간혹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그가 얼마나 총명했는지, 연주분도장군 김치규(金稡圭)가 그를 한눈에 알아채고는 기이한 인물로 여겨 서울(당시 개성)로 데려가 공부를 시켰다. 그는 책을 읽을 때마다 대의 파악을 잘했고 글도 잘 지었다.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하자 고향으로 돌아갔다.

---

742) 金稡圭(김치규) : 《고려사(高麗史)》 <현덕수열전(玄德秀列傳)>에 보면, '金稚圭(김치규)'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稡(치)'는 '稚(치)'의 고자(古字)이다.

743) 岊嶺(절령) : 현재의 자비령(慈悲嶺).

744) 契丹(거란←글안) : 옛 민족 이름. 몽고 지방에서 유목(遊牧)하던 부족으로 10세기 초에 나라를 세워 요(遼)라 하였는데, 금(金)에 멸망 당함. 참고로 《고려사(高麗史)》 <현덕수열전(玄德秀列傳)>편에 보면 '거란(契丹)' 다음에 '소손녕(蕭遜寧)'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 이름이 빠져있음.

745) 望闕拜(망관배) : 원문의 '望關拜(망관배)'는 '望闕拜(망궐배)'의 오기(誤記)임. 참고로 '망궐례(望闕禮)'는 궁궐이 멀리 있어서 직접 궁궐에 나아가 왕을 배알하지 못함에, 멀리서 궁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를 지칭한다.

746) 謀(첩) : 몰래 적지에 들어가서 사정을 살피다. '謀(첩)'은 '諜(첩)'과 동자(同字)임. 간첩(間諜). 그런데 《고려사(高麗史)》 <현덕수열전(玄德秀列傳)>에 보면, 이 부분의 글자가 '牒(첩)'으로 되어있다.

747) 甭(이) : '爾(이)'의 약자(略字).

748) 将兵(장병) : 군사를 거느려 통솔함. 여기서 '将(장)'은 '將(장)'의 약자(略字)임.

749) 洶洶(흉흉) : 혼란하여 인심이 뒤숭숭함. 여기서 '洶洶(흉흉)'은 '洶洶(흉흉)'과 동자(同字)이다.

750) 詿誤(괘오) : 잘못을 남김. 그르침.

명종(明宗) 4년(1174) 조위총(趙位寵)이 서경(西京)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절령(岊嶺) 이북 지방이 모두 그의 편으로 넘어가 호응했다. 그러나 덕수는 아버지인 도령(都嶺) 현담윤(玄覃胤)과 더불어 주군(州軍)의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옛날 거란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였을 때, 각 고을이 모두 항복하였으나 우리 연주만은 의젓이 굳게 지켰다. 이제 조위총이 화난(禍難)의 나쁜 마음을 속에 숨긴 채로 군사를 일으켜 왕명을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진실로 충의를 지녔다면 어찌 차마 그 명령을 좇겠는가."라고 했다. 드디어 주의 장수와 더불어 망궐례(望闕禮)를 올리고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조위총이 연주에 사람을 보내어 통첩하기를, “지금 북계의 40여 성의 군사들이 이미 여기에 다 모였는데, 유독 너희 성에서만 오지 않았다.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죄를 물을 것이다. 부디 몇몇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속히 서도(西都)로 나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날 성안에서는 현덕수(玄德秀)를 권행(權行) 병마대사(兵馬臺事)로 추대하였다. 현덕수가 주장(州將) 언통(彦通) 등 30여 명을 보내어 서경에서 온 사자를 사로잡아 죽였다.

조위총이 또 통첩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제 군사를 일으킨 것은 장차 북쪽 변경의 여러 성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여러 성의 군사들이 이미 청천강(淸川江)에 도착하였는데 유독 너의 성만 오지 않으니, 장차 군사를 동원하여 섬멸하러 가겠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연주 고을 사람들의 인심이 자못 흉흉해졌으며, 어떤 이는 조위총의 편으로 호응하려는 자도 있었다.

그러자 현덕수는 맹주(孟州) 장수와 아전의 명의로 격문을 조작하여 비밀리에 성 밖 주민을 시켜서 성안으로 던져놓게 하였다. 그 요지는 이랬다.

“이제 개경(開京)의 군사 10령(領)이 이미 철령(鐵嶺)을 넘어 동계(東界)로부터 곧 서도(西都)를 향해 진격해 가는 중이다. 어느 주(州)나 진(鎭)이든지 조위총에게 잘못 속은 자는 경솔히 군대를 동원하지 말고 각기 자기 고을을 굳게 지키면서 관군을 기다리라."

그러자 성안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딴마음을 품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현덕수가 주(州)의 부사(副使) 최박문(崔博文)과 판관(判官) 안

지언(安之彦) · 김공유(金公裕) 등과 더불어 군사를 나누어서 모든 성문을 수비하기로 하였다.

【원문(原文)】



車仲圭趣延州至雲畔驛雲州人殺之分臺監察御史林擢材錄事
李唐就等懷印至延州曰兵馬使旣死吾等無所歸請治我州人以
德秀弟宣旨別監龍虎將軍利孚權行兵馬使事德秀權監倉使事
遂易置部署嚴兵守之安北都護都領姜遇文與三十四城都領致
書延州曰上京將發大兵討北藩諸城無罪故趙尚書欲救吾等徵
名士馬而貴城獨不至何也若有異謀不從者當赤其族宜赴西京
使無後悔雲州郎將君禹又遣邊孟諭之曰西京差使員率四十餘
城諸寺僧兵萬餘欲攻貴城宜速赴召擢材斬孟鳥示城外俄而西
京兵來攻擢材擊破之至暮西兵復屯城南呼謂曰有斬利孚兄弟
及唐就等降者將加厚賞不爾必屠之德秀自南門出擊之西兵趨
京都至京西爲李義方所敗復趣延州圍數重德秀遣高勇之唐就
等急擊大破擒殺甚多西兵復來攻德秀又擊大破獲兵仗無數明

<그림 (49)> 상서공(尙書公) 사적(事蹟) (3)

【판독(判讀)】

車仲圭 趣延州 至雲畔驛 雲州人殺之 分臺監察御史林擢材 錄事李唐就等 懷印 至延州曰 兵馬使旣死 吾等無所歸 請活我州人 以德秀 弟宣旨別監龍虎將軍 利厚權行兵馬使事 德秀權監倉使事 遂易置部署嚴兵守之 安北都護都領 姜遇文 與三十四城都領 致書 延州曰 上京將發大兵討北藩 諸城無罪 故趙上書欲救 吾等 徵召士馬 而貴城獨不至何也 若有異謀不從者當亦其族宜赴 西京使 無後悔 雲州郎將君禹 又遣邊孟諭之 曰 西京差使員率 四十餘城 諸寺僧兵 萬餘 欲攻貴城 宜速赴召 擢材斬孟梟示城外 俄而 西京兵來攻 擢材擊破之 至暮 西兵 復屯城南 呼謂曰 有斬利厚兄弟及 唐就等 降者 將加厚賞 不爾必屠之 德秀自南門 出擊之西兵 趍京都至京西爲 李義方[751]所敗 復趣延州 圍數重 德秀遣高勇之 唐就等 急擊大破擒殺甚多 西兵復來攻 德秀又擊大破 獲兵仗 無數 明

【해석(解釋)】

병마사(兵馬使) 차중규(車仲圭)가 연주(延州)로 오는 길에 운반역(雲畔驛)에 이르러 운주(雲州) 사람들에게 살해당했으므로, 분대감찰어사(分臺監察御史) 임탁재(林擢才)와 녹사(錄事) 이당취(李唐就) 등이 병마사의 인장을 숨긴 채 연주(延州)로 찾아와서 말하기를, “병마사가 이미 죽었으니 우리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귀하의 주(州)에서 살고자 하니 구원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러자 고을 사람들은 현덕수의 아우 선지별감 용호군장군(宣旨別監 龍虎軍將軍) 현이후(玄利厚)에게 병마사의 일을 임시 대행케 하고, 현덕수에게 감창사(監倉使)의 일을 대행케 하였으며, 이당취에게는 종전대로 병마녹사(兵馬錄事)를 보게 하는 등, 각 부서를 바꾸어 개편하고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안북도호도령(安北都護都領) 강우문(姜遇文)이 34개 성의 도령들과 더불어 연주의 장수와 아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서울[開京]에서 장차 대병력을 동원하여 북쪽 변경의 여러 성을 치려고 한다. 사실 우리 성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서경의 조상서(趙尙書, 곧 조위총)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려고 각 성의 병정이며 군마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그런데 유독 그대들 성(城)만이 오지 않으니 이는 무슨

751) 李義方(이의방) : 이의방(李義方, 1121~1174)은 고려시대 100년 동안 이어질 무신정권의 길을 처음 연 인물이다. 조위총(趙位寵)의 난이 한창인 어수선한 정국에서 결국 정중부 세력에 의해 암살당하게 된다. 참고로 그의 동생 이린(李潾)은 조선 창업주 이성계의 6대조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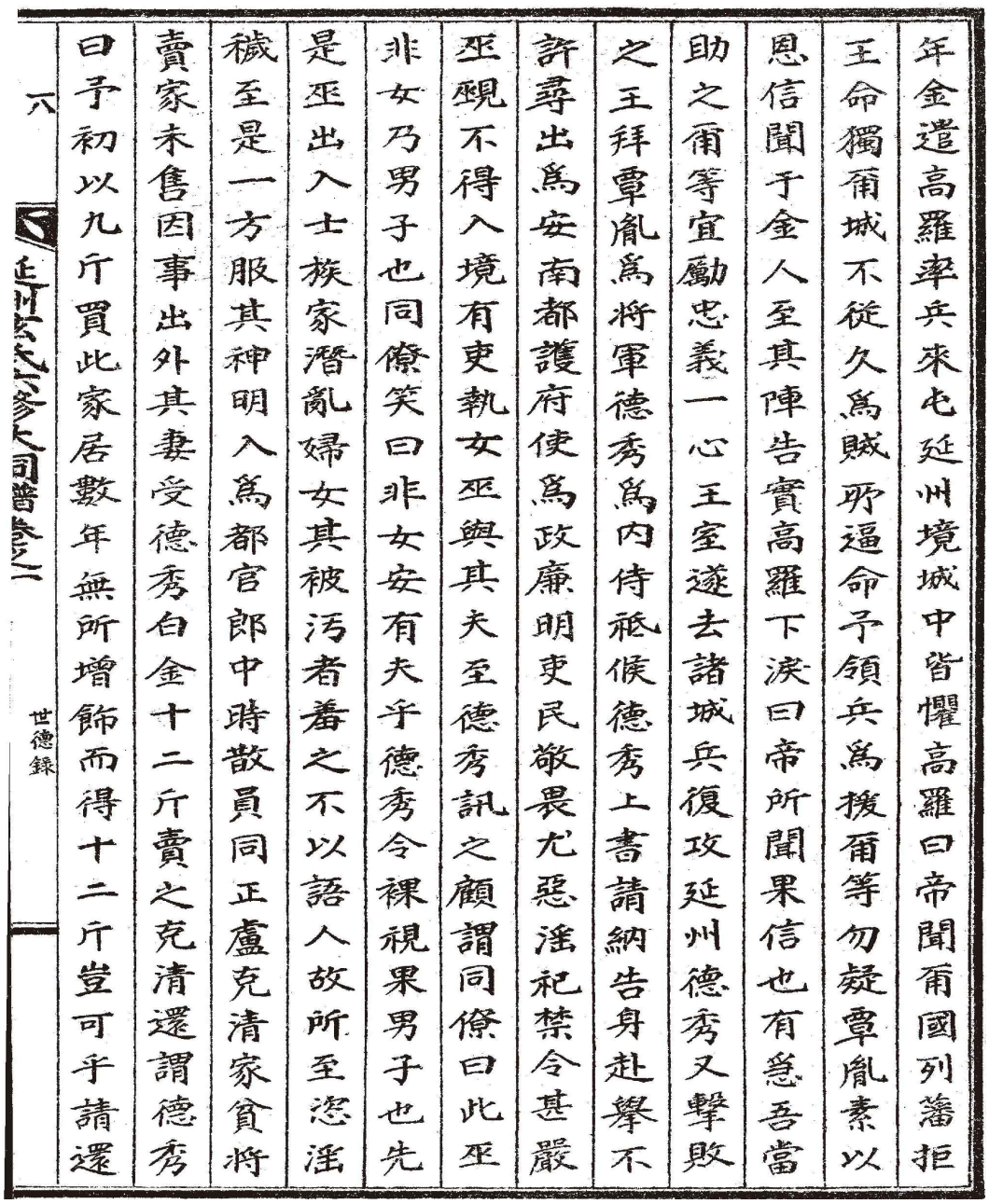
까닭인가. 만약 딴마음을 품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너희들 일족이 몰살당할 것이다. 마땅히 군마를 거느리고 서경으로 나와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운주 낭장(雲州朗將) 군우(君禹)도 변맹(邊孟)이란 자에게 편지를 들려 보내어 연주(延州)를 달래기를, "서경에서 파견한 관원들이 40여개 성(城)의 군사들 및 여러 사원(寺院)의 승병 1만여 명을 거느리고 그대들 성(城)을 치고자 하니, 마땅히 신중하게 생각하여 급속히 소집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그러자 임탁재(林擢才)가 변맹의 머리를 베어 성 밖에 효시(梟示)하였다.

이윽고 서경(西京) 측의 군대가 와서 연주성을 공격하였으나, 임탁재가 이를 맞받아 격파하였다. 해질녘 무렵에 서경 군사들이 다시 성 남쪽에 진을 치고서 외치며 이르기를, "동북 여러 성들이 군사를 일으킨 것은 이 나라[三韓]를 바로잡으려 한 것인데, 유독 너희들만 응하지 않은 까닭에 군사 일만 명을 동원하여 와서 공격하는 것이다. 만약 현이후(玄利厚)의 형제나 임탁재 · 이당취 등의 목을 베고 성문을 열어 항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장차 후한 상을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도륙할 것이다."라고 했다. 현덕수가 남문으로부터 나와 공격하였더니, 서경 군사들이 패해서 바로 서울[開京]로 향하였다.

그들이 서울 서쪽에 도착하였으나 이의방(李義方)에게 패배당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비록 서울에서는 뜻대로 되지 못하였으나, 연주는 작은 성으로서 오랜 기간 항복지 않으니 이곳은 그대로 둘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연주로 달려와서 몇 겹으로 성을 에워쌌다. 현덕수가 고용지(高勇之)와 이당취를 시켜 급격히 돌격하여 적을 대파하였는 바, 죽이거나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원문(原文)】


年金遣高羅率兵來屯延州境城中皆懼高羅曰帝聞甫國列藩拒
王命獨甫城不從久爲賊所逼命予領兵爲援甫等勿疑覃胤素以
恩信聞于金人至其陣告實高羅下淚曰帝所聞果信也有意吾當
助之甫等宜勵忠義一心王室遂去諸城兵復攻延州德秀又擊敗
之王拜覃胤爲將軍德秀爲內侍祗候德秀上書請納告身赴擊不
許尋出爲安南都護府使爲政廉明吏民敬畏尤惡淫祀禁令甚嚴
巫覡不得入境有吏執女巫與其夫至德秀訊之顧謂同僚曰此巫
非女乃男子也同僚笑曰非女安有夫乎德秀令裸視果男子也先
是巫出入士族家潛亂婦女其被汚者羞之不以語人故所至恣淫
穢至是一方服其神明入爲都官郎中時散員同正盧克清家貧將
賣家未售因事出外其妻受德秀白金十二斤賣之克清還謂德秀
曰予初以九斤買此家居數年無所增飾而得十二斤豈可乎請還

<그림 (50)> 상서공(尙書公) 사적(事蹟) (4)

【판독(判讀)】

年 金遣高羅 兵來屯延州境 城中皆懼 高羅曰 帝聞甫國列藩 拒王命 獨甫城不從 久爲賊所逼 命予領兵 爲援甫等 勿疑 覃胤素以恩信聞于金人 至

其陣告實 高羅下淚曰 帝所聞果信也 有急吾當助之 爾等宜勵 忠義一心王室 遂去 諸城兵 復攻延州 德秀又擊敗之 王拜覃胤爲將軍 德秀爲內侍祗候 德秀上書請納告身[752] 赴擧不許 尋出爲安南都護府使 爲政廉明吏 民敬畏尤 惡淫祀禁令甚嚴 巫覡不得入境 有吏執女巫 與其夫至 德秀訊之 顧謂同僚曰 此巫非女乃男子也 同僚所曰 非女安有夫乎 德秀令裸 視果男子也 先是 巫出入士族家 潛亂婦女 其被汚者 羞之 不以於人 故所至恣淫穢[753] 至是 一方[754]服其神明 入爲都官郎中 時散員同 正盧克淸[755] 家貧將賣家 未售 因事出外 其妻受德秀 白金十二斤 賣之 克淸還謂 德秀曰 予初以九斤買 此家居數年 無所增飾 而得十二斤 豈可乎 請還

【해석(解釋)】

이듬해에 금(金)나라의 장수 고라(高羅)가 군대를 인솔하고 연주 지경에 와서 주둔하니, 성안 사람들이 모두 공포에 떨었다. 고라가 말을 전하기를, “우리 황제께서 말씀하시길, ‘당신네 나라의 여러 고을들(곧 조위총의 무리들)에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으나, 홀로 당신네들은 그 편에 붙지 않았으므로 오랫동안 적들의 위협을 받아 그 형세가 매우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에게 군대를 인솔하고 가서 원조해주라는 명령을 받고 온 것이니 의심하지 않길 바라오!”라고 하였다.

현담윤(玄覃胤)은 평소 금나라 사람들에게 은덕과 신의가 있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가 금군의 병영으로 가서 그런 사실을 실지대로 알리자 고라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우리 황제께서 들으셨던 바가 과연 옳구나. 위급한 일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도울 것이니 당신들은 한결같이 충성과 의리를 다하여 왕실을 받들길 바라오!”라고 부탁하고는 드디어 돌아갔다. 여러 성의 군대가 다시 연주를 공격하였으나 현덕수가 이번에도 또 적군을 격파하여 패배시켰다.

왕이 현담윤(玄覃胤)을 장군(將軍)으로, 현덕수(玄德秀)는 내시지후(內侍祗候)로 임명했다. 현덕수가 글을 올려, 지후고신(祗候告身)을 반납하고, 과거에 응시하겠다고 청원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

752) 告身(고신) : 임관(任官)한 사람에게 주는 사령서(辭令書). 직첩(職牒). 고칙(告勅).
753) 淫穢(음예) : 음란하고 더러움.
754) 一方(일방) : 한 고을.
755) 盧克淸(노극청) :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제20권)에 보면, <노극청전(盧克淸傳)>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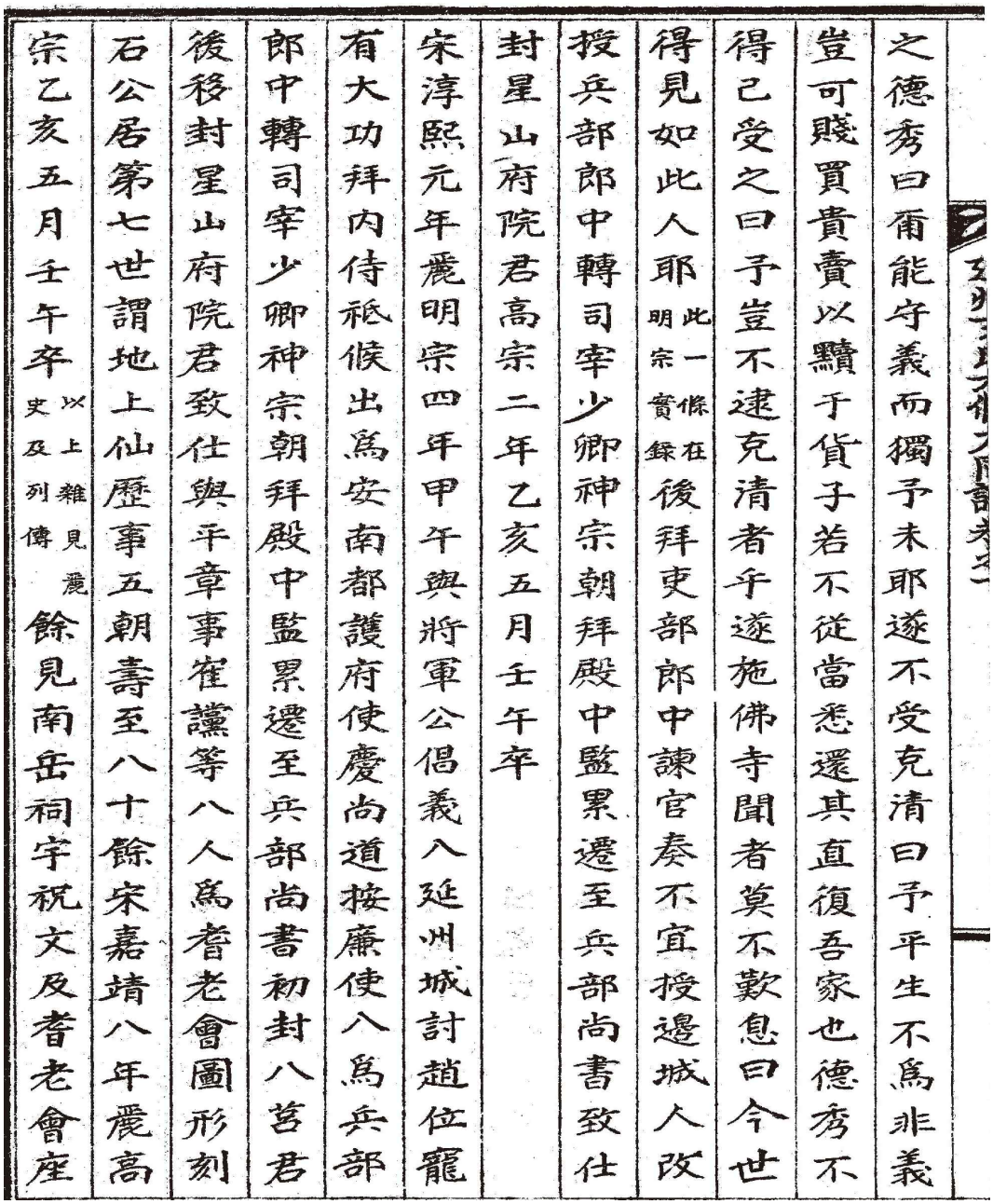
되지 않아 현덕수(玄德秀)는 안남도호부사(安南都護副使)로 나갔는데, 청렴하고 명철하게 다스렸으므로 아전들과 백성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였다.

더욱이 그는 평소 음사(淫祀)를 몹시 싫어하고 금령(禁令)을 매우 엄하게 시행했기 때문에 무당들이 함부로 고을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루는 아전이 어떤 여자 무당과 그의 남편을 붙잡아왔는데, 현덕수가 무당을 신문(訊問)하더니 동료들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이 무당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다."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여자가 아니라면 어찌 남편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현덕수가 무당의 옷을 벗기라 하고 보니 과연 남자였다. 이에 앞서 무당들이 사족(士族)의 집에 드나들면서 은밀히 부녀자(婦女子)들을 희롱하였으나 정조를 더럽힌 자들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까닭에 무당들은 가는 곳마다 음란한 추행을 자행해 왔던 것이다. 이에 이르러 온 고을 사람들이 현덕수의 신명(神明)에 탄복하였다.

내직(內職)으로 들어가서 도관낭중(都官郞中)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때 산원동정(散員同正) 노극청(盧克淸)이 빈곤하여 집을 팔려 하였으나 팔리지 않던 차에 일이 있어서 그가 지방으로 간 사이 그의 처가 현덕수에게 은[白金] 12근(斤)을 받고 그 집을 팔았다.

그런데 노극청이 집에 돌아와 (이런 사실을 알고선) 현덕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초에 9근으로 이 집을 사서 여러 해 살았다. 그러나 증축이나 보수한 일을 하지도 않고서 12근을 받았다는 게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본전보다 더한 나머지의 돈을 반환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원문(原文)】


之德秀曰甭能守義而獨予未耶遂不受克清曰予平生不爲非義
豈可賤買貴賣以黷于貨子若不從當悉還其直復吾家也德秀不
得已受之曰予豈不逮克清者乎遂施佛寺聞者莫不歎息曰今世
得見如此人耶此一條在明宗實錄後拜吏部郎中諫官奏不宜授邊城人改
授兵部郎中轉司宰少卿神宗朝拜殿中監累遷至兵部尚書致仕
封星山府院君高宗二年乙亥五月壬午卒
宋淳熙元年丙午與將軍公倡義入延州城討趙位寵
有大功拜內侍祗候出爲安南都護府使慶尚道按廉使入爲兵部
郎中轉司宰少卿神宗朝拜殿中監累遷至兵部尚書初封八莒君
後移封星山府院君致仕與平章事崔讜等八人爲耆老會圖形刻
石公居第七世謂地上仙歷事五朝壽至八十餘宋嘉靖八年丙高
宗乙亥五月壬午卒以上雜見麗史及列傳餘見南岳祠宇祝文及耆老會座

<그림 (51)> 상서공(尙書公) 사적(事蹟) (6)

【판독(判讀)】

之 德秀曰 甭能守義 而獨予未耶 遂不受 克清曰 予平生不爲非義 可賤買貴賣 以黷[756]于貨 子若不從 當悉還其直復吾家也 德秀不得已 受之曰 予

756) 黷(독) : 더러워지다. 혼탁하다.

豈不逮克淸者乎 遂施佛寺 聞者莫不歎息 曰 今世得見如此人耶此一條在明宗實錄 後拜吏部郎中 諫官奏不宜援邊城人 改援兵部郎中 轉司宰少卿 神宗朝拜殿中監 累遷 至兵部尙書 致仕[757]封星山府院君 高宗二年乙亥五月壬午卒宋淳熙元年 麗明宗四年甲午 與將軍公倡義 入延州城 討趙位寵 有大功 拜內侍祗候 出爲安南都護府使 慶尙道按廉使 入爲兵部郎中 轉司宰少卿 神宗朝拜殿中監 累遷至兵部尙書 初封 八莒君 後移封 星山府院君 致仕 與平章事崔讜等 八人 爲耆老會[758] 圖形刻石[759] 公居第七 世謂地上仙 歷事五朝[760] 壽至八十餘 宋嘉靖八年 麗高宗 乙亥五月壬午卒 以上雜見麗史及列傳 餘見南岳祠宇 祝文 及耆老會 座

【해석(解釋)】

그러자 현덕수가 말하기를, “그대는 능히 의로움을 지킬 줄 아는데, 나라고 못지키겠는가?”라고 하며 끝내 받지 않았다. 이에 노극청이 말하기를, “내 평생에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는데, 어찌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 도벌이를 하겠습니까? 그대가 만약 내 말을 따라 주지 않으신다면 당장 집값을 모두 돌려 드릴 테니 집을 도로 돌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현덕수가 어쩔 수 없이 은 3근을 되돌려받고는 말하기를, “내가 어찌 노극청만 못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며, 드디어 그 돈을 절에 희사하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며 말하기를, “요즘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을 얻어볼 수 있구나!”라고 하였다.이 대목은 《명종실록》에 실려있다.

뒤에 이부낭중(吏部郎中)으로 임명되었는데, 간관(諫官)이 고하기를, “변방 출신의 사람에게 그런 관직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병부낭중(兵部郎中)으로 고쳐 임명되었다가 사재소경(司宰小卿)으로 전임(轉任)시켰다.

신종(神宗) 때에 전중감(殿中監)으로 다시 임명되었고 여러 차례 승직되어 병부상서(兵部尙書)에까지 올랐다가 나이가 들어 치사(致仕)하였다.

---

757) 致仕(치사) : 관직에서 물러남.

758) 耆老會(기로회) : 나이가 많아 벼슬을 내놓고 물러난 경대부들의 모임. 여기서 언급된 ‘8인의 기로회(耆老會)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최당(崔讜) · 장자목(張自牧) · 이준창(李俊昌) · 백광신(白光臣) · 고영중(高瑩中) · 이세장(李世長) · 현덕수(玄德秀) · 조통(趙通) 등이다.

759) 圖形刻石(도형각석) : 얼굴을 그려 돌에다 새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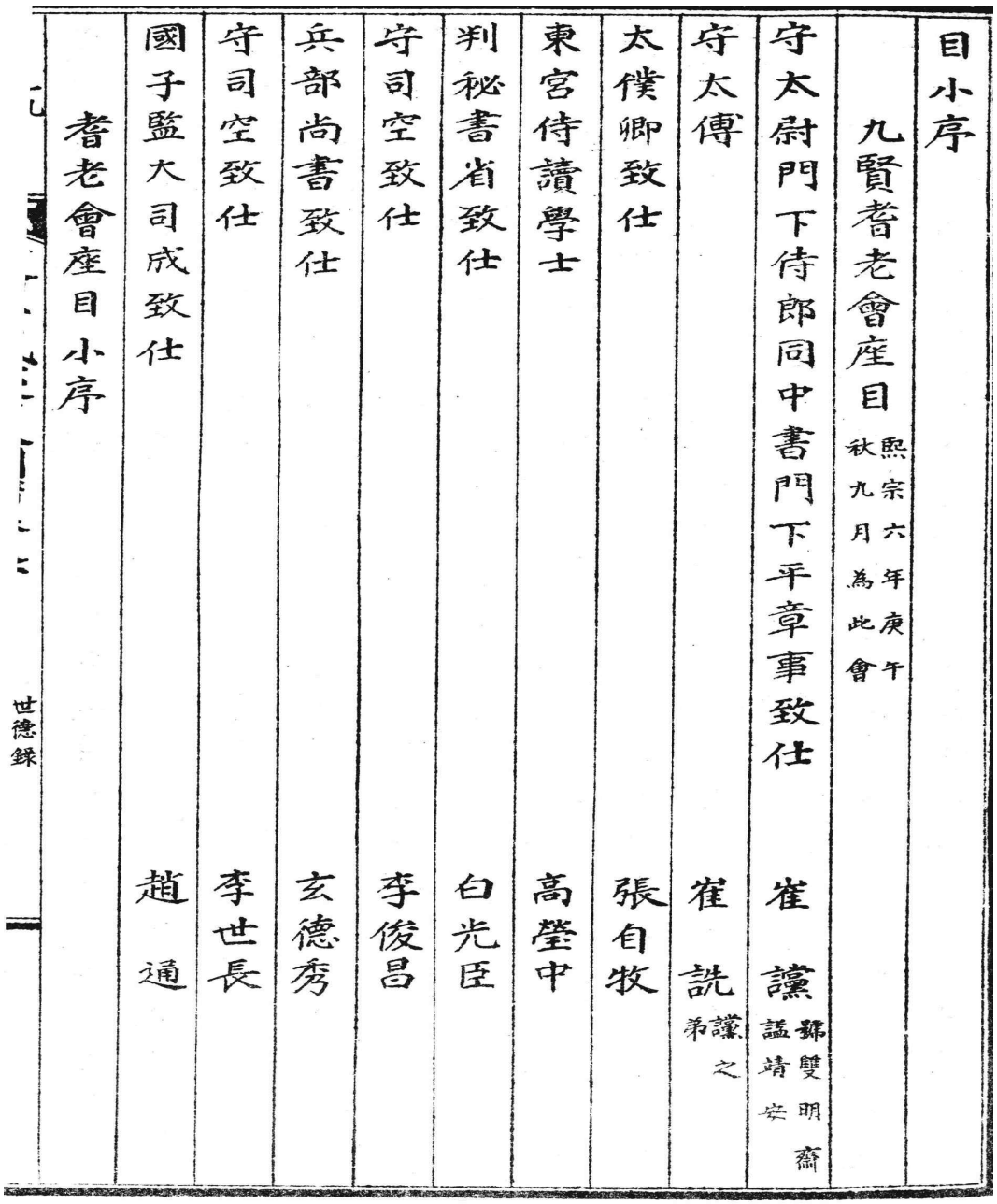
760) 歷事五朝(역사오조) : 다섯 임금의 조정을 차례로 섬기다. 곧 고려조 명종(明宗) · 신종(神宗) · 희종(熙宗) · 강종(康宗) · 고종(高宗)을 이름이다.

고종(高宗) 2년 을해((乙亥, 1215)에 졸하였다.

송(宋) 순희(淳熙) 원년(元年)이자 고려 명종(明宗) 4년 갑오(甲午, 1174)에 부친인 장군공(將軍公)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켜 연주성에 들어가 있으면서 조위총(趙位寵)의 난을 토벌하고 큰 공을 세워 내시지후(內寺祗候)에 배수(拜受)되었다. 외직으로 나와선 안남도호부사(安南都護府使) · 경상도안렴사(慶尙道按廉使)를 역임했고, 내직으로 들어가선 병부낭중(兵部郎中)에서 전임해 사재소경(司宰少卿)이 되었다.

신종(神宗)조에는 전중감(殿中監)에 배수(拜受)되었고, 여러 번 천거되어 병부상서(兵部尙書)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팔거군(八莒君)에 봉해졌다가 뒤에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으로 옮겨 봉해졌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 평장사(平章事) 최당(崔讜) 등과 더불어 8인의 기로회(耆老會)가 만들어졌다. 풍류로 얼굴을 그려 돌에다 새겨놓기도 했는데, 공은 일곱 번째 차례로 올라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지상선(地上仙)'이라 호칭했다. 고려조 역대 다섯 임금의 조정을 차례로 섬기면서 80 남짓의 나이에 이르도록 세수(歲數)를 누리다가 송(宋) 가정(嘉靖) 8년이며 고려조 고종(高宗) 을해(乙亥, 1215)년인 5월 임오(壬午)에 졸(卒)하였다. 이상은 잡견(雜見)으로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편에 보인다. 나머지는 <남악사우(南岳祠宇> '축문(祝文)'과 기로회(耆老會) (…)

【원문(原文)】


目小序
九賢耆老會座目 熙宗六年庚午秋九月為此會
守太尉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致仕 崔讜 鄲雙明齋 謚靖安
守太傅 崔詵 讜之弟
太僕卿致仕 張自牧
東宮侍讀學士 高瑩中
判秘書省致仕 白光臣
守司空致仕 李俊昌
兵部尚書致仕 玄德秀
守司空致仕 李世長
國子監大司成致仕 趙通
耆老會座目小序
世德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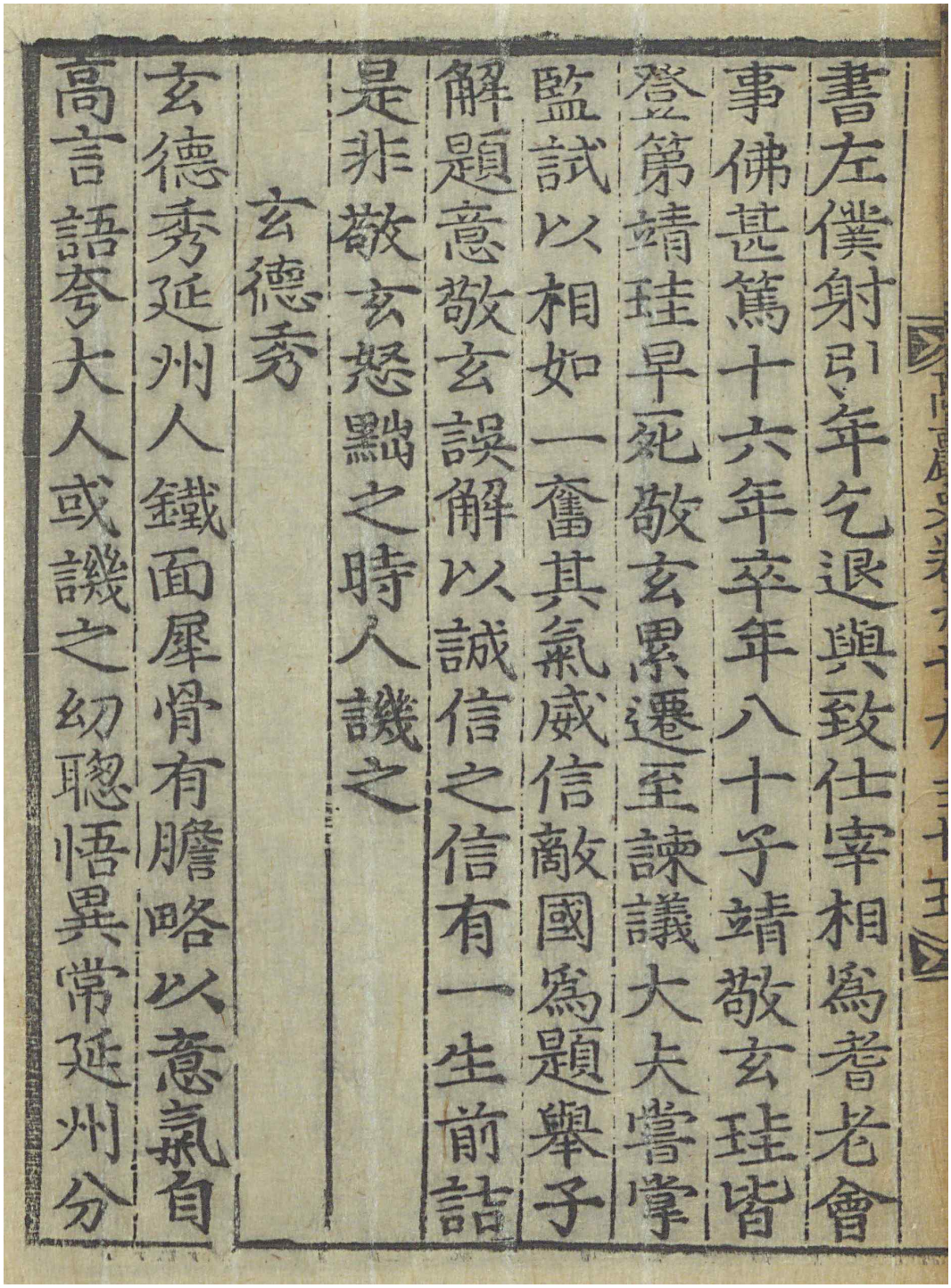
<그림 (52)> 상서공(尙書公) 사적(事蹟) (7)

【판독(判讀)】
目小序

【해석(解釋)】
‘좌목소서(座目小序)’에 보인다.

〔제3편〕《고려사(高麗史)》의 <현덕수(玄德秀) 열전>

【원문(原文】


書左僕射引年乞退與致仕宰相爲耆老會
事佛甚篤十六年卒年八十子靖敬玄珪皆
登第靖珪早死敬玄累遷至諫議大夫嘗掌
監試以相如一奮其氣威信敵國爲題舉子
解題意敬玄誤解以誠信之信有一生前詰
是非敬玄怒黜之時人譏之

玄德秀

玄德秀延州人鐵面犀骨有膽略以意氣自
高言語參大人或譏之幼聰悟異常延州分

<그림 (53)>《고려사(高麗史)》<현덕수열전(玄德秀列傳)> 영인본 원문(原文) (1)

【판독(判讀)】

玄德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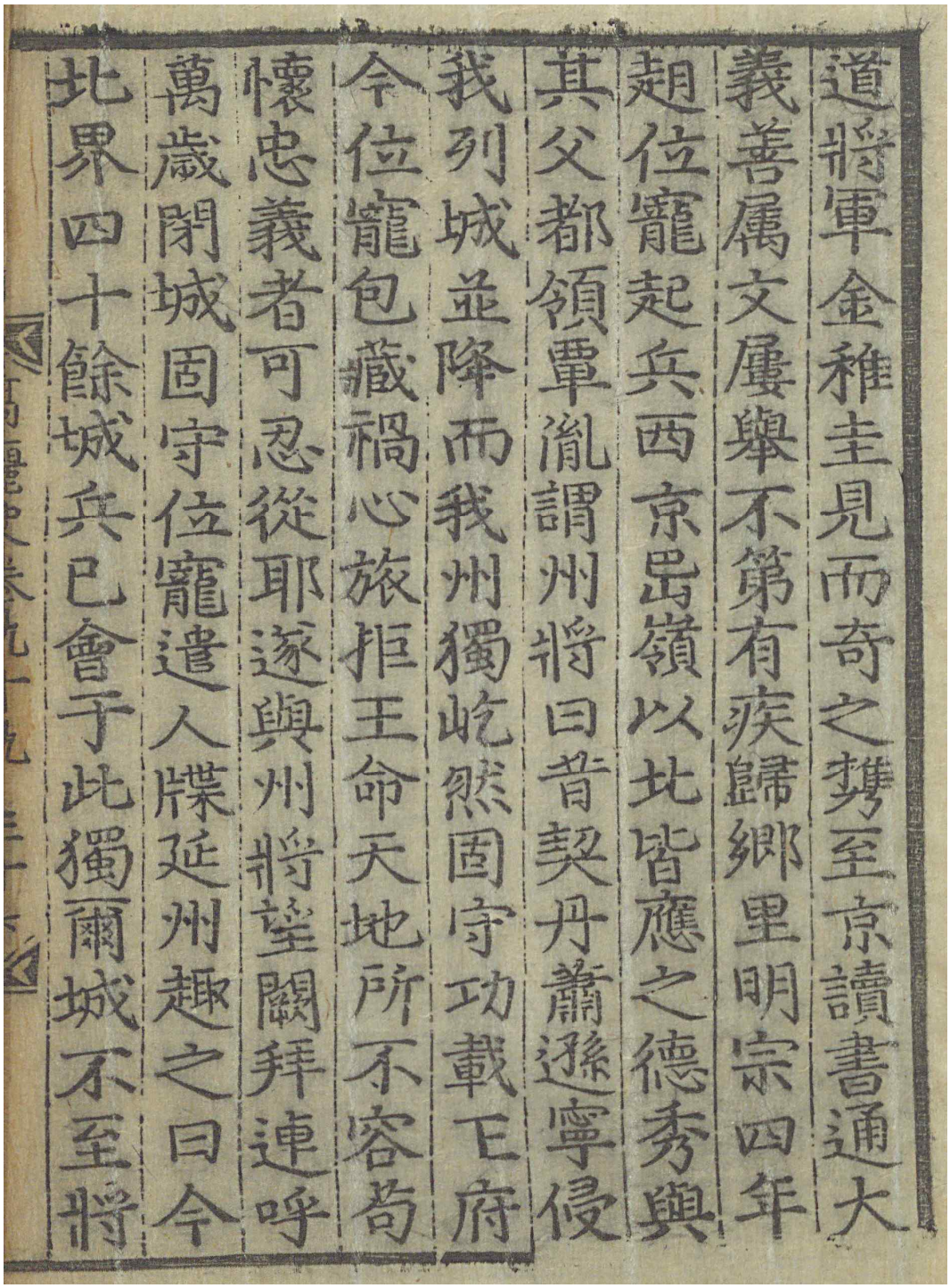
玄德秀 延州人 鐵面犀骨[761] 有膽略[762] 以意氣自高 言語夸大 人或譏[763]之 幼聰悟[764]異常 延州分

【해석(解釋)】

현덕수(玄德秀)는 연주인(延州人)인이다. 사람됨이 철면(鐵面)처럼 강직하고 서골(犀骨)처럼 그 풍모(風貌)가 의젓하면서 담략(膽略)도 있었다. (그러나) 의기양양하게 스스로 뽐내며 말을 과장되게 하니 사람들이 간혹 비웃기도 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남다른 기상이 있었는데, (…)

761) 鐵面犀骨(철면서골) : 쇠 빛 얼굴에 무소의 뼈대. 여기서 '鐵面(철면)'은 강직하고 사사로움을 모름의 비유로 쓰였고, '犀骨(서골)'은 귀한 이의 관상을 지님을 나타낸다.
762) 膽略(담략) : 담력(膽力)과 지략(智略).
763) 譏(기) : 나무라다. 비방하다.
764) 聰悟(총오) : 총명함. 영민(英敏)함. 여기서 '聰(총)'은 '聰(총)'의 속자(俗字)이다.

【원문】


道將軍金稚圭見而奇之携至京讀書通大
義善屬文屢擧不第有疾歸鄉里明宗四年
翅位寵起兵西京畧嶺以北皆應之德秀與
其父都領軍亂謂州將曰昔契丹蕭遜寧侵
我列城並降而我州獨屹然固守功載王府
今位寵包藏禍心旅拒王命天地所不容苟
懷忠義者可忍從耶遂與州將望闕拜連呼
萬歲閉城固守位寵遣人牒延州趣之曰今
北界四十餘城兵已會于此獨爾城不至將

<그림 (54)>《고려사(高麗史)》<현덕수열전(玄德秀列傳)> 영인본 원문(原文) (2)

【판독(判讀)】

道將軍[765] 金稚圭 見而奇之 携至京 讀書通大義 善屬文 屢擧不第 有疾

歸鄕里 明宗四年 趙位寵起兵西京 岊嶺[766]以北 皆應之 德秀與其父都領覃胤 謂州將曰 昔契丹[767]蕭遜寧[768]侵我 列城並降而 我州獨屹然[769]固守 功載王府 今位寵包藏禍心 旅拒王命 天地所不容 苟懷忠義者 可忍從耶 遂與州將 望闕[770]拜 連呼萬歲 閉城固守 位寵遣人牒 延州趣之[771]曰 今北界四十餘城兵 已會于此 獨爾城不至 將

【해석(解釋)】

연주분도장군(延州分道將軍) 김치규(金稚圭)가 보고 기이한 인물로 여겨 개경(開京)으로 데려가 공부를 시켰다. 그는 책을 읽을 때마다 대의 파악을 잘했고 글도 잘 지었다.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하고 병까지 얻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명종(明宗) 4년(1174)에 조위총(趙位寵)이 서경(西京)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절령(岊嶺; 현재의 자비령) 이북 지방이 모두 그의 편으로 넘어가 호응했다. 하지만 현덕수(玄德秀)가 그의 아버지인 도령(都領) 현담윤(玄覃胤)과 더불어 자기 고을 군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옛날 거란(契丹)의 장수 소손녕(蕭遜寧)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적에 각 고을이 모두 항복하였으나 우리 고을만은 홀로 굳게 지켜서 그 공적의 기록이 왕실에 보관되어 있소. 이제 조위총이 나쁜 마음을 품고 군사로써 왕명을 거역하니, 그의 죄는 천지(天地) 간에 용납될 수 없소. 참으로 충의(忠義)를 품은 사람이라면 어찌 차마 그에게 복종할 수 있겠는가?"

드디어 주(州)의 장수들과 함께 궁궐을 향해 절을 올리고 만세(萬歲)를 연거푸 부르는 망궐례(望闕禮)를 마치고,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조위총이 사람을 시켜 연주에 공문[牒]을 보내고 재촉하며 말하기를, "이제 북계(北界) 40여 성의 군사가 이미 이곳에 모였는데 유독 너희 성만 오지 않았으니, (…)

---

765) 分道將軍(분도장군) : 《선조실록(宣祖實錄)》에서 유성룡(柳成龍)이 의주 방어책을 언급한 말 중에, "고려 때 서방의 방수(防守)에 이미 '병마사(兵馬使)를 두고 또 분도 장군(分道將軍)을 두었으니, (…) 분도(分道)의 장수를 설치하여 각기 소속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 구원하게 하는 계책으로 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별장(別將)이 이 제도와 서로 같습니다."라고 한 대목이 있어 참조할 만하다.

766) 岊嶺(절령) : 자비령(慈悲嶺).

767) 契丹(거란←글안) : 옛 민족 이름. 몽고 지방에서 유목(遊牧)하던 부족으로 10세기 초에 나라를 세워 요(遼)라 하였는데, 금(金)에 멸망 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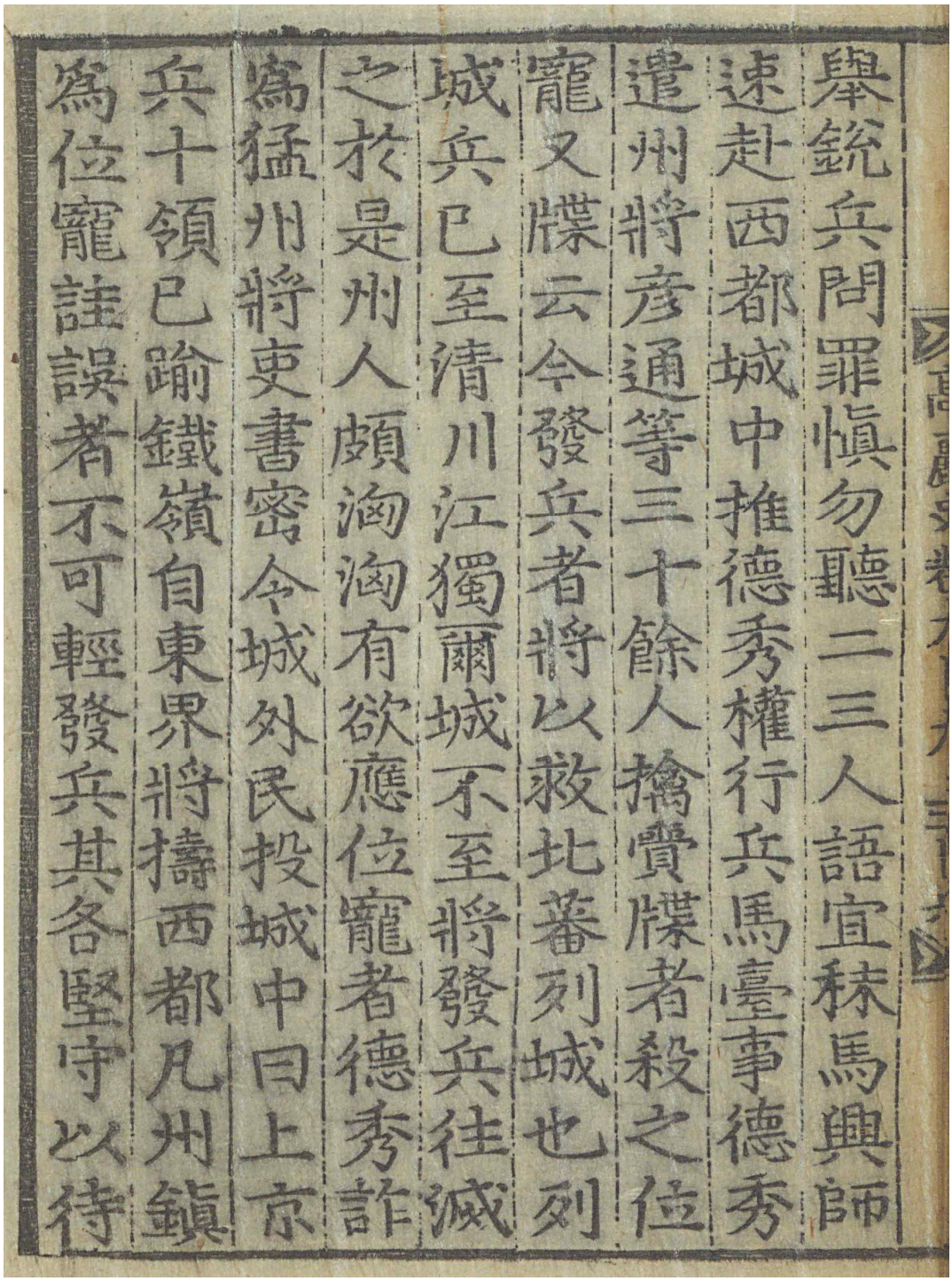
768) 蕭遜寧(소손녕) : 고려 성종(成宗) 때 활약한 거란의 장수. 이때 서희(徐熙)와 소손녕의 담판이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769) 屹然(흘연) : 굳건하게 서 있는 모양.

770) 望闕(망궐) : '망궐례(望闕禮)'. 궁궐이 멀리 있어서 직접 궁궐에 나아가 왕을 배알하지 못함에, 멀리서 궁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를 지칭한다.

771) 趣之(취지) 그것을 재촉하다.

【원문(原文)】


舉銳兵問罪愼勿聽二三人語宜秣馬興師
速赴西都城中推德秀權行兵馬臺事德秀
遣州將彦通等三十餘人擒贓牒者殺之位
寵又牒云今發兵者將以救北蕃列城也列
城兵已至淸川江獨爾城不至將發兵往滅
之於是州人頗洶洶有欲應位寵者德秀詐
爲猛州將吏書密令城外民投城中曰上京
兵十領已踰鐵嶺自東界將擣西都凡州鎭
爲位寵誑誤者不可輕發兵其各堅守以待

<그림 (55)> 《고려사(高麗史)》<현덕수열전(玄德秀列傳)> 영인본 원문(原文) (3)

【판독(判讀)】

舉銳兵[772] 問罪 愼勿聽二三人語 宜秣馬興師[773] 速赴西都 城中推德秀權

行[774]兵馬臺事 德秀遣州將 彦通等三十餘人 擒賚牒者[775]殺之 位寵又牒云 今發兵者 將以救北蕃列城也 列城兵已至淸川江 獨爾城不至 將發兵往滅之 於是 州人頗洶洶[776] 有欲應位寵者 德秀詐爲 猛州將吏[777]書 密今城外民投城中曰 上京兵十領[778] 已踰鐵嶺 自東界 將擣西都 凡州鎭爲位寵詿誤[779]者 不可輕發兵 其各堅守以待

【해석(解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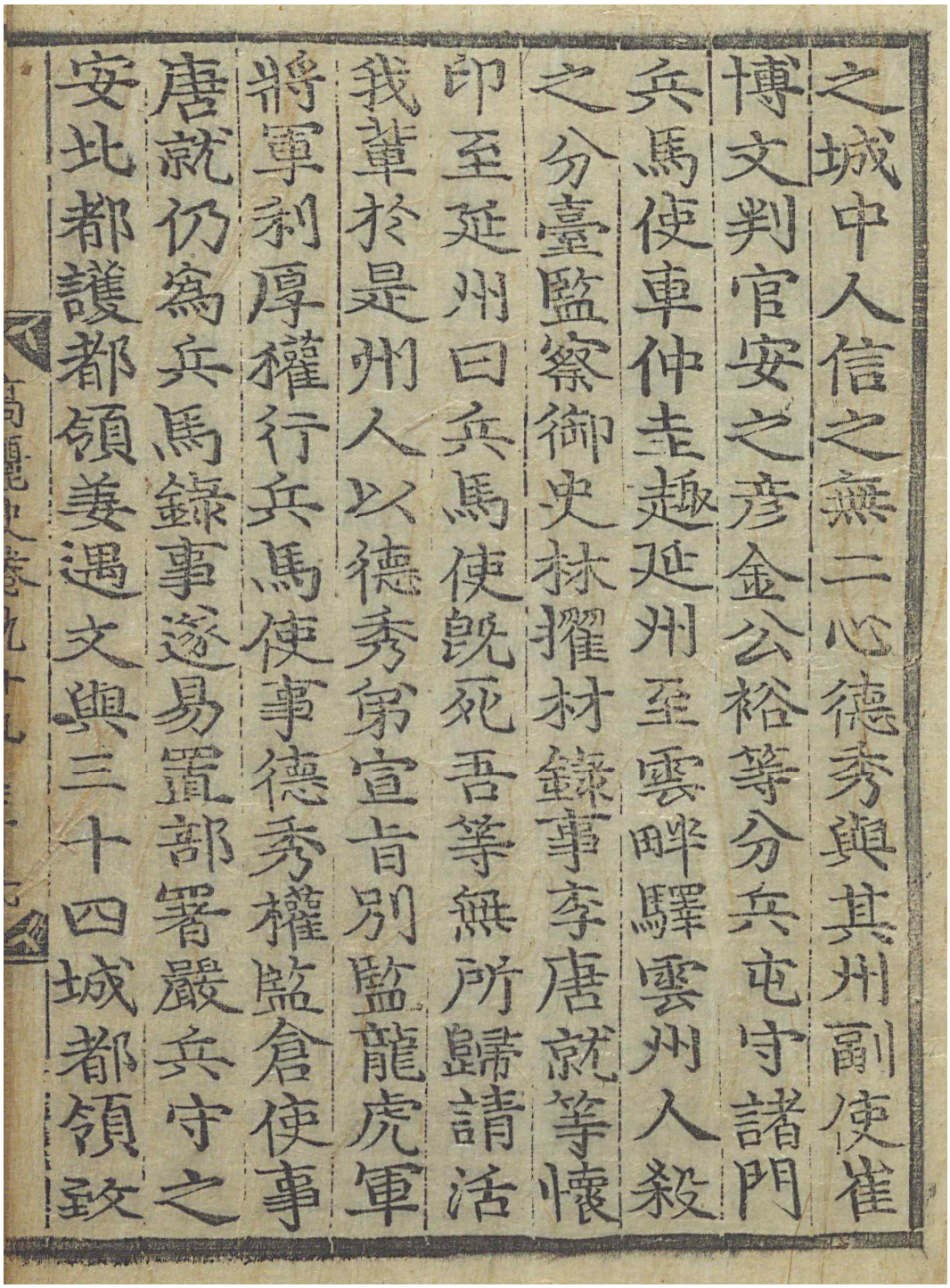
앞으로 정예(精銳) 부대를 파견하여 그 죄를 물을 터이다. 이에 몇몇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군비를 갖추고 병력을 동원하여 빨리 서경으로 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성안에서는 현덕수를 권행(權行) 병마대사(兵馬臺事)로 추대하였다. 현덕수가 군관 언통(彦通) 등 30여 명을 보내어 공문을 가지고 온 자를 사로잡아 죽였다.

조위총이 또다시 공문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제 군대를 동원한 것은 장차 북부 국경 지역의 여러 성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각 성의 병력이 이미 청천강(淸川江)에 다모여 들었는데, 너희 성만이 홀로 오지 않았으니 장차 군대를 파견하여 섬멸하러 가겠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연주 사람들의 마음이 자못 흉흉해졌으며 어떤 자는 조위총의 편으로 넘어가려는 자도 있었다. 그러자 현덕수는 맹주(猛州)의 장수와 아전의 명의로 격문을 조작하여 남몰래 성 밖 주민을 시켜 성안으로 던져놓게 하고서는 말하기를, "개경(開京)의 군사 10령(領)(*약 3천명)이 이미 철령(鐵嶺)을 넘어 동계(東界)로부터 곧 서경을 향해 진격하는 중에 있다. 어느 주(州)나 진(鎭)이든지 조위총에게 잘못 속은 자는 경솔히 군대를 동원하지 말고 각기 자기 고을을 굳게 지키면서 관군을 기다리라!"라고 하니, (…)

---

772) 銳兵(예병) : 날랜 병사. 예졸(銳卒).
773) 宜餧馬興師(의말마흥사) : 마땅히 말에게 죽을 먹이고 군사를 일으키다. 곧 군비를 갖추고 병력을 동원하다.
774) 權行(권행) : 권한대행(權限代行).
775) 牒者(첩자) : 첩보의 임무를 띠고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람.
776) 洶洶(흉흉) : 혼란하여 인심이 뒤숭숭한 모양.
777) 將吏(장리) : 장수와 아전.
778) 領(령) : 군대(軍隊) 편제(編制)의 단위. 《고려사(高麗史)》 <병지(兵志)>에 보면, 육위군(六衛軍)의 1령(領)마다 300명을 선발하여 선봉군으로 선발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보면, 본문의 '10령(領)'은 곧 군사 3,000명을 지칭함으로 간주 될 수 있다.
779) 詿誤(괘오) : 잘못을 남김. 그르침.

【원문(原文)】


之城中人信之無二心德秀與其州副使崔
博文判官安之彦金公裕等分兵屯守諸門
兵馬使車仲圭趣延州至雲畔驛雲州人殺
之分臺監察御史林擢材錄事李唐就等懷
印至延州曰兵馬使既死吾等無所歸請活
我輩於是州人以德秀宣旨別監龍虎軍
將軍刹厚權行兵馬使事德秀權監倉使事
唐就仍爲兵馬錄事遂易置部署嚴兵守之
安北都護都領姜遇文與三十四城都領致

<그림 (56)> 《고려사(高麗史)》 <현덕수열전(玄德秀列傳)> 영인본 원문(原文) (4)

【판독(判讀)】

之 城中人信之無二心 德秀 與其州副使崔博文 判官安之彦 金公裕等 分兵屯守諸門 兵馬使車仲圭 趣[780]延州至雲畔驛 雲州人殺之 分臺監察御史林擢材 錄事李唐就等 懷印[781] 至延州曰 兵馬使旣死 吾等無所歸 請活我輩 於是 州人以德秀弟宣旨別監 龍虎軍將軍 利厚 權行兵馬使事 德秀 權監倉使事 唐就仍爲兵馬錄事 遂易置部署 嚴兵守之 安北都護都領姜遇文與三十四城都領 致

【해석(解釋)】

성안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딴마음을 품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현덕수가 그 고을 부사(副使) 최박문(崔博文)과 판관(判官) 안지언(安之彦) · 김공유(金公裕) 등과 더불어 군대를 나누어 여러 성문을 수비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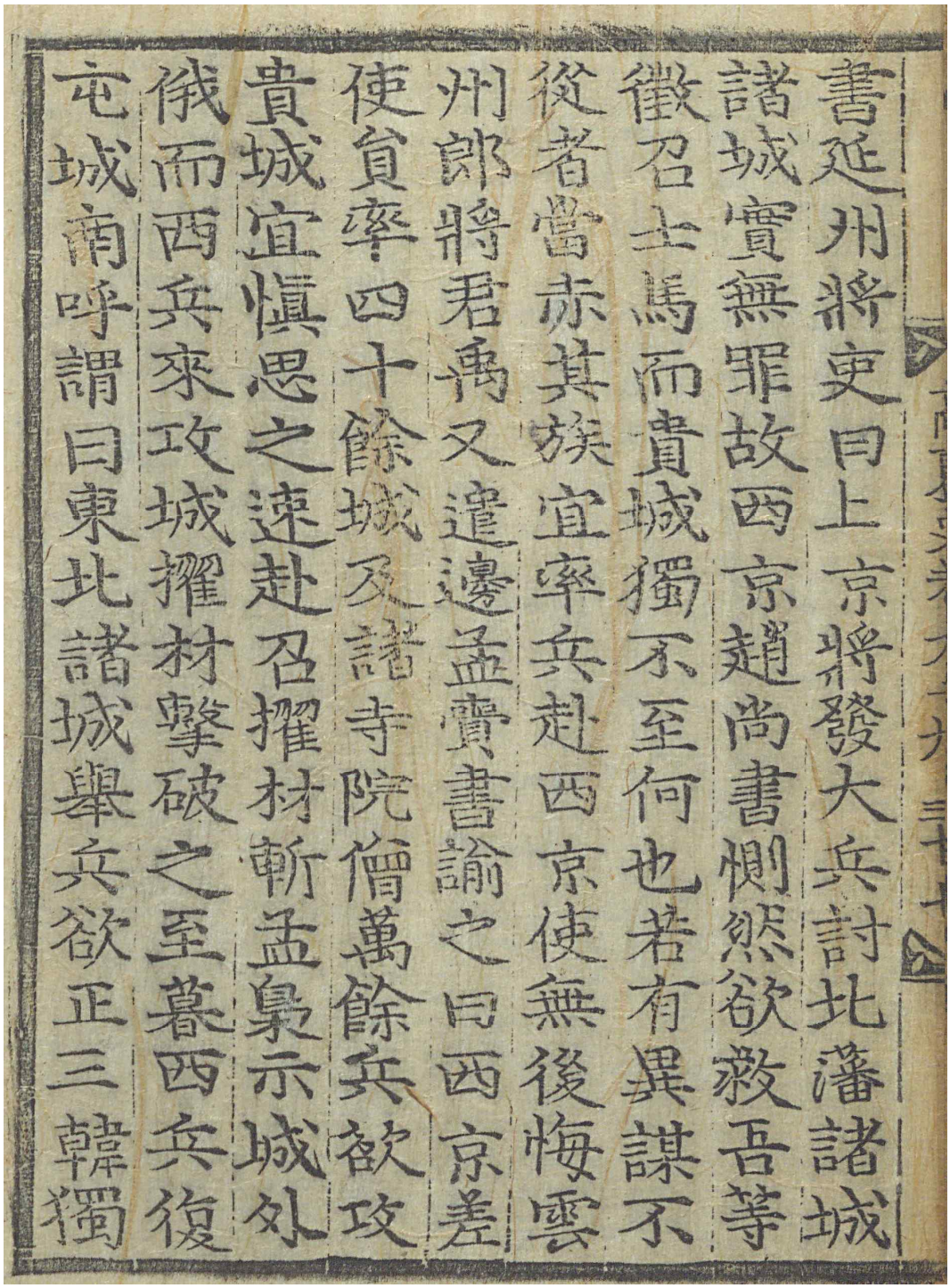
병마사(兵馬使) 차중규(車仲圭)가 연주로 오는 길에 운반역(雲畔驛)에 이르러 운주(雲州) 사람들에게 살해당했으므로, 분대감찰어사(分臺監察御史) 임탁재(林擢材)와 녹사(錄事) 이당취(李唐就) 등이 (병마사의) 인장(印章)을 숨긴 채 연주로 찾아와서 말하기를, "병마사가 이미 죽었으니 우리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들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애원하였다. 이렇게 되자 고을 사람들은 현덕수의 아우 선지별감 용호군장군(宣旨別監龍虎軍將軍) 현이후(玄利厚)에게 병마사(兵馬使) 일을 임시 대행케 하고, 현덕수에게 감창사(監倉使) 일을 대행하라 하였으며, 이당취에게는 종전대로 병마녹사를 보게 하는 등, 부서들을 바꾸어두고, 군사를 통제하여 성을 지켰다.

안북도호도령(安北都護都領) 강우문(姜遇文)이 34개 성의 도령들과 연명으로 (…)

780) 趣(추) : …로 향하다. 본래 뜻이나 행동의 뜻일 때 '趣'는 '취'로 발음하나, 여기서는 '추'로 읽어 '…로 나아가다'의 뜻을 지닌 말이다.

781) 懷印(회인) : 인장을 숨기다. 여기서 '懷(회)'는 '생각을 품다'는 뜻이 아닌 '감추다'는 뜻으로 쓰였다.

【원문(原文)】


書延州將吏曰上京將發大兵討北藩諸城
諸城實無罪故西京趙尚書惻然欲救吾等
徵召士馬而貴城獨不至何也若有異謀不
從者當赤其族宜率兵赴西京使無後悔雲
州郎將君禹又遣邊孟賫書諭之曰西京差
使貟率四十餘城及諸寺院僧萬餘兵欲攻
貴城宜愼思之速赴召擢材斬孟梟示城外
俄而西兵來攻城擢材擊破之至暮西兵復
屯城南呼謂曰東北諸城舉兵欲正三韓獨

<그림 (57)>《고려사(高麗史)》<현덕수열전(玄德秀列傳)> 영인본 원문(原文) (5)

【판독(判讀)】

書 延州將吏曰 上京將發大兵 討北蕃諸城 諸城實無罪 故西京趙尙書 惻然 欲救吾等 徵召士馬 而貴城獨不至何也 若有異謀不從者 當赤其族 宜率兵赴西京 使無後悔 雲州郎將君禹 又遣邊孟 賮書[782]諭之曰 西京差使員 率四十餘城及諸寺院僧萬餘兵 欲攻貴城 宜愼思之 速赴召 擢材斬孟梟示[783]城外 俄而西兵來攻城 擢材擊破之 至暮 西兵復屯城南 呼謂曰 東北諸城擧兵 欲正三韓[784] 獨

【해석(解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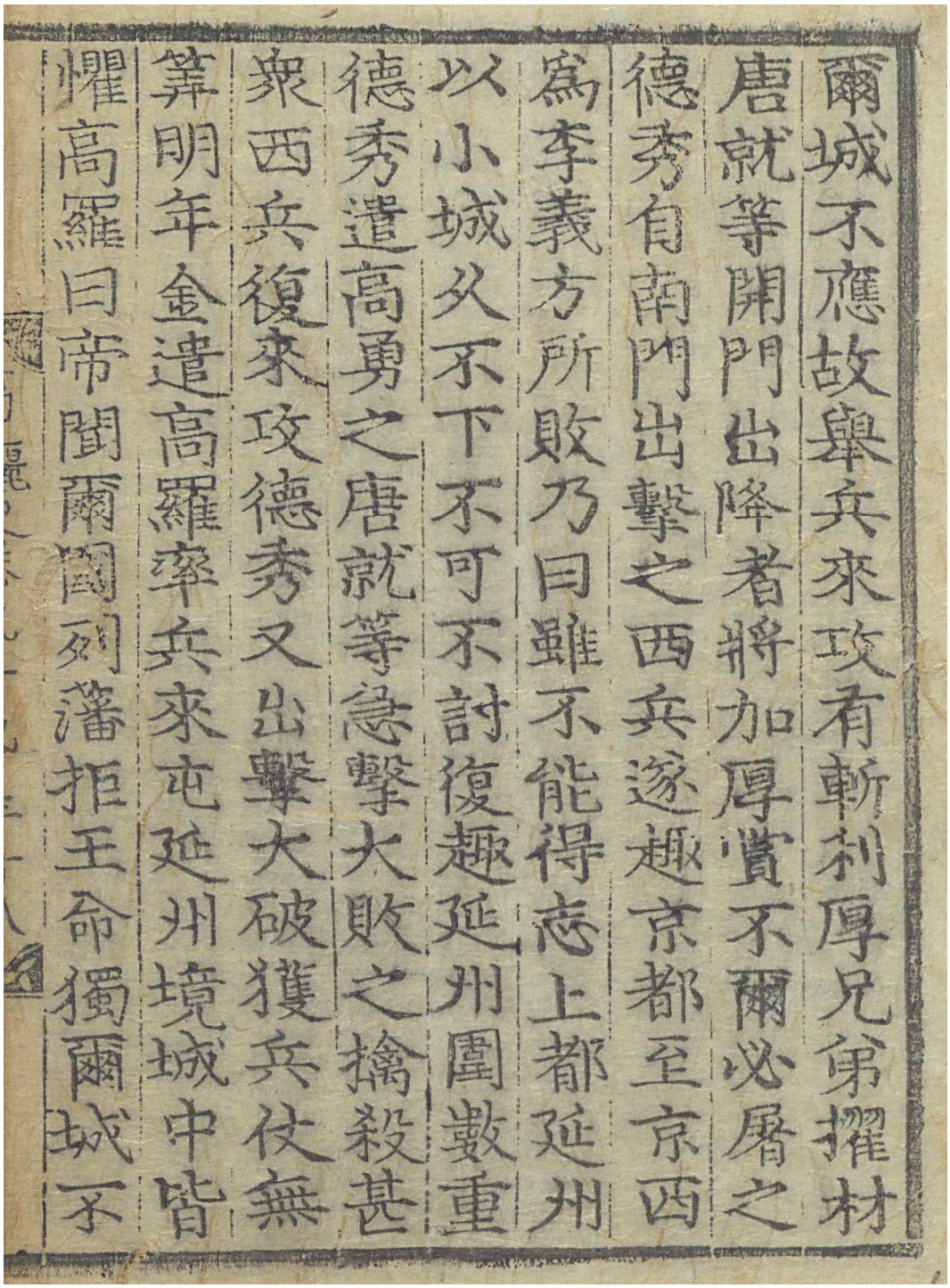
연주의 장수와 아전들에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서울[開京]에서 장차 대병력을 동원하여 북부지방 여러 성을 토벌하려 하는데, 사실 우리 성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서경의 조상서[趙位寵]가 우리를 측은히 여기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려고 각 성의 병정이며, 군마들을 소집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귀 성(城)만이 오지 않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만약 딴마음을 품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일족이 몰살당할 것이니 마땅히 군대를 인솔하고 서경으로 모여 후회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또 운주낭장(雲州郎將) 군우(君禹)도 변맹(邊孟)이란 자에게 편지를 전달하여 출병을 강요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서경에서 파견한 관원들이 40여 개 성의 군사들 및 사원(寺院)의 승병(僧兵) 1만여 명을 인솔하고 와서 귀성을 공격하려 하니, 신중히 생각하고 빨리 소집에 응하여 오라!”라고 하였으나 임탁재가 변맹의 목을 베어 장대에 매달아 성 밖에 내보이게 했다.

이윽고 서경(西京) 측의 군대가 와서 연주(延州) 성을 공격하였으나 임탁재(林擢材)가 맞받아 격파하였다. 해 질 무렵에 서경 군사들이 다시 성 남쪽에 진을 치고서 외치며 말하기를, “동북(東北) 여러 성들이 출병한 것은 이 나라를 바로잡으려 한 것인데, 유독 (…)

782) 賮書(재서) : 글을 보내다. 여기서 ‘賮(재)’는 ‘齎(재)’와 동자(同字)로서, ‘보내다’는 뜻을 지닌 말이다.
783) 梟示(효시) : 목을 베어 장대에 매달아 뭇사람에게 보임.
784) 三韓(삼한) : 본래 상고시대에 우리나라 남부에 있던 세 나라, 곧 마한(馬韓)ㆍ진한(辰韓)ㆍ변한(弁韓)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나라’의 뜻으로 사용된 말이다.

【원문(原文)】


爾城不應故舉兵來攻有斬刈厚兄弟擢材
唐就等開門出降者將加厚賞不爾必屠之
德秀自南門出擊之西兵遂趣京都至京西
爲李義方所敗乃曰雖不能得志上都延州
以小城久不下不可不討復趣延州圍數重
德秀遣高勇之唐就等急擊大敗之擒殺甚
衆西兵復來攻德秀又出擊大破獲兵仗無
算明年金遣高羅率兵來屯延州境城中皆
懼高羅曰帝聞爾閉門列藩拒王命獨爾城不

<그림 (58)>《고려사(高麗史)》<현덕수열전(玄德秀列傳)> 영인본 원문(原文) (6)

【판독(判讀)】

爾城不應 故擧兵來攻 有斬利厚兄弟 擢材 唐就等 開門出降者 將加厚賞 不爾必屠之 德秀自南門出擊之 西兵遂趣京都 至京西 爲李義方[785]所敗 乃曰 雖不能得志上都 延州以小城 久不下[786] 不可不討 復趣延州 圍數重 德秀遣 高勇之 唐就等 急擊大敗之 擒殺[787]甚衆 西兵復來攻 德秀又出擊 大破 獲兵杖[788]無筭 明年 金遣高羅 率兵來屯延州境 城中皆懼 高羅曰 帝聞爾國列蕃 拒王命 獨爾城不

【해석(解釋)】

너희들만 응하지 않는 까닭에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러 왔으니, 현이후 형제와 임탁재 · 이당취 등의 목을 베고 성문을 열어 항복하는 자가 있으면, 많은 상을 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도륙(屠戮)하겠다."라고 했다. 현덕수(玄德秀)가 남문으로부터 나와 공격하였더니, 서경 군사들이 (패해서) 바로 서울[開京]로 향하였다.

그들이 서울 서쪽에 도착하였으나 이의방(李義方)에게 패배당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비록 서울에서는 뜻대로 되지 못하였으나, 연주는 작은 성으로서 오랜 기간 항복지 않으니 이곳은 그대로 둘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연주로 달려와서 몇 겹으로 성을 에워쌌다. 현덕수가 고용지(高勇之)와 이당취를 시켜 급격히 돌격하여 적을 대파하였는 바, 죽이거나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서경 군사들이 또다시 공격하여 왔으므로 현덕수가 또 출격하여 적을 크게 격파하였고, 무수한 병장기를 노획(鹵獲)하였다.

이듬해에 금(金)나라 장수 고라(高羅)가 군대를 인솔하고 연주 지경에 와서 주둔하니, 성안 사람들이 모두 공포에 떨었다. 고라가 말을 전하기를, "우리 황제께서 당신네 나라의 여러 고을들(곧 조위총의 무리들)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으나, 홀로 연주성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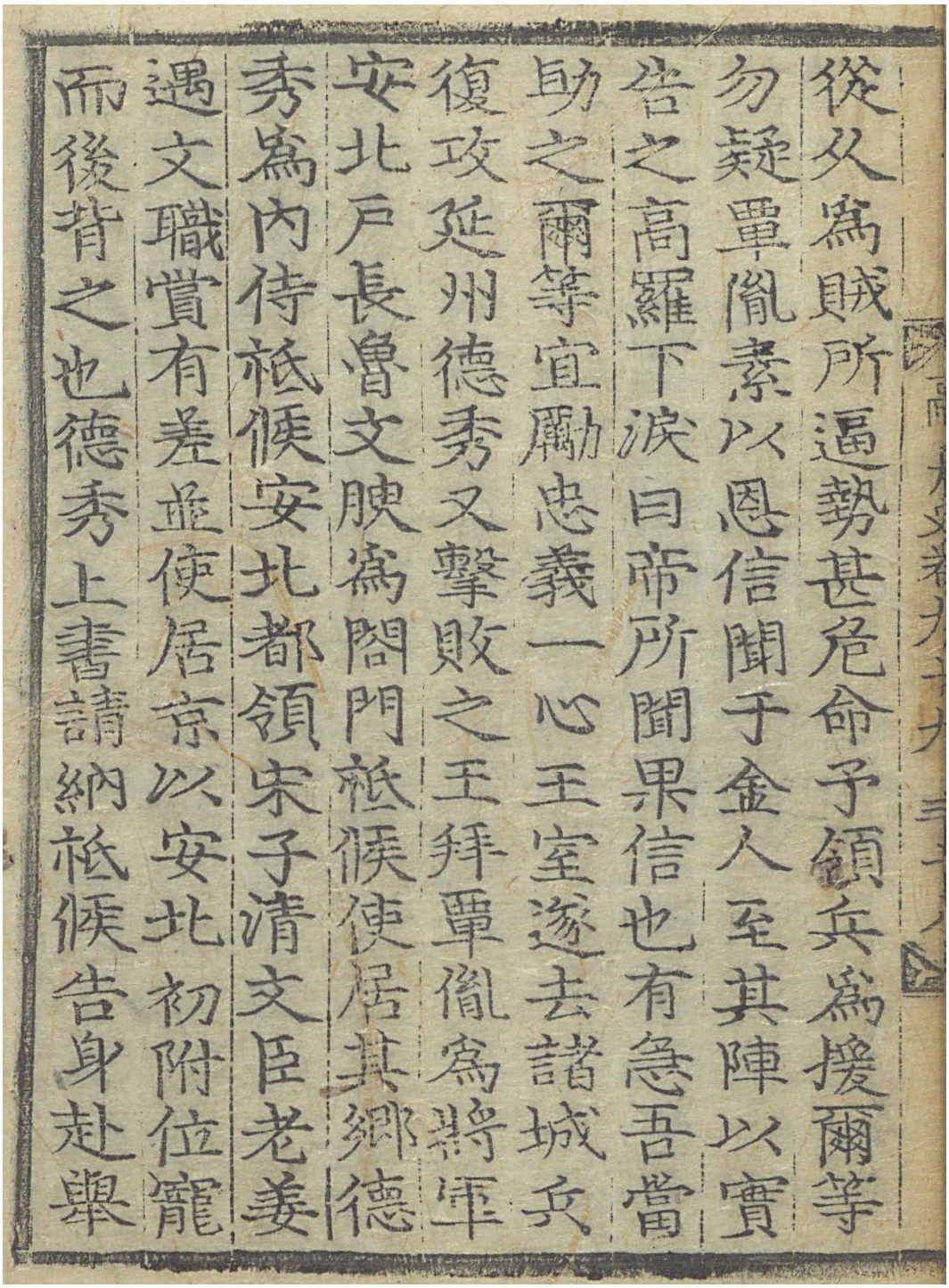
785) 李義方(이의방) : 이의방(李義方, 1121~1174)은 고려시대 100년 동안 이어질 무신정권의 길을 처음 연 인물이다. 참고로 그의 동생 이린(李潾)은 조선 창업주 이성계의 6대조이기도 하다. 하급무관출신의 이의방이 정중부(鄭仲夫)와의 연합으로 중방에까지 지지를 받아내면서 정치적으로 세가 컸지만 결국 조위총(趙位寵)의 난이 한창인 어수선한 정국에서 정중부 세력에 의해 암살당하게 된다. 이 사건을 갑오정변(甲午政變)이라 부른다.

786) 不下(불하) : 항복하지 않음. 함락(陷落)시키지 못함.

787) 擒殺(금살) : 생포하거나 죽임.

788) 兵杖(병장) : 병장기(兵仗器). 전쟁에 쓰이는 기구의 총칭. 병기(兵器).

【원문(原文)】


從久爲賊所逼勢甚危命予領兵爲援爾等
勿疑覃胤素以恩信聞于金人至其陣以實
告之高羅下淚曰帝所聞果信也有急吾當
助之爾等宜勵忠義一心王室遂去諸城兵
復攻延州德秀又擊敗之王拜覃胤爲將軍
安北戶長魯文腴爲閤門祗候使居其鄉德
秀爲內侍祗候安北都領宋子清文臣老姜
遇文職賞有差並使居京以安北初附位寵
而後背之也德秀上書請納祗候告身赴擧

<그림 (59)> 《고려사(高麗史)》<현덕수열전(玄德秀列傳)> 영인본 원문(原文) (7)

【판독(判讀)】

從久爲 賊所逼 勢甚危 命予領兵爲援 爾等勿疑 覃胤素以恩信[789] 聞于金

人 至其陣以實告之 高羅下淚曰 帝所聞果信也 有急吾當助之 爾等宜勵忠義一心王室 遂去 諸城兵 復攻延州 德秀又擊敗之 王拜覃胤爲將軍 安北户長 魯文腴爲閤門祗候 使居其鄉 德秀爲內侍祗候 安北都領 宋子清 文臣老 姜遇文 職賞有差 並使居京 以安北初附位寵而後背之也 德秀上書請納祗候告身[790]赴擧[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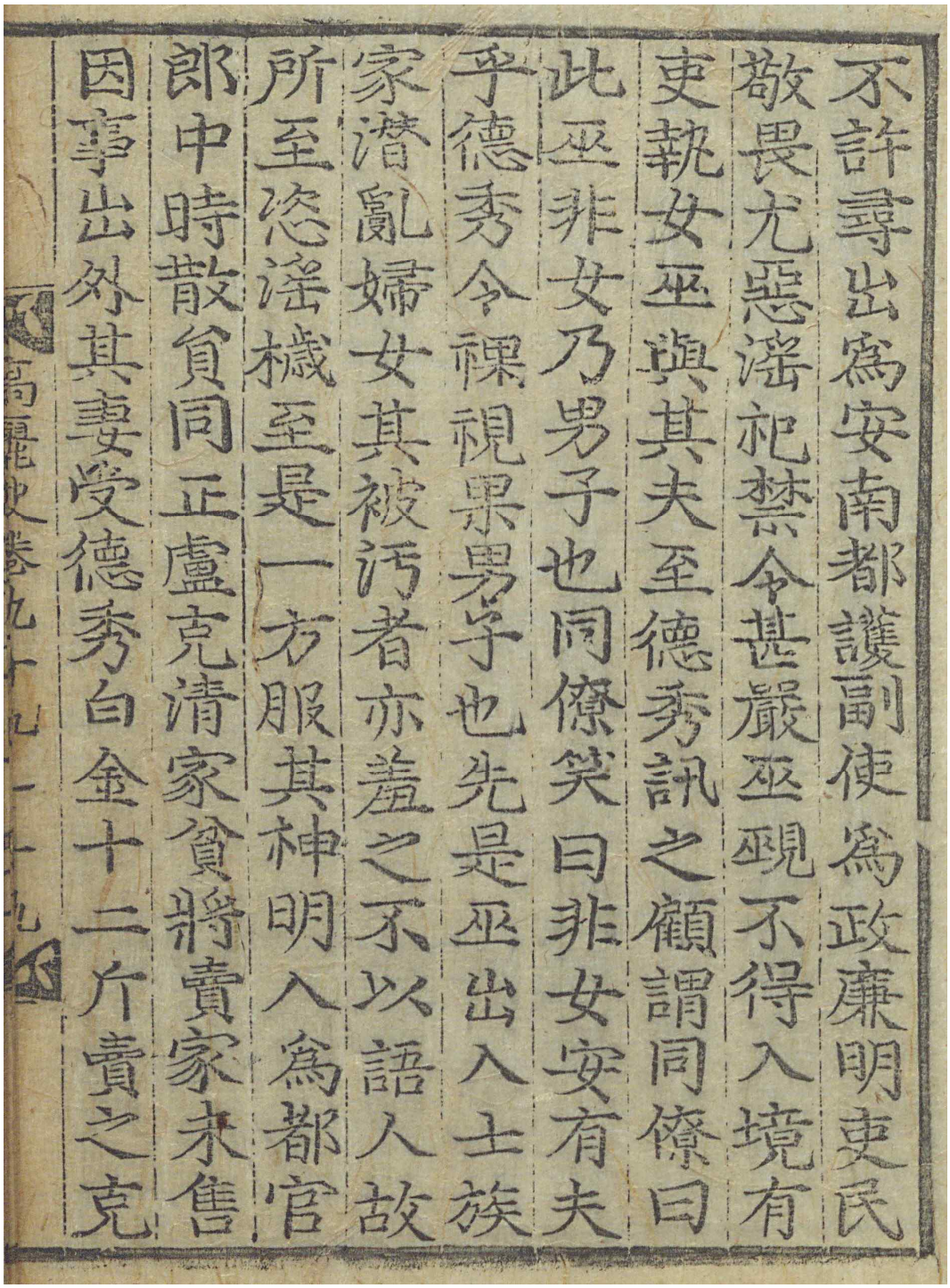
【해석(解釋)】

그 편에 붙지 않았으므로 오랫동안 적들의 위협을 받아 그 형세가 매우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에게 군대를 인솔하고 가서 원조해주라는 명령을 받고 온 것이니 그대들은 의심하지 않길 바라오!"라고 하였다. 현담윤(玄覃胤)은 평소 금나라 사람들에게 은덕과 신의가 있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가 금군의 병영으로 가서 그런 사실을 실지대로 알리자 고라(高羅)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우리 황제께서 들으셨던 바가 과연 옳구나. 위급한 일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도울 것이니 당신들은 한결같이 충성과 의리를 다하여 왕실을 받들길 바라오!"라고 부탁하고는 드디어 돌아갔다. 여러 성의 군대가 다시 연주를 공격하였으나 현덕수가 이번에도 또 적군을 격파하여 패배시켰다.

왕이 현담윤(玄覃胤)을 장군(將軍)으로, 안북호장(安北戶長) 노문유(魯文腴)를 합문지후(閤門祗候)로 각각 임명하고선 자신들의 고향에 살게 하였다. 현덕수(玄德秀)는 내시지후(內侍祗候)로 임명하고, 안북도령(安北都領) 송자청(宋子淸) · 문신로(文臣老) · 강우문(姜遇文) 등에게는 관직과 상을 각기 차등 있게 주어서 모두 서울[開京]에 살게 했다. 이는 안북이 처음엔 조위총 편에 붙었다가 나중에 귀순하였기 때문이다. 현덕수가 글을 올려, 지후(祗候)로 받은 임명장을 반납하고, 과거에 응시하겠다고 청원했으나 (…)

789) 恩信(은신) : 은덕(恩德)과 신의(信義).
790) 告身(고신) : 임관(任官)한 사람에게 주는 사령서(辭令書). 직첩(職牒). 고칙(告勅).
791) 赴擧(부거) : 과거를 보러 감.

【원문(原文)】


不許尋出爲安南都護副使爲政廉明吏民
敬畏尤惡淫祀禁令甚嚴巫覡不得入境有
吏執女巫與其夫至德秀訊之顧謂同僚曰
此巫非女乃男子也同僚笑曰非女安有夫
乎德秀令裸視果男子也先是巫出入士族
家潛亂婦女其被汚者亦羞之不以語人故
所至恣淫穢至是一方服其神明入爲都官
郎中時散員同正盧克清家貧將賣家未售
因事出外其妻受德秀白金十二斤賣之克

<그림 (60)>《고려사(高麗史)》<현덕수열전(玄德秀列傳)> 영인본 원문(原文) (8)

【판독(判讀)】

不許 尋出爲安南都護副使 爲政廉明 吏民敬畏 尤惡淫祀 禁令甚嚴 巫覡不得入境 有吏執女巫與其夫至 德秀訊之 顧謂同僚曰 此巫非女 乃男子也 同僚笑曰 非女安有夫乎 德秀令裸視 果男子也 先是 巫出入士族家 潛亂婦女 其被汚者亦羞之 不以語人故 所至恣淫穢[792] 至是 一方服其神明 入爲都官郎中 時散員同正盧克淸[793]家貧 將賣家未售 因事出外 其妻受德秀白金十二斤賣之 克

【해석(解釋)】

허락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현덕수(玄德秀)는 안남도호부사(安南都護副使)로 나갔는데, 청렴하고 명철하게 다스렸으므로 아전들과 백성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였다. 더욱이 그는 평소 음사(淫祀)를 몹시 싫어하고 금령(禁令)을 매우 엄하게 시행했기 때문에 무당들이 함부로 고을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루는 아전이 어떤 여자 무당과 그의 남편을 붙잡아왔는데, 현덕수가 무당을 신문(訊問)하더니 동료들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이 무당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다.”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여자가 아니라면 어찌 남편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현덕수가 무당의 옷을 벗기라 하고 보니 과연 남자였다. 이에 앞서 무당들이 사족(士族)의 집에 드나들면서 가만히 부녀(婦女)들을 희롱하였으나 정조를 더럽힌 자들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까닭에 무당들은 가는 곳마다 음란한 추행을 자행해 왔던 것이다. 이에 이르러 온 고을 사람들이 현덕수의 귀신같은 안목에 탄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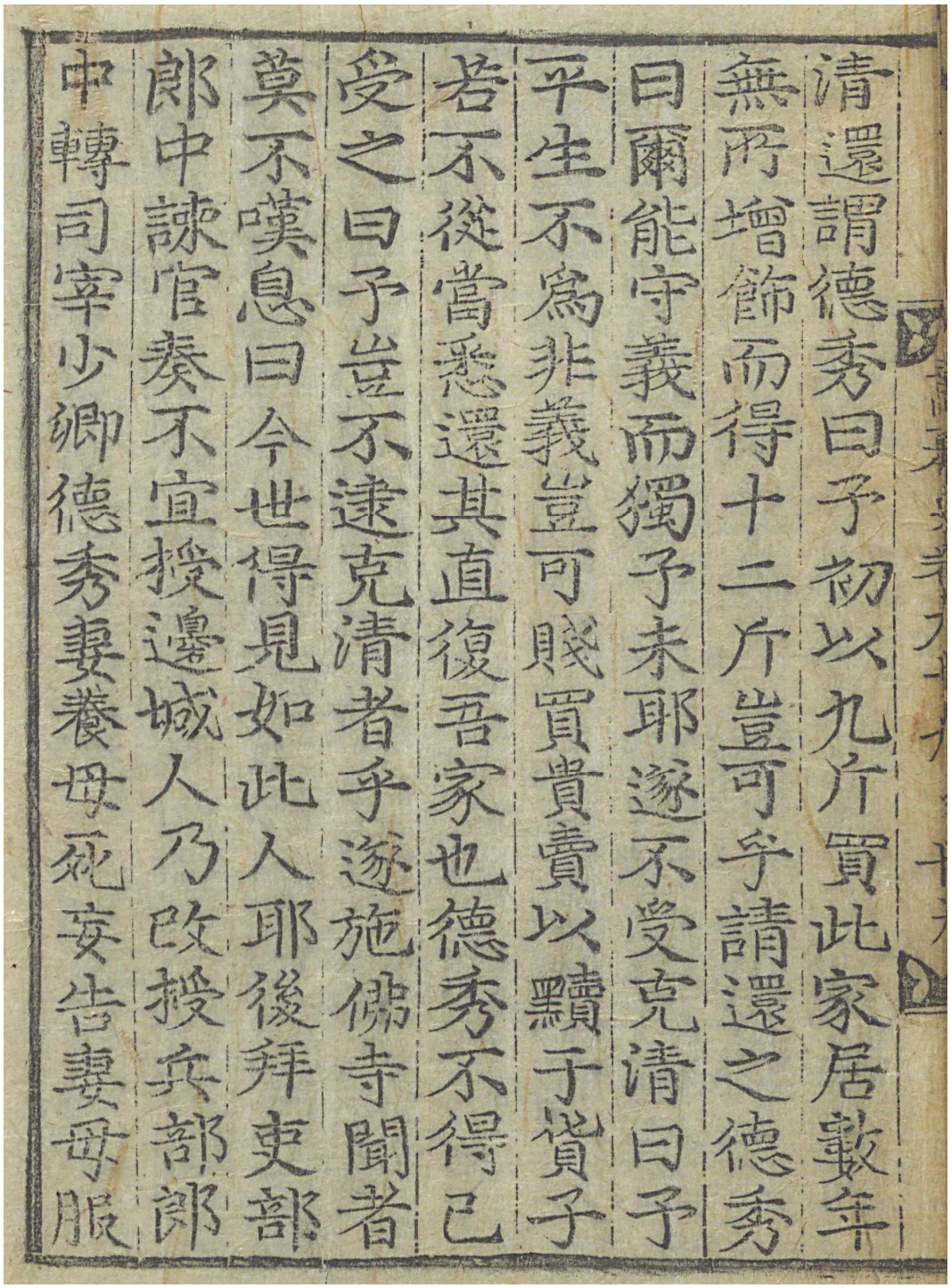
내직(內職)으로 들어가서 도관낭중(都官郎中)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때 산원동정(散員同正) 노극청(盧克淸)이 빈곤하여 집을 팔려 하였으나 팔리지 않던 차에 일이 있어서 그가 지방으로 간 사이 그의 처가 현덕수에게 은[白金] 12근(斤)을 받고 그 집을 팔았다.

---

792) 淫穢(음예) : 음란하고 더러움.

793) 盧克淸(노극청) : 이규보(李奎報)의 <노극청전(盧克淸傳)>에 의하면, 노극청은 관직도 직장(直長, 7~9품의 하급벼슬)이라는 낮은 벼슬아치로서 현덕수에게 은 열두 근을 받고 집을 판 내용이 실려있다.

【원문(原文)】


清還謂德秀曰予初以九斤買此家居數年
無所增飾而得十二斤豈可乎請還之德秀
曰爾能守義而獨予未耶遂不受克清曰予
平生不爲非義豈可賤買貴賣以黷于賢子
若不從當悉還其直復吾家也德秀不得已
受之曰予豈不逮克清者乎遂施佛寺聞者
莫不嘆息曰今世得見如此人耶後拜吏部
郎中諫官奏不宜授邊城人乃改授兵部郎
中轉司宰少卿德秀妻養母死妾告妻母服

<그림 (61)>《고려사(高麗史)》<현덕수열전(玄德秀列傳)> 영인본 원문(原文) (9)

【판독(判讀)】

清還 謂德秀曰 予初以九斤 買此家 居數年 無所增飾而得十二斤 豈可乎請還至 德秀曰 爾能守義而獨予未也 遂不受 克清曰 予平生不爲非義 豈可賤買貴賣 以黷[794]于貨 子若不從 當悉還其直 復吾家也 德秀不得已之曰 予豈不逮克清者乎 遂施佛寺 聞者莫不嘆息 曰 今世得見如此人耶 後拜吏部郎中 諫官奏 不宜授邊城人 乃改授兵部郎中 轉司宰少卿 德秀妻養母死 妄告妻母服

【해석(解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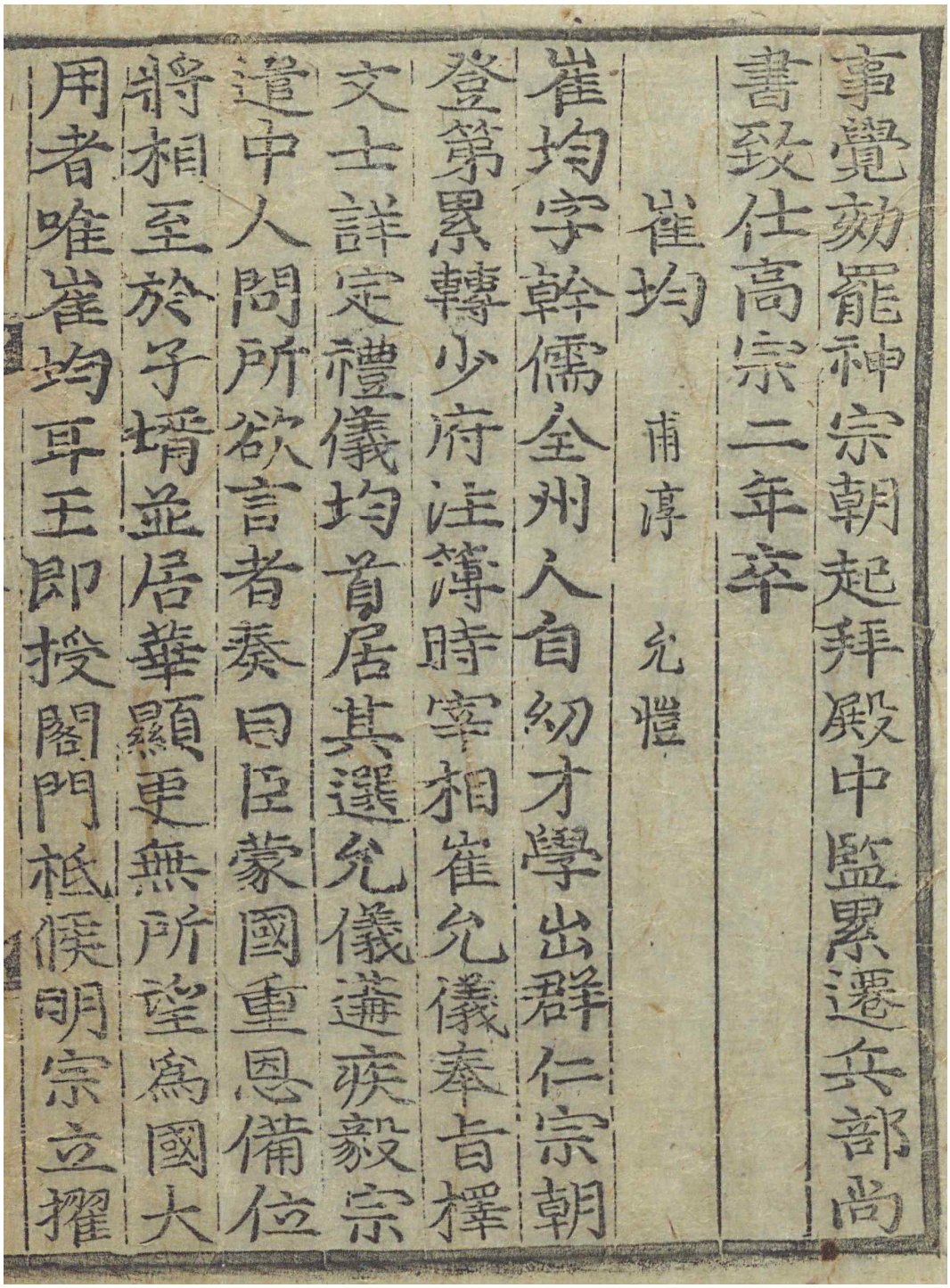
그런데 노극청이 집에 돌아와 (이런 사실을 알고선) 현덕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초에 9근으로 이 집을 사서 여러 해 살았다. 그러나 증축이나 보수한 일을 하지도 않고서 12근을 받았다는 게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본전보다 더한 나머지의 돈을 반환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현덕수가 말하기를, “그대는 능히 의로움을 지킬 줄 아는데, 나라고 못지키겠는가?”라고 하며 끝내 받지 않았다. 이에 노극청이 말하기를, “내 평생에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는데, 어찌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 돈벌이를 하겠습니까? 그대가 만약 내 말을 따라 주지 않으신다면 당장 집값을 모두 돌려 드릴 테니 집을 도로 돌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현덕수가 어쩔 수 없이 은 3근을 되돌려받고는 말하기를, “내가 어찌 노극청만 못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며, 드디어 그 돈을 사찰에 시주해 버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며 말하기를, “요즘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을 얻어볼 수 있구나!”라고 하였다.

뒤에 이부낭중(吏部郎中)으로 임명되었는데, 간관(諫官)이 고하기를, “변방 출신의 사람에게 그런 관직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반대했기 때문에 병부낭중(兵部郎中)으로 고쳐 임명했다가 사재소경(司宰小卿)으로 전임(轉任)시켰다.

그러나 현덕수 처(妻)의 양모(養母)가 죽은 것을 장모라고 거짓 보고하고 복을 입은 일이(…)

794) 黷(독) : 더러워지다. 혼탁하다.

【원문(原文)】


事覺効罷神宗朝起拜殿中監累遷兵部尚
書致仕高宗二年卒

崔均

甫淳　允禮

崔均字幹儒全州人自幼才學出群仁宗朝
登第累轉少府注簿時宰相崔允儀奉旨擇
文士詳定禮儀均首居其選允儀薦疾毅宗
遣中人問所欲言者奏曰臣蒙國重恩備位
將相至於子壻並居華顯更無所望爲國大
用者唯崔均耳王即授閤門祗候明宗立擢

<그림 (62)>《고려사(高麗史)》<현덕수열전(玄德秀列傳)> 영인본 원문(原文) (10)

【판독(判讀)】
事覺劾罷 神宗朝 起拜殿中監 累遷兵部尙書致仕 高宗二年卒

【해석(解釋)】
탄로나서 탄핵을 당하고 관직에서 파직되었다.
신종(神宗) 때에 전중감(殿中監)으로 다시 임명되었고 여러 차례 승직되어 병부상서(兵部尙書)까지 올랐다가 나이가 들어 치사(致仕)하였다. 고종(高宗) 2년(1215)에 졸(卒)하였다.